

경주시부 13기 1차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일시 : 2024년 03월 11일(월) 13시

○ 장소 : 경주시부 대강당 (1층)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자료집 순서

회의 순서	5
상징 마크	6
선 언	7
강 령	8
금속노조가	9
대 회 사	10
경주시부 13기 1년차 대의원명단	12

보고 자료

보고 1. 금속노조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1

안건 자료

안건 1. 12기 2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73
안건 2. 경주시부 감사위원 선출 건	75
안건 3. 12기 2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79
안건 4. 13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안) 승인 건	211
안건 5. 13기 1년차 예산(일반.특별회계)(안) 승인 건	239
안건 6. 경주시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49
안건 7. 지부 자산 폐기 건	253
안건 8. 경주시부 운영 규정 및 특별세칙 개정 건	257
안건 9. 경주시부 2024년 교섭위원 확정 건	267
안건 10.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275
안건 1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	279
안건 12. 결의문 채택 건	285
안건 13. 기타 건	289

참고 자료

금속노조 회의규정	291
경주지부 운영규정	301
2023년 금속산별협약	317
경주지부 2023년 집단협약	335
경주지부 2023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363
경주지부 12기 2년차 소식지 및 교섭속보 모음	369

회의 순서

1부 개회식

- 대회선언 사회자
- 깃발입장 사회자
- 민중의례 사회자
- 내·외빈 소개 및 지부임원, 지회장 소개 사회자
- 대회사 지부장
- 격려사 민주노총경북본부장, 조합임원
- 표창 사회자
- 구호제창 전 체

2부 본회의

-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 서기 · 감표위원 지명
- 회순통과
- 안건 토론
- 폐회 선언
- 결의문 낭독
- 파업가 제창

상징 마크



- 깃발을 움켜쥔 주먹을 기어로 받치고 있는 모습은 금속노동자의 노동과 삶에 뿌리박고 선 산별노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는 기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흰색은 민주노조운동이 담고 있는 순수한 뜻과 열정을 뜻하며, 청색은 질푸른 우리나라 하늘과 동해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동지들을 끌어안는 통 큰 단결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언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자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으로서 금속산업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 구조, 외세에 맞서 한국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단결의 정신과 불굴의 투쟁의지를 이어받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속노조를 힘차게 세운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삶을 지키기 위해 예속과 차별, 빈곤의 확산을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며, 이 땅의 민중, 진보세력과 굳건히 연대하여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억압과 차별이 철폐된 평등사회, 남북이 하나된 통일조국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강 령

【조직】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건】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확보, 고용안정,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확보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

【협약】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노동의 소유.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평등사회】 우리는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소수의 부를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 우리는 운동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각종 성차별제도의 철폐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문화】 우리는 노동과정에서 발전해온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문화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환경】 우리는 환경이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전 계급 계층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며,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 사회발전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연대】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가간 예속과 불평등, 그 어떤 명분의 전쟁에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타파를 위해 투쟁한다.

【정치세력화】 우리는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강화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해 투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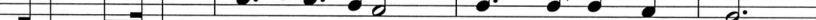
【통일】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금속노조가

김호철 글,곡

노깃 둥 자 의 길 해 방 의 길 에
 짓 누 를 수 록 녀 복 강 하 게

1. Gm C F Dm Gm7 A



당 당한 역사의 함성이 되어 우 리 는 간 다

2. Gm C A Dm Bb A Dm

피로써 뭉쳐진 강철의 대오 아 금속노조여

Dm C Gm C F A
 나 가 자 성 벽 을 깨 고 죽 음 의 사 선 을 넘 어
 말 하 라 외 처 를 러 라 민 중 의 선 봉 에 서 서

노 동 자 해 방의 나 기 필 코 쟁 취 하 리 라
너 나 없 이 평 등한 나 기 필 코 쟁 취 하 리 라

대 회 사

자랑찬 경주지부 대의원 동지 여러분!

4500여 현장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중심을 잡고 언제나 헌신과 열정으로 금속노조와 경주지부를 지켜 온 대의원 동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13기 경주지부장 투쟁으로 인사 올립니다. 투쟁!

경주지부 4500여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대의원동지들께 축하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며, 언제나 헌신과 열정으로 금속노조와 경주지부를 지켜 온 동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현재 이런 인사말조차 사치스러워 보이는 건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통령에 심각히 빼뚫어진 노동관과 무능으로 온 민중이 고통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몇차례의 정권이 교체가 되었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반노동·반민생은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고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괴성에 국정원과 언론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노조 짓밟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입니다.

23년 민주노총의 전조직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2.3조,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조직합시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보수의 땅’ 경주지역 안에서 경주지부가 걸어온 길은 역대 모든 정권의 노조파괴와 노동법 개악 그리고 현장의 구조조정 등 수 많은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

하게 맞서온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동지들입니다.

지금 경주지부가 투쟁을 주저한다면 민주노조의 앞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 지역지부 최선봉인 경주지부의 위상을 경주지부와 대의원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 계신 동지들의 냉철한 노동 정세인식과 실천투쟁으로 현장을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의 깃발로 모일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12기 2년차의 사업평가 및 13기 1년차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의원동지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경주지부의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고, 윤석열 정권에 맞선 힘찬 투쟁이 결의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금속노조의 [한다면 한다]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경주지부답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투쟁!!!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경주시부 13기 1년차 대의원 명단

순번	소 속	선거구	성 명	비고
1	금강지회	당연직	엄 기 훈	
2	광명산업지회	당연직	김 대 건	
3	KBI동국실업지회	당연직	김 정 욱	
4	다스지회	당연직	김 재 홍	
5	동진이공지회	당연직	지 광 환	
6	두양정공지회	당연직	김 수 하	
7	디에스시지회	당연직	최 강 민	
8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공 석
9	명성공업지회	당연직	우 정 완	
10	발레오만도지회	당연직	신 시 연	
11	비투지지회	당연직	서 재 영	
12	세진지회	당연직	안 현 철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당연직	김 영 선	
14	아진카인텍지회	당연직	서 동 찬	
15	에코플라스틱지회	당연직	김 만 조	
16	엠에스정밀지회	당연직	황 수 훈	
17	엠에스지회	당연직	박 지 웅	
18	우영산업지회	당연직	박 진 호	
19	인지컨트롤스지회	당연직	최 용 복	
20	일진베어링지회	당연직	김 회 진	
21	청우지회	당연직	노 태 현	
22	코레스지회	당연직	장 진 호	
23	플라스틱옴니엄지회	당연직	양 명 덕	
24	현담산업지회	당연직	이 상 윤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당연직	임 영 진	
2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당연직	김 환 철	
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당연직	이 명 호	
28	현대엠시트지회	당연직	고 학 봉	
29	현우지회	당연직	이 재 찬	
30	금강지회	1선거구	주 영 기	
31	금강지회	2 선거구	최 재 규	

32	금강지회	3 선거구	윤 교 환	
33	금강지회	4 선거구	윤 병 윤	
34	금강지회	5 선거구	이 정 우	
35	금강지회	6 선거구	최 정 식	
36	금강지회	7 선거구	채 석 훈	
37	금강지회	조합대의원	이 종 찬	
38	광명산업지회	1 선거구		공 석
39	다스지회	1 선거구		공 석
40	다스지회	2 선거구		공 석
41	다스지회	3 선거구		공 석
42	다스지회	4 선거구		공 석
43	다스지회	5 선거구	류 훈	
44	다스지회	6 선거구	이 효 영	
45	다스지회	7 선거구	고 현 익	
46	다스지회	8 선거구		공 석
47	다스지회	9 선거구	박 성 호	
48	다스지회	10 선거구	이 성 은	
49	다스지회	11 선거구		공 석
50	다스지회	12 선거구		공 석
51	다스지회	13 선거구	손 주 익	
52	다스지회	14 선거구		공 석
53	다스지회	15 선거구	이 병 관	
54	다스지회	16 선거구	이 재 문	
55	다스지회	17 선거구		공 석
56	다스지회	18 선거구		공 석
57	다스지회	19 선거구	이 인 환	
58	다스지회	20 선거구	이 재 곤	
59	다스지회	21 선거구	배 용 득	
60	다스지회	22 선거구	김 희 용	
61	다스지회	23 선거구	이 준 호	
62	다스지회	24 선거구		공 석
63	다스지회	25 선거구	허 정 민	
64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김 형 우	
65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강 보 천	

66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최 창 덕	
67	다스지회	조합대의원	강 주 환	
68	KBI동국실업지회	1 선거구	이 지 락	
69	KBI동국실업지회	2 선거구	김 완 규	
70	두양정공지회	1 선거구	최 종 식	
71	디에스시지회	1 선거구	황 인 구	
72	디에스시지회	2 선거구	김 동 하	
73	디에스시지회	3 선거구	김 종 호	
74	디에스시지회	4 선거구		공 석
75	디에스시지회	5 선거구		공 석
76	디에스시지회	6 선거구	강 윤 태	
77	디에스시지회	7 선거구		공 석
78	디에스시지회	8 선거구	김 수 봉	
79	디에스시지회	9 선거구	홍 석	
80	디에스시지회	10 선거구	권 혁 만	
81	디에스시지회	조합대의원	박 신 웅	
82	명성공업지회	1 선거구	김 성 욱	
83	명성공업지회	2 선거구	문 윤 재	
84	명성공업지회	3 선거구	김 영 유	
85	명성공업지회	4 선거구	김 태 훈	
86	발레오만도지회	1 선거구	이 종 수	
87	발레오만도지회	2 선거구		공 석
88	발레오만도지회	3 선거구		공 석
89	발레오만도지회	4 선거구	장 상 환	
90	발레오만도지회	5 선거구	구 태 준	
91	발레오만도지회	6 선거구		공 석
92	발레오만도지회	7 선거구		공 석
93	발레오만도지회	8 선거구	최 종 식	
94	발레오만도지회	9 선거구		공 석
95	발레오만도지회	10 선거구	한 승 우	
96	발레오만도지회	11 선거구		공 석
97	발레오만도지회	12 선거구	최 충 원	
98	발레오만도지회	13 선거구	장 재 만	
99	발레오만도지회	14 선거구	최 석 동	
100	발레오만도지회	조합대의원	추 재 덕	

101	발레오만도지회	조합대의원	김 환 진	
102	비투지지회	1 선거구	송 흥 성	
103	비투지지회	2 선거구	백 승 재	
104	비투지지회	3 선거구	이 승 훈	
105	세진지회	1 선거구		공 석
106	세진지회	2 선거구	윤 중 언	
107	세진지회	3 선거구	이 상 현	
108	세진지회	4 선거구	류 금 환	
109	세진지회	5 선거구		공 석
110	세진지회	6 선거구		공 석
111	세진지회	7 선거구	이 창 욱	
112	세진지회	8 선거구		공 석
113	세진지회	9 선거구		공 석
114	세진지회	10 선거구		공 석
115	세진지회	11 선거구	조 병 호	
116	세진지회	12 선거구	김 정 우	
117	세진지회	13 선거구	최 종 수	
118	세진지회	14 선거구	이 상 근	
119	세진지회	15 선거구	강 도 현	
120	세진지회	조합대의원	강 건 우	
121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1 선거구	김 기 현	
122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2 선거구	박 준 연	
12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3 선거구	김 희 정	
12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4 선거구	권 영 삼	
125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조합대의원	최 혁 민	
126	에코플라스틱지회	1 선거구	이 재 학	
127	에코플라스틱지회	2 선거구	문 성 국	
128	에코플라스틱지회	3 선거구	서 현 우	
129	에코플라스틱지회	4 선거구	서 완 수	
130	에코플라스틱지회	5 선거구	김 용 하	
131	에코플라스틱지회	6 선거구	김 유 태	
132	에코플라스틱지회	7 선거구	장 승 호	
133	에코플라스틱지회	8 선거구	박 석 근	
134	에코플라스틱지회	9 선거구	민 인 섭	
135	에코플라스틱지회	10 선거구	김 영 민	

136	에코플라스틱지회	11 선거구	최 신 식	
137	에코플라스틱지회	12 선거구	김 기 태	
138	에코플라스틱지회	13 선거구	류 성 욱	
139	에코플라스틱지회	14 선거구	김 태 하	
140	에코플라스틱지회	15 선거구	구 본 운	
141	에코플라스틱지회	16 선거구	신 재 섭	
142	에코플라스틱지회	17 선거구	김 무 성	
143	에코플라스틱지회	18 선거구	김 동 억	
144	에코플라스틱지회	조합대의원	김 인 하	
145	에코플라스틱지회	조합대의원	한 효 섭	
146	엠에스정밀지회	1 선거구	이 진 훈	
147	엠에스정밀지회	2 선거구	안 영 근	
148	엠에스정밀지회	3 선거구	서 보 경	
149	엠에스정밀지회	4 선거구	이 광 훈	
150	엠에스지회	1 선거구	권 두 현	
151	엠에스지회	2 선거구	김 지 수	
152	엠에스지회	3 선거구	손 장 혁	
153	엠에스지회	4 선거구	이 상 현	
154	엠에스지회	5 선거구		공 석
155	엠에스지회	6 선거구	서 일 용	
156	엠에스지회	7 선거구		공 석
157	엠에스지회	8 선거구	이 상 하	
158	엠에스지회	9 선거구		공 석
159	엠에스지회	10 선거구	신 현 섭	
160	엠에스지회	11 선거구	최 진 욱	
161	엠에스지회	12 선거구		공 석
162	엠에스지회	13 선거구		공 석
163	엠에스지회	14 선거구		공 석
164	엠에스지회	15 선거구		공 석
165	엠에스지회	조합대의원	이 희 석	
166	우영산업지회	1 선거구		공 석
167	우영산업지회	2 선거구	엄 병 진	
168	우영산업지회	3 선거구		공 석
169	우영산업지회	4 선거구	조 선 제	
170	우영산업지회	5 선거구	강 미 정	

171	우영산업지회	6 선거구	김 웅	
172	우영산업지회	7 선거구	이 혜 자	
173	우영산업지회	8 선거구	전 효 재	
174	우영산업지회	9 선거구	정 대 주	
175	우영산업지회	10 선거구	이 장 원	
176	우영산업지회	11 선거구	차 승 철	
177	우영산업지회	12 선거구	박 규 대	
178	우영산업지회	13 선거구	김 우 현	
179	우영산업지회	14 선거구		공 석
180	우영산업지회	조합대의원	이 종 혁	
181	인지컨트롤스지회	1 선거구	황 명 속	
182	인지컨트롤스지회	2 선거구	김 명 순	
183	일진베어링지회	1 선거구	이 호 태	
184	일진베어링지회	2 선거구	이 재 명	
185	일진베어링지회	3 선거구	장 민 준	
186	일진베어링지회	4 선거구	권 영 규	
187	일진베어링지회	5 선거구	임 정 현	
188	일진베어링지회	6 선거구	박 성 일	
189	일진베어링지회	7 선거구	박 성 환	
190	일진베어링지회	8 선거구	박 중 락	
191	청우지회	1 선거구	김 진 환	
192	플라스틱옴니엄지회	1 선거구	황 채 석	
193	플라스틱옴니엄지회	2 선거구		공 석
194	플라스틱옴니엄지회	3 선거구	지 승 용	
195	플라스틱옴니엄지회	4 선거구	황 기 준	
196	현당산업지회	1 선거구	도 경 록	
197	현당산업지회	2 선거구	박 규 천	
198	현당산업지회	3 선거구	정 태 화	
199	현당산업지회	4 선거구	김 병 민	
200	현당산업지회	5 선거구		공 석
201	현당산업지회	6 선거구		공 석
202	현당산업지회	7 선거구		공 석
203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1 선거구	김 억 경	
204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2 선거구	김 주 환	
20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3 선거구	김 정 철	

20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 선거구	최 병 호	
20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 선거구	이 준 호	
208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 선거구	한 준 기	
209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4 선거구	최 해 성	
21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5 선거구	최 현 욱	
21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6 선거구	강 경 돈	
212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7 선거구	조 영 식	
213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8 선거구	이 승 환	
214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9 선거구	윤 석 순	
215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0 선거구	이 재 근	
21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1 선거구	손 창 희	
217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2 선거구	김 병 찬	
218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3 선거구	미 가	
219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조합대의원	김 재 흥	
220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 선거구		공 석
22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2 선거구	윤 병 한	
222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 선거구	남 호 윤	
223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4 선거구	김 석 중	
224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5 선거구		공 석
225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6 선거구		공 석
226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7 선거구	이 성 희	
2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8 선거구	오 용 우	
228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9 선거구		공 석
229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0 선거구	김 나 영	
230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1 선거구	김 선 혜	
23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2 선거구		공 석
232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3 선거구		공 석
233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14 선거구		공 석
234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조합대의원	이 주 은	
235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조합대의원	황 세 정	
236	현대엠시트지회	1 선거구	김 세 영	
237	현대엠시트지회	2 선거구	백 규 태	
238	현대엠시트지회	3 선거구	이 승 흥	
239	현대엠시트지회	4 선거구	박 현 태	

240	현대엠시트지회	5 선거구	정 준 용	
241	현대엠시트지회	6 선거구	반 석 주	
242	현우지회	1 선거구	정 연 규	
243	현우지회	2 선거구	방 병 태	
244	현우지회	3 선거구		공 석
총원 244명, 공석 50명, 재적 1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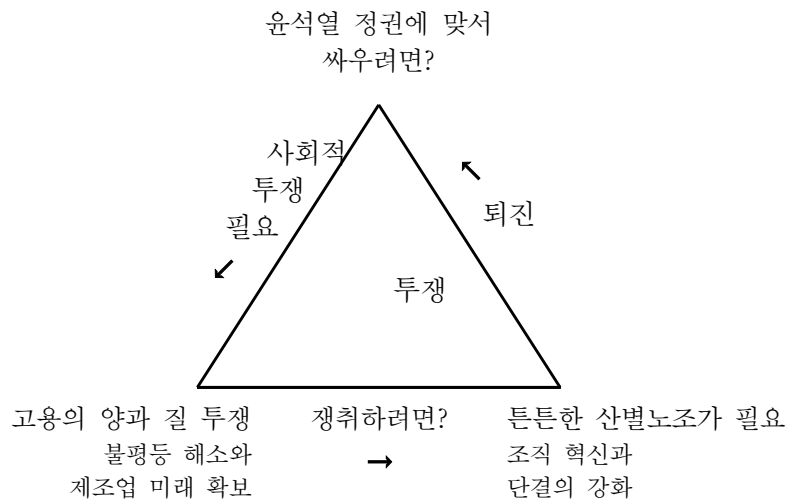
보고 1. 금속노조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 방침

**금속노조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방침
보고 드립니다.**

13기 1년차 사업계획 및 2024년 투쟁 방침

1 2024년, 세계와 한국 그리고 노동운동

[정세 종합]



○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자유주의를 되살리는 ‘퇴행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강령에 따라 규제 완화라는 핑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몰두한다. 정부의 노조무력화는 신자유주의 재편에 저항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다. 신자유주의 정부가 재정은 긴축을, 공공성은 축소와 민영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작은 정부’라는 것은 착각이다. 모든 신자유주의 권력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노조파괴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정치의 갈등 조정 기능을 포기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자본의 이익으로 남으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치는 시장의 역기능을 조정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한국의 노사 관계는 윤석열의 집권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가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은 유연화된 시장에서 무한 경쟁 상태에 놓이며 그 결과는 더 깊어진 불평등과 사회 분열이다.

○ 한국 경제 구조는 재벌이 지배하는 글로벌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중소형 기업과 임금노동자 모두 대기업에 종속된 채, 중소기업은 낮은 경쟁력이라는 취약점을, 사회는 사회안전망의 부실함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구조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막대한 이익을 남겨 한국 경제가 승승장구하지만 경기

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기에 빠진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의 고물가와 강대국의 자국중심주의 전환에 한번 휘청이고, 연이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수출 부진으로 또 한 번 휘청이고 있다. 경제의 활력이 다양한 층위에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는 현대자동차를 선두로 한 글로벌 대기업의 성과가 분배와 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장기저성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성장을 극한으로 올려 낙수효과를 통해 부를 전달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진작에 실패했다.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를,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경제의 체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는 고용하지 않는 경제구조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이 막히며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의 사회 가치와 기업의 무책임을 확인하고, 좋은 일 자리를 늘리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경제의 저성장 지속은 사회운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정치의 실패와 경제의 불안을 배경으로 사람들은 갈등에 대한 폭력적인 해결책이나 배제를 통한 자기 이익의 방어를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지난 세기의 유물인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 자국중심주의, 그리고 우익 파시즘이 맹렬하게 번지는 이유다.

정치와 경제가 실패한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여성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의 분리와 상호간의 적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노동조합을 사회 안에서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은 노조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낮은 연대성과 맞물려 노동운동이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고 노조에 적대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 금속노조는 여전히 최대의 산별노조, 민주노조운동 역사의 계승자라는 자긍심을 간직하고 있으나 안으로는 모순과 위기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구성과 정서는 변하고 있다. 노조 전체의 힘은 거대하지만 기업별로 분할된 질서는 노조의 힘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노조를 지켜온 지도력은 자연 소멸하고 있으나 다음 세대는 같은 속도로 충원되고 있지 않다. 계승할 것과 버릴 것, 바꿀 것과 지킬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노조 혁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조건이다. 혁신에 실패할 경우 계급대표성의 상실, 현장 활력의 저하, 지도력의 붕괴가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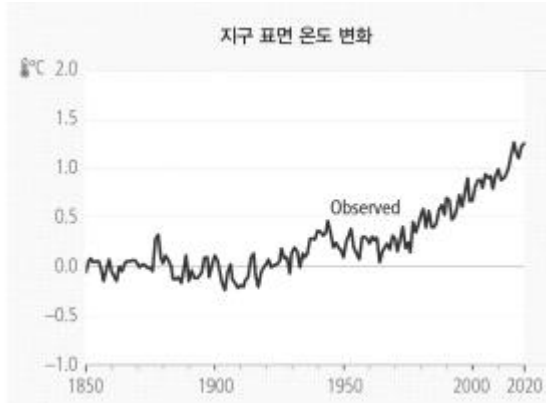
1. 우리가 사는 세계

1-1. 위기와 한계의 세계

○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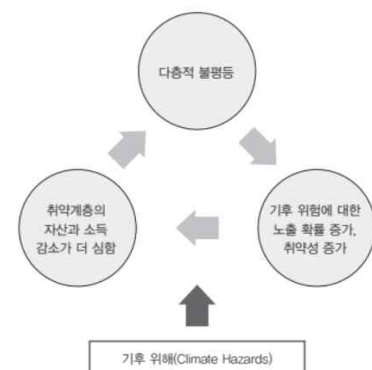
- 지난 수년간 논쟁 수준에 그치던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인한 지구 기후 체계의 변동과 이것이 몰고 온 극적인 기후 변화를 인류가 함께 체험하면서 보편적 위기라는 인식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경우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을 경고, 현재 상승치는 1.1~1.2도 수준이나 상승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매년 1.5도 상승에 도달하는 시점 예측이 앞당겨지고 있음. 가장 최근의 논의는 2027년을 평균 1.5도 상승의 시점으로 예측함.



지구 평균기온 상승 시나리오별 기후변화				
지구 평균기온	현재(+1.1℃)	+1.5℃	+2℃	+4℃
최고기온	+1.2℃	+1.9℃	+2.6℃	+5.1℃
극한기온 발생빈도	4.8배	8.6배	13.9배	39.2배
가뭄	2배	2.4배	3.1배	5.1배
강수량	1.3배	1.5배	1.8배	2.8배
강설량	-1%	-5%	-9%	-25%
태풍 강도		+10%	+13%	+30%

- 기후위기가 부르는 위험은 인류 문명이 붕괴할 수준이라는 경고에도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
- 기후위기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 생산과 이윤을 위해 인류가 배출한 온실(탄소)가스가 원인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붕괴의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
-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닥친 보편 위기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저개발 국가에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불평등에 따른 위기의 편차가 생기고 있음. 또한 기후 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서구와 비서구, 산유국가와 산업국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의 갈등도 커지는 중임.
- 글로벌 거대자본은 기후위기조차도 마케팅의 기회로 삼는 이른바 '녹색위장(그린 워싱)'을 통해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시장 확대를 추진함. 동시에 탈탄소 경제의 추구는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을 가져와 노동의 조건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일자리의 변동을 불러옴. 노동운동이 지구적인 차원의 위기에 대처하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성장의 한계

- 세계 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빠진 상태로, 이는 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불황 국면이 아니라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라는 분석에 주목해야 함.
- “2024년은 향후 세계 경제가 겪게 될 'L자형' 장기 저성장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해가 될 전망” (LG경영연구원 23.12.26)
- 세계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지구온난화로 위기가 올 것은 이미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예측된 일.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성장의 한계를 인지한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하락을 금융자본주의로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함.
- 그러나 신자유주의조차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자본가의 탈출구가 되지 못함을 증명. (조지 프 스티글리츠, “보이지 않는 손, 없어서 안 보인 것”)
- 관세 철폐와 완전한 자유무역, 규제가 없는 무제한 시장 경쟁, 민영화와 공공성 축소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실패하고, 각국은 무역장벽 부활, 생산기지의 자국 소환(리쇼어링), 각종 보조금을 통한 내수 소비 창출, 사회지출의 증대로 돌아가고 있음. 그러나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를 보임.

- 실패한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지구 자원의 한계와 소비 사회의 문제를 인정하고, 성장을 통해 계속 부를 늘린다는 경제 개념을 폐기하여, 성장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공생과 협력을 통해 삶을 지속하는 '성숙의 경제'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됨.



1-2. 긴장과 갈등의 세계

○ 충돌하는 세계

- 냉전 종식 30여 년 만에 세계는 다시 제국주의적 질서를 고수하는 미국과 이에 대립하는 패권국가 사이의 긴장과 갈등 고조라는 새로운 냉전 질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온전하게 미국의 힘과 동맹을 뛰어넘지 못하고 미국도 내부의 모순으로 과거와 같은

세계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두 거대한 힘은 대립 속의 평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음. 두 축은 겉으로는 정면충돌하며 갈등하는 듯이 보이나 안으로는 세계시장과 경제 이해관계로 이어져 있음.

-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힘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정작 충돌은 미국과 소련의 변방에서 벌어졌듯이, 패권의 충돌은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아프리카의 불안정, 미얀마의 쿠데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형태로 국지적으로 분출하고 있음.
- 테러와의 전쟁, 이슬람 성전이라는 표현에서 엿보듯 21세기 분쟁의 특징은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닌 비정규전의 형태가 강하며 이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민간인의 극심한 피해로 이어짐. 최근 시리아 내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드러남에도 UN과 주요 강대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줌.
- 세계 질서를 관리할 충분한 힘을 지니지 못한 미국은 각 지역에 자신을 대리할 군사동맹 질서와 하위 관리자를 두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구사함. 이로 인해 중국-대만의 긴장, 한반도의 긴장,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 내의 새로운 위기를 만들고 있음.

○ 사회분열과 갈등의 심화

- 경제 위기, 정치의 실패, 지구적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계층 이동의 좌절 속에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나누어진 사회’를 살고 있음.
-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유동성이 증대하면서 불안과 동요가 지구적인 현상이 되어 감. 서구는 복지 국가의 해체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사회의 연대성이 해체되고 인종주의에 바탕을 둔 이주민 배척, 가부장제의 강화로 인한 여성 혐오, 이슬람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거세지고 있음.
- 사회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번지면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떠오르고, 약자를 억압하며,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줄을 이어 발생하는 혼란이 이어짐.
- 이런 사회 분위기는 시민들에게 적자생존을 강요하며 ‘이웃과의 연대’ 대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선택하게 만듦.

1-3. 불확실성과 반동의 세계

○ 빈곤의 세계화

-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빈곤이 늘고 격차가 커지며 역사 그 어느 시기보다 극단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음.
- 긴축과 무한경쟁을 간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지난 30여 년간 빈곤의 확대를 불렀고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이론을 통해 부자들 중심의 사회 질서를 옹호했음. 나아가 민영화, 규제철폐, 부자 감세 등을 통해 부의 편중을 가속했음.
- 지구적 불평등은 삶의 불확실성을 키워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를 낳으며, 국가 간의 협력, 시민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평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차단함.
- 장기 저성장과 맞물려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 일본 같은 주요 산업국에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등장하는 역진 현상이 나타나게 만듦.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국가는 사회 복지와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특징도 공통됨.
- 기술발전(자동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 고용학살을 경고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운동이 좌-우를 막론하고 늘고 있으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실현

할 정치 세력의 등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제의 성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 민주주의의 후퇴

- 신자유주의의 득세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초래함. 우리는 IMF위기를 통해 한국 정부가 IMF의 통제를 받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대의제와 대중정당에 바탕을 둔 현대 민주주의 질서는 21세기 들어 불평등을 비롯한 개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의 조정에 실패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위기 상태에 빠짐.
- 유럽에서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연이어 재선거를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541일(2010년)에 이어 493일(2019년)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무정부 상태였던 벨기에처럼 장기간 중앙정부가 부재한 모습을 보이며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키우고 있음. 이 틈을 극우정치가 파고들고 있음.
-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권위를 잃으면서 근본주의(종교, 이념, 문화)가 세력을 넓히고, 차별과 배제, 혐오를 통해 자기 진영을 공고히 하는 정치가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 위기의 틈을 타 극우정치가 부상하고 좌-우를 불문하고 기존의 정치 문법을 부정하며 대중의 이기심을 부추겨 권력을 수립하는 포퓰리즘 정치(미국의 트럼프, 브라질의 볼소나루)가 주류로 등장함.
-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인 노동계급이 극우 정치의 기반이 되면서 파시즘이 득세한 20세기 초반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장기 불황과 높은 실업, 정체가 노동계급의 우경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임.
-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진보적 사회운동은 기후위기 대응운동의 성장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반동적 사회운동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 한반도의 풍향계

2-1. 정치의 바람

○ 총선과 대 정권 투쟁

-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포기한 정치와 적대를 통한 생존이라는 최악의 길을 가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권력의 실정에 모두가 고개를 돌리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는 대중은 2017년 같은 동원과 저항에는 나서지 않음. 정치 무당층이 30%까지 치솟아 대중의 기권주의와 정치혐오가 심각한 수준. 문제는 윤석열의 무능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총체적인 실패와 대중의 절망임.
- 4월 총선의 결과와 그 이후 한국 정치의 방향은 쉽게 예측할 수 없음. 그러나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은 당장은 타격을 입겠지만, 정상적인 정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은 임기 2년간 자신들의 기조로 집권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큼. 또한 야당이 압승하더라도 소위 제3지대 정당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진로에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므로 여소야대 상황이 반드시 윤석열의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지금도 윤석열 정권은 국회를 행정부의 견제 기구로 보지 않으며,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사법기구(경찰과 검찰)의 장악을 통한 지배로 이해하고 있음.
- 결국 선거의 기술적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생명을 단축하고 반노동 정책을 좌절시키는

길은 조합원을 넘어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폭넓은 정치 투쟁을 통한 해결 밖에는 없음.

-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성적표는 예상하기 어려움. 주목할 것은 총선을 통해 진보정치 세력이 국회의 교두보를 유지할지 여부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 정치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총선 과정과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진보정치가 노동자 안에서 유의미한 정치 대안으로 인정받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가 하는 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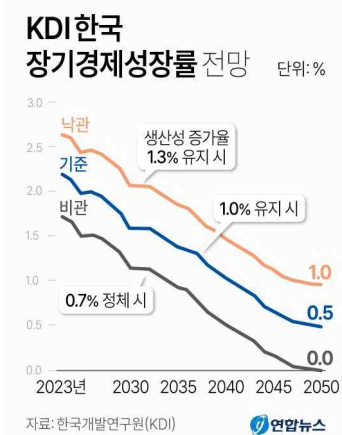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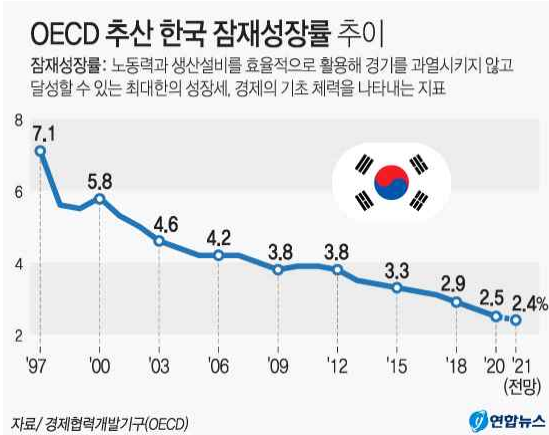
○ 동아시아 긴장 고조와 하위 체제로서 분단체제

- 냉전 해체 이후 유지된 세계 질서의 취약한 균형 상태는 21세기 들어서면서 9/11 테러 사건 이후 중동·서아시아의 장기 전쟁과 이로 인해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불안정과 유동성의 상태로 이행함. 동시에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배경으로 중국의 패권 역시 부상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냉전, 즉 미중 양국의 저강도 충돌과 갈등 고조를 경험하고 있음.
-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군사 경제 양 측면에서 선명하게 그어지는 지역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엮어 중국에 대항하는 대치선을 설정하고 특히 일본을 지역 내 대리자로 적극 밀어주고 있음. 일본은 이 기회를 군사력을 강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변신하는 계기로 삼으려 함.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분리가 명확해지면서 아시아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동맹이 강화됨. 이는 한미일 축과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임.
-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력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대만의 탈중국으로 인한 갈등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갈수록 격심해지는 상태임. 국가 간 대립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지역 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연대와 투쟁은 힘을 잃고 후퇴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쿠데타 권력의 독재,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같은 잠재된 소패권 국가 사이의 갈등, 섬과 해역을 둘러싼 영토분쟁 등 다양한 긴장 요소가 잠복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2024년 벽두부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로 규정, 전통적인 민족 우선과 협력 노선의 폐기를 선언함.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크게 늘리며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됨.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 동아시아 정세의 흐름과 남북관계의 변화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반전평화 투쟁과 함께 전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반면 윤석열 정권의 대결주의,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한반도 주변 패권 국가들의 대립은 이런 평화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2-2. 경제의 바람

○ 빨간불이 들어온 한국 경제

-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와 장기성장률 하락(2023년 1.9%, 2024년 1.7% 예상)에 빠짐. 핵심적인 원인은 생산가능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정체에 있음.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여 정부/기업/민간 모든 부문에서 최고 수준 기록함. 부채를 감소시키는 과정은 긴축과 금리인상을 강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경제를 침체시키는 위험을 가짐. 어느 쪽이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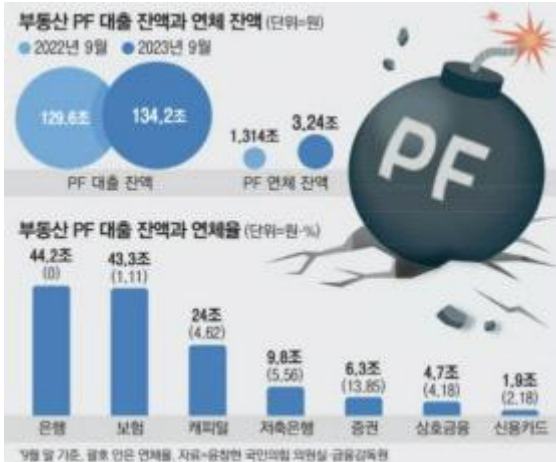


-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같은 노동자의 불안정화 경향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짐. 2023년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한 데에 반해 (감소폭 3만4천명; 812만2천명) 20~30대에서는 비정규직이 증가함.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증가폭 9천명; 142만3천명), 30대 비정규직 노동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증가폭 6천명; 98만9천명) (통계청, 경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불안정이 확산. 이후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집단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큼.
-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졸속대책을 남발. 매출 증대 대책 없이 중소기업인 부과세 2달 납부유예, 주택가격 정상화·주거 안정 대책 없이 다주택자 증과세 철폐·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소수 거액 투자자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주식양도세 완화, 일자리 질 개선 없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1분기 중 105만 5천 명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의 90%) 등 총선용 선심 정책 남발. 경기침체에 더해 재벌·부자 감세로 지난해 세수가 59조 원 부족했으며 올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감소할 전망.

한국 경제 위기 요인 (단위=%) '복수 응답.	수출경기 악화	59.6
	물가 상승	53.5
	원화값 하락	51.5
	기업 채산성 악화	28.3
	가계부채	28.3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할 일 (단위=%) '복수 응답.	환율 안정	61.2
	물가 안정	57.1
	규제 완화	49.0
	금융시장 안정	45.9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24.5

○ 부채위기의 증대

-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던 부동산PF 위기의 현실화. 태영건설의 부도에 이어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PF가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연체율(2.42%)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47.4%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2023년 9월 말 가계부채는 1,875조 6천억 원(GDP대비 100.2%)으로 세계 최고수준, 정부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대출 확대 정책으로 가계부채 지속 증가, 2023년 3분기 말 카드 연체율은 전년에 비해 65.9% 증가
- 기업부채는 외환위기 때 부채 수준(113.6%)보다 높은 GDP의 126.1%이며 연체율이 2023년 상반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59%로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연체율 상승.
- 2023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1,053조 원이며 연체율(1.24%)이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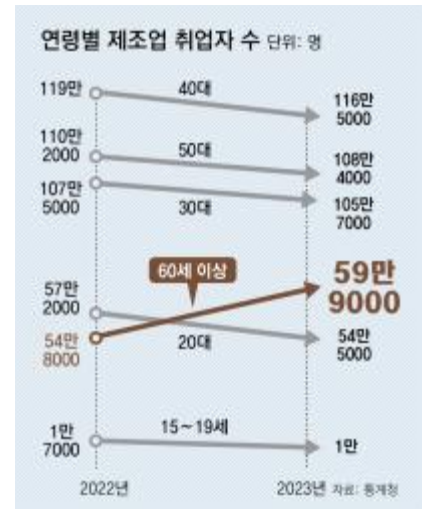
주요국 GDP대비 기업·가계 부채

2023년 3분기 기준 34개국 대상, 상위 10개국



○ 고용 없는 한국경제의 모순

- 2024년 1월 한국 제조업의 60대 이상 노동자가 20대 노동자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함. (15일 통계청 발표) 한국 경제의 핵심 기둥인 제조업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짐.
- 이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님.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인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이윤 창출’의 결과임.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19.9%로 미국(6.6%, 이하 2021년 기준)·일본(9.8%)·독일(8.4%)보다 높음(2023. 8. 23. 통계청). 한국보다 비중이 큰 국가는 콜롬비아(48.1%), 브라질(31.2%), 멕시코(31.8%)와 같은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임. 경제 규모에 비해 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경제 인구가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처럼 한국 기업은 말로는 자신들의 사회 책무가 납세와 고용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고용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경영참가와 산업전환 과정의 노조 참여에 대해 기업주와 자본가단체는 ‘고용으로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경영참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함. 한국 기업은 회계와 납세의 투명성을 항상 의심받으며, 동시에 ‘고용에 대한 사회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음.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2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함. 기업의 사회 책임 방기에 대한 여론화와 공세가 필요한 시점.
- 한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에 기대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임. 그러나 한국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해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시장의 선순환 같은 경제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와 안전망이 같은 경제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여 고용이 곧 생존의 조건이 되는 경제 구조의 ‘기업-복지’ 국가 체계를 생각하면 고용은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중요한 조건임. 또한 고용의 증대가 불평등의 개선과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됨.
- 결국 고용 없는 한국 사회, 신규 고용 없는 제조업은 불평등의 확대와 제조업 활력의 감소와 직결된 문제임.
- 한편 한국 사회 부실한 사회안전망과 불평등 심화로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계속 노동이 늘고 있음.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은퇴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함. 당장 사회 복지를 현실화할 수 없다면 고령 노동의 보호 방안과 노동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함.



2-3. 노동운동/사회운동의 바람

○ 수세기의 사회운동

- 한국 사회운동은 2010년대 들어 운동의 양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음. 주요한 대중운동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활동력의 감소를 겪고 있음. 사회운동의 상당한 자원이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 동안 집권당에 수혈되거나 민주당의 울타리에 안에 강하게 포섭된 상태임.
- 운동을 둘러싼 정치경제 조건도 긍정적인 환경이 아님. 청년 세대의 우경화와 이기적인 개인주의화 경향이 연대와 민주를 강조하는 윗세대와의 단절 또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 한국 사회운동은 위축 상태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패배주의와, 움추려서 힘을 키우고 반격의 때를 준비하는 수세기 전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회운동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함.
- 사회운동이 발 딛고 서야 할 대중들 사이에서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고, 경제적 불평등, 성적 불평등,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다양한 운동과 연대해야 함. 특히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등과 공생을 추구하는 가치의 옹호와 확산에 힘써야 함.
- 노동운동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안의 가장 강력하게 조직된 대중운동이나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음.
- 노동운동은 ▲격차를 해소하는 통로로서 산별교섭의 실현,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제도처럼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의 제거, ▲계급 안의 계급(비정규직, 하청, 여성, 청년, 저임금, 이주노동자) 차별을 폐지하는 실천을 통해 노동계급의 단결을 확보해야 함. 다가오는 민주노총 30주년을 한국 노동운동의 재도약 기점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바람이 되어야 함.

○ 금속노조를 정조준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 공세

- 윤석열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완성.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간 연장 + 변형근로 허용 + 임금제도 개편 + 최저임금법 개악 + 파견 무제한 허용 법개악)
- 노동시장 유연화 최대의 적은 노동조합, 노조무력화는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목표.
- 정권은 회계공시를 강요해 노조의 자주성을 빼앗고, 노조가 돈 문제에 있어서 부정한 집단이라는 사회 인식을 부추김.
- 이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대공장 노동자와 기존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탓으로 몰며 시민과 노조를 갈라치려 함. 노조 안에서도 소위 MZ세대 노조라는 집단에 힘을 실으며 노노갈등을 조장.
- 정권은 이제 전임자 문제를 들고나와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본격적으로 힘을 빼겠다고 선언, 특히 노동부는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의 회계와 전임자 문제를 강조해 지난해 건설노조에 이어 올해는 금속노조를 탄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음.
-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 공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모든 노조는 식물노조가 되어 가판만 걸고 있는 처지가 될 것.

3. 산업의 흐름

3-1. 산업 정세(총괄)

-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이 확대됐다고 평가. 실제로 무역수지가 2023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전환됐으며 10월 들어서는 전년동월 대비 수출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도 했음. 하지만 크게 보면 수출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¹⁾로 소위 ‘불황형 흑자’로 보는 게 타당함.
-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3%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2023년 2.9%, 2024년 2.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
- 산업부가 연초에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3년 자동차는 31.1% 수출이 증가한 709억 달러 수출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함. 특히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67.8% 증가했으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23%를 차지해 2022년(18%)보다 비중이 크게 늘어남. 선박은 22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9%가 증가. 반면 철강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액이 8.4% 감소함. 산업연구원은 2024년 자동차 수출이 소폭(-2.4%) 줄고, 조선은 증가세가 둔화하며, 철강은 수출이 소폭(1.4%)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추진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등 주요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환경 관련 무역장벽의 영향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한국 산업에 닥쳐올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업체는 현지 생산으로 이에 대응 중. 미국 IRA 대응을 위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 전기차 전용공장이 2024년 하반기 중 가동될 예정이며, 멕시코 공장에서도 전기차 생산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철강업종은 CBAM 전환기간(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는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유럽에 철강재를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배출량을 당장 줄일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 재벌·대기업은 현지 생산이나 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 대응하겠으나, 이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는 위축될 것이며 각종 비용이 힘없는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게 뻔함.
- 한편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금속노조가 정의당과 함께 발의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한 취지로 각각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돼 지난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 금속노조가 요구한 노동전환 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 보장은 이 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다만 법안 제정 당시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의 고용정책심의회 지원을 위한 전문위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 부대의견에 대해 “부대의견에 있는 대로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월 5일 공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노사 동수’ 문구를 끝내 넣지 않음. 즉, 노동전환 계획의 ‘의결’ 과정도 아닌 ‘심의를 지원’하는 수준의 기구에도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기조.
- 요약하자면 △불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최근 실적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편이지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중심인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머지않아 가시화돼 △국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가 우려됨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노동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대정부 투쟁과 더불어 산별 노사관계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2. 자동차업종 현황 및 전망

1)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수출은 2022년대비 7.4% 감소, 수입은 12.1% 감소.

○ 자동차산업 구조적 변화

- 자동차산업은 산업간 교차와 융합의 실험장.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차량 (SDV)로 변화하면서 전자회사·정보통신회사·이차전지회사·부품사 등이 모두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전동화·경량화·개인화 등 모빌리티 시대로 변모하고 있음.²⁾
- 특히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 생산업체에서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4가지로 나누고 이를 각 최상위 제어기로 집중하여 하위 부품들을 통합하면서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기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2025년까지 내연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차종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공통 과제가 되면서 각국의 탄소규제는 확장되고 있음. 특히 전동화와 자국 (역내) 생산은 이러한 각국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IRA,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모두 이에 해당하며 환경규제를 통한 통상 규제로 주요 시장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 국내 자동차 생산량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 각국 정부의 규제뿐 아니라 RE100³⁾등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캠페인 참여 흐름이 자동차 생산 영역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완성차 업체는 납품사에게도 RE100 이행을 요구, 불보의 경우 2025년까지 부품사에게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부품사는 수주를 못 받거나 수주 취소까지 예고하고 있음.

○ 국내 완성차 자동차 생산, 생산방식 변화

- 현대차그룹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Δ RE100%, 공급망 탄소 중립, 전동화 차량 100%) 2030년 판매 차량의 35.4%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그 생산 계획을 확대하고 있음.⁴⁾ 그룹이 국내에 신설·개조하는 공장들은 Δ 컨베이어+옵션장착의 유연한 생산라인 적용 Δ 하이퍼캐스팅 도입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준공식을 진행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전통적인 컨베이어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 주문에 맞춰 서로 다른 차종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셀’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2) 인터넷 한겨레, 20240105, <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123050.html>. 중국 전자기업 샤오미는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사가 되겠다.”고 선언, 통신기업 화웨이가 자동차 제작사인 싸이리스 (SERES)와 신규 차량을 출시했으며 일본의 소니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까지 발전시킨 미래차를 공개한 바 있음. 애플의 아이폰은 생산하는 폭스콘도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비전을 제시하고 기아차는 기아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쌍용자동차는 KG모빌리티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협회 명칭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변경함. 현대모비스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제시하였음. LG전자는 마그나와 인포테인먼트시스템과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자율주행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단독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과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제휴로 차량과 가전제품에서 각각 서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 되었음.

3) RE100은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최소 205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국제 기업들의 자발적 운동. 2014년 다국적 비영리 단체 The Climate Group과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해 출범시킴. 2023년 현재 41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등 32개사가 가입. RE100에서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포함), 지열, 태양, 수력, 풍력임. 참여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녹색전력요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PPA(Power Purchase Agreements)를 통해서 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EACs, EnergyAttribute Certificates) 구매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RE100은 그린워싱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줄이지 않으면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 실질적 탄소 배출 감축 효과는 줄어듦.)에 활용된다는 비판도 많음.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부품사가 완성차로부터 RE100 동참 요구를 받는 경우, 전력 구매 요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큰 타격 예상.

4) 2030년 목표 현대차 총 판매량 588.2만 대 중 순수 전기차량 34%, 기아 총 판매량 430만 대 중 순수 전기차량 37%. 2023 현대차, 기아 Ceo Investor Day

함.

- 르노코리아⁵⁾의 경우 중국 지리(Geely)자동차 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볼보의 CMA플랫폼을 기반으로 SUV, CUV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 오로라프로젝트를 발표. CMA플랫폼은 내연기관부터 순수전기차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르노코리아에서의 전기차 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산공장은 1개의 조립라인에서 최대 4가지 플랫폼의 8개 모델을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분 없이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상황.
-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2023년 12월 평택공장 조립3라인 통합공사를 통해 프레임바디(렉스 턴) 차종과 유니바디(모노코크, 토레스 및 토레스 EV) 차종을 혼류 생산할 수 있게 됨. 한국지엠의 경우 GM본사가 2035년까지 전기차 100% 전환을 선포하였음에도 전기차 생산 계획이 확인되지 않다가 최근 2027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됨.

○ 2024년 전망

- 2024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2023년보다 공급 확대 수준이 둔화될 전망. 글로벌 자동차 산업 시장 조사기관인 LMC는 9,477만 대(YoY 4.1%), HMG는 8,295만 대(YoY 2.5%), 산업연구원은 8,900만 대를 예상함.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은 내수 171만 대 (YoY Δ 1.7%)⁶⁾ 수출 275만 대 (YoY 1.9%)로 총 생산은 417만 대 (YoY 0.7%)로 400만 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⁷⁾
- 단, 내수 판매를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비중은 76.1%, KG모빌리티는 3.8%, 르노코리아는 1.3%, 한국지엠은 1.9%로 현대차그룹과 중견3사의 차이가 커 부품 부품사도 수요 기업에 따라 수익성이 차이가 나며 국내 부품사 중 전기차 확대에 준비가 된 업체는 8% 정도에 그쳐 전기차가 확대될 수록 부품사간 양극화도 확대될 전망⁸⁾
- 전기차의 경우 주요국들의 산업 육성 정책과 환경 규제 등으로 그 수요 확대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나 각국의 보조금 감축과 있고 미국, 유럽 등 전기차 수요가 높은 곳들의 경제 성장 둔화로 완성차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⁹⁾ 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증가율은 확대되고 있어¹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
-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급증하는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사들은 기존 사업 축소, 대규모 인력 감원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외투 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도 다가올 전망¹¹⁾

○ 시사점

-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 전환기 완성차 수요독점 구조에서 기인하는 수탈구조를 해소하고 부품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내연기관 부품 등 감소 예상군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과 확대 예상군 노동자에 대

5) 지리(Geely)는 르노코리아 지분의 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르노코리아가 지리그룹에 기술사용권을 매입하며 지불한 금액이 동일하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지분을 팔아 중국 자본으로부터 기술을 사왔다는 지적을 받음.

6) 국산차 판매 142.0만 대(YoY Δ 1.4), 수입차 판매 29.0만 대(YoY Δ 3.3)

7)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

8) 23.11.08 중소기업신문, “전기차 시장 둔화? 부품업체 구조조정이 더 큰 문제”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502>

9) BEV+PHEV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율 2021년 113.4% → 2022년 61.6% → 2023년 29%,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10) 글로벌 하이브리드차량 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 2021년 51.5% → 2022년 12.7% → 2023년 9월 38.8%,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11) 말레베어는 2025년 부산공장 폐쇄를 노조에 알린 상황이며 콘티넨탈은 감원 대상을 4,000~6,000명으로 발표함.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음.

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 정책은 자동차산업의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금속노조는 자동차산업 구조 개선과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구축을 위한 정부·지자체 노력을 강제해야 함.
-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분석한 자동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2031년까지 40만 1,000명으로 2021년 45만 2,000명 대비 총 5만 2,000명, 연평균 1.2% 감소하고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31년 30만 5,000명으로 2021년 35만 1,000명에서 4만 6,000명, 연평균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¹²⁾ 직군별로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줄고 전문직(연구직, 생산전문직), 온라인 판매직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하였기에 노동조합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연구·사무직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또한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노사가 함께 수립하고 실행하며 △노동을 배제하는 자동화를 노동의 인간화가 가능한 개선·합리화로 끌어내기 위한 현장의 실력을 축적하고 확대해야 할 것임.

3-3. 조선업종 현황 및 전망

○ 신조선 투자 요인이 없어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전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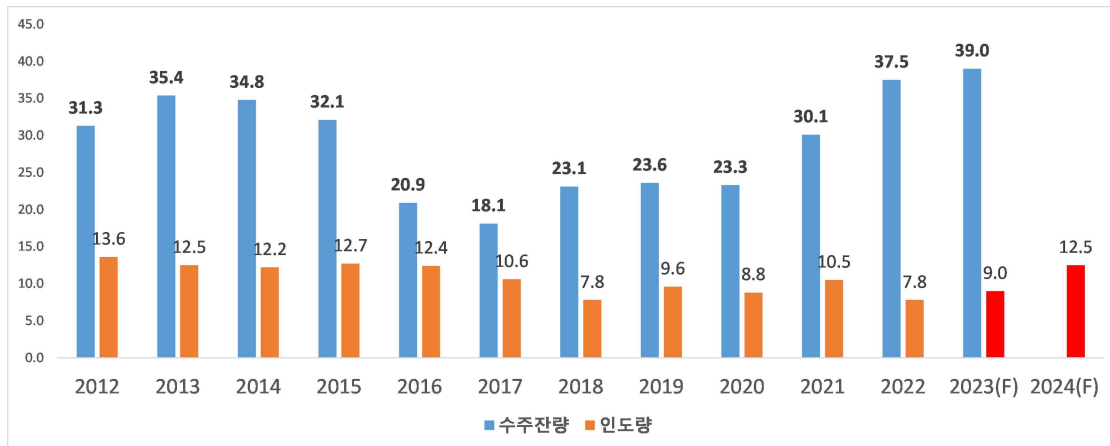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신조선 시장의 수주를 이끌어 온 LNG선은 지난 수년간의 집중적 발주로 필요 물량에 다르고 있어 점차 수요가 약화 될 것으로 전망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는 2023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전 세계 선박수량은 2,900만 톤(CGT), 한국의 수주량은 950만톤으로 2023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갈수록 강화는 해상 환경 규제로 인해 탄소 저감이 가능한 연료로 꼽히는 암모니아 연료의 엔진이 2025년 또는 2026년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 기존 생산 방식을 관망하는 경향도 커질 것임.

○ 한국 조선업체 또한 수주 감소가 예상됨.

- 세계 신조선 시장의 일시적 수요 감소에 따라 국내 수주량 역시 감소할 전망.
- 다만 국내 조선업체들이 3년반~4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황과 국내 조선업 건조 역량인 1,200만톤(CGT)을 고려하면 2024년 950만톤만 수주한다고 해도 국내 조선사의 안정적 일감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12)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22) pp.152~153, pp. 155~156

한국 조선업 연말 기준 수주잔량과 인도량(단위 : 백만 CGT)



* 출처 : 클락슨 리포트, World Shipyard Monitor

○ 2024년 전환기에 따른 대비와 국내 조선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 과제

- 탄소를 함유하지 않은 암모니아 연료의 상용화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향후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이 좌우될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거대한 변화를 앞둔 전환기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 2023년 인도 예정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내 조선업 인력난으로 인해 선박건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올해부터 울산에서 에쓰오일의 석유 플랜트 확장 공사인 '샤힌 프로젝트'(하루 평균 11,000명, 최대 하루 17,000명 인력 예상)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울산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 전체적으로 현장 기능직 인력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샤힌 프로젝트는 2026년 6월 완공 예정임. 샤힌 프로젝트의 경우 플랜트 설비공사로 국가보안설비에 해당해 현재로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충원하려면 울산과 거제 사내하청 및 사외하청업체는 현재의 임금 및 근무조건 수준으로는 내국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3-4. 철강업종 현황 및 전망

- 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세계 철강산업 성장률을 2023년(1.8%)보다 0.1% 성장한 1.9%로 바라보고 세계 철강수요를 1,849백만 톤으로 전망. 그 이유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의 공급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중국 부동산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때문으로 바라봄.

〈 worldsteel 세계 철강수요 전망 〉



자료 : worldsteel

〈 중국 철강수요 추이 〉



자료 : S&P Global, POSRI

- 전 세계적으로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가 철광석 매장량 세계 5위권을 형성. 2022년 세계 총생산량 3,127,958천 톤 기준으로 호주 944,424천 톤, 브라질 406,964천 톤, 러시아 94,804천 톤, 중국 967,873천 톤, 우크라이나 26,271천 톤을 차지. 따라서 러-우 전쟁의 영향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자재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중국 내 철강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는 세계적 철강수급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부동산 투자 10% 감소 시 철강 수요가 3% 감소한다는 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곧 철강 수요 저하로 나타나.

〈국내 철강내수 전망〉



자료 : KOSA, POSRI

- 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국내철강 시장을 2023년에 비해 4백만 톤 늘어난 53.4백만 톤으로 전망.
- 2023년 3분기까지의 수출 점유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중국시장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 예상되나 한국과 중국의 정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내 생산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통상 무역에서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치에 의한 반덤핑 관세 부과(미국 상무부는 휴스틸에 12.87%, 한국산 절단 탄소품 절강판(CTL판재) 2.02%의 덤핑 마진 확정)와 같은 무역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전망됨.

우리나라 제철/금속 부문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기준 : 2023년 5월말

연번	품목명	구분	대상국	조치내용		
				관세율(%)	기간	부과기간
1	페로실리코망간	원심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4.06~19.06	5년	17.11.29~'22.11.28
2	아연도금철선	원심	중국	8.6	5년	18.8.14~'23.8.13
3	스테인리스틸바	원심	태만, 이탈리아	9.47~18.56	5년	19.5.16~'24.5.15
4	스테인리스강	원심	중국, 인도네시아, 태만	7.17~25.82	3년	21.9.15~'24.9.14
	평판압연제품					
5	이음매 없는 동관	원심	중국, 베트남	9.98~18.12	5년	23.3.2~'28.3.3
6	수산화알루미늄	원심	중국, 호주	13.99~37.96	5년	23.4.28~'28.4.27
7	스테인리스스틸후판	2차재심	일본	13.17	3년	20.7.14~'23.7.13
8	스테인리스스틸바	4차재심	일본, 인도, 스페인	3.51~15.39	3년	21.1.22~'24.1.21
9	H형강	1차재심	중국	28.23~32.72	5년	21.3.30~'26.3.29

- 2023년 국내 산업별 철강 수요 실적을 살펴보면 건설 부문 경기의 하락으로 철강산업이 그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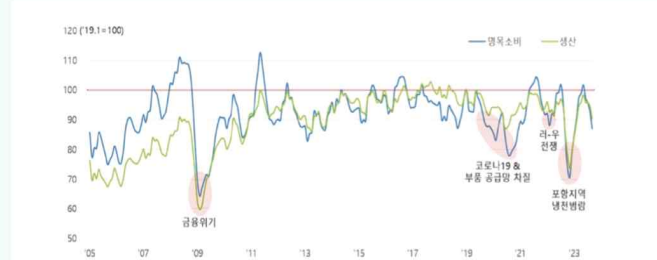
〈수요산업별 실적 (23.1~9월)〉



자료 : KAMA, 건설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주요 가전사

주 : 전년동기비 증가율

〈국내 철강재 내수 및 생산 추이〉



자료 : 한국철강협회(KOSA), POSRI

주 : 3개월 이동평균

- 한국철강협회의 철강보 2024년 1월호에 따른 철강 제품별 전망은 다음과 같음. 판재류 수요는 전년 대비 +1% 내외로 미온적인 증가를 보일 것임. 이는 자동차, 조선산업의 성장 둔화와 건설, 부동산

- 산업의 회복 지연 등 수요산업 시황의 영향을 받으며 저성장 상황에 따라 영향을 근거로 함.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상반기 둔화세를 딛고 하반기에 상승세로 전환될 기대감도 있음.
- 봉형강부문의 경우, 철근은 불안요인이 시장환경에 산재해 있으므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며, 형강은 비주거 투자환경 악화로 수요 감소세로 보이나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음. 마지막으로 특수강은 수요산업 위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 강관부문은 철강산업 중에서도 소규모 자본으로도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과잉되어 있음. 2024년 강관 시장은 건설산업의 침체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고, 조선산업에서도 급격한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처럼 전통적 수요산업의 성장이 제한적인 반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 하이엔드 강관 시장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신사업에서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24년에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의 확대 이외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됨. 2023년 10월 1일 준비기간을 시작으로 실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해야 함.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탄소 가격을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제도인데 기업들은 2025년 말까지 준비기간 동안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보고할 의무를 가짐. 2024년 1월 말까지 2023년 10월~12월의 배출량을 보고하는 방식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어기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 한국은 철강 관련 제품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철강업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
 - 또, 미국-EU 간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 약정(GSSA, 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이 논의 중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 철강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 유럽연합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발동하여 양측간에 관세 분쟁이 발발했음. 바이든 대통령도 232조 관세 조치를 유지하였으나 EU와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함. 결과적으로 2021년 10월 미국은 일부 철강 물량의 관세를 없앴고, EU는 보복 관세를 23년 10월까지 2년 유예함. 양측은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대응과 탄소배출 개선을 목표로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 약정(GSSA: 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을 논의중임. 이는 특히 제3국(중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철강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양측은 10월에서 연말까지 협상을 연장했고 결국 2025년까지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양측은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 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3-5. 전기전자업종 현황 및 전망

- 2023년 ICT 부문, 여전히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ICT) 부문 연간 총수출액은 1,8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총수입액은 1,3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감소. 2023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502억 달러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807억 달러) 대비 호전되기는 했으나 수입액 감소율 대비 수출액 감소율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임.
-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수출실적 하락에 따른 업황 불안정 지속: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반도체(-30.3%) 및 주변기기 중 보조기억장치(-61.0%) 부문의 수출실적이 매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음. 2022-2023년 ICT 부문 전체 수출액 감소(465억불)의 65.8%가 메모리반도체 및 보조기억장치 부문에서 비롯된 것. 반면 시스템반도체(-15.2%), 평판디스플레이(-14.3%), 무선통신기기(-12.9%)는

-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음. 이러한 품목별 차이를 감안할 때 향후 ICT 수출실적 및 업황 회복세 역시 메모리반도체 및 연관제품 시장의 회복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반도체 산업 부침과 기업의 긴축경영이 노조 조직률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문의 매출실적 호조세 및 수익에 힘입어 MX(무선사업부),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2023년 최대치(연봉 대비 50%)에 가까운 성과금(OPI)을 기록한 데 반해 반도체(DS) 부문의 OPI는 0%에 그친 상황.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제로성과금은 '불안정하고(높은 성과상여금 비중) 불균등하고(사업부별 차별화) 불투명한(일방적이고 불명확한 고과제도) 고과제도 및 성과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만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2023년 말 제1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하였음. 제품부문별 업무환경과 노동조건, 성과상여금이 판이하게 다른 조건에 더해 최근 기존 노조보다 더욱 강한 실리주의 경향의 초기업단위 삼성그룹 통합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 계열사 부문 노조들의 이합집산 및 활동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산업 노사관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됨.

정보통신산업(ICT) 품목별 수출입 실적

품목 구분	수출액 (백만불)			수입액 (백만불)		
	2022	2023	증가율	2022	2023	증가율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86,774	-19.9	152,491	136,516	-10.5
전자부품	166,917	130,854	-21.6	89,481	75,757	-15.3
- 반도체	130,865	99,708	-23.8	75,146	62,786	-16.4
. 메모리 반도체	73,753	51,384	-30.3	25,094	17,962	-28.4
. 시스템 반도체	50,670	42,967	-15.2	41,292	36,836	-10.8
- 평판디스플레이	24,413	20,924	-14.3	4,970	4,620	-7.0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9,078	-47.5	17,454	14,271	-18.2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334	-13.1	15,182	13,819	-9.0
- 무선통신기기	16,363	14,257	-12.9	13,120	11,713	-10.7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1,856	-13.8	3,596	3,259	-9.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9,652	1.5	26,778	29,411	9.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도체 부문의 점진적 회복세 맞아 업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2024년 전자업종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했던 메모리반도체 및 보조기억장치 부문의 업황 개선과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부가가치 부문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 비해 상당 수준 호전될 것으로 전망. 옴디아(Omdia)에 따르면 글로벌 D램 시장 총매출액은 2023년 1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점차 증가세를 기록 중. 메이저 D램 업체들의 감산 정책 효과와 고정거래가격의 보합 및 상승 국면 진입에 따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D램 매출액 또한 1분기 각각 40억 달러, 23억 달러에서 3분기 각각 52억 달러, 46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였음. 아울러 2024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AI 수요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가 올해 대비 44.8%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반면 2023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디스플레이 부문은 LCD 감산으로 인한 생산규모 축소 마무리 국면 진입, 대형 OLED 공급능력 확대 및 패널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단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프리미엄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2024년 매출액 증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4. 금속노조 현재에 대한 진단

○ 재생산의 위기

- 금속노조는 여전히 한국 사회 최대의 단일 산별노조이며, 산업의 대표성과 계급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이에 더해 전노협으로부터 시작해 금속산업연맹을 거쳐 금속노조로 이어지는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역사를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조직임.
- 그러나 자랑스러움과 별개로 자랑스러움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당장 노조의 존폐를 다투는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노조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조직이 커지지만 투쟁의 질적 측면이 성장하는 것은 아닌 현상, 새로운 조합원이 늘고 있지만 산별노조로서의 계급의식과 연대의식이 높아지거나 응축하지 않는 현상, 사회와 산업의 다양성을 온전히 노조 안에 담지 못하며 청년 세대의 인입이 더딘 현상, 노조의 일상 문화 안에서 활력과 진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그 예임. 다시 말해 매년 투쟁을 벌이지만 투쟁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노조가 커지는 것이 아닌 투쟁 과정에서 노조의 기존 역량이 꾸준히 소진되는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함.
- 당장의 투쟁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 노조를 혁신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투쟁하는 금속노조를 한국 사회에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을 우리 모두가 강하게 느껴야 함.

○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

- 전 조직적 산별교섭의 부재, 공동투쟁의 형식화, 조직 확대 정체, 산별전략의 부재, 산별 정책의 공백, 사회쟁점화 실패와 사회적 영향력 축소, 산별 정신의 약화, 임원/사무처 역량의 소진, 조합 간부의 운동성 유실과 관료화, 조직 내 논쟁과 토론 기풍의 소멸, 늘어나는 패배 의식, 대형 사업장 중심성과 완성차 기업지부 의존성, 자동차업종 중심의 업종 불균등성, 경제적 실리주의 확산,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 등 위기의 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됨.

○ 위기를 키우는 요인들

- 지난 수년간 노조 투쟁의 중심을 이루던 핵심 세대의 정년퇴직 이슈가 재정위기, 인력부족, 전략부재, 개별화-과편화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짐. 오랫동안 노조의 중추를 이룬 87세대의 빠른 퇴장과 이를 이어받을 준비가 안 된 다음 세대 사이의 공백이 존재함.
- 노조의 산별교섭과 산업정책 개입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노조의 기반인 생산 현장의 세대, 성별, 업종 등 내부 분화와 다양화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임. 한국 제조업의 중심 업종이 이동하거나, 새로운 업종이 부각하고 기존 업종에서는 생산 방식이 변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 중임. 이에 대응하는 노조의 정책과 실력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노조 안에 축적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1년 단위로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고, 반복 자체에 노조의 역량이 집중되는 측면과 함께 새로운 시도보다 익숙한 집행을 반복하는 노조 운영 방식의 한계가 금속노조의 새로운 도전이나 혁신의 장애가 됨. 결과적으로 금속노조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조합원은 기업별 노사관계 이외의 것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도력의 위기

- 이들 위기의 핵심은 ‘지도력의 약화와 후퇴’임. 공조직 의사결정기관에서 결의를 했어도 현장 간부의

입장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지도력 붕괴의 원인은 내부 합의의 소멸에 있음. 지금까지 금속노조의 지도력은 일정한 내부 합의에 기초해 있었고 그 내부 합의가 소위 ‘산별정신’이라는 형태로 간부·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음. 이를 현장에서는 ‘노조가 결정하면 한다’, ‘금속답게 집행한다’는 식으로 표현했음. 그러나 내부 합의가 사라지고,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간부층도 얇아지고, 조합원의 의식성도 약화하는 현상이 뒤따라오면서 내부 합의를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 토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음.



○ 늦출 수 없는 혁신

- 지도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력을 검증하려면 산별다운 투쟁과 교섭이 가능해야 함. 산별다운 투쟁과 교섭이 가능하려면 간부 활동가의 층이 두터워지고 이들이 실력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어야 함. 간부의 실력과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산별교육체계의 일대 전진이 필요함. 이어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노조의 각종 체계와 제도,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함. 이런 혁신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활력을 회복해야 함. 조직 전체가 활력을 갖추기 위해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조합원 수의 증대가 아니라 조직화 과정과 결과를 통한 노동운동의 재 활성화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문화를 길러야 함. 이런 혁신을 만들어야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금속노조의 힘을 만들 수 있음.
- 당장은 조직화 과제, 간부 교육 체계 강화, 각종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산별노조다운 산별교섭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과제에 노조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

2

13기 1년차 사업 방향과 목표

1. 2024년 사업 핵심 기초

- 윤석열 정권의 노동유연화를 막는 사회 투쟁 전선을 만든다
- 저항의 성벽인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킨다
-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 조직하고 혁신하는 산별노조를 만든다

○ 윤석열 정권의 노동유연화를 막는 사회 투쟁 전선을 만든다

-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대정부 투쟁 조직
-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는 강고한 투쟁 전선을 구축
-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합의에 따라 총선투쟁 전개, 진보정치 지원

○ 저항의 성벽인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킨다

- 회계공시 강제, 전임자 축소를 거부하고 노조무력화 공세를 저지
- 현장의 분노를 만들어 진 조합원이 벌이는 사수 투쟁을 조직

○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겨냥한 투쟁으로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요구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을 압박하는 산별노조의 투쟁을 전개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민주노조를 지키는 노동법 제정·개정 투쟁
- 산업전환 시기 노동의 미래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

○ 조직하고 혁신하는 산별노조를 만든다

- 제조업 노조의 대표성을 사수하는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
- 노동조합의 체계를 정비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조직 혁신
- 간부 대오를 육성하는 교육연수원 체계의 확립과 안정화

2. 2024년 금속노조 투쟁 중심 구호

- 2024년 총선 정치투쟁, 임금단체협상 투쟁, 노동법 투쟁을 관통할 금속노조 투쟁의 중심 구호

윤석열 날리고, 노동자 살리고

너나없는 투쟁으로, 금속답게 승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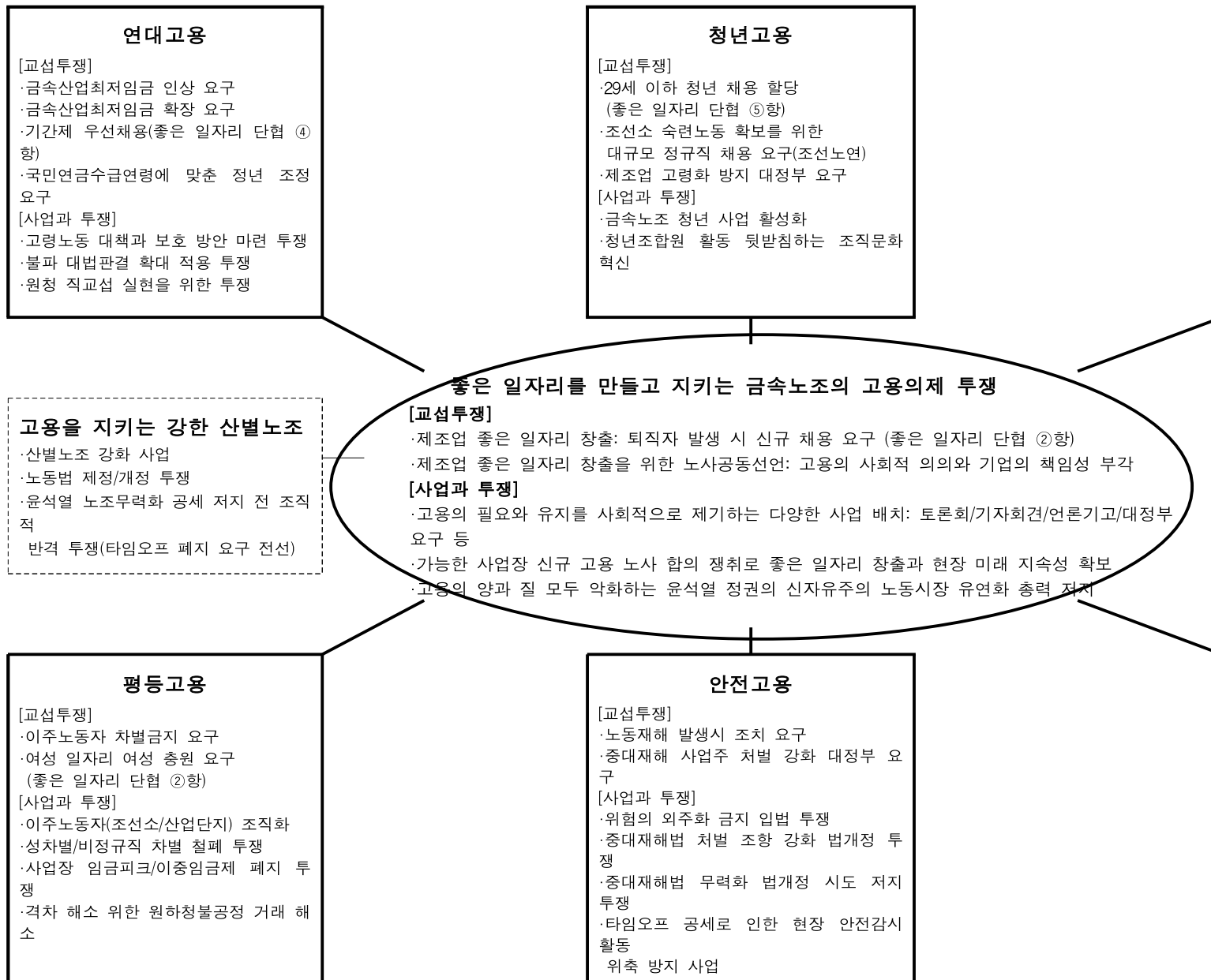
3 4대 핵심투쟁 – 3대 중점 사업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권리 4대 핵심 투쟁	○ 불평등 해소와 제조업 미래를 위한 고용 의제 투쟁
	○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는 대중 투쟁
	○ 파업의 자유·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노동법 쟁취 투쟁
	○ 기후위기 시대 산업생태계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
금속노조 미래를 다지는 3대 중점 사업	○ 금속노조 체계 혁신 (전 조직 토론을 통한 제도의 정비)
	○ 모든 지부·지회가 만드는 조직 확대 – 공세적 조직화 사업
	○ 산별의식 키우는 교육체계와 교육연수원 뿌리 내리기

1.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권리! 4대 핵심 투쟁

1) 불평등 해소와 제조업 미래 위한 고용 의제 투쟁

- 취약 사업장의 조합원 고용이 지켜지는 **고용 사수 투쟁의 태세**를 든든하게 갖추는 것을 전제로, 고용의 사회 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임단협 요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의제(녹색고용/전환고용/연대고용/평등고용/청년고용/안전고용)를 연결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는 종합적인 투쟁**을 설계함.
- 경제위기와 정권의 반노동 공세 과정에서 비켜선 자본을 다시 무대 위로 올리고 이들의 임무와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 함.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제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영역의 고용 의제를 각급 단위 임금단체협상 투쟁/대정부 투쟁/총선 투쟁 시기에 제기함.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는 사회 투쟁을 전개해 산별노조의 존재의의를 노조 밖의 대중에게도 알림.
- 구체적으로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자본에 확약받는 다양한 요구를 사업장 단체협약 안에 제도화하여 남기는 투쟁을 중심으로, 고용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선언을 중앙교섭요구로 제시하고 쟁취함. 이를 중심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영역과 산업전환, 녹색 일자리, 안전,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금속노조의 각종 사업과 투쟁을 서로 연결하여 진행함.



● 고용 의제 투쟁의 단계별 기대효과

1	고용의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 책임을 확인, 고용 확대 제도 근거 마련	2024년 전 조직적 과제
2	실제 신규 고용을 창출	2024년 가능한 사업장 투쟁 과제
3	고용 확대를 통한 제조업의 미래 확보	장기 과제 ↓
4	늘어난 일자리를 이용한 노동시간 단축	
5	낮은 실업과 소비력 증대로 국민경제 선순환	

2)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는 대중 투쟁

○ 노동시장 유연화에 저항하는 대중 투쟁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의해 노동시간 연장, 변형근로 강화, 파견법 개정, 최저임금 차등화와 같은 노동개악이 시도될 때 시기와 상관 없이 금속노조가 이를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세로 규정하고 조합원의 투쟁 동력을 집중할 것을 결의.
- 중대한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대해 노조가 정치 파업을 결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비하는 조직의 긴장을 유지하도록 함.

○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선도적인 노조할 권리 제기 투쟁

- 노사 자율 원칙을 파괴하고 밀어붙이는 노동부의 전임자 관련 시정지시와 부당한 회계공시를 폐기하는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켜야 함.
- 금속노조는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체의 노동개악 시도와 행정 절차를 빙자한 정부의 노조 무력화 공세를 거부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적극 대응함.
-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정(타임오프 폐지)을 선언하는 2024년도 임단협 제도개선 노사 공동요구를 전 조직이 일제히 제기하고 모두 쟁취하여 윤석열의 노조무력화 공세에 대한 집단적 승리를 만들.

3) 파업의 자유·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노동법 쟁취 투쟁

○ 산별교섭 제도화로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하는 격차 해소 제기, 산업정책 개입 발판 마련

- 산별노조에게 있어서 불평등·양극화를 줄이는 격차 해소와 산업정책 개입, 취약노동자 보호의 무기로 산별교섭의 의의를 전 조직적으로 다시 인식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복하는 산업별 노사관계의 확립 필요성을 사회에 전파하고 법제도화의 가능성을 최대한 밀어붙이는 투쟁.
- 산별교섭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산별노조에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제안.
- 산별교섭을 중심에 놓은 산업별 노사관계의 정립을 총선 의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함.
-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안에 노동조합과 의원이 함께하는 산별교섭 연구모임을 꾸리고 법제화를 추진함.
- 토론회, 기획보도, 이벤트를 통해 산별교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높이는 기획

사업 실시.

○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재점화

-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법안(노란봉투법)의 문제를 되짚고 개정운동본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설계를 제안. 새로 설계한 개정안 법안을 가지고 총선 의제화. 각 정당에 정책 질의하고 동의하는 세력과 정책협약 체결함.
- 총선 이후 우호적 정치세력과 강화된 새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압박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함.
- 법안 처리 과정과 연동해 24년도 임단투 고양의 시기 조합원 동원 집회 투쟁과 시기 집중 파업의 의제로 연결함. 법안 상정이 늦어진 경우에는 조합원 교육과 확대간부, 지회장 결의토론을 연속해 하반기 투쟁 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대응토록 함.

○ 타임오프 폐지, 노사관계 자율성 확보

- 전임자 문제를 노조 공격의 무기와 기회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 선전과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로 저지하고 이를 넘어 타임오프 자체에 대한 법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함.
-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전임자 문제가 노사 양자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임을 확인함.
- 타임오프 문제가 상근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의 활동력과 생명에 직접 맞닿아 있음을 현장에 인식시키고 조합원이 투쟁의 동력이 되도록 교육, 선전 사업을 집중함.

○ 연내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위헌 소송 결정 요구, 복수노조 교섭권 확보 투쟁

- 헌법재판소에 장기 계류 중인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심판의 연내 결정을 강제하는 다양한 압박 투쟁 실시함. 국회 토론회, 기고, 공동집회 열고 기업별 체계의 노조법과 복수노조 제도의 모순과 충돌을 집중적으로 사회 조명함.
- 상반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노조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사업장 공동실천 논의와 병행해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조직진단사업 노동연구원과 진행, 복수노조 사업장 권역별 수련회 등 복수노조 조직강화 사업 지원함.

○ 방위산업 노동자 온전한 노동권 보장 노조법 개정

- 방산 노동자 쟁의권 빼앗은 노조법 41조 2항 삭제 추진. 총선 직후 개정안 제출과 법안 통과 위한 다양한 기획 배치.
- 국회 사업과 병행하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 후 3년 도래 시점인 6월 이후에는 거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무책임 규탄과 결정 압박 투쟁 전개.
- 금속노조 방산사업장 연대를 상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기계항공 업종 단위 설치를 추진함.

4) 기후위기 시대 산업생태계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

-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요구안 완성차·부품사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쟁취해 원하청 관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투자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함.

- 교섭 투쟁에 병행하여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담은 대정부 요구와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
- 총선 시기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 산업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자리 잡도록 다양한 정책 홍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함.
-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조합원 교육과 이해를 확대하고 관련한 사회 투쟁에 노조의 각급 단위가 적극 결합하고 연대함.

2. 금속노조 미래를 다지는 3대 중점 사업

1) 금속노조 체계 혁신 (전 조직 토론을 통한 제도의 정비)

○ 조직혁신 과제에 대한 전 조직 토론과 합의, 제도의 정비

- 금속노조는 조직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체계와 질서를 20년 가까이 유지하는 것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그러나 과거 경험을 되짚어 보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조합-지부 임원·사무처 전체 수련회(3월)를 통해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금속노조의 주요 혁신과제에 대해 조합 상집, 중집의 기본 토론을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 지회 운영위원회 및 확대간부(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토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 수준이 높은 혁신과제부터 조직적 결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하고, 제도를 정비함.
- 전 조직적 토론과 병행하여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방안과 장단점을 정리하여 기관지 금속노동자(온라인 신문/인쇄지)를 통해 기본 발표하고, 자료집 묶음, 순회토론회, 유튜브 해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조합원이 쟁점을 인지하고 의견 개진에 참여토록 함.

○ 금속노조 강령 교육, 토론

- 금속노조 강령 교육, 토론을 통해 강령 정신을 전 조직적으로 재인식하여 조합원의 산별의식을 높이고 각 단위별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결의함. 토론 과정에서 강령의 개정 및 현대화 필요성이 공유될 경우 후속 개정 사업을 추진함.

○ 산별교섭 진단 및 2025년 교섭의제 연구

- 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산별교섭 진단 및 2025년 교섭의제 연구의 결과물을 만들고, 금속노조 현재 산별교섭 체계와 의제 혁신의 방향에 대한 전 조직적 토론을 통해 조직적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를 만듦.

○ 주요 혁신과제 선정 및 토론

- 위 과제 외에도 사전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조합-지부 임원·사무처 전체 수련회(3월)에서 추가적인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 정돈하여 전 조직적 토론과 합의를 추진함.

2) 모든 지부·지회가 만드는 조직 확대 - 공세적 조직화 사업

○ 공세적인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활력을

-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담당자나 사업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조합과 모든 지부, 모든 지회, 즉 전

조직이 동참하여 이루는 노조 사업의 중심 기둥으로 끌어 올림.

- 조직화 사업의 목표를 조직의 양적 성장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계급 단결의 확장과 ▲조직화 과정과 결과를 통해 금속노조가 새로운 활력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설정.
-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조선소 이주노동자를 중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부와 함께 정기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연대사업을 확장함.

○ 현장이 함께하는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준비

- 2기 전략조직화 사업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금속노조의 산업 대표성이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제조 산업 영역에 대한 조합의 교두보 확보와, ▲제조업의 중요 기반인 공단/산단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조할 권리 확대 사업, 정책의제 개입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여 노조의 계급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함.
- 3기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에 미조직 사업 체계만이 아니라 전 조직, 전 조합원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함. 이후 마련된 3기 계획의 집행에 철저를 기함.

3) 산별의식 키우는 교육체계와 교육연수원 뿌리 내리기

○ 교육연수원 운영 안정화 및 단계적 로드맵 마련

- 교육연수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사업 활성화 등 사업 다각화
- 연수원의 운영팀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산별의식 주춧돌, 교육연수원 뿌리 내리기

- 교육연수원 체계를 자리 잡기 위한 연수원장 및 연수원 전담 인력 확보
- 일상교육 및 연수원 교육 체계 수립과 간부, 조합원 의무교육제 도입 등 제도 마련
- 연수원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한 청소년 사업 활성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 금속노조 간부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화

- 산별노조를 이끌어 갈 지도자과정, 간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
- 교육 강사단 및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구성으로 교육의 질 확보
- 강사단 역량강화 시스템 마련으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금속노조 강사단 풀 확보

○ 노동교육운동 활성화 및 미래세대 교육 전망 마련

- 간부 조합원들의 계급의식 및 산별의식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침교육을 넘어 “노동교육 운동” 추진
- 노동교육의 혁신과 발전 전망 마련을 위한 노동교육단체 포럼 등 노동교육운동의 방향 제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

영역별 주요 사업과 투쟁

1. 구조조정 대응 투쟁

- 구조조정 단계별 현장 대응지침 준비 및 교육
- 외투자본, 사모펀드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흑자 구조조정 예방책 마련
- 한계기업에 대한 사회 지원책 마련 요구 언론사업과 학술 활동 전개
- 경영승계와 이윤 강탈,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 규제 대책 마련
- 총선 이후 진보정당 의원과 구조조정 대비·예방 입법 활동 추진

2. 사내하청노동운동의 두 번째 시대 준비

- 불법파견 승소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대기발령 등 사측 전략에 대한 대비책과 투쟁
- 하청노동자 원청 직교섭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획 사업 마련
-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 태세 구축과 조속한 연대 전선 형성

3. 반전평화와 국제연대

- 전쟁 반대와 빠른 종전을 위한 국제 노동조직의 활동에 동참
- 한국 기업 현지 공장의 노조결성 위한 지원과 국내 자본 압박 투쟁
- 동아시아 금속/제조 산업 노동조합과 연대교류 확대
-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대중적인 자주통일운동 전개

4.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총선 투쟁

- 정치교육 강사단 구성하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중심 노동자 정치세력화 교안 연구
- 조합원 정치 무관심 극복을 위한 전 지회 정치교육 추진
- 민주노총 총선방침 실현을 위한 진보정당연합 지원
- 1조합원 1진보정당 가입운동 독려
- 22대 총선 시기 금속노조 후보 지원을 중심으로 한 실천단 사업

5 2024년 산별교섭 방침

1. 교섭 목표와 기초

1) 목표

-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 및 노동개악 저지
- 고용에 대한 금속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대한 산별노조 대응력 강화
- 전환기에 조응하는 산별 노사관계 구축
-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

2) 기초

- 정부의 노조 탄압 대응을 임단투 전선 강화의 핵심 전술 기초로 삼는 가운데
- 산별교섭 요구에 조응한 대정부·대국회 요구를 총선 국면과 연동해 제기해
- 산별교섭 의제에 대한 조직 내 집중성 제고와 사회적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 2024년 임단투에서 내용적 승리와 조직적 성과를 동시에 쟁취함.

2. 요구 방침

- ① 통일이구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교섭 등 모든 교섭단위 요구에 반드시 포함한다.
- ② 중앙교섭요구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요구는 중앙교섭에서 다루며,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와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는 중앙교섭 불참 단위 교섭 요구에도 반드시 포함한다.
 - ✓ 임협만 진행하는 단위도 포함
- ③ 사업장공동요구(필수)는 미쟁취 사업장 중 단협갱신이 있는 사업장 교섭에 반드시 포함한다.
- ④ 임금인상 요구 시 조합이 정한 요구액을 하향할 수 없다.
- ⑤ 교섭단위별 요구안은 조합 승인 절차를 거쳐 노조 지침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일괄 발송한다.
 - ✓ 중앙교섭 요구는 조합 대의원대회, 지부 요구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 사업장 요구는 지부가 심의해 조합에 보고.
 - ✓ 요구 지침에 따라 중앙교섭·지부교섭·사업장보충교섭 요구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 발송. 사업장보충교섭 요구안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이후 추가 발송.
 - ✓ 조기교섭 돌입에 따라 사업장 요구안을 선 발송한 단위는 조합 요구안 확정 즉시 추가 발송.

3. 산별교섭 요구안

구분	요구안	
통일요구	· 좋은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중앙교섭요구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 금속산업 최저임금	
지부집단교섭요구	· 임금인상	
	· 기타 지부별 현안 요구	
사업장공동요구	필수	· 노동재해 발생 시 조치
		· 부당해고 확정 시 대기발령 금지
		·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 산업전환협약
		·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권고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정 압박 대응
		· 연장 노동 시간 관련 대법원 판례 대응
		·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 조합원 범위 확장
완성차·부품사 공동요구	필수	·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1) 통일요구

(1) 좋은 일자리 창출

현행	개정
제41조 【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제41조 【신규채용】 ① 회사와 조합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 ② 회사는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은 신규 채용한다. 이때 여성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은 여성으로 충원한다. ③ 노사는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장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직무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회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신설한 직무를 수행할 노동자를 신규 채용한다. 기존 노동자가 탄소배출 저감 등 직무로 전환하는 경우 빈 자리를 충원한다. ④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⑤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채용인원과 회사의 노동자 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해설>

○ 악화되는 고용의 질, 축소되는 제조업

- **(전반적 고용은 양호)** 고용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3년 고용률(15세 이상 62.6%), 경제활동참가율(64.3%)이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2.7%)이 역대 최저라고 발표. 고용률 착시를 유발하던 취업자수도 점차 회복해 전반적으로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는 중.
- **(청년 고용의 질 악화)** 한편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지난 10년간(2013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34만 6천명에서 56만 5천명으로 21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5년간(2018~2022) 청년 피보험자가입자수가 음료점.카페(3만 4천명)와 음식점(2만 9천명) 등에서 증가. 이들 일자리는 통상 비근속 일자리로 분류되는데 이는 청년들이 장기근속이 가능한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숙련 형성이나 경력 개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임.
- **(제조업 고용 악화)** 반면 전반적인 취업자수 증가의 흐름 속에서도 장기근속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0월까지 평균 전년 동기대비 5만 1천명 감소하였고 그 감소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1분기 3.7만, 2분기 4.9만, 3분기 5.9만 감소) 이는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한데, 1월에서 10월까지 20대 청년의 취업자수가 8만 9천명 감소했는데 이 중 제조업에서 3만 명이 감소함. 2023년 상반기 다양한 형태의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끼친 악영향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제조업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달려온 탓.

○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한 방어적 정책을 구사해 왔다고 평가됨. 그러나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등에 따른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주요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고용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장시간 노동, 고임금 추구, 전환배치 제한, 비정규직의 활용 방임, 교육훈련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역설적으로 고용불안의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 그에 따라 기존 취업자의 특정기업 내 고용유지에 집중된 고용정책을 넘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장기적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

○ 조항별 상세 해설

- **(①항 고용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양적 확대, 고용의 질적 제고, 고용안정성 강화를 모두 포함함. 기존의 산별협약이 언급하는 ‘고용안정’은 이를 축소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좋은 일자리로 포괄하여 개정함
고용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임에 더하여 저성장기 고용을 둘러싼 갈등의 격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조합 내 요구 수용성을 높임.
- **(②항 퇴직자 신규 채용)** 고용확대가 불가능한 사업장(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장, 추가 지 불능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확대보다 고용유지가 더 절박한 점을 고려해 자연감소 인원 충원을 요구함.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의 신규채용은 2010년 중앙교섭 요구이기도 함. 여성 퇴직으로 감소한 인원은 여성으로 충원함. 부서 구별이 불명확하고 특정 부서의 성역할이 고정될 위험이 있어 ‘50% 미만인 부서’등의 조건을 부가하지 않고 총원 기준으로 요구안을 설계함.

참고 : 2010년 중앙교섭 요구

제41조 【신규채용】

회사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1.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은 반드시 신규채용한다.
2. 회사는 3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09년 당기순이익의 증가 비율만큼 신규채용한다.
3. 신규채용 확대 시 비정규직(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 비정규직(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 신규채용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한다.

- 현재 금속노조 단위 사업장들 중에 일부는 적정인력 확보'를 표제로 한 협약조항을 이미 가지고 있음. 이들 협약조항들의 내용과 수준은 상당히 달라 지금 제출된 요구안보다 상회하는 협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부터 '노력의무' 수준의 낮은 협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점차 통일해 나가야 함. 높은 수준의 협약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실제로는 자연감소 인원이 제때 충원되도록 관철시켜내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음.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임에 비추어 이를 현실화시켜 낼 필요가 있음.
- 한편 신규채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2024년 1회성의 요구로 기능할 우려가 있는 채용규모에 대한 목표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고, 요구방침의 혼란과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 통일요구로 모든 교섭단위가 생취하도록 하고 규모별 요구방침의 차이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함. 다만 사업장 또는 업종의 특수성에 비추어 추가/초과 요구는 가능.
- (③항 녹색/기후 일자리 창출) 고용의 유지/확대는 기후위기, 산업전환기 고용불안, 생산인구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출산률 급감, 육아기 경력단절, 연금공백, 안전보건상의 위해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됨.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의 확대/유지를 요구해 옴(예: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산업전환협약). 그렇지만 사업장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용 요구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기후 일자리는 사업장의 규모, 전력조달 방식, 생산물의 특성, 필요 공정 등 구체적인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꼭 집어 특정하기 어려움. 현재의 금속노조 수준에서는 먼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폐기물을 줄이고 사업장에 공급되는 전력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급선무. 그래서 금속노조 통일요구로 실제 사업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산물과 생산공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를 노사가 조사·발굴하고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전환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생산물과 생산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높여 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예시가 될 수 있음.

공동결정 영역

- (전략·기획) 저탄소 생산을 위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방안을 기획하는 업무
- (법규준수)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업무 (환경법규 준수 평가표 등)
- (환경오염 사고 예방)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고 시 비상대응절차를 마련 업무

생산물 전환 영역

- (기술투자·친환경설계) 제품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해 R&D투자, 기술 확보를 하는 업무, 제품 설계 시 수송-사용-폐기단계 등 제품의 전 과정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개발 업무
- (인증 취득)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ISO 14001, ISO 50001, GMS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제품/기술에 대한 친환경인증(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인증, 녹색기술, 환경신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오염 관리 영역

- (오염물질 관리) 오염물질(대기, 수질 등) 배출량을 파악·관리하는 업무, 오염물질 저감 프로그램을 구축·실행하는 업무
- (폐기물·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매립/소각/재활용 등), 폐기물 저감 프로그램 구축·실행, 재활용 촉진 등의 업무

탄소배출 저감 영역

- (온실가스) 온실가스관리(직접/간접 배출량 산정, 관리, 보고)와 감축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
-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를 사용(구매·생산)하기 위한 업무
- (에너지절감) 에너지 사용량 관리·절감 활동(고효율설비,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하는 업무
- (자재·자원 관리) 자재 사용량 관리·절감(재생소재 사용 등) 업무, 사업장 내 용수사용량 관리·절감(재이용 등) 업무

- 이후 조합에서는 대의원대회 이후 해설안을 통해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무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⑩항 청년채용 할당) ‘인력’은 인격있는 노동자를 노동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노동력’으로 격하시키는 표현이어서 이를 개정함.

(2)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이 요청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공동으로 요구한다.

<해설>

- (타임오프 시정 압박 현황)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사업장 5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시. 9월 3일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사업장이 63곳이라고 발표. 향후 계획으로 위반 의심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시작으로 상시적인 점검/감독 체계 구축을 공표함. 현재 금속노조 소속 단위 조직 40여 곳에서 노사 간 타임오프 관련 현안이 발생. 이 가운데 30여 곳은 노동부 시정지시가 직접적 원인이 됨. 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근로시간면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올해 기획근로감독을 자동차·조선·철강업종과 1천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 밝힘. 이는 금속노조를 정조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시정지시를 하겠다는 의미.** 물론 노동지청별 온도 차이, 사업장별 노사 힘 관계 등에 따라 공격이 현실화되는 시점과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분명한 건 많은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할 수단과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노조의 힘이 약한 곳부터 조합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크다는 점임.
- (타임오프 공격 양태와 정부의 의도) 현재 공격은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이나 유급 활동 시간을 법 기준에 맞추라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근로시간면제자가 과업 집회 참여한 것을 두고 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징계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단협이나 관행에 따른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 유급 보장도 다양하게 문제 삼고 있음. 아울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지 않고 시정지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정 기간을 조금씩 연장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특징. 과거 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단협을 문제 삼을 때와는 다른 태도임. 이는 정부가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당장 넘어가길 바라지 않기 때문임. 즉, 정부는 타임오프 문제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처벌하거나 단협을 시정하는 일 따위에 관심 있는 게 아님. 타임오프라는 무기를 사용자가 사용하게끔 만들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의도.

- (대응 방안) 여러 단체협약 요구와 법률, 판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협약을 통한 방어는 쉽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법과 그 해석이 완고하여 협약 자치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임. 예를 들면 교섭기간 교섭위원의 유급 전임 보장처럼 단협과 관행으로 보장받아 왔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조합활동도 판례상 문제 될 수 있음. 결국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투쟁이 필요함. 그런데 실질적 방어는 사업장별로 하고, 중앙은 공중전만 하는 예년 수준의 대응으로는 방어도 쉽지 않고 법개정도 어려움. 임단투와 대정부·대국회 투쟁 전선의 일치성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산별노조다운 대응 투쟁이 필요한 정세. 이에 위와 같이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노사가 함께 정부에 요구하자’는 내용을 대자본 통일요구로 설정하는 가운데, 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임단투 전선을 전 조직적으로 구축해 “금속산업을 멈출 거냐, 공격을 중단할 거냐”는 질문을 정부와 자본에게 던지고자 함. 아울러 이 요구를 규모 있게 쟁취함으로써 타임오프 폐기를 위한 사회적 여론화와 국회 압박, 대정부 투쟁의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고자 함. 한편, 위 요구 쟁취 후 각 단위에서 별도의 노사 공동 요구 문구를 만들지는 않으며, 조합이 합의 사업장을 열거하는 가운데 위 문구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함.

2) 중앙교섭 요구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탈탄소 전환,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 변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제기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노사는 금속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한다.

노사는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이 축소되는 부문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필요한 직무를 함께 조사·발굴해 고용 확대에 이여지도록 하되, 양질의 청년·고령·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는 정책협의를 통해 양질의 국내 일자리 확충을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노사관계정책 대정부 요구를 마련하며, 연내 정부에 제출한다.

<해설>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며 전세계적 수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 한중일, EU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장기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저성장은 복지국가적 사회 안전망, 확장 재정을 통한 재분배 등 사회적 갈등의 완충 여력을 줄여 불평등을 심화시킴.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이 마치 노동시장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음.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원인이 근본적으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것이라

는 사실을 은폐.

- 그러나 노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표현이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을 무시해서
는 안 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복합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과 별개로 노동운동은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진짜 대안으로 산별교섭의 실현을 통한 집단적 임금 조정,
조직화 등을 통한 협약 적용률의 확대, 하청의 원청에 대한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제기해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 극단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고
용 안정성이 격차 축소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한편 조직된 노동자들의 관심은 고용의 확대보다는 유지에 집중해 왔던 것이 사실임. 이는 신자유주
의적 고용유연화 기조, 일상화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합원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고
용 유지에 비해 고용 확대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이기도 함. 그러나 이는 노
동자 계급 전체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해결책이 되지 않음.
- 이에 금속노조는 단순히 고용의 현상적 유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
는 종합적인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조직
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사회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런 문제인식에 따라 2024년 조합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계급적 요구로서 고용을 매개로 한 불
평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노사 공동선언으로 끌어내어 정부에 요구하고자 함. 기후위기와 기
술변화로 인한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력의 성패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될 것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조
직 노동자들의 이익까지 포괄하는 금속노조의 사회적 실천의 일환임.

(2)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현행	개정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 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 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3조 【임금차별 해소】 ① (항 신설, 내용 동일) ② 회사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을 차 별하지 않는다.
제6장 비정규직 관련 제47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 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 는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이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 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 독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 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	제6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관련 제47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이주노동자를 포함하 다. 이하 동조에서 같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
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신설)	제50조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취업규칙 제·개정, 근로계약서 체결, 임금명세서 발급 등의 경우에 자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숙소·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설>

- 금속산업협약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합활동과 고용보장에 이미 이주노동자 보호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필요최소한에 그친 것.
-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이주노동자에 의한 노동조건 덤핑 방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금속산업협약의 [비정규직 관련] 장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관련] 장으로 변경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금속노조의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함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판단임.
- 직접고용된 이주노동자와 간접고용된 이주노동자에 대해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직접고용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협 또는 취업규칙 상의 차별, 특히 임금과 휴가의 차별이 문제되는 반면, 간접고용된 이주노동자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차별과 중첩되어 나타남. 이에 우선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

(3) 금속산업 최저임금

현행	개정안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0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해설>

(가) 목표와 방향

- (안정성-연대성) 저임금 금속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 격차 해소
- (조직확대) 미조직 금속산업 노동자 조직화 및 금속노조 영향력 확대
- (산별임금체계) 금속노조 산별임금체계 진전

(나) 요구안 취지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보다 높아야 함. 그렇지 못한 경우 산업 내 임금 격차 해소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 금속노조는 2023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의 결과와 2023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 만회분을 참고해 2024년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250,770원으로 산정하였음. 현재의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급 2,253,220원 이상이므로 여기에 고정급 최저인상분을 더해 요구 수준을 확정함.

$$\begin{array}{ccc} \begin{array}{c} 2024년 \\ \text{금속산업최저임} \\ \text{금} \end{array} & & \begin{array}{c} 2024년 \text{ 금속노조} \\ \text{고정급 인상요구} \end{array} \\ 2,253,220\text{원} & + & 250,770\text{원} \\ \hline & & 226\text{시간} \\ & & \text{금속산업최저임금} \\ & & \text{기준시간} \end{array} = \boxed{11,080\text{원}}$$

- 이상의 논의에 따라 금속노조는 2023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4,080원(=11,080원×226시간) 중 높은 금액으로 요구함. 이는 통상시급 기준 1,110원을 인상하는 요구이며, 2023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 수준(고정급 기준 250,770원 인상)과 동일한 것임.

3) 지부집단교섭 요구

(1) 임금인상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59,8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해설>

(가) 임금인상 요구의 목표

- 생활임금 확보 :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임금을 해소한다
- 연대임금 원칙 : 노동자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금속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토대를 마련한다
- 분배구조 개선 : 자본에 치우친 노동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한다

(나) 임금인상 요구의 방향

- (고려사항) 금속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 첫째 2023년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의 결과와 2023년 금속노조 임금인상 결과를 기초로 △ 둘째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하락 만회분을 참고.
- (요구안 마련의 기준)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성안하는 것이

타당. 금속노조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인상 요구와 합의의 기준을 고정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 중. 기존의 기본급 기준의 임금인상 요구 정책은 기본급에 따라 연동하는 고정상여금이나 정률수당의 있고 없음, 크고 작음의 차이로 인해 기본급 인상액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임금인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한계를 드러냄.

-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 고정급 중심의 임금정책은 첫째, 기본급과 달리 상여금 지급률이나 정률수당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고정급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 사업장 간 임금격차 해소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기본급에 비해 임금인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쉬워 임금인상 수준 비교가 보다 용이해짐. 이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근거와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셋째, 고정급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될 경우 이 통일성을 바탕으로 산별임금교섭과 산별임금체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요구기준)** 다만 기본급으로부터 다른 임금항목이 계산되는 대다수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당장 요구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편으로 각 사업장에서 고정적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점차 기본급으로 통합해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변동급을 점차 고정급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사업장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금속노조 임금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

(다)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

- **(2023년 고정급 추정)** 2023년에 실시한 금속노조 임금수준 실태조사 결과 (152개 사업장 90,434명 참여) 사업장의 월 고정급 평균은 4,375,787원임. 한편 2023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고정급 인상분은 126,003원¹³⁾. 따라서 2023년 고정급은 4,501,790원으로 추산.

$$\begin{array}{ccccc}
 \boxed{4,375,787\text{원}} & + & \boxed{126,003\text{원}} & = & \boxed{4,501,790\text{원}} \\
 \text{2022년 고정급} & & \text{고정급 인상분} & & \text{2023년 고정급} \\
 \uparrow & & \uparrow & & \\
 \text{2023년 임금실태조사} & & \text{2023년 임금교섭 결과} & &
 \end{array}$$

-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전망)**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율로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국민소득 전체가 커졌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전체 소득 중 임금 소득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 물가상승률은 물가지수의 연간 증가율로 노동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생계비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됨.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20%¹⁴⁾, 2024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2.65%¹⁵⁾이므로 4.85%보다 임금인상률이 더 커야 함.
- **(2023년 실질임금 하락)** 지난 2023년 물가상승률은 실제 3.6%인 반면 2023년 금속노조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88%¹⁶⁾에 그쳐 실질임금이 0.72%p만큼 하락.
- **(2024년 임금인상 요구 근거)** 이에 고정급을 기준으로 2024년 5.57%(경제성장률 2.20% + 2024년 물가상승률 2.65% + 2023년 실질임금 하락 만회분 0.72%p)의 임금 인상률 달성이 필요함. 이 고정급 인상분이 '기본급 인상분'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 인상분'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고

13) 2022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제외한 월 기본급 인상액 평균은 80,277원. (2023년 임금교섭 타결단위 전수조사) 기본급 인상 시 고정급 인상 효과는 156.96%. (2022년 임금실태조사) 이에 따라 2023년 교섭에 따른 고정급 인상액은 80,277원 × 1.5696 = 126,003원으로 추산.

14) 2.1% (한국은행, 2023.11. 경제전망보고서), 2.3% (OECD, 2023.11. Economic Outlook)

15) 2.6% (한국은행, 2023.11. 경제전망보고서), 2.7% (OECD, 2023.11. Economic Outlook)

16) $\frac{4,501,790\text{원} - 4,375,787\text{원}}{4,375,787\text{원}} \times 100$

정급 인상분 250,770원을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의 비율인 1.5696¹⁷⁾으로 나눈 159,767원이 기본급 인상의 최저선이 됨. 여기에 십원단위를 올림해 기본급 159,800원 인상을 요구함.

4,501,790원	×	(	2.20 %	+	2.65 %	+	0.72%)	=	250,770원
2023년 고정급			2024년 경제성장률		2024년 물가상승률		2023년 실질임금하 락분		2024년 고정급 최저인상

250,770원	÷	1.5696	=	159,767원	≒	159,800 원
2024년 고정급 최저인상		기본급에 연동하는 고정급 비율		2024년 기본급 최저인상		기본급 인상 요구액

- (최저기준이라는 의미) 한편 임금인상 요구는 하향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사업장 조건에 따라 상향 가능함. 특히 상여금이 대폭 기본급화되어 상여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인 경우처럼 기본급 인상률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됨. 기본급 인상률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효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을 모두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의 고정급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데 반해 해당 수당이 큰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 이외에도 고정급 인상분 상당의 추가 인상 효과를 누리기 때문.
 - 정률 고정상여금이나 정률 수당이 작은 사업장은 많은 경우 조직력이 약하고 임금 총액이 작은 사업장이기도 해서 기본급 정액인상은 오히려 임금격차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음. 이런 상여금과 수당을 미리 선반영한 고정급 정액인상은 이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금속노조가 견지해 왔던 정액인상 방침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률인상을 지양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함. 따라서 정액인상 원칙도 실생활의 안정적 기초가 되는 고정급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의 임금구조에 부합하며,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 사업장은 요구액을 상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액 인상 방침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금속노조의 기본급 요구액만을 기준으로 삼기에 현실적으로 임금구조가 맞지 않은 사업장은 위 논리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함. 예를 들어 기본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 평균이 아닌, 해당 사업장 조합원의 평균 통상급·고정급의 5.57%를 계산해 이를 사업장 내 기본급 정액 인상 요구로 삼을 수 있을 것.

4) 사업장 공동요구(필수)

(1) 노동재해 발생 시 조치

17) 기본급 1만원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15,696원 인상 (2022년 임금실태조사)

【노동재해 발생시 조치】

- ① 회사는 노동재해 발생 시 조합에 즉시 통보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원인 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재해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그리고 무상해 사고도 포함한다.
- ② 회사는 3일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모든 노동재해 발생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사는 해당 노동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재해원인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 뒤, 노동조합과 합의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④ 회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를 위하여 노사 공동검토 및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 의견서(보험가입자 의견) 및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의견서(보험가입자 의견) 제출 요청시 노사공동 검토 및 합의를 거쳐 7일(토, 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다. 노동자나 유족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련 자료(근태자료, MSDS, 유해요인조사결과보고서 등)를 노동자 및 유족에게 모두 제공한다.
-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동재해 발생 현장 및 관련 부서의 노동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 ⑥ 회사는 산재신청시 재해자의 휴직기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금속산업최저임금 또는 각시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휴직과 동일한 기준 중에 선택하여 휴직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단, 직업환경 전문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업무관련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⑦ 회사는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노동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해설>

-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유지, 증진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노동자가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의 재해 인정 기준은 매우 협소하며 최종 승인까지도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됨. 신속한 산재보상은 공정한 산재보상의 전제이며 재해 노동자의 업무복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보상과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보상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함.
- 1항 (재해 현장 보존 및 노조 참여 원인조사) 노동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이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 또한 사고원인 조사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작업자를 포함한 노조가 참여할 때 가장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이에 금속노조는 사고 현장 보존의 원칙을 명시하여 현장 훼손시 사측 책임을 묻고, 원인 조사에 노조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항 (산재보상 처리 원칙) 현재 산재 보고대상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임.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과 보험료 상승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하려 하고 재해노동자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상처리에 합의하기도 함. 하지만 공상처리를 할 경우 정확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재해 노동자는 장애가 남아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발할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3일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법 처리를 원칙으로 명시해 산재 은폐라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노동자가 산재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3항 (산업재해조사표 노사합의 원칙) 사업주는 노동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해야 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 산업재해조사표는 향후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임. 따라서 공정한 산재보상을 위해 산업재해조사표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쳐 제출할 것을 요구함.

- **4항 (사업주의견서 제출의 노사합의 및 7일 이내 제출)** 현행 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는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이 규정을 악용해 사업주가 의견서 제출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산재 승인 결정에 임박해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산재승인을 가로막고 있음.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심의를 위해 사업주의견서는 반드시 7일(토, 일 제외) 이내에 노사 합의를 거쳐 제출해야 함.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재해조사표 작성을 위해 노동자와 유족이 요구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함.
- **5항 (산재 발생 시 노동자 의견 수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이윤을 위해 사업주 의견만을 듣고 충분한 안전대책은커녕 아직 유해·위험요인이 남아 있음에도 작업재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확한 원인조사와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후에야 작업이 재개되어야 함.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임. 이를 위해 회사는 재해 발생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와 관련 부서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게 협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확보하기 전에는 절대로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해야 함.
- **6항 (휴직급여의 신청)**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노동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생계비로 고통받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기다리기엔 기간이 너무 김. 이에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휴업 기간에 금속산업최저임금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상병휴직과 동일한 기준의 휴직급여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 **7항 (타 직종으로의 전환)**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 이외의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를 방치하면 2차 재해 발생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금과 처우에 불이익이 없게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키도록 요구함.

(2) 부당해고 확정 시 대기발령 금지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 징계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 또는 판결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징계, 해고 등을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처분하고 원직복귀시킨다.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노사 합의한 동종·유사직으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즉시 발령한다.**
2. 징계, 해고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받았어야 할 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행정소송제기, 상소제기 하더라도 7일 이내에 즉시 초심·재심결정 또는 원심 판결을 이행하여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확정된 노동자에게 “원직이 사라졌다”면 단체협약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우리 단협에 원직 복직과 관련한 내용은 부당해고, 전임 후 복귀 등의 사항이 해당하는데 이들은 △원직으로 복직 (모범단협안 부당해고) △유사직 발령 (산별협약 전임자의 처우) 등으로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음.
- 2024년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를 등에 업고 타임오프 등 사측의 공격이 강화될 것이 예상, 이에 복

직이 필요한 경우 유사직 발령을 모두 명시하여 대기발령 상태에 있지 않도록 조항들을 수정함. 또한 노사가 사전에 동종·유사직 업무가 무엇인지 합의해 놓고 그 중에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위 조항은 금속노조 모범단협안임. 모든 사업장은 사업장 단협에 위 문구 중 밑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시 반드시 요구함. 2, 3항은 사업장 조건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함.

(3) 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

【사업장 최저임금】

- ① 회사는 차기년도 최저임금(시급)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차기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시급)을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4) 산업전환협약

【산업전환대응】 또는 【산업전환협약】

- ①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 ④ 조합과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 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5)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확대간부 교육시간 보장】

- ① 회사는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조합간부(조합지부·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24시간)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2박3일의 유급교육시간은 조합이 자유롭게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 사용 시 교육 참가 대상 및 사용시간을 사전에 통보한다.

(6)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사용자단체 가입】

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의 중앙교섭(과 00지역지부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5) 사업장 공동요구(권고)

(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정 압박 대응

- 타임오프 관련 사업장에서 이하의 단체협약 요구를 검토한 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취사선택해 단체협약 요구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임.

요구안	취지 및 평가
【기존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확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지만 해석투쟁의 근거가 됨. - 저하 금지 대상 ‘조합활동 권리’를 법상 위법하지 않은 것만 포함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지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인정한다. 6. 단체교섭 참석, 사전 사후 회의 참석, 교섭 및 회의 준비, 교섭보고 업무 등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	- 교섭위원, 각종 노사공동위 위원 등 비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열거적으로 지정함.
【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 이미 지급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공제, 협의 전 지급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반환청구 등이 부당이득반환의 형식을 취함. - 포괄적으로 일체의 민사소송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돌파하기 어려움을 고려함.
【조합전임】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 최대치를 보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조합원수의 증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최대치가 상향되는 경우에도 조합의 통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최대치를 상향 보장한다.	- 현재의 침탈을 막는 용도가 되지는 않으나 이후 조합원 수를 늘렸을 때 즉각 최대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함
【조합전임】 조합은 조합원 중(전임자 포함)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여 명단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 전임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중에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함.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가 완전 별개의 성질로 해석되어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범위가 부당하게 빠지거나(파업 등) 비전임자의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범위에 부당하게 포함되는 경우, 해석싸움의 근거를

요구안	취지 및 평가
【전임자 처우】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	마련. -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거부하는 사업장에서 단협화합
【휴직자 처우】 회사는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과급 및 노사 합의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가 ‘금품을 수령한 자’를 모두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해석하여 이들의 조합활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전임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연장 노동시간 관련 대법원 판례 대응

【노동시간】 또는 【근무형태】 등의 조항에 삽입

1주간의 노동시간 중 노동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주의 합산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 대법원은 2023.12.07. 판결(선고 2020도 15393)에서 근로기준법에 ‘1주의 연장근로 12시간’만 제한이 있고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이 없기에 가산수당만 주면 1주에 총 52시간이 넘지 않는 선에서 극단적으로 하루 21.5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함
- 이를 현장에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21.5시간씩 이틀간 일을 시키고 나머지 요일에는 출근하지 않게 하여도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옴.

법원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단위 : 시간)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		12	11.5	14.5			11.5
연장근로시간		4	3.5	6.5			3.5
하급심 연장근로 계산	하루 연장근로시간 합산 17.5시간(연장근로 한도 초과)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	총근로시간 합계(49.5) - 법정근로시간(40) = 9.5시간						

자료: 법원 판결문

- 이는 교대업무를 하는 곳의 경우 극단적 형태의 변형적인 근무형태와 계절적·일시적 수요에 따라 매우 변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열어준 판결임
- 근기법의 취지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라는 취지에서 가산수당과 시간제한을 둔 것이지만 입법 취지에 역행해 형사처벌만을 염두하고 이러한 해석을 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
- 상당수 급속 사업장의 경우 근무제도와 교대제, 노동시간 변경 등에 대부분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도록 단협에서 방어하고 있겠으나 △노동시간단축에 역행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악용이 가능해 급속노조가 선제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

지가 있음. 이에 ‘권고’ 요구로 설정함.

- 한편 대법 판결 이후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하루 노동시간 연장 한도를 3시간으로 명시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법원 해석만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구안도 검토해 제시할 것을 권고함.

【노동시간】 또는 【근무형태】 등의 조항에 삽입

- ① 1일 노동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1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업주는 근무 종료로부터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조합원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직전 연도의 연말까지로 한다.

<해설>

- 한국사회 고령화-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60세 정년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넘어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음.
- OECD가 최근 ‘일본경제보고서’를 통해 일본에 정년 폐지 권고. 일본 인구구조 상 일본은 2025년 4월부터 △65세까지 정년을 올리거나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셋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음. 일본 기업의 84%는 임금 낮춰 재계약하는 계속고용 선택.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추이가 더 심각한데도 일본 수준의 정부 정책도 없는 상황.
-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정년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임금을 줄이는 대가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정년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을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함.
- 정년기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을 노동의 대안으로 모색. 아울러 단축 노동시간만큼 신규채용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아직 조직 내 토론이 충분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요구할 것을 권고함.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정년연장 방안은 2025년 교섭 의제 준비를 위한 조사사업과 조직 내 토론을 거쳐 내년 요구안으로 추진 모색.

(4) 조합원 범위 확장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의 범위】 등

조합원의 범위는 조합 규약, 지회 규칙(또는 지부 규정)에 따른다. (예시)

6) 완성차·부품사 공동요구(필수)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 ① 회사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관리·저감할 수 있는 체계를 (**시점)까지 구축해 연 1회 배출 실태와 저감 목표 및 계획을 조합에 공유한다.
- ② 노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의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해 보완한다. 단,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이 있는 계획은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③ 회사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급망 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합이 이에 대한 정책협의를 요청할 시 응해야 한다.
- ④ 회사는 공급망 내 협력사가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파악·관리·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되, 본 협약이 정한 내용이 담긴 노사 협약 체결 협력사를 우대한다.
- ⑤ 노사는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공동으로 요구한다.

<해설>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¹⁸))를 지난해 발효,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예정. 또한 2025년 말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¹⁹) 방법을 마련, 2026년 6월부터 제작용체가 온실가스 측정량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침’을 마련 중. 지난해 말 EU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며, 올 3월 최종 문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됨. 이 지침은 대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환기 자국 산업 보호 목적도 있음.
- 위와 같은 세계 무역 환경 변화는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 최하위권 기후위기 대응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음.
- 재벌대기업은 해외 생산 체계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 일정한 대응이 가능.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는 축소되며, 국내 중소기업 사업장은 기후위기 대응 비용 부담으로 실적이 더욱 악화돼 원하청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
- 한편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미 사업장뿐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23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협력사 탄소중립 가이드를 제정해 모든 협력사(하위 협력사 포함)에게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협력사 대상 각종 교육과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아울러 현대차는 협력사 대상 각종 자금지원 프로그램(△미래성장상생펀드 △미래성장동반펀드 △상생금형설비펀드 △상생협력기금 △2·3차 협력사 전용 대출 펀드)과 미래차 부품사업 전환 지원 정책(△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사업재편 파트너십 선정 및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이나 정보 공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이에 아래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공급사슬망에서 실현하되, 산별노조답게 △산별교섭으로 원청 대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제해 내면서 △이 과정이 산별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

18)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도입한 무역관세 제도. 모든 비EU 국가로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수소 수입 시 생산 전체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배출량과 감축 노력을 평가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

19) LCA(Life Cycle Assessment)란 제품의 환경 영향도를 판단할 때,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의 채취 단계부터 가공, 제조, 수송,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분석 및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

협력사 탄소감축 지원 활동

활동명	활동 내용	활동명	활동 내용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 대표자: 협력사 파트너십데이 개최,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 발표 - 임직원: 협력사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설·운영 (글로벌상생협력센터)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	- 부품 협력사 등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조사 - 협력사 탄소배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2023년 하반기)
협력사 탄소중립 협의체 운영	- 협력사 탄소중립 협의체 운영 (2022년 3월, 7월) - 현대자동차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 주요 이슈에 관한 의견 교환	협력사 감축목표 검토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감축계획 구체화 (기준 및 목표 설정) - 협력사 탄소저감 설비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컨설팅 등 사업 추진
협력사 탄소중립 이행 가이드 제공	- 협력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이행 가이드 제시 - 사내 대응체계 구축, 사업장·공급망·물류 등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정보공개 등		

현대자동차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 中
필요성을 고려해 완성차·부품사 공동요구로 설정하며, 추후 전 조직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모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음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한편, 중소 영세 부품사가 자력으로 탄소배출 파악·관리·저감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구축 시점을 열어둘 수 있도록 함.

4. 교섭방침

- ① 모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교섭권 위임과 대각선교섭의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기업 교섭단위(지부·지회)에 교섭권 위임 불가능함.
 - ✓ 지역지부에는 교섭권 위임이 가능함.
- ② 교섭 돌입은 중앙교섭 → 지부교섭 → 사업장교섭 순으로 하며, 교섭 돌입 시기를 최대한 일치시킨다.
 - ✓ 조기 교섭이 필요할 경우 조합의 승인을 득함.
 - ✓ 교섭 돌입이 늦어지는 단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집 중심으로 점검·지도함.
- ③ 모든 교섭단위는 통일요구를 교섭 내용의 최우선에 두도록 교섭을 진행한다.
 - ✓ 요구안 설명과 사측 제시안을 둘러싼 공방 시 반드시 조합이 정한 통일요구를 우선함.
- ④ 임금교섭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돌입한다.
- ⑤ 모든 조정신청은 위원장 명의로 하며 조합 지침에 따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 ✓ 불가피하게 조기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득함.(조기 교섭 승인 사업장은 조기조정 승인을 갈음함)
 - ✓ 조정신청이 늦어지는 단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집행위 중심으로 점검·지도
- ⑥ 교섭·투쟁의 조직적 질서와 집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섭 일정은 아래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다.
 - ✓ 중앙교섭(화), 지부교섭(목), 사업장교섭(금)

5. 교섭체계

- 중앙교섭단 : 조합 임원 및 상집간부 약간명과 지부장
- 지부교섭단 :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구성
- 각종 전국사업장 공동교섭 : 사업장 및 유관 지부 협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교섭단 확정
- 쟁의대책위원회 : 중앙집행위 성원

6. 타결 방침

1) 기본 방침

- 통일요구를 모두 원안 수준으로 쟁취하지 못하면 중앙교섭 합의 전 의견접근을 금지함.
 - ※ 통일요구를 원안 쟁취하면 조합 투쟁지침 복무 결의를 전제로 중집 승인 아래 선 의견접근 가능.

2) 타결 절차

- 중앙교섭 : 의견접근 → 중앙위 의견접근안 승인 →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
- 지부교섭 : 의견접근 → 지부교섭단(또는 운영위) 승인 → 중앙집행위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인
- 사업장교섭 : 의견접근 → 지부운영위 심의 → 조합에 심의 결과 보고 및 승인요청서 제출 → 위원장 승인 → 조합원 찬반투표 → 조합에 직인사용신청서 제출 → 조인
- ※ 모든 교섭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이 위원장 직인으로 조인.
- ※ 모든 지회(분회)는 교섭 조인 후 합의서 전문을 조합에 제출하고 임단협DB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3) 승인 기준

- 불승인 :
 - 통일요구 쟁취 없이 중앙교섭 전 의견접근
 - 중앙교섭보다 늦게 의견접근했지만 통일요구를 교섭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아 미쟁취
 - 기존 단협의 현저한 후퇴
 - 고정급 저하
 - 무분규에 따른 보상 내용이 포함
- 미승인 :
 - 중앙교섭 타결 후에도 통일요구 쟁취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쟁취
 - 단협 전문(금속노조) 미흡
 - 금속산별협약 제 6조(조합비 일괄공제) 미쟁취
- ※ 지부 운영위에서 불승인 심의 시 조합에 즉각 보고하며, 중집에서 최종 판단함. 불승인 사업장은 조인식을 할 수 없음(위원장 직인 사용 불가).
- ※ 지부 운영위에서 미승인 심의 시 조합에 보고, 위원장 검토 뒤 지부 운영위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찬반투표와 조인식 진행 가능.

- ※ 구조조정 사업장 및 노조파괴공작·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조직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2018년 10월 2일 10기 3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조정사업장 타결방침을 준용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 여부를 판단
- ※ 신규사업장 첫 체결 단협과 복수노조 사업장은 해당 지부에서 판단해 승인절차 진행
- ※ 미승인, 불승인 사업장 처리방안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7. 대정부 · 대국회 요구(안)

- ※ 업종·부문별 요구는 해당 회의체계에서 마련

1)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전환기 공급망 보호 대책

-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 촉진·지원 제도 마련
- 제조업 일자리 보호·확충을 위한 국내 공급망 강화 대책 마련
- 기후위기·산업전환 시기 공급망 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대기업 책임 강제
- 공급망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환경·노동 실사 의무화 및 노조 참여 보장
- 조선업 인력부족에 따른 정규직 채용을 위한 대책 마련

2) 전환기 사회안전망 강화

- 산업전환에 따른 불기피한 구조조정 시 실업급여 확대 등 생계지원 강화,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 및 정부 지원 확대
- 산업전환 관련 노동자 교육훈련 체계 강화 및 노조의 정책 개입 보장
- 물량 축소 등 경영위기에 따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시 단축노동지원금 노동자 직접 지원
- 산업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기술개발 지원 시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유지 의무 부과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사전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및 노조 참여 보장
- 조선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3) 노조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

- 근로시간면제제도 폐기, 노사자율 보장
- 노조회계공시제도 폐기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 노조법 2·3조 개정
-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 초기업·산별교섭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
-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철폐

4)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견서 신속 제출 의무화
- 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조치 시 노조 및 노동자 참여 보장
- 재해 발생 위험시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안건 1. 12기 2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별지 자료 참조]

의결주문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안건 2. 경주지부 감사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13기 감사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경주시부 감사위원 선출 건

〈관련규정〉 지부 운영규정 제26조(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2022년 2월2일(금) ~ 14일(수) 17시까지

2. 감사위원 후보 (기호는 추첨함)

기호	소속	이름	입후보자 7명 중 5인 기표
1번	금강 지회	김 석 준	
2번	에코플라스틱 지회	김 재 영	
3번	우영산업 지회	이 창 수	
4번	우영산업 지회	배 문 성	
5번	다스 지회	이 동 근	
6번	다스 지회	신 영 순	
7번	엠에스 지회	오 수 석	

안건 3. 12기 2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건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1. 조직현황 (2023년)

순 번	소속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광명산업지회					22	22	23
2	금강지회	162	161	161	162	162	162	162
3	다스지회	755	755	753	753	753	753	753
4	KBI동국실업지회	35	35	35	35	35	35	35
5	동진이공지회	3	3	3	3	3	3	3
6	두양정공지회	28	28	28	30	29	30	30
7	디에스지회	207	207	207	210	210	208	208
8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4	13	13	12	12	12	12
9	명성공업지회	76	76	76	76	74	75	75
10	발레오만도지회	276	276	275	276	276	280	262
11	비투지회	62	62	59	59	59	58	58
12	세진지회	313	313	314	313	313	314	314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72	73	73	73	71	72
14	아진카인텍지회	5	5	5	5	5	5	5
15	에코플라스틱지회	353	352	352	367	368	368	368
16	엠에스지회	299	296	295	292	292	293	293
17	엠에스정밀지회	73	74	74	75	75	75	76
18	우영산업지회	288	288	288	287	286	286	286
19	인지컨트롤스지회	54	54	54	54	54	54	54
20	일진베어링지회	169	169	169	169	169	169	169
21	청우지회	21	21	21	21	21	23	23
22	코레스지회	10	10	10	10	10	10	10
23	플라스틱옵니엄지회	80	80	80	78	76	74	72
24	현담산업지회	133	133	134	134	134	133	133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48	48	48	48	51	51	51
2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38	335	335	344	335	339	339
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09	317	317	317	317	317	317
28	현대엠시트지회	87	87	87	88	88	88	88
29	현우지회	60	56	56	58	60	61	61
합 계		4,330	4,326	4,322	4,349	4,362	4,369	4,352

순 번	소속 \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	광명산업지회	22	22	23	23	23	
2	금강지회	161	161	160	160	159	
3	다스지회	753	753	753	753	753	
4	KBI동국실업지회	35	35	35	35	35	
5	동진이공지회	3	3	3	3	3	
6	두양정공지회	29	29	28	28	27	
7	디에스지지회	208	208	208	208	208	
8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2	11	11	11	11	
9	명성공업지회	75	75	77	77	77	
10	발레오만도지회	402	403	403	403	403	
11	비투지지회	55	55	55	55	56	
12	세진지회	314	314	313	313	314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73	73	73	73	
14	아진카인텍지회	5	5	5	5	5	
15	에코플러스텍지회	373	371	369	369	369	
16	엠에스지회	294	295	297	297	297	
17	엠에스정밀지회	75	75	75	75	77	
18	우영산업지회	285	285	285	285	283	
19	인지컨트롤스지회	54	54	54	54	54	
20	일진베어링지회	169	169	169	169	169	
21	청우지회	23	23	23	23	23	
22	코레스지회	10	10	10	10	10	
23	플라스텍옵니엄지회	72	71	71	71	71	
24	현담산업지회	132	132	132	132	132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51	51	51	51	
2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39	339	345	345	345	
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317	317	317	317	
28	현대엠시트지회	88	112	112	112	114	
29	현우지회	60	60	59	59	59	
합 계		4,488	4,511	4,516	4,516	4,518	

2. 각종 회의 진행 결과보고

1) 대의원 대회

(1) 경주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 대회 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6일(월) 13시 30분, 지부 대강당
☞ 1부 개회식 행사 진행
2. 성원 보고 : 총원 236명 미선출 30명 재직 206명 중 193명 참석
3. 개회선언 : 성원 보고 후 14시 35분 개회 선언
4. 서기 : 최윤정 정책부장 지명 함.
5. 감표위원 : 26번 이명호대의원, 56번 최창덕대의원, 76번 박성준대의원, 105번 최종민대의원,
157번 조홍련대의원
6. 회순 통과 : 원안대로 회순 통과

※ 자료 수정 299쪽 7) 특목기금 내역에 484,206,565원으로 수정
317쪽 상단 경주지부 “2022년” 교섭위원 => “2023년”으로 수정
7. 심의 안건

안건1. 12기 1년차 결산 감사보고 승인 건 (배문성 감사위원장 발제)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2. 12기 1년차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3. 12기 2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안) 승인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4. 12기 2년차 예산(일반·특별회계)(안) 승인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5.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6. 지부 자산 폐기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7. 경주지부 운영규정 개정 건

☞ 재적 대의원 193명 전원 찬성으로 운영규정 개정 승인

안건8. 경주지부 2023년 교섭위원 확정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9.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10.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11. 결의문 채택 건 “원안 만장일치 승인”

안건12. 기타 건 - 없음

8. 폐회 선언 : 15시 35분

2) 운영위원회 회의

차 수	날짜 및 장소	토 의 안 건	참 석
4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월 9일(월) 14시 30분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한국유평테크놀로지 청산철회 경북본부 결의대회 조직 건 2-2)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참가 조직 건 2-3)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022년 임금 요구안 심의·승인 건 2-4) 에코플러스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승인요청 건 3-1) 경주시부 12기 2년차 사업계획 의견수렴 건	33명 중 32명 참석
4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월 16일(월) 13시 현대아이에이치 엘지회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경주시부 임단협 사업장 점검 건 2-2) 2023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2-3)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식 및 23년 투쟁선포식 건 2-4) 금속노조 1~2월 현장 조기 교육, 선전 진행 건 2-5) 금속노조 노조재정.운영, 노사관계 행정개입 관련 대응 방침 건 2-6)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건 2-7) 민주노총 경주시부 대의원 선출 건 2-8) 경주시부 12기 2차 정기대대 준비 논의 건 2-9) 경주시부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기획(안) 건	33명 중 29명 참석
4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월 30일(월) 13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경주시부 임단협 사업장 점검 건 2-2) 2023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2-3) 지부 자산 및 비품(노트북, 파쇄기) 폐기 건 2-4) 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건 2-5) 민주노총 경주시부 대의원 선출 건 2-6) 민주노총 경북본부 대의원 선출 건 2-7) 정기대의원대회 표창 추천 논의 건 2-8) 경주시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논의 건 2-9) 경주시부 12기 년 평가 및 12기 2년차 사업/투쟁계획 토론 건 2-1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022년 임금교섭 의견접근 안 승인 건	32명 중 37명 참석
4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2월 06일(월) 14시 현대성우솔라이 트지회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경주시부 임단협 사업장 점검 건 2-2)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 관련 건 2-3) 노조 감독, 행정개입 노동부 규탄 지역별 결의대회 건 2-4) 12기 2년차 노조간부 기본과정 진행자훈련(10기) 참 가 조직 건 2-5) 금속노조 정기대대 안전설명회 일정 확정 건 2-6) 경주시부 2023년 교섭위원 명단 제출 건 2-7) 엠에스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2-8) 아이티더블유경주시회 고용위 합의사항 심의·승인 건	32명 중 32명 참석

		2-9) 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2-10) 경주지부 운영규정 개정안 논의 건	
4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2월 13일(월) 12시 한화리조트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 등록 요청의 건 2-2) 경주지부 12기 1년 평가 및 12기 2년차 사업/투쟁계획 토론 건 2-3) 경주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확정 건 2-4) 지부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 건 2-5) 퇴직 예정 조합원 교육사업 진행 논의 건 3-1) 2023년 교섭위원 교육 진행 의견수렴 건	32명 중 31명 참석
4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2월 20일(월) 13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28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직 건 2-2)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강사단훈련 참가조직 건 2-3) 경주지부 12기 1년 평가 및 12기 2년차 사업/투쟁계획 최종점검 건 2-4)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2-5) 2023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사업 건 2-6) 조직강화위원회 조직배가사업비(특별회계) 편성 심의 건 3-1) 우영산업지회 고용위 개최 심의·승인 요청 건 3-2) 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표창 확정 건 3-3)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모금 건	32명 중 30명 참석
48차 운영위원회 수련회 및 회의	2023년 3월 1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임단협 요구안 발송 지침 건 2-2)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 규탄! 대구·경북권 결의대회 건 2-3) 한수원 규탄 공공 대구경북지역본부 결의대회 조직 건 2-4) 민주노총 2023 투쟁선포대회 및 민중대회 조직 건 2-5) 노동탄압·공안탄압 분쇄! 3월 투쟁 지침 건 2-6) 금속노조 12기 2년차 문화체육사업 실태조사의 건 2-7) 금속노조 이주조합원 사업장내 이주노동자 실태파악 건 2-8) 중소기업지회 지원 지회 최저교부금 대상 취합 건 2-9) 경주지부 2023년 교섭위원 명단 변경 건 3-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고용위 개최 심의·승인 건 3-2) 지회별 2023년 보충교섭 요구안 심의·승인 건 3-3) 경주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	32명 중 29명 참석
4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3월 20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경주지부 2023년 요구안 발송 점검 건 2-2) 금속노조 12기 2년차 지회장 의무교육 참가조직 건 2-3) 4월 건강권쟁취·생명안전후퇴 윤석열정부규탄 투쟁의 달 사업지침 건 2-4) 경주지부 2023년 교섭위원 교육 건 2-5) 발암물질 조사사업 관련 대응 논의 건 2-6) 퇴직 예정조합원 지원사업 진행 건	32명 중 31명 참석

		3-1) 다스지회 고용안전위원회 추가 안건 승인 건 3-2) 아사히투쟁 후원의 날 티켓 구매 건 3-3) 경주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	
5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3월 27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상건례 일정 점검 건 2-2)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설비반출 공권력 폭력 침탈 규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건 2-3)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대회 조직 건 2-4) 금속노조 2023년 조합원 의무교육 실시 건 2-5) 2023년 금속노조 완성차-자동차 부품사 공동수련회 개최 건 2-6)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관련 건 2-7) 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2-8) 민주노총 경북본부 복수노조 수련회 조직 건 3-1) 금속노조 경주지부 5·18 역사탐방 기획안 논의 건	32명 중 31명 참석
5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4월 0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3년 사업장 보충교섭 상건례 일정 점검 건 2-3) 경주지부 2023년 투쟁 실천단 건 2-4) 금속노조 12기 2년차 전국문화체육담당자 교육수련회 조직의 건 2-5) 경주지부 12기 2년 차 확대간부 교육 건 2-6) 경주지부 12기 2년차 교섭위원 교육 건 2-7) 경주지부 12기 노조간부 기본과정 참가자 모집 건 2-8)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징계 심의 건 3-1) 우영산업지회 고용위 합의사항 승인 요청 건 3-2) 윤석열 정권 규탄 경주지부 전 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의견수렴 건	32명 중 31명 참석
5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4월 10일(월) 14시 경주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건 2-2) 2023년 경주·포항지부·울산권역 금속노조 법률학교 건 2-3)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 2-4) 경주지부 5.18정신 계승 순례기획안 논의 건 2-5)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2-6) 현대모비스 물류 7개지회 자회사전환 관련 후속조치 건 2-7)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징계 심의 건 3-1) 디에스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세진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3) 경주지부 경주시 협의체 구성 제안서(안) 논의 건	32명 중 30명 참석
5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4월 24일(월) 14시 다스지회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광명산업지회 설치 승인 건 2-3) 2023년 세계노동절 5.1 경북대회 건	32명 중 27명 참석

		2-4) 2023년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투쟁 건 2-5)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시행의 건 2-6) 경주시부 여성조합원 성폭력 실태조사 기획(안) 승인 건 2-7) 경주시부 12기 2년차 확대간부 교육 진행 확정 건 3-1) 금속노조 5.31 총파업 경주시부 결의대회 의견수렴 건	
5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5월 0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윤석열 퇴진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직 건 2-3) 광명산업 자본규탄 경주시부 결의대회 건 2-4) 광명산업지회 지부(지회) 대의원 선거구 확정 건 2-5) 경주시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3-1) 세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명 중 31명 참석
5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5월 1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경주시부 2023년 투쟁승리 전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 기획(안) 건 2-3) 금속노조 2023년 사업장 임금수준 실태조사 실시 건 2-3) 경주시부 12기 2년차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건 2-4) 발레오만도지회 조기 조정신청 승인 요청 건 3-1) 발레오만도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명 중 31명 참석
5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5월 2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선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대회 점검 건 2-3) 법정최저임금 인상 전국순회투쟁단 모집 및 전 조합원 1천원 서명운동 추진 건 3-1) 디에스지회 특별교섭 승인 건 3-2) 우영산업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명 중 32명 참석
5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6월 12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2-3) 양회동 열사투쟁 모금 진행 건 2-4) 금속노조 평등수칙 수정 보완을 위한 토론 취합 건 3-1) 5.31 금속노조 총파업 경주시부 결의대회 평가 건 3-2) 발레오만도지회 2023년 임금 및 보충교섭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3명 중 33명 참석
5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6월 19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7월 총파업 세부계획 점검 건 2-3)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회동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참가 지침 건	33명 중 31명 참석

		2-3) 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심의·승인 건 3-1) 일진배어링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5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6월 27일(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7월 총파업 투쟁 점검 건 2-3) 2021년 임단협 쟁의조정 신청 지침 건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위한 임시선관위 구성 건 2-5) 쟁의행위 찬반투표 지회별 선전전 진행 건 2-6) 7.12 금속노조 총파업 세부계획 논의 건 3-1) 5.31 금속노조 총파업 경주지부 결의대회 평가 건	33명 중 30명 참석
6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7월 0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경주지부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건 2-3) 경주지부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점검 건 2-4) 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심의·승인 건	33명 중 30명 참석
6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7월 10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노동자 10만 서명운동 진행 건 2-3) 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심의·승인 건 3-1) 두양정공지회 조기 임원선거 심의 및 승인요청 건 3-2)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투쟁기금 마련 티켓 구매 건	33명 중 29명 참석
6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7월 19일(수)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조합 13기 동시선거 관련 현장토론 논의 건 2-3) 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승인 건 3-1) 우영산업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에코플라스틱지회 징계심의 요청 건	33명 중 29명 참석
6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8월 07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광복 78주년 범국민대회 건 2-3)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의 건 2-4) 생명안전 개악중단,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건 2-5) 경주지부 23년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지침(안) 논의 건 2-6) 조합 13기 동시선거 관련 현장토론 논의 건 3-1) 발레오만도지회 조기 선거 승인 요청 건 3-2) 7.12 총파업 평가 논의 건	33명 중 31명 참석
64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8월 14일(월) 14시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당면 투쟁 건 2-3) 경주지부 2023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전술(안) 논의 건 2-4) 2023년 지부·지회 단체교섭 승인 및 결과 보고 지침 건	33명 중 32명 참석

		2-5) 금속법률원 무료(10회) 변론 사용 승인 건 2-6) 광명산업지회 신분보장기금 승인요청 건 3-1)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투쟁·법률기금 마련 후원주점 티켓구매 건	
65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8월 21일(월) 13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대통령 거부권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 총력투쟁 건 2-3) 금속법률원 무료(10회) 변론 사용 승인 건 3-1) 2023년 지부 확대 간부교육 미사용 1일 사용 건	33명 중 29명 참석
66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8월 28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9.16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조직 건 2-3) 윤석열 정권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및 노조법 2,3조 개정 1박 2일 투쟁 건 2-4) 외투자본 먹튀방지법 촉구 및 한국유평테크 고용보장 촉구 서명운동 건 2-5) 지부 확대간부 교육 기획(안) 논의 건 3-1)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에코플라스틱자본 규탄 경주시부 결의대회 진행 건	33명 중 30명 참석
67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9월 04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2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현우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의견접근(안) 승인 건 2-3)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지출 승인 건 3-1) 지회 현안투쟁 결합 건 3-2) 7.20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거제 결의대회 평가 건	33명 중 30명 참석
68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9월 11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에코플라스틱지회 징계 심의 건 2-3) 13기 동시선거를 위한 지부 선관위 구성 건 2-4) 경주시부 2023년 교섭위원 명단 변경 건 3-1) 우영산업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2) 일진배어링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3)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 조기선거 승인 건 3-4) 경주시부 2023년 교섭위원 복귀 건 3-5) 경주시부 2023년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6) 경주시부 업무협약서 체결 논의 건 3-7) 2023년 추석재정사업 조직 건	33명 중 31명 참석
69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9월 19일(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시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2023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총회 실시 건 2-3) 중소기업지지회 지원 지회 최저교부금 대상 취합 건 2-4) 경주시부 특별결의금 세칙 임금기준표 조정 건 3-1)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4명 중 31명 참석

		3-2) 에코플라스틱지회 고용위 개최 심의·승인 건 3-3) 지부 총회 시간 사용 논의 건 3-4) 조합비 세액공제 대응 논의 건	
70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9월 25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조합 13기 동시선거 일정 점검 건 2-3) 경주지부 중소영세지회 지원 최저교부금 대상 승인 건 2-4) 경북본부 노조간부교실 참가 건 2-5) 11.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3-1) 금강지회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심의·승인 건	34명 중 28명 참석
71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0월 16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11.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2-3)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운동 건 2-4)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운동 조직 건 3-1) 우영산업지회 고용위 의견접근안 심의·승인 건 3-2) 두양정공지회 조기 대의원선거 요청 건 3-3) 지부 집단교섭 보완(타결방침) 방안 논의 건	34명 중 31명 참석
72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0월 23일(월) 14시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2) 11.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건 2-3) 경주지부 특별회계-지역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34명 중 30명 참석
73차 운영위원회 회의	2023년 12월 11일(월) 13시 50분 지부 회의실	1-1) 각종 사업 집행 점검 건 2-1) 경주지부 13기 1년차 가 예산(안) 승인 건 2-2) 경주지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건 2-3)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해소 건 3-1) 2024년 열사달력 및 재정사업 구입 건 3-2) 11.11 전국노동자 대회 평가 건	34명 중 33명 참석

3. 각종 사업 집행 건

지회명		조합원수	01/09 금속노조 경주시부 2023 신년 사무식 (솔라이트)	01/11 한국 유타칼 하이테크 청산철회 경북본부 결의대회 (평택)	01/17 민주노총 긴급단위노조 대표자대회 (고양)	02/01 금속노조 2023 투쟁본부출범식 투쟁선포식 (용산)	02/07 경기지부 한국와이퍼 분회투쟁 결의대회 (문산)	02/10 단속추방 반대경북본부 투쟁선포식 (대구)	02/15 노동부 규탄금속노조 3개지부 공동결의대회 (포항)	2/27 금속노조 57차 정기 대의원 대회 (단양)	02/28 반노동 윤석열 정권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03/06 금속노조 경주시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광명산업지회		23											
금강지회		159	4	2	1	11	—	2	2	2	2	9	1
다스지회		753	5	5	1	12	2	—	—	3	5	21	3
KBI동국실업지회		35	1	2	1	2	1	1	1	1	—	2	—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1	—
두양정공지회		27	—	—	—	—	—	—	—	—	—	1	—
디에스시지회		208	9	3	1	27	3	—	1	2	2	11	3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	—	1	—	—	—	—	—	—	—	—
명성공업지회		77	1	—	1	10	1	—	—	1	1	4	—
발레오만도지회		403	1	2	1	7	—	—	2	—	1	8	—
비투지지회		56	3	3	—	2	—	—	—	1	2	3	—
세진지회		314	18	3	1	26	—	—	2	1	3	13	2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3	1	2	1	11	2	—	1	—	2	5	5
아진카인텍지회		5	1	—	—	—	—	—	—	1	—	1	—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3	4	1	19	—	2	4	1	3	19	—
엠에스지회		297	7	4	1	19	4	2	2	1	3	10	—
엠에스정밀지회		77	1	2	1	10	1	—	4	—	1	8	—
우영산업지회		283	3	3	2	19	—	—	2	1	5	18	1
인지컨트롤스지회		54	1	—	1	1	—	—	—	1	—	6	2
일진베어링지회		169	2	2	1	10	2	1	1	1	2	9	—
청우지회		23	1	1	1	1	—	—	—	—	1	1	—
코레스지회		10	—	—	—	—	—	—	—	—	—	1	—
플라스틱옵니업지회		71	1	—	1	2	—	—	—	1	—	4	—
현담산업지회		132	—	2	1	9	2	—	—	—	3	7	—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1	1	1	3	1	1	1	—	1	5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14	5	2	31	—	3	6	—	7	15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4	2	2	5	2	2	2	3	4	11	6
현대엠시트지회		114	1	1	1	—	1	—	1	1	1	6	—
현우지회		59	4	2	1	5	2	2	—	—	2	3	—
지부	14(전체)	5	14	8	5	14	11	5	9	6	9	14	5
	5(개별)												
합계		4,523	101	59	31	256	35	21	41	28	60	216	28

지회명		조 합 원 수	03/16 한수원 규탄 대구경 북 지역 본부 결의대 회 (한수원)	03/17 아사히 글라스 불법과 건 무죄판 결 규탄 결의대 회 (대구)	03/25 민주노 총 2023년 투쟁 선포식 및 민중대 회 (서울)	04/05 한국 와이퍼 투쟁 금속노 조 영남권 결의대 회 (창원)	04/06 금속노 조 2023 지회장 의무 교육 (단양)	04/07 민주노 총 강제추 방 중단 체류권 보장 집회 (대구)	04/12 경주지 부 투쟁 본부 실천단 집중 선전전 (각거점)	04/17 영천 장애인 학대시 설 폐쇄 촉구 결의대 회 (영천)	04/19 1만 조직 총력 투쟁 금속노 조 결의대 회 (서울)	04/26 금속노 조 2023 법률원 법률 학교 (지부)	04/26 경주지 부 투쟁본 부 실천단 집중 선전전 (각거점)
광명산업지회		23										—	—
금강지회		159	4	3	9	6	1	3	3	3	27	2	3
다스지회		753	—	5	13	9	1	2	6	2	43	8	6
KBI동국실업지회		35	1	—	3	2	1	—	2	1	4	1	2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7	—	—	—	—	—	—	—	—	—	—	2
디에스시지회		208	3	—	6	4	—	—	—	3	28	—	5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	—	—	—	—	—	—	—	—	—	—
명성공업지회		77	2	—	3	4	1	2	4	—	10	3	4
발레오만도지회		403	2	1	6	3	1	—	—	—	12	—	—
비투지지회		56	2	—	2	3	—	2	3	3	4	—	2
세진지회		314	5	5	5	11	1	4	4	2	22	9	4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3	2	3	—	2	1	—	4	1	13	4	2
아진카인텍지회		5	—	—	—	—	1	—	—	—	—	—	—
에코플러스텍지회		369	—	5	15	7	1	4	6	2	29	4	6
엠에스지회		297	—	—	16	9	1	3	4	3	28	8	3
엠에스정밀지회		77	6	1	5	4	1	2	3	5	12	2	1
우영산업지회		283	2	—	3	7	1	6	7	2	28	7	7
인지컨트롤스지회		54	—	—	—	3	1	—	—	—	1	—	—
일진베어링지회		169	—	2	14	6	1	2	7	2	21	—	—
청우지회		23	—	—	1	1	1	—	—	1	3	—	—
코레스지회		10	—	—	—	—	1	—	—	—	—	—	—
플라스틱옵니엄지회		71	2	—	2	2	1	—	—	—	4	—	—
현담산업지회		132	—	—	16	—	1	1	3	2	19	3	2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	—	2	1	1	1	1	1	4	—	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6	11	28	6	1	3	7	6	30	6	30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4	3	7	13	1	2	6	2	19	2	19
현대엠시트지회		114	—	—	2	2	—	1	—	1	11	1	11
현우지회		59	—	—	6	2	1	—	1	2	7	2	7
지부	14(전체)	5	9	9	12	12	3	8	11	1	15	1	15
	5(개별)												
합계		4,523	50	48	176	119	25	46	82	45	394	63	132

지회명		조 합 원 수	05/01 5.1 세계 노동절 경북 대회 (포항)	05/03 경주시 부 투쟁본 부 실천단 집중 선전전 (각거점)	05/03 윤석열 정권규 탄 건설노 조 탄압중 단 동시다 발 기자회 견 (대구)	05/09 2023 금속노 조 확대간 부 교육 경주시 부 1차 (단양)	05/10 윤석열 정권퇴 진 경북시 국 공동행 동 결성추 진 기자회 견 (대구)	05/11 광명산 업자본 규탄 경주시 부 약식 결의대 회 (지회)	05/16 2023 경북본 부 도보순 회 투쟁 출정식 (안동)	05/17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 총 결의대 회 (서울)	05/19 한동대 미화분 회 파업투 쟁 승리 도보투 쟁 결의대 회 (포항)	05/31 5.31 금속노 조 총파업 경주시 부 전조합 원 결의대 회	06/02 발레오 만도 지회 총파업 약식 결의대 회
광명산업지회		23	—	—	—	—	—	22	2	—	—	3	—
금강지회		159	20	3	2	—	2	5	—	6	—	87	6
다스지회		753	47	7	2	—	—	14	—	—	4	325	12
KBI동국실업지회		35	33	2	—	4	1	—	—	2	—	5	1
동진이공지회		3	3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7	2	—	—	—	—	2	—	—	—	2	—
디에스시지회		208	25	6	3	27	—	—	2	8	1	91	5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2	—	—	—	—	—	—	—	—	3	—
명성공업지회		77	6	3	3	—	—	4	—	4	—	61	—
발레오만도지회		403	11	1	1	5	1	1	—	2	—	105	200
비투지지회		56	13	4	2	—	1	3	—	5	—	8	4
세진지회		314	32	6	4	24	0	7	3	10	—	152	—
아이티더블유경주시지회		73	13	3	3	—	1	3	—	4	1	58	4
아진카인택지회		5	5	—	—	—	—	—	—	—	—	1	—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27	—	3	34	—	10	3	10	—	126	12
엠에스지회		297	10	3	3	—	3	14	—	—	3	121	10
엠에스정밀지회		77	4	2	4	25	6	4	—	4	4	60	3
우영산업지회		283	10	7	3	—	—	3	3	8	7	151	—
인지컨트롤스지회		54	7	—	—	—	—	3	—	1	2	9	—
일진베어링지회		169	7	6	2	—	2	6	1	3	3	88	6
청우지회		23	1	—	1	2	1	—	—	1	—	4	—
코레스지회		10	1	—	—	—	—	—	—	—	—	2	—
플라스틱옵니업지회		71	5	—	—	—	1	3	—	3	1	7	1
현담산업지회		132	33	—	3	—	1	3	3	3	—	17	3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6	—	—	—	—	4	—	4	1	9	1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102	7	3	—	3	6	—	10	—	307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14	6	2	—	2	13	—	11	4	104	8
현대엠시트지회		114	11	—	—	—	1	—	—	4	1	12	2
현우지회		59	30	3	2	4	1	3	—	4	—	3	1
지부	14(전체)	5	15	15	4	8	6	14	4	8	5	15	14
	5(개별)												
합계		4,523	495	84	50	133	33	147	21	115	37	1,936	293

지회명		조 합 원 수	06/07 경주지 부 투쟁본 부 실천단 집중 선전전 (각거점)	06/13 금속노 조 최저임 금 전국 순회단 야간 문화제 (KT앞)	06/14 경주지 부 투쟁본 부 실천단 집중 선전전 (각거점)	06/24 민주노 총 윤석열 정권퇴 진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07/03 민주노 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 견 (대구)	07/05 민주노 총 대구경 주 지역 총파업 승리 결의대 회 (대구)	07/07 민주노 총 경북본 부 금속노 조 경북권 결의대 회 (구미)	07/11 한동대 미화분 회 투쟁 승리 결의대 회 (포항)	07/15 윤석열 정권퇴 진 민중 총궐기 범국민 대회 (서울)	07/25 중대재 해 기업 엄정수 사 즉각처 벌 촉구 기자회 견 (대구)	08/23 생명안 전 후퇴 개약 민주노 총 결의대 회 (세종)
광명산업지회	23	—	—	—	—	—	—	—	—	—	—	—	—
금강지회	159	3	5	3	6	2	5	5	5	5	27	2	—
다스지회	753	5	8	6	12	1	16	13	12	12	42	2	2
KBI동국실업지회	35	3	—	2	—	1	3	3	3	1	2	—	—
동진이공지회	3	—	—	—	—	—	—	—	—	—	—	—	—
두양정공지회	27	—	—	2	—	—	2	2	2	2	—	—	—
디에스지지회	208	4	—	5	6	1	4	4	4	6	28	—	1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	—	—	—	—	—	—	—	—	1	—	—
명성공업지회	77	4	3	4	5	1	4	4	4	4	8	—	1
발레오만도지회	403	—	1	1	3	1	2	2	2	—	—	—	—
비투지지회	56	3	—	4	3	1	4	3	3	4	3	—	—
세진지회	314	4	2	6	13	1	10	6	6	6	15	4	—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3	4	—	4	5	1	4	3	3	6	10	1	—
아진카인택지회	5	—	—	—	—	—	—	—	—	—	—	—	—
에코플러스지회	369	6	9	7	13	1	12	8	10	10	31	2	1
엠에스지회	297	3	8	3	11	3	8	8	8	8	27	2	—
엠에스정밀지회	77	3	3	1	3	1	1	4	4	3	6	1	1
우영산업지회	283	6	—	5	7	6	4	4	4	6	16	2	—
인지컨트롤스지회	54	—	—	—	—	2	2	2	2	—	1	—	—
일진베어링지회	169	5	4	5	5	1	6	5	5	6	13	1	—
청우지회	23	—	—	—	1	1	1	1	1	3	—	—	—
코레스지회	10	—	—	—	—	—	—	—	—	—	—	—	—
플라스틱옵니업지회	71	—	2	—	2	—	3	3	3	3	2	—	—
현담산업지회	132	1	—	2	3	1	1	3	3	2	15	—	2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	—	—	4	—	1	2	2	2	2	—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	11	4	9	4	6	6	6	6	28	4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6	2	6	11	1	12	12	12	12	16	1	—
현대엠시트지회	114	—	—	—	3	1	2	2	2	2	10	—	1
현우지회	59	3	—	2	4	1	2	4	4	2	7	—	—
지부	14(전체) 5(개별)	5	13	7	10	13	4	12	14	13	13	2	1
합계	4,523	76	65	82	142	37	127	121	124	124	323	24	10

지회명		조 합 원 수	08/24 일본 핵오염 수 방류중 단 촉구 민주노 총 기자회 건 (대구)	08/25 외투자 본먹튀 규탄 한국 옵티칼 영남권 결의대 회 (구미)	09/01 경주시 부 발암물 질 조사사 업 결과 보고회 (지부)	09/05 노조법 2,3조 개정 금속노 조 결의대 회 (국회)	09/06 에코 플라스 틱 자본 규탄 경주시 부 결의대 회 (에코)	09/08 민주노 총 경북본 부 2023 활동가 대회 (지부)	09/16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 3차 경북대 회 (안동)	09/20 윤석열 정권퇴 진 결의대 회 및노조 법2,3조 개정농 성 (서울)	09/24 금속노 조 제2회 이주 노동자 의 날 (더케이)	10/10 2023 경주시 부 확대 간부 교육 (더케이)	11/11 전태일 열사정 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 (서울)
광명산업지회		23	—	—	—	—	—	—	1	—	—	—	5
금강지회		159	2	4	1	5	5	4	5	12	7	16	27
다스지회		753	—	—	2	10	18	10	3	27	1	41	47
KBI동국실업지회		35	—	—	—	2	1	2	1	3	—	6	5
동진이공지회		3	—	—	—	—	—	—	1	—	—	—	—
두양정공지회		27	—	—	—	—	—	—	—	—	—	2	2
디에스지지회		208	—	—	—	—	7	—	4	14	—	25	30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11	—	—	—	—	—	—	—	—	—	—	4
명성공업지회		77	2	1	1	4	4	2	3	4	1	11	16
발레오만도지회		403	—	—	—	—	4	1	3	6	—	2	14
비투지지회		56	2	4	—	4	3	—	3	4	1	5	10
세진지회		314	—	10	1	10	8	9	4	9	—	21	21
아이티더블유경주시지회		73	—	—	1	4	3	—	3	7	—	12	28
아진카인텍지회		5	—	—	—	—	—	—	—	—	—	—	3
에코플라스틱지회		369	—	—	1	—	373	—	8	8	—	36	28
엠에스지회		297	—	5	3	10	21	4	12	20	—	31	28
엠에스정밀지회		77	1	3	—	3	3	3	1	3	1	11	11
우영산업지회		283	3	5	1	6	5	3	3	23	1	28	26
인지컨트롤스지회		54	—	—	2	2	2	—	—	—	—	—	5
일진베어링지회		169	—	—	—	—	—	—	3	11	—	20	19
청우지회		23	1	1	—	1	—	—	1	3	—	3	1
코레스지회		10	—	—	—	—	—	—	—	—	—	—	—
플라스틱옵니업지회		71	—	—	—	—	—	—	—	2	—	—	4
현담산업지회		132	—	—	—	—	—	—	—	8	—	16	1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	—	—	—	—	—	—	—	—	—	5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5	4	6	1	28	7	2	6	11	22	31	25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7	—	—	—	9	12	9	10	11	1	17	21
현대엠시트지회		114	—	—	1	2	—	—	1	2	—	—	27
현우지회		59	1	3	—	2	3	—	3	1	9	3	12
지부	14(전체)	5	3	6	2	12	15	12	9	13	9	14	14
	5(개별)												
합계		4,523	19	48	17	114	494	61	88	202	53	351	453

4. 2023년 교섭경과 보고

1) 경주시부 집단교섭

구분	교섭일시	쟁점내용
1차	04/13(목)14시, 더케이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	04/20(목)14시, 성호리조트	요구안 취지설명
3차	04/27(목)14시, 더케이	질의응답
4차	05/04(목)14시, 금강	1개 조항 원안수용
5차	05/11(목)14시, 우영산업	1개 조항 원안수용
6차	05/18(목)14시, 디에스시	1개 조항 의견접근
7차	05/25(목)14시, 명성공업	사측 수정 제시안 제출
8차	06/16(목)14시, 세진	2개 조항 의견접근
9차	06/22(목)14시, 에코플라스틱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	07/27(목)14시, 아이티더블유경주	1개 조항 의견접근
11차	08/17(목)14시, 명성공업	금강지회 의견접근 (시급 110원, 일시급 10만원) 명성공업지회 의견접근 (시급 100원)
12차	08/21(월)14시, 우영산업	엠에스정밀지회 의견접근 시급 200원(23년 1월 ~), 170원(24년 1월 ~) 일시급 10만원
13차	08/22(화)10시, 우영산업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50원, 일시급 50만원) 우영산업지회 의견접근 (시급 100원, 일시급 100만원)
14차	08/23(수)11시, 아이티더블유경주	세진지회 의견접근 (시급 150원, 일시급 70만원)
15차	08/24(목)09시30분, 지부회의실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의견접근 (시급 220원, 일시급 60만원)
16차	08/25(금)10시, 지부회의실	다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270원, 성과금 320만원)
17차	08/28(월)10시, 지부회의실	—
18차	08/29(화)09시, 지부회의실	다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280원, 성과금 335만원)
19차	08/30(수)10시, 지부회의실	—
20차	08/31(목)10시, 지부회의실	엠에스지회 의견접근 (시급 500원, 성과금 850만원) 디에스시지회 의견접근 (시급 100원, 100만원)
21차	09/01(금)09시, 지부회의실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일시급 200만원, 생산성격려금 220만원, 노사상생격려금 230만원)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타결/성과금 650만원)

22차	09/06(수)08시, 지부회의실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시급 350원, 타결/성과금 700만원) 디에스시지회 의견접근 (시급 250원, 일시/타결금 330만원, 상품권 20만원)
23차	09/07(목)09시, 에코플라스틱	디에스시지회 의견접근 (시급 250원, 일시/성과금 380만원, 상품권 20만원) 에코플라스틱지회 의견접근 (시급 390원, 일시급 500만원)
조인식	10/26(목)14시, 성호리조트	88.6% 가결

2)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구분	지회명	단협유무	교섭차수	쟁점내용 및 사측탄압	투쟁 현황 및 계획
1	금강	임금/보충	1차(4/17)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1)	요구안 취지설명	
			3차(4/28)	질의응답	
			4차(5/19)	2개 조항 원안수용	
			5차(5/31)	사측 제시안 없음	
			6차(6/14)	1개 조항 의견접근	
			7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23)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9차(8/08)	제시안 없음	
			10차(8/16)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6.7% 가결
2	다스	임금/보충	1차(4/21)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5)	요구안 취지설명	
			3차(5/02)	질의응답	
			4차(5/09)	경영 설명	
			5차(5/19)	사측 영업현황 설명	
			6차(5/23)	사측 제시안 없음	
			7차(5/30)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1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8/17)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8/18)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8/21)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64.2% 가결
3	명성공업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1)	요구안 취지설명	
			3차(4/28)	질의응답	
			4차(5/16)	질의응답	
			5차(5/30)	상호공방	
			6차(6/16)	상호공방	
			7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8차(7/28)	사측 제시안 없음	
			9차(8/16)	보충교섭 요구안 철회	총회 결과 73.2% 가결
4	세진	임금/보충	1차(4/14)	상건례(교섭원칙 합의)	
			2차(4/21)	요구안 취지설명	
			3차(4/28)	질의응답	
			4차(5/12)	사측 경영 설명	
			5차(5/19)	사측 제시안 없음	
			6차(6/02)	사측 제시안 없음	
			7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16)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9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7/19)	1개 조항 의견접근	
			11차(8/22)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0.2% 가결
5	아이티더블유 경주	임금/보충	1차(4/14)	상건례(교섭원칙 합의)	
			2차(4/28)	요구안 취지설명	
			3차(5/09)	질의응답	
			4차(5/12)	사측 경영 설명	
			5차(5/26)	상호공방	
			6차(6/02)	상호공방	
			7차(6/09)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8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0)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10)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8/11)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7.4% 가결
6	에코플라스틱	임금/보충	1차(4/20)	상건례(교섭원칙 합의)	
			2차(5/03)	요구안 취지설명	
			3차(5/12)	질의응답	
			4차(5/16)	질의응답	
			5차(5/19)	상호공방	
			6차(5/23)	상호공방	
			7차(5/26)	상호공방	
			8차(5/30)	상호공방	

			9차(6/02)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6/1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22)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8/2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8/29)	사측 제시안 없음	
			14차(9/01)	사측 제시안 없음	
			15차(9/0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6차(9/07)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57.3% 가결
7	엠에스정밀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5)	요구안 취지설명	
			3차(5/02)	질의응답	
			4차(5/09)	사측 제시안 없음	
			5차(5/16)	1개 조항 의견접근	
			6차(5/30)	사측 제시안 없음	
			7차(6/1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8차(6/20)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7)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7/26)	보충교섭 의견접근	총회 결과 81.7% 가결

3) 대각선 교섭 사업장

구 분	지회명	단협 유/무	교섭 차수	쟁점 내용 및 사측 탄압	투쟁 현황 및 계획
1	다스 (간접고용)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5)	요구안 취지설명	
			3차(4/28)	요구안 공방	
			4차(5/09)	상호공방	
			5차(5/19)	상호공방	
			6차(5/26)	상호공방	
			7차(5/30)	상호공방	
			8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18)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8/22)	2개 조항 의견접근	
			13차(8/23)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8/24)	의견접근	
			15차(8/25)	의견접근	총회 결과 56.1% 가결
2	두양정공	임금/보충	1차(4/14)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1)	요구안 취지설명	
			3차(4/28)	질의응답	
			4차(5/19)	사측 제시안 없음	
			5차(5/23)	사측 제시안 없음	
			6차(5/26)	사측 경영설명회	
			7차(6/02)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13)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0)	1개 조항 의견접근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9/15)	2개 조항 의견접근	
			12차(9/20)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9/22)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9/25)	의견접근	총회 결과 76.0% 가결
3	발레오만도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미합의)	
			2차(4/20)	사측 교섭위원 성원 미달	
			3차(4/25)	사측 교섭 불참	
			4차(4/27)	사측 교섭 불참	

			5차(5/02)	사측 교섭 불참	
			6차(5/04)	사측 교섭 불참	
			7차(5/09)	사측 교섭대표 불참 (교섭원칙 미합의)	
			8차(5/11)	사측 교섭 불참	
			9차(5/16)	사측 교섭대표 불참	
			10차(5/18)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1차(5/30)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5/3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6/0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6/02)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5차(6/07)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6차(6/08)	의견접근	총회 결과 65.03% 가결
4	비투지	임금/보충	1차(4/14)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5)	요구안 취지설명	
			3차(5/02)	질의응답	
			4차(5/11)	1개 조항 의견접근	
			5차(5/19)	사측 제시안 없음	
			6차(5/23)	사측 제시안 없음	
			7차(5/30)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8차(6/13)	1개 조항 의견접근	
			9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8/09)	상호공방	
			11차(8/18)	의견접근	총회 결과 92.3% 가결
5	청우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02)	요구안 취지설명	
			3차(5/11)	질의응답	
			4차(5/16)	사측 제시안 없음	
			5차(5/19)	사측 제시안 없음	
			6차(5/23)	사측 제시안 없음	
			7차(5/26)	상호공방	
			8차(6/02)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10차(6/16)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1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2차(8/1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8/17)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8/18)	의견접근	총회 결과 71.4% 가결
6	현우	임금/보충	1차(4/1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4/28)	사측 경영 설명회	
			3차(5/12)	요구안 취지설명	
			4차(5/16)	사측 제시안 없음	
			5차(5/26)	사측 제시안 없음	
			6차(5/30)	사측 제시안 없음	
			7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0)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10)	의견접근	총회 결과 98.1% 가결

4) 별도 교섭 사업장

구분	지회명	단협 유/무	교섭 차수	쟁점 내용 및 사측 탄압	투쟁 현황 및 계획
1	KBI동국실업	임금/보충	1차(4/2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11)	요구안 취지설명	
			3차(5/19)	질의응답	
			4차(5/26)	상호공방	
			5차(6/0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6차(6/02)	사측 제시안 없음	
			7차(6/1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8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2)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0차(6/23)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6/29)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2차(6/30)	사측 제시안 없음	
			13차(7/06)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7/07)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5차(7/13)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6차(7/14)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7차(8/24)	사측 제시안 없음	
			18차(8/3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9차(9/01)	의견접근	총회 결과 72.0% 가결
2	현담산업 (경주. 아산)	임금/보충 (충남집단)	1차(4/14)	상견례(교섭원칙 미합의)	
			2차(4/21)	교섭원칙 합의	
			3차(4/28)	요구안 취지설명	
			4차(5/12)	질의응답	

			5차(5/19)	상호공방	
			6차(5/26)	사측 경영설명회	
			7차(6/09)	사측 제시안 없음	
			8차(6/16)	사측 제시안 없음	
			9차(6/23)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0차(7/28)	사측 제시안 없음	
			11차(8/11)	사측 제시안 없음	
			12차(8/18)	사측 제시안 없음	
			13차(8/2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4차(9/01)	사측 제시안 없음	
			15차(9/08)	사측 제시안 없음	
			16차(9/15)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7차(9/19)	사측 제시안 없음	
			18차(9/22)	의견접근	총회 결과 61.4% 가결
3	엠시트 (경주, 아산)	임금/보충 (충남집단)	1차(5/0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12)	요구안 취지설명	
			3차(5/17)	질의응답	
			4차(5/26)	경영설명회	
			5차(6/09)	경영설명회	
			6차(6/14)	상호공방	
			7차(6/23)	상호공방	
			8차(7/28)	제시안 없음	
			9차(8/18)	제시안 없음	
			10차(8/25)	제시안 없음	
			11차(8/31)	제시안 없음	
			12차(9/07)	제시안 없음	
			13차(9/14)	제시안 없음	
			14차(10/5)	제시안 없음	
			15차(10/12)	제시안 없음	
			16차(10/17)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7차(10/19)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8차(10/27)	의견접근	총회 결과 64.5% 가결
4	현대모비스물 류 (7개 지회 공동교섭)	임금/보충 (대구집단)	1차(5/03)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5/11)	요구안 취지설명	
			3차(5/17)	요구안 취지설명	
			4차(5/24)	상호공방	
			5차(6/07)	상호공방	
			6차(6/14)	상호공방	
			7차(6/21)	사측 제시안 없음	

			8차(8/09)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9차(8/16)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0차(9/06)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1차(9/13)	사측 제시안 없음	
			12차(9/21)	사측 제시안 수용거부	
			13차(9/26)	의견접근	총회 결과 80.4% 가결

5) 신규 교섭 사업장

구 분	지회명	단협 유/무	교섭 차수	쟁점 내용 및 사측 탄압	투쟁 현황 및 계획
1	현대성우솔라이트	임금/ 단협	1차(3/28)	상견례(교섭원칙 합의)	
			2차(3/31)	요구안 설명	
			3차(4/11)	질의응답	
			4차(4/14)	16개 조항 의견접근	
			5차(4/18)	8개 조항 의견접근	
			6차(4/21)	13개 조항 의견접근	
			7차(4/25)	23개 조항 의견접근	
			8차(4/28)	24개 조항 의견접근	
			9차(5/02)	12개 조항 의견접근	
			10차(5/12)	20개 조항 의견접근	
			11차(5/16)	11개 조항 의견접근 (잔여 13개 조항) 임금 제시안 수용거부	교섭 결렬 선언 (총회 결과 96.8% 가결)

5. 경주지부 2022년 집단협약 및 임금합의서 (참고자료 참조)

6. 경주지부 12기 2년차 부서 사업보고 및 평가

6-1. 조직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현장순회강화를 통해 조직적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 2) 경주지부 현장 조직적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 3) 지부/지회 조직담당자 역량강화
- 4)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지원 강화

2. 주요사업

1) 조직 담당자회의 및 수련회 월별 일정

차 수	날 짜	장 소	회의 안건	비 고
1	23. 01. 27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경주지부 12기 2년차 조직부 사업계획(초안) 논의 건. 안건 2. 경기도지부 한국와이퍼분회 현황 공유 건. 안건 3. 경주지부 2년차 조직담당자 수련회 일정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우영산업 지회
2	23. 02. 24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식 및 23년 투쟁 선포식 평가 건. 안건 2. 건설노조탄압 분쇄 반노동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건. 안건 3. 12기 2년차 조직담당자 수련회 일정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현대성우 썸라이트 지회
3	23. 03. 16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3~4월 주요사업 및 투쟁사업 조진 건. 안건 2. 2023년 법정최저임금 투쟁 계획(안)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조합
4	23. 03. 22	복수노조 예산(안)편성회 의	안건 1. 복수노조사업장 조직강화사업비 예산조정 건. 안건 2. 기타 건.	조합
5	23. 03. 23~24	조직담당자회의 및 수련회	안건 1. 민주노총 2023 투쟁선포대회 및 민중대회 조직 건. 안건 2. 노동탄압 공안탄압 분쇄! 3월 투쟁 지침 건. 안건 3. 전국 조직담당자 수련회 일정 공유 건. 안건 4. 경주지부 12기 2년차 상반기 현장순회 일정 공유 건. 안건 5. 기타 건.	양남
6	23. 04. 11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투쟁 건. 안건 2. 5월~6월 주요투쟁 건. 안건 3. 기타 건.	조합

7	23. 05. 10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건. 안건 2. 5.31 총파업 조직 점검 건. 안건 3. 투쟁 사업장 점검 건. 안건 4. 기타 건.	조합
8	23. 05. 26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금속노조 5.31 총파업 경주지부 결의대회 안건 2. 금속노조 조직담당자 수련회 일정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디에스시 지회
9	23. 06. 27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7월 총파업 준비 건. 안건 2.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 건. 안건 3. 정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및 취합 건. 안건 4. 기타 건.	조합
10	23. 06. 30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7월 총파업 투쟁 점검 건. 안건 2. 금속노조 경주지부 5.31일 총파업 결의대회 평가 건. 안건 3. 기타 건.	지부
11	23. 07 28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7.15 금속노조 결의대회 및 민주노총 범국민대회 평가 건. 안건 2. 8월 당면투쟁 건. 안건 3. 기타 건.	일진베어 링지회
12	23. 08 17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투쟁 건. 안건 2. 기타 건.	조합
13	23. 09 15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당면투쟁 공유 건. 안건 2. 12기 2년차 조직 평가(초초안) 논의 건. 안건 3. 12기 2년차 하반기 수련회 일정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지부
14	23. 10 17	조합 조직담당자 수련회	안건 1. 당면투쟁 건. 안건 2. 2023년 조직사업 평가(초안) 안건 3. 기타 건.	
15	23. 10 19	지부 조직담당자 수련회	안건 1. 12기 2년차 조직부 평가(초)안 논의 건. 안건 2.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건. 안건 3. 기타 건.	
16	23. 11 01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안건 1.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건. 안건 2. 2023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건. 안건 3. 기타 건.	

2) 월별 사업보고

구 분 (2023년)	날짜	사업 내용	비고
1월	9일	경주지부 시무식(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1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일방적인 청산 철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결의대회	평택
	16일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일산
	27일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우영산업지회
	31일	지부 문화담당자회의	조합
2월	1일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용산
	6일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현판식	현대성우솔라이

			지회
	7일	한국와이퍼분회 경주물류창고 약식결의대회	경주
	10일	반인권적 강제단속 규탄 및 단속추방 반대 투쟁 선포식	대구
	15일	노조,감독 행정개입 3개지부 경주,포항,구미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21차 정기대의원대회	포항
	21일	전국 임원,사무처 수련회	단양
	27일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단양
	28일	건설노조 탄압분쇄 반노동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3월	6일	경주지부 1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지부
	16일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조합
	17일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무죄 판결 규탄 경북권결의대회	대구
	22일	복수노조 예산(안) 편성회의	조합
	23,24일	지부 조직담당자 수련회	양남
	25일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서울
4월	5일	한국와이퍼 대체생산 중단 영남권 결의대회	창원
	7일	강제단속 반대 밀입국 규탄 결의대회	대구
	11일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서울
	17일	영천 장애인 학대시설 폐쇄 촉구 결의대회	영천
	19일	이대로살 수 없다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
5월	1일	제 133주년 2023년 세계노동절대회	포항
	11일	광명자본 규탄 결의대회	광명지회
	12,13일	43주년 5.18 민주항쟁 열사정신계승 순례단	광주
	16~19일	경북본부 도보순회투쟁	지역
	17일	양회동열사 염원실현 민생 민주평화파괴 윤석열정권퇴직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26일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디에스시
	31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선 금속노조 총파업 경주지부 결의대회	경주
6월	8,9일	전국 조직담당자 수련회	단양
	24일	노동민생 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27일	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조합
	30일	지부 조직담당자 회의	지부
7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	대구
	5일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퇴진 민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대구
	7일	한국유타칼지회 결의대회	구미
	11일	총파업 투쟁승리 한동대미화 투쟁승리 결의대회	포항
	15일	7.15 민주노총 결의대회(금속노조 사전대회) 및 범국민대회	서울
	25일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총회	발레오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행진 캠페인	경주
	28일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일진베어링지회
8월	17일	조합 조직담당자회의	조합
	25일	영남권 결의대회	구미
	29일	일진베어링지회 약식 결의대회	일진지회
	30,31일	한국유타칼지회지지 농성	유타칼지회

9월	5일	9.5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서울
	6일	에코자본 규탄! 금속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	에코 본관 앞
	15일	지부 조직담당자회의	지부 회의실
	16일	윤석열퇴진 경북민중대회	안동
	20,21일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1박2일 결의대회	서울
10월	10일	2년차 확대간부교육	더K호텔
	17,18일	조합 조직담당자 수련회	광주
	19,20일	지부 조직담당자 수련회	부산
11월	1일	조합 조직담당자 회의	조합
	11일	23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15,16일	노조법 2,3조 개정 노숙농성투쟁 1박2일	서울

3) 집회 및 투쟁일정

구 분 (2023년)	날짜	내 용	비고(장소)
1월	09일	경주지부 시무식	현대성우썬라이트
	11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일방적인 청산 철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결의대회	평택
	16일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대회	일산
2월	1일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용산
	7일	한국와이퍼분회 경주물류창고 결의대회	경주
	10일	반인권적 강제단속 규탄 및 단속추방 반대 투쟁 선포식	대구
	15일	노조,감독 행정개입 3개지부 경주,포항,구미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	포항
	28일	건설노조 탄압분쇄 반노동 윤석열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
3월	17일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무죄 판결 규탄 경북권결의대회	대구
	25일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서울
	3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규탄 결의대회	대구
4월	5일	한국와이퍼 대체생산 중단 영남권 결의대회	창원
	6일	최저임금 올려라! 대구노동청 기자회견	대구
	7일	강제단속 반대 밀입국 규탄 결의대회	대구
	17일	영천 장애인 확대시설 폐쇄 촉구 결의대회	영천
	19일	이대로살 수 없다 금속노조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
	25일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 유출반대기자회견	경주시청
5월	3일	건설노조탄압규탄 기자회견	대구
	10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경북시국 공동행동 결성 추진 기자회견	대구
	23일	2차 조합임원 현장순회	경주
6월	16일	엠에스정밀지회 및 ITW경주지회 창립 결의대회	지회
	19일	엠에스지회 창립 결의대회	지회
	24일	노동민생 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7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	대구
	5일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퇴진 민주노총 동시다발 총파업 승리	대구

	결의대회		
	7일	한국오티칼지회 결의대회	구미
	11일	총파업 투쟁승리 한동대미화 투쟁승리 결의대회	포항
	15일	7.15 민주노총 결의대회(금속노조 사전대회) 및 범국민대회	서울
8월	24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기자회견	대구
9월	5일	9.5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서울
	6일	에코자본 규탄 금속노조 경주지부 결의대회	에코 본관 앞
	16일	윤석열퇴진 경북민중대회	안동
	20,21일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금속노조 1박2일 결의대회	서울
11월	11일	23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20일	원청 갑질 막는 노조법 2,3조 공포 촉구 기자회견	울산

3. 사업 평가

1) 경주지부 현장 조직적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지부 임원 및 집행위동지와 각 지회 임원동지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적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각 지회의 현안문제를 지부와 소통하고 지회와 함께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다. 지부 임원 및 집행위와 각 지회 상무집행위 수련회 및 확산수련회 진행시 참석하여 간부동지들과 간담회 및 지부 2년차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힘있는 2년차 사업집행을 시작하였다. 2년차에는 경주지부 전체 조합원이 모여서 23년 투쟁을 선포하는 경주지부 결의대회를 진행 하였다. 2년차 지부 투쟁선포식에 각 지회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지부집단교섭 사업장의 연대로 인한 에코자본을 압박 할 수 있는 지역의 연대 및 지부가 함께 투쟁의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사측을 압박하는 투쟁의 성과 결과물을 남기기도 하였다 2년차에는 신규지회 광명산업지회 새로운 22명의 식구가 생겼다. 복수노조 사업장이지만 천안과 광주를 조직하여 대표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지부와 지회가 함께 조직력복원 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

2) 지부/지회 조직담당자 역량강화

2년차에는 조직담당자회의를 통합(조직,쟁의,선봉,문체)으로 매월 정례화 하였다. 조직담당자 수련회 때 선동교육을 배치하여 2년차 각 지회 파업 진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배치하여 좋은 평가를 남기기도 하였다. 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조직담당자 동지들이 적극 결합하면서 한층 더 역량강화를 진행 하였다. 광명산업지회 설립 과정에서 조직담당자 동지들이 적극적인 결합으로 광명산업지회 경주공장 지회 설립이 순탄하게 진행 되었다. 상경투쟁 및 결의대회 시 참여를 독려하고 조직하여 2년차 업무를 순탄하게 진행 하였다.

아쉬운 점은 경주지부 각 지회 조직담당자동지들과 조합 조직담당자회의를 참여하여 각 지부별의 현안문제 점을 공유하고 조합의 조직운영 방향을 함께 힘차게 진행할 수 있는 2년차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하였다.

3)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지원 강화

매월 조직강화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복수노조 및 대각선 사업장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지부/지회가 함께 하나 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며 대각선사업장 교섭진행시 지부가 적극 결합하여 23년 투쟁을 함께 진행 하였다. 복수노조 및 대각선 사업장 조합원 동지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소속감을 고취 시키기위해 각 지회별 단합대회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고 전체 복수노조 및 대각선 사업장 단결마당이 될 수 있는 민주노총경북본부 및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함께 주관하는 여름캠프를 진행 하였다.

6-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대각선/복수노조 사업장 상시적인 회의실시
- 2) 지부/지회간 통일된 결정구조를 통한 조직력 강화
- 3) 복수노조 및 투쟁사업장 단결의 마당을 기획하여 조직력 확보

2. 주요사업

차 수	날 짜	장 소	회의 안건
11차	23.1.30	경주지부	안건 1. 경주지부 12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사업계획(초)안 논의건. 안건 2. 복수노조 및 소수노조 조직배가 사업비 논의 건. 안건 3. 12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선전물 제작 논의 건. 안건 4. 기타 건.
12차	23.3.13	경주지부	안건 1. 지회별 현장순회 일정 논의 건. 안건 2. 조직배가 사업비 편성 건. 안건 3. 기타 건.
13차	23.4.24	다스지회	안건 1. 복수노조 단결강화 기획 일정 논의 건. 안건 2. 조강위 기획 선전물 논의 건. 안건 3. 기타 건.
14차	23.5.22	경주지부	안건 1. 민주노총 여름캠프 일정 논의 건. 안건 2. 12기 2년차 조직배가사업비 집행 점검 건. 안건 3. 기타 건.
15차	23.6.19	경주지부	안건 1. 인지컨트롤스지회 단결강화 기획사업 승인 건. 안건 2. 본부 여름캠프 참가 점검 건. 안건 3. 지회별 임단협 진행 상황 공유 건. 안건 4. 기타 건.
16차	23.8.28	경주지부	안건 1. 본부 여름캠프 평가 건. 안건 2. 조직강화위원회 선전물 기획 논의 건.

			안전 3. 지회별(안전) 간담회 결과 논의 건. 안전 4. 기타 건.
17차	23.9.26	경주지부	안전 1. 12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평가. 안전 2. 조직강화위원회 하반기 수련회 일정 건. 안전 3. 기타 건.

3. 지부-지회 대면 사업 보고

1) 소수노조 사업장

① 코레스 지회

[경주공장 상황]: 현재 조합원 관계 금속노조 10명중 5;5비율로 볼 때 금속노조에 남아있는 이유는 한국 노총에 가입하면 분쟁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의견

- 초창기는 금소노조에 대한 탄압이 존재했으나 이후는 조직적인 탄압이 발생되지 않고 있음
- 지회에 대한 관심도나 사업에 대한 이해도나 공유등은 부족한 상황.
- 장시간 소수노조로 있다보니 무기력감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됨.

[노.노간 갈등 현안]

- 1년내 많이 소통하고 현안등은 공장장 면담등을 통해 해소함.
- 현장내 갈등구조도 금속노조라고 해서 의견이 무시되거나 묵살되는 것은 없음.
- (타임오프등은 음성적인 부분으로 정리등/-> 공장장 교체이후는 중단된 상황임)
- 교대노조와 타임오프관련 최종 논의후 정리 예정임.
- 현재 상황은 교대.금속노조에 대해 무관심과 양 노조간 분쟁사안을 만들지 않고있음.
- 전주공장 경우 지회에서 선전전을 진행해보니 금속노조에 대한 반감만 증폭됨.
- 경주공장 현안문제를 전주공장(본사)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교대노조내 예민한 상황까지 오픈되면서 역 반응이 발생함.
- 양 노조간 이간질 시키는 세력이 여전히 공장내 존재함. 예를 들면 기업노조내 의견그룹이 금속노조로 의견 취합후 교대노조와 지회간의 갈등구조를 일으키는 세력

[노.노간 소통 공간]

- 경주공장 위원장과 교섭내용,신규아이템,라인배치등 사전 교감후 배치함
-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배가 사업비예산으로 조직화 과정이 오픈 되더라도 금속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등은 해소된 상황임.
- 전주공장 지부장쪽과도 정보공유 및 소통 하는 단계로 발전됨.
- 노.노간의 갈등이나 분쟁구조는 많이 해소된 긍정적인 상황임.

[공동 집행 관련 여부]

- 실질적인 공동집행은 교대노조와 전주공장 쪽으로 의견전달은 했으나 간부들 의견은 조합원수가 많은

교대노조 중심으로 (기득권)유지 중 임.

특히 교섭이나 화재관련 고용안정내용.해당라인임금보전등 내용공유는 상시 소통하는 관계개선은 되어있음.

- 경주공장 신규라인 설치시 교대노조의 정보내용과 경주공장 임원들간의 내용에서 정확한 내용을 지회로 공유하는 기초적인 상황은 연결고리가 형성됨.

[지부 공동 투쟁 사업 의안 제출]

- 조합원들 성향이 다르다 보니 지회와 조합원들을 공동으로 리더하는 활동등에 대한 심적부담감이 큼.
- 조강위 내 임원중심으로 체육활동 공동체 활동등도 배치 했으면 하는 의견

② 아진 카인텍

[경주공장 상황:] 조합원 5명이고 일상 사업은 월1회 확대간부 회의 진행중/ 타임오프 200 시간/ 간부구성: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조직부장.

[노.노간 갈등 현안 특이 사항 없음]

[노.노간 소통 공간]

- 노사협의회나 요구안등 의견은 전달하나 별도로 교대노조내 논의 구조는 아님/ 교대노조 단협요구안 확정시 금속노조 요구안을 참조로 확정하는 구조

공동 집행 관련 여부: 지회에서 공동 집행.사업에 대한 요구는 교대노조 간부들에게 전달하고는 있으나 실제 공동집행은 전무한 상태임.

현재 주요 안건 발제: 교대노조 집행부 사퇴이후 현 위원장에 대한 불만 폭등/ 시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총회 소집요청함/ 시청 -> 중재기간 -> 최초 접수후 60일정도이후 총회가능한 상태임.

- 교대노조 내 대자보로 현장내 반대그룹과 힘겨루기 양상
- 울산 대동공업지회는 교대노조와 공동적인 집행을 요구/3사 대표자 면담/아진본사/대흥공업지회.아진카인텍
- 성과급 형태로 계열사(우신.아진본사.아진카인텍.대흥공업) 차등지급 600~800사이/ 조.반장 800만원/대흥공업 일괄 300만원./본사700만원 지급
- 아진카인텍: 조.반장: 800만원/평사원:700만원/6개월미만은 50%/사내협력업체 전체 최고 금액의 50% 지급함.
- 전체 계열사내 신규인원 충원시 잉여인원 모집 -> 전보 방식 채택
- 대흥공업지회: 계열사 인원중 금속노조 반 조직적 행위자 입사 거부 -> 신규채용으로 변경함.
- 교대노조 최대 쟁점 사안: 임금교섭은 상견례 진행 못함/교대노조내 위원장 불신임 관련

[조직배가 사업 진행 방향 및 경과]

- 지회는 할수 있는 방식(대면사업)을 다 진행했으나 결국 본인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금속노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귀결됨.
- 즉, 음성적으로 지속적인 1:1 마크로 의식 강화 활동으로 결합 시킴.
- 현재 수준은 지회확대간부 회의까지 참여 시킬 정도로 제2의 조직화 주체로 양성중임
- 조직배가 사업비로 제 2조직화 주체 + 추가 조직화 인원들과고 협력 관계 유지중
- 조직배가 사업비로 인한 조직화 주체간의 모임으로 까지 확대 중임.

[지부 공동 투쟁 사업 의안 제출]

- 기본적으로 조강위 사업을 중심으로 소속 지회들이 현안문제 발생시 공동사업의 방식
- 현안 문제 발생시 우선 조강위 사업장부터 결합으로 연대 강화
- 장시간 복수노조(소수노조)로 인한 스트레스 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 할수 있는 공동 기획(이벤트)를 진행 해보자.
- 즉, 동기부여를 위한 조강위 사업에 접목 시킬수 있도록 사업 방향 제시
- 조강위 내 성원들의 참여형 방식의 조직참여 방식 유도 방식
- 치유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심적 불안감해소 및 자존감 회복 교육 배치

③ 리어코리아 사내 하청 지회

[지회 상황]

- 2021년 단일노조(과반미달) → 2022년 2월 복수노조 (소수노조)

[노.노간 갈등 현안]

- 노사협의회.임.단협 조항 개정/ 타임오프배분 등 전반적인 갈등 구조

[노.노간 소통 공간]

- 표면적으로 보여지나 일방적인 의견 전달 구조

[현재 주요 안건]

- 조직배가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부.지회 간담회를 통한 기본적인 조합활동중임.
- 8월부터 소식지.매주1회 중식 간담회를 통한 지회 활동 강화 예정.

[지부 공동 투쟁 사업 의안 제출: 지속가능한 지부-지회 결속력 사업 배치.

④ 인지컨트롤스 지회

[경주공장 상황]

: 현재 주간2교대 쟁점 이나 논의중/ 사전모임 참석이후 사측은 진정성 없음

- 금속노조는 논의구조 빠짐.한노 중심 논의중임/ 23년 시업운행/24년 본 시행
- 임금보전은 야간조는 야간수당(10시~06시) 보전 방식 정도
- 경주.아산은 금속노조 배제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임
- 한노는 사무직 군 중심/금속은 현장중심임을 문제제기
- 23년 생산적인 근무형태 변경은 반대적인 입장을 견지 하기로함.
- 임금협상은 최저시급 미치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됨
- 19년도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서 임금하락으로 이어짐
- 최소한 생활임금 보전도 부족함.
- 노.노간의 대화채널은 형식적인 상황임.
- 금속노조 요구안은 배제되어옴
- 아산 대표노조와는 대화 단절.옥천 한노하고만 대화 채널 운영됨.
- 노.노간 갈등 현안: 현장에서 한노 조합원간의 라인 문제.특근문제등은 존재함
- 현장은 금속노조가 대다수라 현장동력 으로 정리되는 구조임.
- 상여금 400% 복원 요구중이나 대표노조 자체가 배제.

- 각종 노협, 산안위등은 금속노조는 배제.
- 현장이 다수임에도 교대노조라는 것에 금속노조가 배제되는 구조임.
- 경주공장은 교섭권이의 생산.현장문제등도 금속노조랑 협의.합의하는 구조라 다른 복수노조 사업장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함.

[노.노간 소통 공간]

- 공동 집행 관련 옥천 한노는 금속노조랑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금속노조와는 관계는 좋은 상황임. 옥천 한노 또한 교대노조랑 대화는 안되고 있음.

[지부 공동 투쟁 사업 의안 제출]

- 조강위 회의 유지.수련회.예산 반영등만 해도 충분히 사업 확장성이 보장되고 있다.
- 사업장내 지회내부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임.
- 극 소수 사업장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고 릴레이 대면 사업을 배치.
- 지회내 결속력과 투쟁력을 담보할수 있도록 조강위 사업이 유지될수 있도록 하자.
- 지회 대면 사업과 고민지점 공유와 공통적인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수 있는 고정적인 사업으로 배치하자.
- 확대간부 회의나 조합원교육에 배치 될수 있도록 해보자.
- 현장순회시 현장조합원들에게 좀더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세심하게 접근성을 가질수 있도록 방안 고민.
- 작은 사업부터 접근성을 높이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해보자.

2) 공동 교섭 노조(소수)

① KBI동국 실업 지회

[아산.울산.경주 공동 교섭 체제]

- 2022년 초기 교섭군 분리 관련 조직화 목표로 설정하고 울산공장내 지지세력을 유지했으나 최종 무산됨.
- 현재 기업노조인원은 130명에서 80명수준으로 자진퇴사로 인해 축소됨.
- 아산은 금속노조 교섭군 분리에 확고한 의지나 목표점이 약하나 금속노조 사업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임.

[지회내부 상황 및 과제]

- 지회설립이 9주년이나 생산 업무상 독립적인 조립공정으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함.
- 이전 집행부나 현재나 전 조합원 공통적인 사업 방향 모색 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함.
- 조합원 단결 사업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함.
- 현재 조합에 대한 관심도나 단결력의 저하 현상으로 지속적인 단결사업이 필요함.
- 단결력 회복 사업을 위한 중장기 사업의 모색이 필요함.

[금속노조 조직화 (공동 주체 설립)]

- 2022년 당시 아산공장과 공동 목표를 갖고 울산공장 3~4명 포섭해서 진행하는 중에서 울산공장 위원장 발각 되면서 무산됨 이후, 울산공장 총회를 개최해 개별적인 금속노조 가입은 동의하나 탈퇴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정리함. 이후 3~4명의 내부 지지자들과 더 이상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함.

- 특정 집행부의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될 중요한 사업임.

[노노 교섭외의 공동 사업]

- 경주.아산 공동 사업은 2022년 금속지회만 조합원 단합대회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교섭 말미에 아산지회에서 교섭 마무리 시점관련 의견 충돌이후 경주.아산간 관계가 묘연해짐.

- 2023년 교섭중에 아산지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나 여전히 의견차이가 존재함.

- 특히 공동 좌담회,단합대회등을 통해 소통공간과 단결력에 집중.

- 그룹내 계열사(금속사업장) 공동 투쟁을 통해 공동요구등을 제안했으나 진척은 없음

[지부 공동 투쟁 사업 의안 제출]

- 지회 내부 결속력 강화후 조강위차원의 사업이 접목 방식.

- 울산공장 조직화 사업에 양지부가 공동 사업을 목표 설정 방식.

- 초기 가입당시 자본의 저항이 심했으나 9년동안에 별 문제 없이 공동교섭등을 통한 미조직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짐.

- 소수노조로서의 다수 조직화 전망의 상을 명확히 하는 사업 배치(지부/지회)

[조강위 단결력 고취 사업 방향]

-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위주의 전체 사업의 방향은 동의하나 운영위내에서 소수 사업장의 안전도 내실 있게 논의와 결정으로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토론할수 있는 구조 필요.

3) 소수노조 에서 다수 노조

① 플라스틱 옴니움 지회 (교대노조)

[조직화 배경] 사무직 중심으로 금속노조(소수노조) 설립되고 23년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대노조로 확정된 사례임. (설립 2년만에 교대노조 지위획득)

[조직화 상담 내용]

- 12기 지부사업인 조직배가 사업일환으로 지회별 100만원씩 지원해옴.

- 성공적.부정적인 사례: 성공적사례: 기업노조내 내부적 갈등요인 발생 -> 기업노조로서의 한계 특히 지역의 금속노조 와 대비해 근로조건,임금등에 대한 기업노조의 한계점

- 대안은 무엇이었나? 결국 금속노조가 대안으로 확정시 되고 기업노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인자들이 결집됨.

- 처음엔 조합원 수만 늘리는 배가사업을 전면에 걸지 않고 기업노조와 다른점을 부각 시키기 위한 사업부터 진행함.

- 금속노조 가입은 표면적 방식이 아닌 음성적인 조직활동으로 진행함.

- 특히 기업노조와 소수노조간의 조합원수,교대노조,권한등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간의 갈등과 노조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생될 것을 고려함.

- 자율적인 가입유도와 조합원들간의 소통강화에 매진함.

- 기업노조 내부적 갈등이후 금속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음.
- 과반수로 변경이후 기업노조도 위기감이 발생함. 특히 기업노조는 예산이 풍부함으로 기업노조 조합비로 조합원들에게 물량공세로 대응함.
- 처음엔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물량공세에 대한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함.
- 22년 임.단협시 공동교섭단 구성 제안 및 교섭위원 2명 등 제의하였으나 기업노조 측에서 1명만 인정함.
- 23년 교대노조 지위획득 이후 예전의 방식과 관점을 벗어나 전체를 포용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
- 24년 교섭시에는 양노조간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배분과 공동투쟁을 할수 있는 방안을 선 제안하고 공통적인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선례를 확보하려고 함.
- 금속노조 - 기업노조간의 공동 요구 /공동 교섭/공동투쟁 을 위한 내부적 소통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진행 예정임.
- 금속노조가 교대노조로서 금속조합원의 이익요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도 공통적인 이익 배분과 조정이 될수 있도록 배려를 통한 조직화에 중점을 둠.

[조직화 방식]

- 현재의 기업노조 상태: 기업노조 조합원들도 시간이 걸리지만 종착지는 금속노조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함께 간다는 기류는 존재함.
- 2011년 금속노조 탈퇴이후 기업노조로서의 임계점은 존재하나 금속노조의 투쟁력을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은 있음.
- 18명으로 설립되고 난후 금속노조로만 가입하면 모든 것이 변화 될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하였으나 복수노조 사업장내 소수노조로서의 한계점은 극명하게 존재함을 확인함.
- 현 지도부는 기득권(임원등)을 내려놓고 현장 조직화와 하나된 노동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임.

[기업노조 -> 금속노조에 대한 반감 적인 것은?]

- 현장직(기업)/ 금속노조(사무직) 기업노조는 처음에 사무직은 금속노조(소수)/ 현장직은 기업노조(교대)로 인식하고 별다른 탄압이나 압박은 상대적은 없었음.
- 특히, 예전 금속.기업노조 활동을 같이 하였고 개인적인 친분유지는 형성되고 지속됨.
- 기업노조 내부적으로 금속노조 설립에 대한 책임과 질책등으로 인해 반대적인 조합원이 금속노조 가입으로 조직되는 과정도 있었음.
- 노동조합은 금속노조라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기업노조 조합원중)
- 경주내 지역적인 분위기도 조직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짐.

[금속노조가 소수인데 다수노조만 고집하고 조직했는가?]

- 기회가 된다면 노사협의회든 각종 위원회등 교섭에서도 공동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방식과 방법을 구상하고 진행해야 한다.
- 특히 노협,위원회등은 반.반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음.
- 소수노조 의견이 전달될수 있도록 교대노조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함.
-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간의 기본적인 공동사업은 유지한 특이한 사례로 보임.

-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문제없이 진행함.
- 법무팀 자문료만 몇 천만원정도로 지불할 만큼 노조에 대한 반감적인 부분은 있음.
- 소수노조로서의 의견과 이익배분 등을 주장할수 있을 만큼 기업노조와의 관계 개선이 됨.
- 조직화 대상과 의식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날 경우 부담이 될수 없는 선에서 조직화 중요.
- 조직화 인원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조직이 될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적용함.
- SNS 소통방을 통한 지회 일일보고 및 지회 사업보고등 알람이 역할과 지회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댓글과 퀴즈등을 내고 답변과 관심을 보인 조합원들에게 커피쿠폰 등 관심과 역할을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음.

[주요 소통 사업은]

- 기업/금속 공동 사업: 기초적인 사업 조합원 공통 복지 사업으로 추진중/ 초복 양노조간 수박화채 제 공동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 진행 예정 (사업비등도 공동 지출)
- 금속노조가 교대노조 전환이후 미조직된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다양성을 느끼게 노력중임.

[지원은 어떤 분야가 되었으면 하는가]

- 소수노조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복수노조 사업장에 공동 출근 선전전을 통한 금속노조 가입의 날로 설정하고 금속노조라는 자긍심이나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는 공동 선전 사업
- 복수노조 사업장 회의시에도 각 사업장에 릴레이 지지 방문등 내부적인 단결력 고취 사업
- 복수노조 사업장 알아가기 사업만이라도 관심과 지지를 받을수 있는 사업 배치.
- 복수노조내 소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연대지지 등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 소수노조로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조합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소수노조 조합활동비등/이주노동자센터등 조합비가 가용되는 범위내에서 많은 연대지원(기업노조 해산 시)

4) 단일 노조

① 청우 지회 (단일노조->복수노조 -> 소수노조 -> 다수노조 -> 한노 해산)

[조직화 과정] 조합활동 시간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사업도 중요한 지점이나 내부적인 조직화 사업에도 중점을 두는 방식을 제안하고 조직화 시작함.

- 조직화 과정에서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고착화 되는 시기도 있었음.
- 특히 탈퇴하는 동지들에게 탈퇴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에 대한 반감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됨.
- 금속노조 탈퇴 회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으나 금속노조를 끝까지 지킨 사무직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정도만 되는 힘든 상황은 존재함.
- 현장 조직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조직전체가 불안한 상황도 존재하였으나 내부적인 분열을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 실천을 함.
- 조합원 가입의 방식은 모범이 될수 있는 원칙을 정하면서 조직화를 진행.
- 단일노조이지만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직화 노력중.
- 비조합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함.

- 지회의 활동이나 금속노조의 방향 등을 직접 대면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직화로 되는 원동력이 됨.
- 지속적인 대면 사업과 눈높이에 맞는 상황을 설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대안은 금속노조 가입과 교대노조라는 인식.

[이후 과제]

- 조합원 교육을 통한 의식 강화, 내부적인 단결력 고취 사업 필요함.
- 현장 활동을 강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현장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지회 사업에 적극 결합할수 있는 의식 강화 사업 강화.
- 조합원 및 확대간부 단결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시작한 조직화]

- 2010년 한노설립 이후 사무직-> 자재 -> 현장 발령후 최초 목표는 정년퇴직전 교대노조 목표를 두고 조직화 진행 당시 개인사비로 조직화 시작함.
- 당시 한노와 갈등이 최고조로 달함. 경주지법에 재판 (이주노동자) 관련 폭행혐의로 신고등 한노가 조직적으로 금속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압박하는 과정 발생함.
- 교대노조 임원들과 갈등구조가 길어지면서 임.단협 저하 임금저하등 노동자 권리 마저 박탈당하는 암흑기가 있었음.
- 이과정에서 금속노조 조직화 분화점이 되기 시작하면서 양노조건 교대노조 획득을 위해 이중가입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하였으나 순탄하지 못함. 내부 정보등이 누설되면서 사측 대응하는 모양새가 됨.
- 소수노조 시절 조합원들도 적대감이 최고조로 달하여 인간관계마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됨.
- 조직의 규정.규칙등 절차에 따른 현장 소통과정 일원화 필요
- 지회 내부적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근원 확인 필요

4) 사업 제안

[지부 공동 투쟁 사업]

- 지부.중앙 임원 방문 등 도 지회 내 조직화 사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음
- 지부/조강위 차원의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공동 대면 사업을 강화 하는 사업배치
- 조강위 사업장 릴레이 지부/지회 소통사업 강화
- 지부장 확대간부 교육 및 조합원 간담회 배치 사업

[조강위 사업 의제 관련]

- 조강위내 지회/지부 공동 사업 발굴(지회별 상이)
- 특화사업배치 (소수노조 트라우마 및 장시간 임원활동의 한계점을 극복할수 있는 의제)
- 분기별 지회 간부회의 참석 및 현장 순회 배치(조합원 밀집사업 연계)
- 장기적인 조직배가 사업예산 확보
- 지부 사업과 지회 사업이 결합될 수 있는 사업 확충 등

4. 사업 평가

1) 회의평가

- 12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회의는 1월30일 1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26일 17차 회의로 마무리 되었다. 10월15일 18차 회의 및 지회별 조직사업 참여형 수련회로 진행예정이었으나 지회별 현안 문제로 실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정례적으로 진행된 조직강화위원회는 1년차와 같은 방식인 운영위 회의 종료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성원의 변화는 4월 22일 설립한 광명산업지회가 복수노조로 참석이 되었다. 2년차에도 지부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전체적으로 12기 2년차 조직강화위원회 회의 참석과 지부장 주재 방식이 잘 수행하였다고 보여진다.

2) 영역별 사업평가

① **조직배가 사업 영역** 1년차와 동일하게 지부 특수목적기금에서 7,000,000만원을 운영위회의와 대의원대회 사업예산 승인을 통해 복수노조 및 단일노조 사업장 내 조직배가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회로 지원하였다.

- 12-1년차 수련회에서 나온 사업기획안중 조직배가 사업비를 사업영역에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조직배가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확장성이 있었고, 특히, 지회별 1안건 간담회 진행시 조직배가 사업비 지원이 조직배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조직배가 사업비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② **복수노조 사업비 지원** 노조에서 지원된 복수노조 사업비 4,000,000만원은 지회별 단결강화 기획사업안 제출을 통해 조직강화위원회 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금액을 지원 하였고, 단결강화 기획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단합과 조직력이 결집되었다. 이후에도 수련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 기획을 통해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다져나가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③ **현장 조직력 강화 영역** 2년차에는 선전 사업 강화를 위해 분기별 2~3개지회 중심으로 소식지 발행을 진행하였다. 지회별 기사등 내용이 발생시기에 맞게 잘 정리되는 지회와 다소 전달이 지체되는 지회도 발생 되었다.

- 이는 첫 사업과 활동시간.역량등을 고려 하여 좀더 세밀하게 정리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 12기 하반기부터 진행된 조직강화위 내 복수노조 사업장 중심의 현장순회 및 조합원 간담회 진행 사업은 3개지회와 지회별 릴레이 간담회로 마무리 되었다. 13기 사업에는 현장 간담회 및 별도 현장순회 배치를 통한 조직강화위원회 세부사업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 해야 될 것이다.

④ 지부/지회 단결력 강화 사업

- 2년차에는 지부.지회.경북본부까지 포괄하는 단결력 기획사업으로 경북본부 여름캠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지부 예산 5백여만원을 경북본부.경주지부 배분 방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였으며, 1년차에 민주노총 경주지부.금속경주지부와 연계된 여름캠프보다 확장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 하계휴향소 별도 운영등의 세부적인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2년차처럼 본부/지부/지회가 함께 하는 기획 사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총괄 평가

- 12-1년차 수련회(교육 및 주요 사업 집행방식)의 방식이 아닌 복수노조 사업장 중심의 조직배가 사업 사례. 조직사업 준비-과정-결과 등 지회가 직접 준비하고 발제하는 참여형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 예정 이었다.
- 이를 통해 12기 사업을 평가하고 13기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을 지회가 직접 논의하고 집행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부는 지회별 대면사업을 통해 3개 영역으로 준비를 하였으나 지회별 참여율 저조와 일정 중복등으로 지부와 지회가 함께 결합하고 논의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 이후, 조직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잘 복무 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지부-지회 대면사업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13기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이 내적인 성장과 외적 조직배가 사업으로 발전.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6-3. 미조직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전 조직적으로 미조직노동자 가입사업을 추진하여 조직률을 확대.강화
- 2) 지부 미조직위원회의 및 경북본부(조합) 등 회의 다양화를 통한 의식 강화
- 3) 조합과 연계한 이주조합원 실태조사 사업 및 지회별 간담회 배치 사업

2. 주요사업

1) 월별 주요 사업보고

월별	회의 및 사업	회의 안건 및 실천 활동 내역	비 고
1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5,12,19)	
	10차 미조직회의	- 2년차 사업계획 및 미조직 조직화 선전 용품 방안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광명산업 지회)	
	신규사업장	- 현대성우솔라이트 교섭	
2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9,16,23)	
	미조직 회의	- 미조직 회의 이월 처리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광명산업 지회)	
3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2,16,30)	
	11차 미조직회의	- 4~6월 실천사업 계획 논의(임금실태조사.시기집중사업)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광명산업 지회)	
4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6,13)	
	시기집중 선전전	- 동시다발(5개거점) 선전전(12,16)	
	12차 미조직회의	- 이주조합원 간담회 논의 및 5~6월 미조직 조직화 방안 논의	
	실천의 날	- 23년 임금실태 조사 사업 및 커피트럭(문산공단)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설립	
5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4,11,18,25)	LED 차량 홍보
	13차 미조직회의	- 23년 노조 책임최고단 결합 논의 및 조직화 홍보사업 논의	
	시기집중 선전전	- 동시다발(5개거점) 선전전(3)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럭(10,18)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사업 진행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출근 선전전	
6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1,8,15,22)	
	14차 미조직회의	- 7~8월 미조직 실천 사업 및 제2회 이주조합원의날 논의	
	시기집중 선전전	- 동시다발(5개거점) 선전전(7,14)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이주사업	-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14,16)	
7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6,20,27)	
	15차 미조직회의	- 제2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 기획 논의 - 8월 미조직 실천의 날 기획 논의 - 하반기 미조직 조직화 광고 논의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물 배포(황성공원,예술의전당)	
	이주사업	- 엠에스.현대성우솔라이트 지회 이주조합원 영상 및 간담회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피켓팅 및 조합원 간담회 지원	
8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17)	
	미조직회의	- 집단교섭으로 순연 처리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물 배포(터미널,황성공원 도서관)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피켓팅 및 총회	
9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7)	
	16차 미조직회의	- 제2회 이주조합원의날 행사 확정 논의 - 9~11월 미조직 조직화 기획 논의 - 2년차 수련회 개최 및 이주센터,지회별 간담회 배치 논의	
	실천의 날	- 미조직 조직화 선전물 배포(박물관 주차장)	
	이주사업	- 제2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 진행(더K호텔)	
	신규사업장	- 조합원 중식 릴레이 간담회	
10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5,12,19,26)	
	17차 미조직 회의 및 수련회	- 2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논의(1차) - 11~12월 미조직 조직화 기획 논의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조합원 간담회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2,9,30)	
11	미조직회의	- 13기 선거 일정으로 순연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신규사업장	- 광명산업 지회 임.단협 후속 사업	
12	공단선전전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7,14)	
	18차 미조직회의	- 2년차 사업보고 및 평가 확정 - 미조직 조직화 선전전 평가 논의	
	상담 및 조직화	- 조직화 상담 진행	
	신규사업장	- 광명사업 지회 조합원 총회	

유료
게시대
홍보사업

서면,유료
게시대
홍보사업

2) 실천의 날 활동 보고

(1) 23년 임금실태조사 및 커피트럭 실시 진행 보고

① 1차 23년 임금실태 조사

→ 일시 및 장소: 4월 6일(황리단길) 14시~

→ 참석: 심상우,서재영,김광현,윤종근,손창익,한동환,김정대,김광섭,최익선 이상9명

② 2차 23년 임금실태 조사 및 1차 커피트럭

→ 일시 및 장소: 4월 12일(문산공단식당앞) 11시50~

→ 참석: 김광현,윤종근,손창익,이동혁,홍문기,안의선,김홍보,이중희,김광섭,최익선,맹기호 이상 11명

③ 3차 23년 임금실태 조사 및 2차 커피트럭 (12차 미조직위 회의후 진행)

→ 일시 및 장소: 4월 26일(성미한정식 앞) 11시50~

→ 참석: 김광현,김정대,손창익,심상우,안의선,홍문기,김홍보,이동혁,이중희,김광섭,손인혁노조 박기홍미전
략부장 이상 12명

④ 3차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럭

→ 일시 및 장소: 5월 10일(문산공단 식당 앞) 11시50~

→ 참석: 김정대,고광태,심상우,이주은,김혜진,이영주,김홍보,이중희,김광섭,최익선 이상 10명

⑤ 4차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럭

→ 일시 및 장소: 5월 18일(천북공단 교동식당앞) 11시50~

→ 참석: 김홍보,서재영,이중혁,이중희,김광섭,현대성우솔라이트 지회지지(5명) 이상10명

(2) 23년 임금실태조사 및 커피트럭 진행 평가 안

－ 12기-2년차에는 4~5월 기간동안 3차례 23년 임금실태조사 병행하여 4차례 커피트럭을 진행하였고, 진행장소는 문산공단.천북공단 중심으로 실시 되었으며, 영천공단 지역은 장소섭외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다.

－ 23년 임금실태조사 및 커피트럭 참여 인원은 46명 참석으로 실시되었으며, 문산공단 주변의 호응도는 12-1년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졌다.

－ 이후 대면사업 일환인 미조직 조직화 커피트럭 진행에 있어 장소 확보등은 노조와 협의하여 경직되지 않고 미조직화에 극대화 될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조직화 홍보 사업 보고

선전전 현수막(경주.영천도남공단) 유료게시		선전물품
		코리아페인트(주)4차투기(한국산-독일영국)X13(82675)  인쇄물 및 사서지 (4.5cm x 0.38cm) 1본씩만

하반기 교차로 서면 조직화 광고 사업	시기별 집중 의제 선전전
고민 되십니까? 노동조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노동조합 직장갑질! 임금체불! 고용불안! 공짜노동!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지금 노크하세요!! ★★ 상담 및 노동조합 금속노조 경주지부 1811-9509 가/입/문/의 민주노총 경주지부 054)772-4603	가스비 공공요금 인상! 물가폭등! 임금은 제자리 최저임금 1만2천 요구는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 생명안전 개악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월급빼고 다들랐다. 내려라 공공요금! 물러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250만원! 물가·공공 인상 최소 임금입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2023 직면한 최대 수위 1위는 '임금인상' 최저임금 대폭인상 금속노조가 나섭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내 월급은 떨어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떨어지니 통장이 '형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한 끼는 누끼는 채끼는 임금 삭감 사채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해야 합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최저임금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다구요? 아닙니다! 한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4) 조직화 신규 사업장 평가 -광명산업 지회

[조직화 과정]

- 2022년 11월 최초 초동주체 상담 시작으로 23년 1월부터 노조가입 상담을 진행.
- 10차례 초동주체 교육과 현장 전술,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5곳에 대한 전술적 논의 진행.
- 최초 설립준비 과정에서 광주.천안 공장 현장 중심으로 조직화 이후 지회설립을 논의하고 조직을 준비하였으나 공장간 교류가 전무하고 오히려 조직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경주 지회 설립이후 공식적으로 광주.천안 조직화 방식으로 결정.
- 이 과정에서 초동주체는 금속노조 가입이후 공장내 복수노조가 발생되고 교대노조로서 지회를 획득할 수 없더라도 현재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기조로 결의하고 조직함.
- 조직상담에서 설립까지 복수노조 발생에 대해 사전 대비,조직화 방안등을 설정 하고 조합원들의 심리 상태.조직상태 등을 점검해 가면서 지회 설립을 진행함.
- 4월 22일 지부 사무실에서 22명의 조합원이 참석으로 지회임원 선출,지회규칙을 완료.

[설립 이후]

- (초기) 4월 23일부터 기초합의서 및 노동조합 설치등을 통보하고 임시교섭을 통한 조합활동등을 논의 하였으나, 교섭창구일원화 이후 최종 교섭이라는 원론적인 노.사 공방으로 정체되었다.
- 지부.지회는 본격적인 조직화사업을 위해 광주.천안 공장 선전전을 통한 가입 조직화에 매진 하였다.
- 경주공장 설립이후 경주지부.광전지부.지회와 상황을 공유하고 광주공장 조직화를 위해 초동주체면담과 당일 사내 식당에서 금속노조 가입서와 현재 상황 공유로 9명의 조합원이 가입하는 성과가 있었다.
- 그러나, 광주공장은 가입이후 사측의 회유등 사무직군 중심의 한국노총 가입으로 전원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더 이상의 진전없이 광주공장 조직화는 일단락 됨.
- 지회는 운영위에 설치승인이후 지회대의원선거 및 상집부서장 선임을 통해 간부를 구성하였다.

- (중기) 사측의 전면적인 도발을 없였으나 기초적인 조합활동 부분이 적용되지 못하면서 임원 및 간부들의 회의시간, 일상 활동적 조합 활동시간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 복수노조인 한국노총과 교섭등을 통한 상황만 전달되는등 노동조합 활동적 측면이 어려워 지면서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담당자와 유선통화 등으로 양 노조간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으로만 진행되었다.
- 비록, 소수노조이지만 경주공장에 금속노조 광명산업 지회가 설립된이후 현장 개선, 식당 단가인상으로 식사개선, 휴게실 설치등 조합원에게 느껴지는 변화가 발생되었고, 본사에서 파견된 사무직군 중심으로 금속노조 가입 문의등 이후 조직화에는 청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교섭 관련]

- 교섭창구단일화이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한 한국노총 광명산업 지부,사무국장, 금속노조 광명산업 지회장,사무장간 간담회와 기초적인 소통 공간으로 SNS 단톡방을 통한 의견전달 구조로만 이어지고 있음.
- 지부는 지회와 중.장기적인 조직화 방안을 설립초기부터 목표 설정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재 상황과 이후 계획등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지회안정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조직화 활동 및 이후 과제]

- 지부/지회간 매주 확대간부회의와 조합원 간담회 배치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과 교대노조 임.단협 의견접근안 등에 대해 지회소식지, 현장 전파, 사무직군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실천 하고 있는 상황임.
- 일상적인 지회활동을 통해 작지만 강한노조 광명산업 지회라는 슬로건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2년동안 사무직군 우선 조직화에 방점을 두고 조직화를 위한 세분화 조직 중이다.

[총 평]

- 광명산업지회는 1990년도에 한국노총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사측의 회유로 해산되는 과정이 있었다.
- 이후 전체 공장 현장 생산직군은 사내협력업체로 전환되고, 현장인원은 간접부서인원들로만 구성되었다. 이것은 향후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현장을 장악할수 없도록 시스템화 한 것으로 보여진다.
- 조합원 총회.소통 시간 통해 현재 상황과 이후 활동 과제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소통과정을 통해 지회로 단결될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만들 수 있었다.
- 현재 소수노조이지만 한명의 이탈자 없이 조직이 운영되고 광명산업의 조직화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인식으로 조직화 진행중에 있다.
- 광주.아산.천안 연구소 중심의 조직화와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활동과 사무직군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연락망 체계 구축을 마련중이다.
- 지회의 조직화 완성과 내부 안정화 체계를 위해 지부는 상시적인 현안문제 점검과 실천 방안 논의를 통해 교대노조로 가는 초석을 만들어 가고 있다.

5) 이주조합원 간담회 사업 평가

(1) 진행 과정 및 약평

- 2년차 노조-지부 공동 사업으로 실시된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6월 14일.16일 진행되었다.

- 지부 첫 이주사업의 영역으로 금속노조 이해 및 23년 투쟁방침. 지회별 교섭 진행과정.노동조합 의견 수렴 방식으로 실시 되었다.
- 현대성우솔라이트,금강.엠에스.현우.명성공업 5개지회로 국적은 캄보디아.중국.베트남.필리핀.스리랑카.우즈베크.몽골 7개 국적의 이주조합원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통역사 배치 국가별 통역기 번역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처음 시도한 국가별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이주 사업에 대한 노조-지부-지회 의견수렴 과정으로 집중도와 참여률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 노조.지부.지회가 이주조합원 사업이 확대될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주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병행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 13기 이주조합원 사업이 확장될수 있도록 간담회.노동조합 활동 측면등 구체적인 사업이 실행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지회별 이주 조합원 간담회 약평

① 현대성우 솔라이트 지회

- 금속노조 경주지부 에서 이주조합원을 위해 통역사를 통한 금속노조 교육 및 지회 교섭 과 투쟁일정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전달 사항들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었다.
- 이후에도 지회와 이주조합원들간의 소통시간이 자주 배치 되었으면 한다.
- 이주조합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 이주조합원이 고민하는 지점과 현장 개선 사항에 대한 방안을 찾고 이주조합원 사업등에 적극 동참 하는 것으로 함.

② 금강 지회

- 통역사 분들이 직접 자국언어로 통역을 하니 답답한 부분이 많이 해소 되고 좋았음.
- 언어적인 문제로 해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평소에 답답했으나 간담회를 통해 답답함이 해소되었다.
- 오늘 나온 의견이 노동조합에 잘 전달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③ 엠에스 지회

- 기숙사 문제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만족한다. 최대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음.
- 통역사를 대동하고 간담회를 하니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람.

④ 현우,동국실업,명성공업 지회

- 대체적으로 타 지회에 비해 장기간 이주조합원으로서 한국말 에 대한이해도가 높게 형성됨
- 한국 노동생활에 만족하고 금속노조에 가입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음.
- 현재 불만이 없으며 지금처럼만 조합이 신경써줬으면 함

6) 제2회 이주조합원 날 사업 평가

- (진행과정) 지부 미조직위원회에서 9차회의 부터 조직화,프로그램 논의등 초벌 논의를 진행하였고, 노조-지부 공동주최를 통해 예산 및 기획안이 확정 되었다.
- 최종 기획안이 확정되고 운영위 보고와 지회별 조직화 관련 세부적인 논의로 진행 되었다.

- 22년 1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는 금속노조란 주제적 교육 형식 이었다면, 이번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는 교육,아이스브레이킹,공동체 놀이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 행사 였다.
- 특히, 공동체 놀이 행사의 및 아이스브레이킹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으며 행사진행 물품등 1년차와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조직화)** 당일 교통편의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조직화에 복무하였으나 지회별 참석 인원 조직에 대한 보완점은 여전히 고민으로 남았다.
- 행사일이 휴일이라는 점, 가족동반 모임으로 확대해서 진행했지만 이주조합원들에게 꼭 가봐야 되는 우리의 행사라는 각인은 지속적인 행사와 소통공간을 통해 발전시켜야 될것으로 보여진다.

(약평 및 의견)

- 노조-지부-지회 약 90여명의 참여로 진행된 제2회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는 최대한 이주조합원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주조합원들이 소속 사업장을 소개하는 방식과 정주.이주 조합원 공동 체험프로그램 진행은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좋은 평가로 남았다.
- 1회차 평가에도 보완지점으로 나온 국적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과 통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달방식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에 맞게 다양한 국적별 프로그램과 차수별,국적별 세분화된 일정도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 언어적인 장벽은 좀더 세밀한 고민으로 통역국가.배치.방식과 행사일이 휴일로 인한 참석률 저하등 다양한 시도와 방식으로 진행 되어야 될 것이다.
- 이후 이주조합원의 날 평일 진행 방식으로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과 지회별 행사가 아닌 국적별 행사로 확장력을 넓히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사업 평가

1) 미조직위 회의

- 2년차는 10차 회의를 시작으로 18차 회의를 끝으로 12기 미조직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 1년차 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매월 진행 원칙으로 시기별 집중의제와 미조직 선전전.노조.지부.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2년차 지회 일정을 감안 하더라도 회의 참석률은 80%이상 참석이 되면서 사업에 집중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10월 회의부터 발레오만도 지회 부지회장이 성원으로 결합되었고, 에코플라스틱지회는 지회 상황으로 성원으로 합류 되지 못하였으나 13기 미조직위원회는 결합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 13기 미조직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체계.실천과제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진행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사업

- 민주노총 경북본부 미.비특위 회의와 실천 사업에 지부미조직 담당과 지부 미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실천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상반기 경북권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사업, 본부 커피트럭 중심으로 금속노조 경주지부 미조직위 결합으로 실천사업이 진행되었다. 광고 사업으로는 상반기 라디오 채널을

통한 음성송출 방식으로 노동조합 안내와 주요의제 홍보가 되었다.

- 민주노총/금속노조/ 미조직사업의 영역적인 사업(노동조합 홍보사업) 과 금속노조 사업장 중심의 실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이 담보되고, 타 지역의 미조직 조직화에 대한 과제와 해결 방안등도 논의 되는 성과가 있었다.
- 13기는 최우선 결합 사업으로 미조직위원(지부-지회)도 민주노총 미.비특위 특화 교육과 본부 회의에 분기별 참석으로 총연맹 사업에 관심과 실천이 병행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미조직위 상담 교육 강화 사업

- 2년차에는 민주노총 주체 미조직 교육 사업. 노조 미조직 활동가 대회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민주노총 주체 사업은 각 지회 일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고 노조 사업인 미조직 활동가 대회는 미조직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진행되었다.
- 노조-지부 간담회를 통해 기초적인 상담 교육 사업과 지부-지회 까지 공유되고 실천 될수 있는 일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의견과 교육이 진행 될수 있도록 하였다.
- 노조-지부미조직위원회 통일된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 결합 하였고 상담교육의 중요성과 실제 상담이 조직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13기는 역량 강화 사업 집중과 민주노총-노조-지부-지회가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를 실천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총괄 평가

- 12기 미조직위원회는 18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부 미조직위 구성을 통해 실천사업과 홍보사업을 병행 하였다.
- 1년차에 이어 2년차에 진행된 임금실태 조사사업. 찾아가는 커피트럭 사업을 통해 금속노조 이미지 개선과 미조직된 노동자들에게 좀더 가깝게 접근하는 성과를 내었다.
- 6~8월 시기집중 의제 대신인 사업은 전체 지회 상근자 동지들이 결합 되면서 힘있게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미조직위원회가 기획.실천하는 활동이 지부 사업으로 확장되는 효과도 있었다.
- 신규지회의 설립 과정 → 경과 →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였고, 설립 이후 상대적으로 힘든 지회에 직.간접적 연대를 통한 연대 사업을 실시 하였다.
- 미조직위원회가 주최가 된 이주조합원의 날 행사와 지회별 이주조합원 간담회는 이주사업에 대한 첫 실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13기 미조직위원회는 상근 여력이 가능한 지회 임원 구성을 통해 좀더 세밀한 기획과 실천이 담보된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6-4.교육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일체성을 높임
- 2) 조합원 및 간부교육의 교안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추진
- 3) 신규. 중소사업장,복수노조사업장 교육사업을 지원

2. 주요사업

1) 지부 교육위원회 회의 진행경과

① 회의참석 현황

순번	지 회	직책	이름	13차 (1/19)	14차 (2/24)	15차 (3/30-31)	16차 (4/26)	17차 (5/28)	18차 (6/30)	19차 (7/18)	20차 (8/10)	21차 (9/22)	22차 (10/18-19)	23차 (12/13)
1	다스	교육부장 교육위원	최정길 박문성	○ ○	○ ○	○ ○	○ ○	○ ○	○ ○	○ ○	○ ○	× ×	○ ×	○ ○
2	디에스시	교육부장	최병근	○	○	○	○	○	○	○	○	○	○	○
3	발레오	교선부장	류두현	○	×	○	○	×	×	×	×	간부교체		
4	비투지	교선부장	이종혁	×	×	×	○	○	×	○	○	×	×	○
5	세진	교육부장 교육위원	김현기 최영욱	○ ○	○ ○	○ ○	○ ○	○ ○	○ ○	○ ○	○ ×	○ ×	○ ○	○ ○
6	에코플 라스틱	교육부장	강현정	×	○	○	○	○	○	○	○	○	○	○
7	엠에스	교육부장	우진하	○	×	○	○	○	○	×	○	○	○	○
8	우영산업	교육부장	류준희	○	×	○	○	×	○	○	○	○	○	○
9	일진 베어링	교육부장 교육위원	김성균 전승무	○ ○	○ ○	○ ○	○ ○	○ ○	○ ○	○ ○	○ ○	○ ○	○ ○	○ ○
10	청우	교육부장	김정현	×	○	○	사무장으로 직책변경							
11	현담산업	교선부장	장규호	○	○	○	○	○	○	○	○	×	○	○
12	현대성우 솔라이트	교육부장	심완주	×	×	○	○	×	×	×	○	○	○	○
13	현대아이 에이치엘	교육위원	이성희	○	○	○	○	○	○	○	○	○	○	○
14	KBI 동국실업	교육부장	김태진	○	○	○	○	○	○	○	간부사임			
	지부	부지부장 교육국장	정석원 조청호	○ ○	○ ○	○ ○	○ ○	○ ○	○ ○	×	×	×	○ ○	○ ○
합계				15명	14명	18명	18명	15명	15명	13명	14명	10명	14명	16명

② 회의 진행 결과

차수	일시및 장소	안건 및 논의사항	기타

13차	23. 1. 19 디에스시지회	12기 2년차 사업계획 논의 건, 12기 2년차 신입간부 교육 점검 건, 교육역량강화실습 건	15명 참석
14차	23. 2. 24 켄싱턴리조트	12기 2년차 신입간부 보고,평가 건 12기 2년차 교섭위원 교육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4명 참석
15차	23. 3. 30-31 두송녹색체험마을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평가 건,12기 1년차 교섭위원교육 건. 12기 2년차 확대간부교육 건, 12기 2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 교육 참가자 모집 건	18명 참석
16차	23. 4. 26 우영산업지회	12기 2년차 조합 의무교육 실시점검 건, 12기 2년차 교섭위원교육 점검, 12기 1년차 확대간부교육 점검 건,12기 2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 점검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8명 참석
17차	23. 5. 25 다스지회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실시 점검 건, 12기 2년차 교섭위원 보고,평가 건,12기 확대간부교육실시 보고,평가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 건	15명 참석
18차	23. 6. 30 에코플러스틱지회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보고,평가 건, 12기 확대간부교육 보고,평가 건, 12기 1년차 지부교섭위원교육 보고,평가 건,교육역량 강화 실습건	15명 참석
19차	23. 7. 18 세진 지회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보고,평가 건, 12기 확대간부교육 보고,평가 건, 12기 1년차 지부교섭위원교육 보고,평가 건,교육역량 강화 실습건	13명 참석
20차	23. 8. 10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12기 2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 교육 보고, 평가 건, 교육기획 수련회 일정 마련 건, 교육역량 강화 실습 건	14명 참석
21차	23. 9. 22 성호리조트	12기 2년차 교육기회교육 교안 논의 건, 12기 2년차 교육위원회 사업 총괄 평가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0명 참석
22차	23. 10. 18-19 경주화랑마을	12기 2년차 교육사업평가안 공유 건, 12기 2년차 교육위 사업총괄평가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4명 참석
23차	23. 12. 13 지부회의실	12기 2년차 교육사업보고,평가안 공유 건, 13기 1년차 신입간부교육 논의 건, 교육역량강화 실습 건	16명 참석

③ 교육 참석 현황

주체 및 교육	날짜	장소	참석
12기 2년차 금속노조 조합원 의무교육 강사단 훈련	2023년 3월 22일	대구지부 회의실	차상호수석부지부장, 이중희부지부장,정석원부지부장, 최윤정정책국장, 조청호교육국장, 지부교육위원(다스지회 박문성,세진지회 최영욱, 일진베어링지회 전승무,현대IHL지회 이성희) 최정길 다스지회교육부장, 최병근 디에스시 교육부장, 강현정 에코플러스틱지회 교육부장. 김현기 세진지회교육부장, 김성균 일진베어링지회 교육부장(14명)
12기 2년차 금속노조 지회장 의무교육	2023년 4월 6일~7일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정진홍지부장, 이중희부지부장, 엄기훈 금강지회장, 김재홍 다스지회장, 임채영 KBI동국실업지회장, 우정완 명성공업지회장, 신시연 발레오만도지회장, 박정일 세진지회장, 김영선 ITW경주지회, 서동찬 아진카인텍지회장, 김만조 에코플러스틱지회장, 박지웅 엠에스지회장, 황수훈 엠에스정밀지회장, 임종성 우영산업지회장, 최용복 인지컨트롤스지회장, 김희진 일진베어링지회장, 박토근 청우지회장, 장진호 코레스지회장, 황채석 플라스텍옴니엄지회장, 소명심 현담산업지회장, 이명호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장, 김환철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장, 임영진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장, 이재찬 현우지회장, 조청호 지부교육국장(25명)

2) 교육 실시 현황 보고

(1)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보고

- 1) 취지 : ① 신입간부 역할과 자세 공유 , ② 민주노총,금속노조에 대한 이해 ③ 공감과 나의 활동계획세우기
2) 누가 : 신입간부 3) 때 : 2월 2일(목)~3일(금) 4) 곳 : 성호리조트

시간	내용	비고
첫째날	09:00~09:30	입소식
	09:30~09:40	휴식
	09:40~10:10	조별 소개 및 나누기
	10:10~10:20	휴식
	10:20~12:00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역사와 개요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간부 소양교육
	14:00~14:10	휴식
	14:10~15:10	간부역할과 자세
	15:10~15:20	휴식
	15:20~15:50	나의 계획 세우기 실습
	15:50~16:00	휴식
	16:00~17:30	나의 계획 발표
	17:30~	저녁식사 및 뒷풀이
둘째날	09:00~10:40	지회활동 강화방안 토론
	10:40~11:30	토론내용작성 및 발표
	11:30~12:00	평가
	12:00~	현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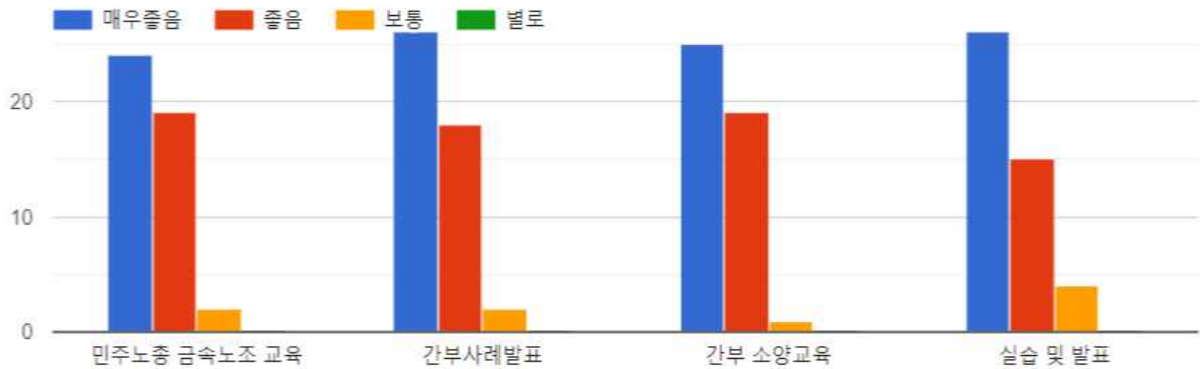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참석명단>

지회	인원	명단
금강	6명	백승훈 노안부장, 전시홍, 손진용, 유병훈, 이영동, 이재훈(이상 대의원)
다스	7명	이효영, 김종락, 이병관, 김창용,이준호, 박동운, 김영문(이상 대의원)
디에스시	2명	김진산 감사위원, 허성대 대의원
명성공업	2명	박성훈, 이규일(이상 대의원)
비투지	1명	이상덕대의원
세진	2명	안경진, 오철우(이상 대의원)
아이티더블류경주	2명	황수민, 이나영(이상대의원)
우영산업	6명	김선민 후복부장, 이상권, 김종섭, 박대환, 허남행, 손재숙(이상 대의원)
에코플라스틱	2명	손주열, 김용하(이상 대의원)
엠에스	3명	윤찬호감사위원, 김국정, 최진욱(이상 대의원)
엠에스정밀	3명	김광수, 인영근, 이광훈(이상 대의원)
일진베어링	5명	유경상, 최기섭, 정종해, 최호준, 최진혁 (이상 대의원)
현담산업	7명	정원영감사,임철우(남) 권영심,이금화, 최속희, 김미영, 최미화(여)
현대아이에이치엘	2명	김광현대의원, 심상우부지회장
교육위	13명	최정길 (다스), 최병근(디에스시), 김현기(세진), 강현정(에코), 우진하 (엠에스), 김성균(일진),류준희(우영)교육부장,이성희,전승무,박문성,최영욱(지부교육위원), 조청호 지부교육국장, 정석원 부지부장
합계	63명	

< 조별 토론결과 >

경주지부 12기 2년차 신입간부 교육 설문 결과

1. 이번 신입간부 교육의 주제는 어땠는지 체크 해 주세요



2. 이번 교육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42개)

발표, 간부소양교육, 소양교육, 간부사례발표, 강한 정신력과 투쟁정신을 얻었습니다, 인원이 적당해서 토론하기 좋았다, 모든인원 발표로 새로운 경험을 느꼈습니다, 교육내용, 토론, 나의 소신과 앞으로 나아갈 간부목적, 다른 시각 공유, 개인발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간부 역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조별발표, 실습, 각오 마음가짐 확보, 간부소양교육에서 현실에 맞게 설명이 잘되었다, 간부 역할과 자세, 신입간부들의 참여하는 교육이 좋았다. 다른 지회와 만남이 좋았습니다, 간부로서의 노조활동의 역할과 책임(소양), 강사님 강의가 좋았다, 간부역할과 자세, 개인 발표, 조별토론 혹은 현실적인 내용.평소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이번 교육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상황도 생기고 자신감이 많이 상승 된 거 같아 좋았습니다.단체 토론 발표, 모두 교육, 나에게 좋았습니다, 노조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든 점, 문제점 토론하는 것, 1박 2일로 진행된 점, 동료간 유대강화, 나의발표, 체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서 좋았습니다.각 팀별 토론 과정에서 하나되는 과정, 몰랐던 명칭 조직구성에 대해 알게되어서

3. 이번 교육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36개)

없음, 없습니다, 발표, 식당 메뉴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이 안좋아 교재보기 힘들. 밥 별투. 영상교육보다 소통쪽 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밥, 그닥 없었다, 없어요, 잠은 집에서 잡시다. 1일차 점심, 나의 계획 세우기, 식사 질 향상, 없음, 간부소양교육, 교육시간이 짧다, 교육내용 갱신이 필요함. 옛날 자료가 많다, 개인 발표도 좋았지만 넘 부담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언제 이런 발표를 하겠냐고 상반 되네요. 점심 식사가 좀 미흡했음, 없다, 교육자료가 너무 틀에 박혀있는 것 같다, 나쁜점 없음, 휴식시간 부족.노동가요 부족.금요일 아침밥, 의자, 모든게 좋았습니다, 획일화되고 고정적인 교육,식사

4.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응답 42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갑니다, 왜 노조를 해야되는지 다시한번 느낌, 조합 간부로서의 책임감.다른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저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마음가짐, 간부에 대한 자세, 내가 앞으로 간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음, 몰랐던 부분 알아가서 좋았습니다. 단합, 간부로서의 나의 마음가짐, 노조의 전체적인 틀 파악, 의식을 싸우치고 초심을 다잡자, 조직력강화, 타인에게 발언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간부로서 행해야 할 자세를 많이 배웠습니다. 투쟁의욕 고취, 역할의 중요성, 신입간부의 역할과 행동, 마음가짐과 현장소통하는 방법, 조합 간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신입간부의 의무와 책임을 느낌, 나도 할 수 있구나,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관심, 많이 배워야겠다, 추후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부에 대한 이해가 잘된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더더욱 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조합은 건재해야한다, 대의원의 역할 역량강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스스로 많다고 인지 하였고, 많이 알아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간부 일년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교육 받으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몰랐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움, 대의원 역할 잘 배우고 갑니다, 단합하면 무엇이랴도 할 수 있다, 교육은 언제나 어렵다., 새로이 시작하는 동지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또한 민주노총과 경

주지부의 역사들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자신감성취, 발표로 통한 간 키우기, 노조에 대해 좀 더 알아서 좋았구요. 여러사람들 모여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좋은 경험했습니다. 노조의 역사 노동자의 권리,금속 노조가 전 조합원 하나로 되었습니다.~투쟁, 조직도와 간부로서의 역할, 간부의 활동

5. 신입간부교육에 꼭 배치해야 할 교육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응답 36개)

없음, 만족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주노조에 대한 인식과 노동법이 생긴이유와 후퇴하는 이유, 아직 모르겠습니다. 없다, 다 좋았음, 현행유지, 지회별 토론, 나의 소개, 발표 스트레칭, 좋았습니다. 캠프파이어, 신입간부활동의사례.몸도 움직이는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동영상 시청교육, 인성교육, 준비된 자세, 팔뚝질 하고 역량을 더 넣었음 한다, 상집간부의 교육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실습과 발표, 없음, 나의 계획 교육, 말하는 방법, 현대자동차에서 교육 해줬으면.,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은거 같습니다, 다 좋았어요, 오늘 교육으로 만족함. 참여 하는 것 많이 했으면 좋겠다., 선동교육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레크레이션배치, 글쎄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개인 발표, 개인의 발표력 ~많았으면 합니다., 노동법과 노조활동의 명칭 용어에 대한 교육

6. 신입간부교육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응답 28개)

없음, 없습니다, 심도깊은 토론이 부족 . 현실적 방안이 필요함., 발표, 소통 교육위주로 지속적으로 참여 할수 있게. 없다, 자기 계획서 발표 너무 떨리네요, 그닥 없었다.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없어요, 식사질 향상. 교육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상집간부 교육아쉬움, 토론 주제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부족한점 없이 좋았습니다, 불편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다 만족함, 교육내용 ,함께하는 것을 추가 했으면 합니다., 교육일정이 많이 촉박한데 2박 3일정도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무답변, 지역내 지회들의 문제점 공유, 적당함, 처음 참석으로 좋았습니다, 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

7. 이번 신입간부교육과 지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응답 32개)

없음, 투쟁, 윤석열 정권에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전조합원의 교육실시, 평소에는 못하는 새로운 경험과 다른 지회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박 2일동안 교육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다고 교육위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다 조원들끼리 토론이 많았으면 함, 이 교육은 앞으로도 발전하여 계속되면 좋을것 같다. 단결투쟁, 꾸준한 활동 부탁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박 2일 교육 감사합니다, 단결심으로 조직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동교육, 어떻게든 이런 신입간부 분들 교육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육 알차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교육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게 대단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세요.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영상시청 늘림, 모든 지회가 하나로 뭉쳐서 단결 하여서면 합니다.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 결과보고

번호	지회	직책	이름	여는마당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11강	수료 여부
				5/8	5/8	5/15	5/22	6/1	6/12	6/19	6/26	7/3,6	7/10	7/17	7/27	
1	세진지회	지회장	박정일	○	○	○	○	○	○	○	○	×	×	○	○	수료
2	세진지회	수석부지회장	박규환	○	○	×	○	○	×	○	○	×	○	○	○	수료
3	세진지회	부지회장	홍문기	○	○	○	○	○	○	○	○	○	○	○	○	수료
4	세진지회	사무장	강건우	○	○	×	○	○	○	○	○	○	○	○	○	수료
5	세진지회	정책부장	안현철	○	○	○	○	○	○	×	○	○	○	×	○	수료
6	세진지회	노안부장	강민창	○	○	×	○	○	○	○	○	×	○	○	○	수료
7	세진지회	후복부장	최승민	○	○	○	○	○	○	×	○	○	○	×	○	수료

8	세진지회	조직부장	황제운	○	○	○	×	○	○	○	○	○	○	○	○	수료
9	세진지회	조통부장	강원모	○	○	○	○	○	○	×	○	○	○	×	○	수료
10	세진지회	선전부장	김재범	○	○	×	○	×	○	○	○	○	○	○	○	수료
11	세진지회	대의원	박대형	○	○	○	○	○	○	○	○	○	○	○	○	수료
12	세진지회	교육부장	김현기	○	○	○	○	○	○	○	○	×	○	○	○	수료
13	세진지회	문체부장	임운호	○	○	○	○	○	○	○	○	○	○	○	○	수료
14	세진지회	여성부장	구미숙	○	○	○	○	○	○	○	×	○	○	○	○	수료
15	세진지회	대의원	우정식	○	○	○	○	○	○	○	○	○	○	○	○	수료
16	세진지회	대의원	윤중언	×	×	○	×	○	○	○	○	○	○	○	○	수료
17	세진지회	대의원	이상현	×	×	○	○	○	○	○	○	○	○	○	○	수료
18	세진지회	대의원	유금환	○	○	○	○	○	○	×	○	○	○	×	○	수료
19	세진지회	대의원	오철우	○	○	×	○	○	○	○	○	○	×	×	○	수료
20	세진지회	대의원	최종민	○	○	○	○	×	○	×	○	○	×	○	○	수료
21	세진지회	대의원	김성진	×	×	○	×	×	○	○	○	○	○	○	○	수료
22	세진지회	대의원	안경진	○	○	×	○	○	○	○	○	○	○	×	×	수료
23	세진지회	대의원	강도현	×	×	○	○	○	○	○	×	○	○	○	○	수료
24	명성공업	사무장	신민철	○	○	×	×	×	×	×	×	×	×	×	×	×
25	명성공업	조직부장	김채석	○	○	○	○	×	○	○	○	○	○	○	○	수료
26	동국실업	교육부장	김태진	○	○	○	○	○	○	○	○	○	○	○	○	수료
27	에코플러스틱	교육부장	강현정	2022년과정에서 보충교육만 참가								○		○		수료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 평가서

1.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로 표시)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이다
7	13	1

2. 교육과정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로 표시)

3. 가장 좋았던 강의는 무엇입니까? (2개만 골라 √로 표시)

㉠ 새로운시각	㉡ 노동자	㉢ 일터	㉣ 삶터	㉤노동자와 인권	㉥노동자와 성평등
3	3	4	1	6	0
㉦ 노동조합	㉧ 금속노조사	㉨노동운동과 미래	㉩환경과기후위 기	㉪대안사회	
5	3	5	4	6	

4. 가장 좋았던 강의로 선택한 이유를 적어 주세요.

① 간부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관심과 관점의 중요성을 알았다. 말로만 듣고 알고 있던 것을 처음 알았다. ②노동자와 근로자의 의미, 내가 노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 모르고 있던 걸 알았다. ③바람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조합원 간의 상호존중,배려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겠다. ④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것에 통제되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 ⑤평등하게 살자,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존중이 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번 교육으로 그런 상황에 다시 맞닥뜨리면 이번엔 확실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느꼈다. 인권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⑥노동조합의 생생배경을 배우게 되었다.노동조합에 대해 더 알아 가는게 좋았다.간부의 역할과 자세, 몰랐던 조합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⑦ 전에도 들어 보았지만 기억을 되짚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되는 시간,과거를 잊은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다시한번 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⑧1987년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눈빛부터 그때 노동자들은 달랐다. 앞으로 우리지회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다.앞으로 나아가할 방향성. ⑨우리가 처한 환경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기후위기는 우리모두가 무지하고 무관심한 부분이 있다. 덕분에 많이 배워 흥미를 갖게 되었다.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변해가는 환경과 기후위기에 다시한번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⑩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 배웠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저런 제도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노동운동을 넘어 추구해야 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다른 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생각해 보는 계기, 사회적인 문제와 다가올 노후걱정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5.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의 개선점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11장의 축소했으면 한다. 교육자료가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것 같다. 사업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수업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시간이 많이 부족, 토론을 많이 했으면 한다. 시대에 따라 교육이 변형되었으면 한다. 변화되는 교육, 시간할애등 근무조건등에 제약이 좀 있었다.자료 업데이트, 금속의 부정적인 시선토론, 자료가 좀 더 새로워 졌으면 한다. 너무 좋았다. 대안사회에 대한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노동가요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성평등쪽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6. 나의 교육 참여도(√로 표시)

적극 참여	보통이다	소극적 참여
10	9	2

(3) 2023년 교섭위원 의무교육 결과보고

① 교섭위원 교육 취지

다른 간부에게 추천하고 싶다	예 (19)	아니오 (2)
중급과정교육에도 참여하고 싶다	예 (9)	아니오 (10)
참여형으로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예 (19)	아니오 (1)

섭

교육위원 역량강화 - 교섭위원 의식 교육 - 교섭위원 단결과 소통강화

② 교섭위원 교육 개요

- 주 1회,(집단교섭일인 목요일) 토론 및 강의로 5회 실시한다.
- 교육은 교섭장소가 사업장인 경우 교섭위원 현장순회 후 실시한다.
- 교육은 현장을 돌아가면서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13시부터 집단교섭 종료전까지로 한다. 대각선 사업장 교섭위원도 필요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 예산은 지부 투쟁기금에서 사용한다.

③ 교섭위원 교육 수칙

- 불참자는 사유를 적시하여 지부소식지 등으로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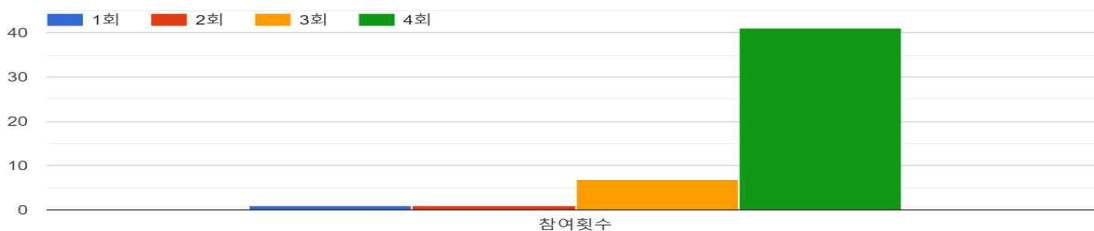
- 집단적 혹은 개별적 이탈없이 교육시간을 준수한다.
- 교육전체 마무리 후 평가서를 제출한다.

④ 교육일정 (* 경영분석 2시간 정도 진행. * 지회별 소개교육은 2회를 1회로 2시간 정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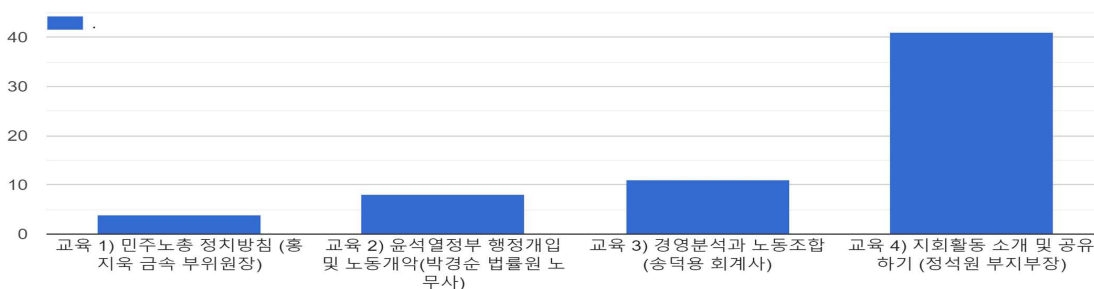
주제	일정	장소	강사	내용	참석
정치방침	4/20(목)	성호리조트	금속노조 홍지욱부위원장	민주노총 정치방침 찬반의견 설명 및 질의응답	106명
법률교육	4/27(목)	더케이호텔	금속 법률원경주	- 윤석열정부 행정개입 및 노동개악저지 교육	95명
경영분석	5/11(목)	우영산업	송덕용회계사	대차대조표등 기업회계결산보고서 보기	86명
지회별 활동소개	5/18(목)	디에스시	지부교육위	금강,다스,디에스시,명성공업,세진,아이티더블유경주,에코플라스틱, 엠에스, 엠에스정밀, 일진베어링, 우영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97명

< 12기 2년차 교섭위원 의무교육 설문결과 >

1. 교육진행 4회 가운데 참여한 횟수.



2. 교육에서 가장 도움되는 강좌는?



3. 이번 교섭위원 교육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를 꼽은 이유는? 응답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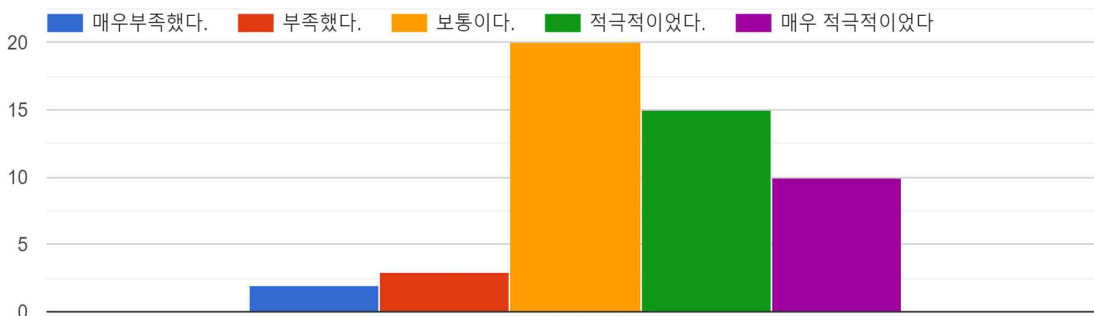
경영분석을 배워서 좋았다. 집중이 잘 되어서. 다른 지회를 알 수 있어서.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잘 몰랐던 다른 사업장을 알게 되었다. 경주지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함께 경주지부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인 다른 지회를 알수 있는 기회였다. 되돌아보는 기회. 지회활동소개 타지회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지들의 각 지회를 보다 알기 쉬운 교육,교섭사업장에 대해 새로운 역사를 알게된 계기가 된거 같다. 다른 사업장의 문제점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즐거움. 업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현 정치방향과 조합의 방향성을 가질수 있었다. 지회활동

소개, 공유, 경영분석. 집단교섭 참가하는 타지회 활동 및 현안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노동개약을 저지해야하는 이유와 마음가짐. 지역 집단교섭 사업장 활동에 감동.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내용 및 각 지회 활동 상황. 설립과정이나 지회상황의 공유. 경주시부 사업장들의 이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지회 역사를 보아 좋았다. 덜 지겨움. 경영분석 교육경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교육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회를 짧은 영상으로나마 알수있었습니다.. 조합 설립과정 지회만의 내용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타지회의 활동과 경영분석에 대해 조금이나마 교육이 되었다

4. 교섭위원 교육으로 추천하고 싶은 주제나 교육은? 응답 14개

경주시부 역사. 인성교육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없어요! 지금 처럼만 큼만!. 없음
 집단교섭 외 사업장에 대한 지회 소개. 조합원 공동체 의식과 책임과 의무에 관한 교육. 경영분석 재무제표관련, 수련회식 1박2일 집중교육.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간부교육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조직력 강화 연대중요성, 지회활동. 금속의 파벌과 이유. 간부의 기본 소양 교육. 후배들과의 세대갈등을 극복할수 있는 교육이나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흘러온 과정들을 후배조합원과 후배간부들에게 알릴수 있는 교육

5. 참가자들의(나의) 참여정도는?



6. 교섭위원 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시간, 장소, 주제, 강사등) 응답 20개

시간 점심이후라 잠이 올 수있다.....여러사업장에서 가능한 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없다. 집중을 위해 시간은 1시간정도만 했으면 합니다. 매우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교육을 하다가 보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만족합니다.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다.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매번 형식적인 교육하는거 보단 서로 공감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하면 좋을 거 같다. 참가자들의 마음가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등. 수고하셨습니다. 주제(지회 및 지역의 문제 해설 및 방침 강의). 식사시간과 현장순회시간의 조율이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처럼 힘있는 투쟁으로 돌아갈수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 밖에서 했으면 한다.
 지회별 교육장의 음향시설이. 미흡했음(발음이 잘 안들림).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4) 2023년 확대간부교육 결과보고

① 목표 및 취지

- 단협으로 쟁취한 (조합)간부교육 사업의 조직적 실시

-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가자들이 주체적 참여를 유도
- 금속노조의 노동운동 목표를 분명히 하여 노동계급성을 실천하는 활동가 양성, 금속노조 차원의 통일적 진행으로 일체감 형성
- 2022년 실시한 확대간부교육의 틀의 변화를 피하고 2022년 확대간부 교육 1년차 교육의 내용은 강령으로 살펴 본 금속노조의 과거,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살펴봄. 2년차 교육 내용은 현재를 딛고 보다 나은 노동자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② 일정

일정	시간	교육 내용	비고
1 일 차	~13:00	등록 및 방 배정	진행팀
	13:00~13:30(30분)	입소식	진행팀
	13:30~14:00(30분)	[소통과 공감]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행팀
	14:00~14:10(10분)	휴식	
	14:10~15:20(70분)	[특강]윤석열 정권의 통치와 안보의 정치경제학(가제)	강사
	15:20~15:30(10분)	휴식/자리 정돈	
	15:30~16:30(60분)	[연극]우리가 금속노조 미래다!	연극팀
	16:30~16:40(10분)	휴식/자리 정돈	
	16:40~16:50(10분)	토론 안내	진행팀
	16:50~17:50(60분)	모듬별 토론	전체
	17:50~18:25(35분)	토론결과 모듬별 그리기	전체
	18:25~19:00(35분)	토론결과 발표(1)	전체
	19:00~20:30(90분)	저녁식사	다같이
	21:00~23:00	정리 후 자유시간	
	23:00~	취침	다같이
2 일 차	07:30~08:15(45분)	아침식사	
	08:15~08:45(30분)	토론결과 발표(2)	전체
	08:45~09:10(25분)	[폐회식] 후 지부별 [체험활동]	

③ 경주지부 참가방안 및 결과

가) 교육일정 및 장소

1회차	5월 9일(화)~10일(수)
2회차	5월 16일(화)~17일(수)
3회차	5월 23일(화)~24일(수)

- (1) 출발시간 : 매주 화요일 울산 07:30, 07:50, 경주 08:40 (* 1일차 점심 11:10)
- (2) 교육기간 : 화요일 07:30~ 수요일 17시까지 1박 2일 (최대)
- (3) 교육 주 장소 : 충북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나) 교육대상

- (1) 지부협약 적용 사업장(타지부 소속지회 포함) 및 교육시간 확보 사업장 간부
- (2) 경주지부 참가 희망 간부 * 집단교섭 외 사업장도 참가 가능, 사전에 신청바람.

< 교육시간 확보 지회별 간부현황 >

지회	경주	아산(천안)	광주	
금강	21명			
다스	42명	21명		
두양정공	2명			
디에스시	29명		9명	

명성공업	12명			
비투지	11명			
세진	24명			
아이티더블유경주	13명	10명		
에코플라스틱	39명			
엠에스	30명			
엠에스정밀	13명			
일진베어링	24명			
우영산업	27명	25명	10명	
현대아이에이치엘	20명			
지부	20명			
합계	327명	56명	19명	402명

< 타지부 참가현황 >

다스아산지회 : 경주지부 일정에 참가.
디에스시광주지회 : 광주지역에서 별도 교육받겠다고 함.
우영산업천안지회, 광주지회: 해당지부 일정이나 교육에 결합.
ITW아산지회 : 충남지부일정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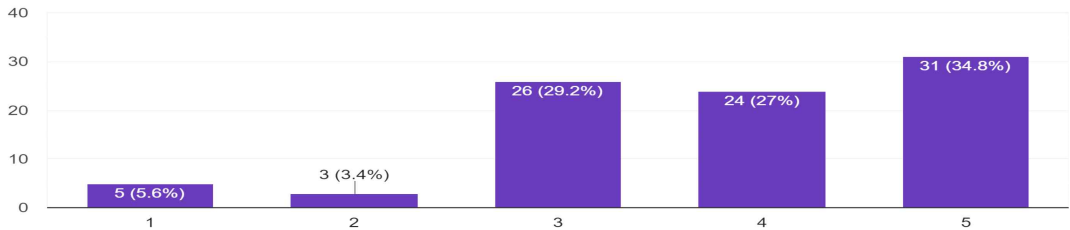
<12기 2년차 확대간부교육 참가자현황>

지회	1차		2차	3차
금강			엄기훈,이종찬.홍정상,박세현,박재홍,백승훈,김명석,박홍민,신정섭,김석준,이용환,유병훈,손진용,이영동,전시홍,이재훈,백한기,노형석,장광식(19)	
다스		이동혁,우영주,신동우,김철현,손제호,이효영,손주익,김창용,김진태,김희용,박문성,김재홍,허성일,손경익,최운천,조진래,박정식,김두성,강보천,장경준,김준기,류훈,고현익,김종락,이병관,최창덕,박성용,이준호,박동운,배용득,김영문,전국삼,신영순,황점순,장경숙,(35)		김창우,강주환,유현철,최정길(4)
		김성기,김학성,오영상,김영수,이현원,서영식,조현모,장인철,최광훈,이동렬,최선미,장수왕,이성열,조규철,이선기,이정준,최정문,곽우석,김태호(19,아산)		
디에스시	이재식,손호영. 정창길,송재학,강운태,김성홍,박보현,채종후,조규은,김동하,김수봉,권혁만,김종준,조우원,최병근,최규철,한동훈,김종호,이재영,허성대,이상복,조준호,김중배,박성준,김경모,성정모,김도후(27)			
명성공업				우정완,김광현,신민철,김채석,권성현,천동민,손성철,박성훈,이규일(9)
비투지	서재영,장창호,김재영,임민진,이상덕(5)			
세진	박정일,박규환,홍문기,강건우,황제운,임운호,강민창,안현철,강원모,최승민,김현기,구미숙,김재범,우정식,윤종언,이상현,유금환,박대형,오철우,최종민,김성진,안경진,강도현,최영욱(24,동천)			
ITW경주				김영선,박향미,최석신,최혁민,조현진,우병현,황수민,이나영,김영우,양재석,박현숙,서정민(12)
에코플라스틱	김만조,김기태,김인하,최정환,손수환,박중희,이민호,허원호,김준형,김동욱,조성현,강현정,이원규,서동난,안승찬,김수민,이재학,조석규,이석재,김현우,김용하,김유태,이명철,박석근,백용범,서정태,이창락,한효섭,이탁건,강진수,손주열,손동완,김동익,이경식(34)			김해동(1)
엠에스			박지용,김홍보,한희철,오수석,박재민,김병호,유현석,이종윤,장규민,이종대,황준하,이준오,이중희,이원국,이승엽,조현우,김동욱,김태민,우진하,유장훈,금현섭,이상목,김국정,양광호,고정근,최진욱,이대환,유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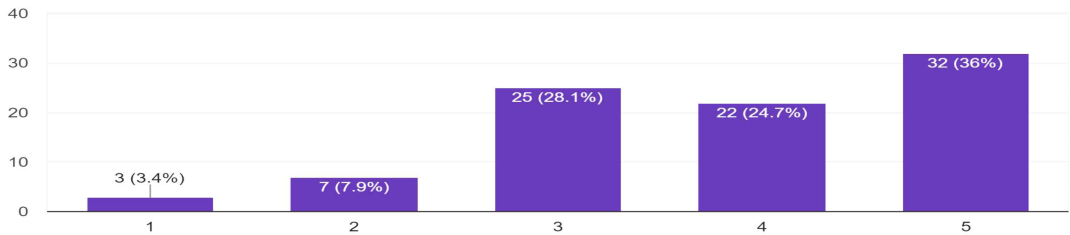
		28)	
엠에스 정밀			이상호,박유준,김동수,인영근,이광훈,정연수,황수훈,손창익,권승갑,한동환(10)
일진베어링	김희진,서보정,황진호,김대용,서창현,박호정,유경상,정종해,임정현(9)		박광일,이동훈,안의선,안성모,박정호,서후광,김성균,최진혁(8)
우영산업	임종성,김종환,김민기,고경우,이장원,차종훈,허남행,신동섭(8,동천)윤종근,최강현,김진현,남궁훈,류준희,강상배,김선민,엄범진,김세훈,이종훈,손재숙,김종섭,박대환,이해자,전효재,김태욱,조홍련(17)		
IHL			이명호,김우종,이보우,주태광,류태욱,김상민,이주은,조혜정,이영주,윤병한,김광현,,곽규태,이성희,김선혜,김혜진,황세정(16)
동국산업	김정옥,박정찬,김원태,김태진(4)		김민석,임채영,유성열,김성민(4)
청우	박토근,최성민(2)		
현대성우솔라이트		김환철,신우승,정기화,윤정민,김정대,한준기,남호찬,이인혁,김운호,최현옥,고광태,김동규,이현오,조영식,박병희,김재홍,김명교,조현일,최정웅,안윤철,안성민,윤석순,심완주,이재근,김지현,손창희,이영하,김동환,류현문,김태홍,김병찬(31)	
현담		이영미,김미영,최미화,이은숙,이금화,오민정,임철우(7)	권영심,안선화,이희수,장규호,김경훈,정원영,박정완(7)
현우	이재찬,손은경,김미숙,김상덕(4)		
지부	서금수,배문성,김진희,조청호,박진만,김철수,이희석,이준환(8)	손해용,정석원,조청호,최윤정(4)	조청호,차상호,최익선,김광섭,이중희,권형구,황광복(7)
합계	133	102(19,아산)	128

금속노조 12기2년차 확대간부교육(경주지부1회차) 평가서(89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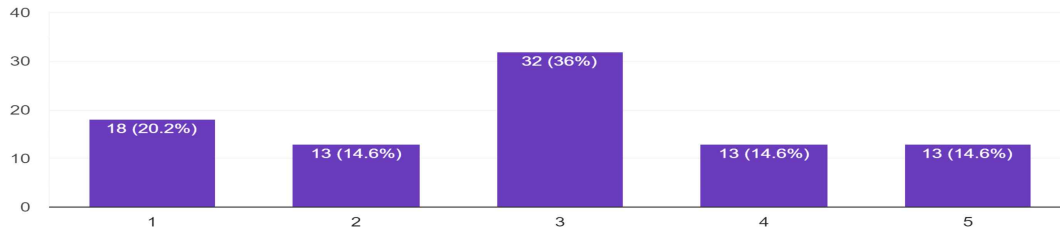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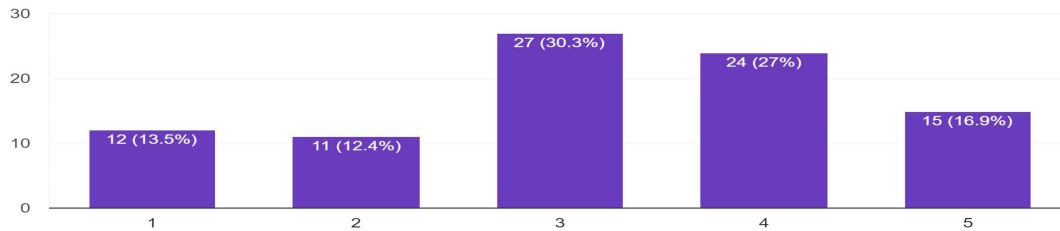
시설(숙소 및 대강당)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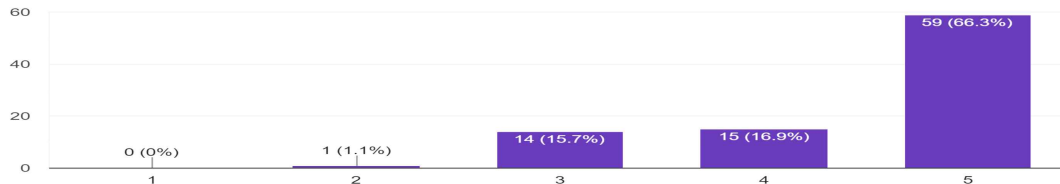
[특강] '윤석열 정권의 통치담론과 안보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위의 [특강]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식사/없음/연극 공연 참좋았다/기억이 안난다/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알아들기쉽게 설명이 좋았습니다/지루한 특강은 그만 좀 부탁드립니다./공감대가 부족한듯하다/지금 정세에 대해 딱 집어서 들을수 있어서II좋았다/좋았음/수고하셨습니다/23년 투쟁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다/전달력이부족 하였다/잘안들림/내용이 정리가 안되고 조금 준비가 부족한거같다/잘이해가 되지않음/없습니다/큰 타이틀만 전달한것이 아쉬움/현 정세에 대해 잘 요약되어 이해하기 좋았음/대통령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기회였다/확대간부교육에서 할 교육은 아닌것 같습니다/윤석열대해서 많이알아가서 좋았다/강사님 목소리가 잘 안들린다/지루하고 잠이 옴/집중도가 부족했다/너무 지루하다/강의 내용이 좀더 알차게 준비 했으면 합니다/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을받았는것 같다/지루함/없음/연극으로 통해 연출한 표현이 좋아요. 특강 내용이 좀 부족해서 아쉬움./강사의 강의내용은 괜찮았으나 받아들이는 교육이 좀 미흡한것같습니다./잠이 왔음/준비영상이 좋았다./실시간 현상황분석이 좋았음/일부내용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유익했다/좋았어요/현실직시해서 매회 교육마다 업데이트해서 강의 해주셔서 좋았 습니다. 목소리톤이 좀 조용하셔서서 잠오는 도덕선생님 같았습니다

[연극] '우리가 금속노조의 미래다!'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위의 [연극]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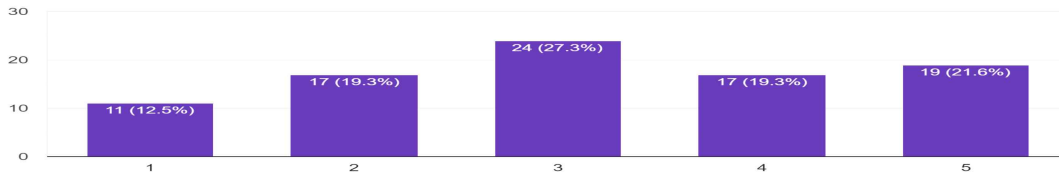
좋았어요/내용이 와닿았다/집중하기좋고 좋았다/정말 좋았습니다/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연극은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런건 환영입니다/연극을보느동안 많은생각을 할수있는 시간이 되었던것같다/예술이다 전무 배우답게 내용이 잘 전달되었다/늘 노동조합이 생각하고 풀어야할 숙제인거 같아서 공감되는부분이 많았다/진짜 재밌게 잘보고 좋았음/현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어서 고마웠다/현실을 직시할수 있었다/마이크상태가 조금 아쉽고 많은동지들이 함께 했으면한다/지금 우리 현실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것같아서 매우 공감이 되었다/연극이 집중할수 있도록 내용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고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되었음/노조 안의 서로 다른 갈등요소들을 생각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수있는 계기가 되었음/좋았다/너무 좋았습니다/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거같아 너무좋다/없음/집중을 할수있어서 좋았다/공감되는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해준것 같다/현재의 금속노조를 옮겨놓은것처럼 연출이 좋았다/신선하고 아주 좋았다/현실성 있는 내용이었고 조합원교육용 활용할수있으면 한다/강의보다 집중도가 좋다/없음/만족함/세대차이 공감대가 부족한 점을 잘 표현 하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어다. 현장에서 젊은 친구들 비정규직들과 잘 소통하면서 좋은 직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아주 좋았음/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좋았다/좋은소재의 연극이 흥미로움/지금현실을 느낄수있어서 배울점이많다/공감가는 내용이어서 재밌게 봤습니다/재밌어요 노래몇곡 다함께 따라부르면서하면 더 좋았을꺼같아요/너무 재밌어요/연극으로만 들어서 더 공감을 많이 한것 같아요. 발표가너무많음

위의 [연극]과 같이 교육 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동지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응답 8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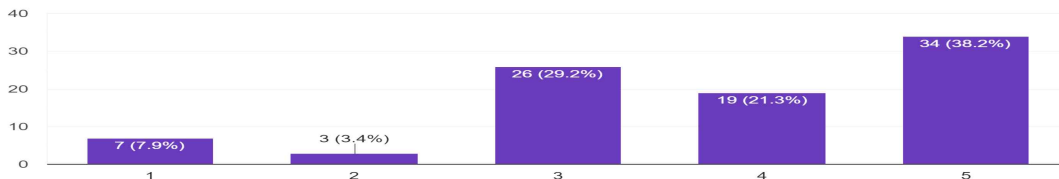
[모듬 토론, 노동현장 공감 지도, 투쟁장 그리기]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8개



[모듬토론, 노동현장 공감지도, 투쟁장 그리기]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좋았어요/그림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응/시간이 짧은것 같습니다/역지로 과제를 만들어 주는 건 별로입니다/지역별성향이 반영된 교육이었다면 좋았을듯하다/주제별 안전도의 여러가지 들어서 좋았다/참여의식 부족 ,하는 사람만 하는거 같다 여러 사람이 참여 할수있는 토론 참여/조별 토론은 좋았지만 굳이 발표까지는.../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 했다/타 지회와 소통 할수있었어 좋았다/새로운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시간이 너무 짧다/자리를 이탈하여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어 아쉬웠습니다./참여 안하는 인원들이 있어서/지역의 동지들과 고민점을 공유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의미있었음/함께 할수있어 좋았다 한편 부담도 있었다/좋았습니다/너무 시간이없어 많은 토론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그리기보다 토론시간이 길었으면 한다/다른 사업장에대해서 공감할수있어서 좋았습니다/토론의 깊이부족/동지들의 생각과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좋았다/주제선정이 좋았다./하는 사람만 한다./없음/각자 현장에서 작업환경이 달라 표현이 부족했다/다른 지회와 같이소통하고 같이 발표하여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없음/간부들간의 토론 내용 좋았다/이런것보다 토론발표로 단순하게 했으면 합니다/다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도록해야할것같다/토론 좋았어요/좋았습니다/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또 토론하는것은 좋았으나 매회 같은 고민을 하는것 같아서 ㅠ/집중이잘안됨 /

교육 둘째 날 진행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9개



2023년 확대간부 교육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점 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없어요/연극 재미있었다/간부의 의식 과 정세의 대응/체육활동/없다/우리가 금속노조 미래다 /금속노조 현실을 이야기 하였으면

하였다/소통/없습니다./연극/알찬교육/조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해보자/연대의 중요성및 차별없는 노동자의 인식이 중요한것 같다/간부들이강의듣는데있어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뒷풀이때 음주문화 개선을 부탁합니다./작금의 현 정세를 지부간부들의 피부에 느낄수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정신무장에 필요한교육이 필요합니다./매우 만족 하였고 ~개개인의 발표역으로 진행하여서면 합니다 /공연을 통해 상황전달과 공감대형성이 쉽게되는 교육이 있어서 좋았습니다/고용안정이 제일중요함/매년하는 교육이니만큼 연차수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랐으면합니다./작년에했던 내용 그대로하는것같아서식상한면이 있었습니다/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동지들도 이런 교육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확대간부 교육에서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연극을 통한 교육이 아주 좋아서 그런 교육위주였으면 좋겠다/적극적 토론/이주노동자 연극이나 재밌는 교육(강사)님을 모셔서 강의/선동교육 /연극 다시 보고 싶다/연극으로 통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mz올바른노조와 금속노조 대하여/현실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인성교육/없습니다./노동조합의역사 상세한설명),간부(대의원,상집)의역할/정세~/인원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열심히 하는 동지들과는 달리 처음인사하고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우지회 여성분이신데 밥먹을때만 등장하시고 둘째날 아침에도 없으시고 배타는곳에 나타나시고 같이 있는 동지들 사기까지 저하키는 일입니다.현우지회는 신생지회로 알고있습니다.이런 자리에 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노조활동에 대해서 알고싶다/모듬 토론/기본인문학 /복수노조.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공유할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세계의 노동현주소/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내용/내년에도 이런 교육위주면 꼭 단양에서 교육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연극/각지회 현황공유와 해결점찾기/강의식보다는 연극같이 그런프로그램이 더많아야할것같다./뛰면서 활동적인거 했으면 좋겠어요/노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또 다른 체험학습 /전문강사교육(역사)/

금속노조 교육 뿐 아니라 금속노조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써 주세요.

없어요/매번 음식에서 실망을 너무 많이 한다/현장간부 와 함께 할수 있는 교육을 반영 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규조직사업 재미없는교육 그만/무슨교육을 하던 정치적 선동교육 선향이 많이보인다 좀더 유익한 선동교육이나 간부활동에 도움이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한다연대..평등...준중/교육장에 교육기간 만큼이라도 간단한 라면이나 음료 간식 세면도구등 파는 매점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노동조합 활동의 실시간 소통을 바랍니다/없습니다./교육을 연극이나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좋겠고 중간중간에 교육을 안들도 빠지는 간부들도 있어는데 너무 보기싫어다 다음에는 다같이한분도 빠짐없이 들었으면 좋겠다/복수.소수 사업장에 상급단체에서 사업장 순회가 필요하다/간부외에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으면합니다. 교육 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구호와 노동가 부족하고 세대차 극복 할수 있는 교육/투쟁/고용안정을 중요시하면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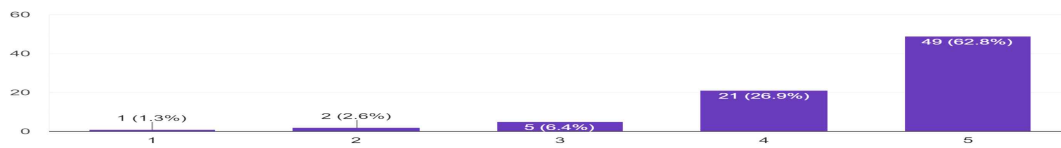
간부교육은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사업보단 현재 건설노조 조합원중 분신으로 열사하신분에게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윤석열정권에 맞써 싸우고 있지 않는점이 안타깝습니다 분신했던 당일부터 해결될때까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좀더 다양한 교육

금속노조 12기 2년차 확대간부(경주지부 2회차) 교육 평가 설문(80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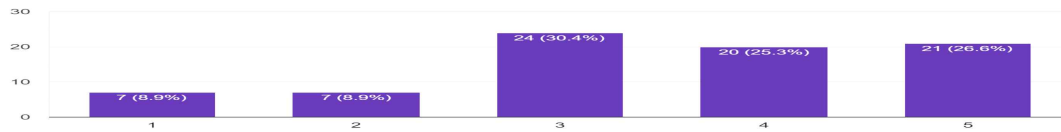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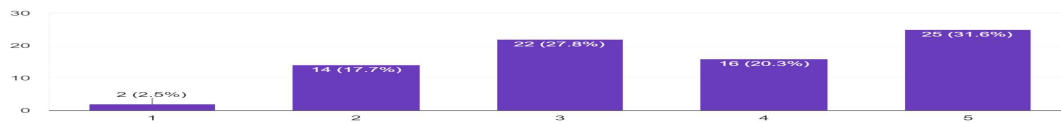
시설(숙소 및 대강당)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8개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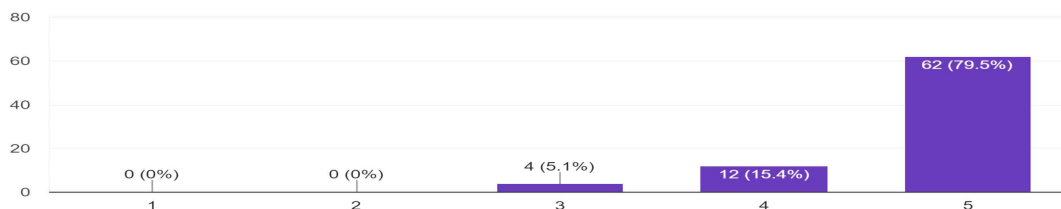
[특강] '윤석열 정권의 통치담론과 안보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9개



위의 [특강]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응답 35개

특강이라하기엔 뭔가가 부족했다/집중력이 떨어진다/안보의 내용이 확대간부 교육과 매치가 잘 안됐다/언론에서 뺄아주기만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팩트체크한 부분이 좋았다/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시간대가 집중을 해도 식곤증으로 힘들었다. 집중에 집중^^/좋았음/강의 내용에 집중이 안됨/연극/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재밌었음/연극이 너무좋았어요/유익함/별로 와닿는 게 없었다/현 정세를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아쉬운점은없는거같습니다/강의라서 졸음이 좀더 관심 있고 재미있는주제로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고 아쉬운점은 대안에 대한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에 대한 방안이 없고 토론도 없어서 아쉬움/정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특별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언론에 나온 기사와 의 내용이 더 포함되면 좋을듯요/조금 지루했다/식사후인것도 있지만 내용전달이 너무 지루했다/반복되는 정세교육 .../어려워서 듣다가 졸립다/윤석열정권에서 우리가 잘몰랐던 자세한 내용까지 알수있어서 좋았다/무능한 윤석열정권에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그리고 집중도를위해 교육시간을 조금 줄였으면합니다./너무 범위 넓고 집중점이 약하다/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확인할수 있는 교육이어서 좋았습니다./뉴스에서 듣지 못하는 내용들로 해주면 더 좋을 듯/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가 애매함/예전 방식이라 따분하고 지루해서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지루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음

[연극] '우리가 금속노조의 미래다!'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8개



위의 [연극]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응답 4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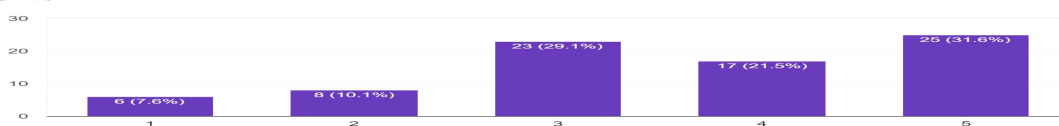
현실성이 있어서 좋았어요/현 우리의 노동조합의 현안과 같은 내용이어서 맘에 와 닿았습니다~최고!!/절대 공감 내용/너무 좋았다 연극으로 보니 몰입도 잘되고 교육내용이 잘 들어왔다./실제 노동자들의 사례를 연극으로 접하니 마음속으로 더 느낄수 있었다/지루한 영상보다는 관객이 함께하는 기획공연은 참신한것 같다/너무감동적이었다/노동조합 노동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공

연이였습니다./현재를 살아가는 내주위 노동자의 일상들과 노동자 모두가 다른 노동조건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고 배우들의 열정적인 작품활동에 더욱 더 좋았다. 세상 살아가는 현실에 슬퍼지고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울컥울컥 했다./좋았음/공감할수있어서 좋았다/너무너무너무 좋았다 지금 현실을 방영한 내용이라 마음에 와닿았다/연극 이때우좋았다/연기가 일품/매우 좋았다.현실적반영이 좋았다/처음 경험하는 금속노조에 대한 연극 곳/너무재미있었음/감동적/다시 한번 비정규직철폐화를 되새기게 되었고 세대간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되었다/다들 고생하셨습니다./연극이새로웠던교육이라 더 집중되고 좋았습니다/새로웠고, 역대 교육중에 가장 참신했다고 생각합니다./노동자는 하나다라는걸 다시금 느끼게되어서 좋았음 /재미있고 의미있는 연극이였습니다/모두가공감될수있도록집중해서봤습니다 좋았습니다/지루하지 않음 공감대 형성/연기력이 좋 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들로 꾸며져서 공감이 갔다./현재 우리들의 상황 얘기인거 같아 맘에 와 닿았다/배우들 에 대한 소개와 감사 필요/정규직과비정규직 차별된세상이 없어지고 즐겁게 일하는 일터가오길바란다/공감되고 좋았다/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점/현실적인 부분이 잘표현되어서 좋았습니다/연극을보며 진짜 우리현실을 느끼고 반성하고 깊은고민도해보았다/ 마치 우리회사를 바라보는것같아 더욱더 공감할수있었고 나만지키는 금속노조가아닌 각계각층 우리사회 전체가 바뀌야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우리현실을 아프게 담았다 금속노조가 극복해야할 최우선과제를 잘 보여줬다/세대간의 생각 차이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생각 할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습니다./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끔 하는 시간이였다/여 러번의 강의보다 이번 연극이 더욱 다가옴/노동약자들과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금속노조의 앞으로의 방 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아주좋았다/평소 생각하던 문제를(비정규직으로 인한 노노갈등) 재미있게 풀어냈것 같다.

위의 [연극]과 같이 교육 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동지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응답 7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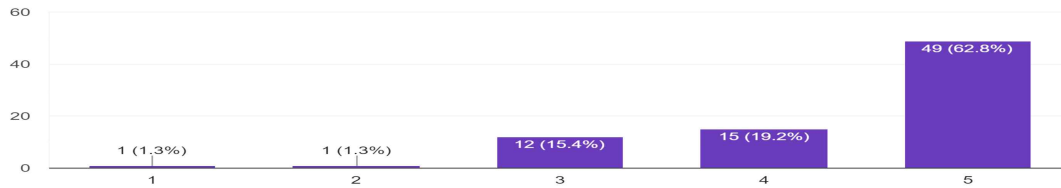
[모듬 토론, 노동현장 공감 지도, 투쟁장 그리기]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9개



[모듬 토론, 노동현장 공감 지도, 투쟁장 그리기]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응답 36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조별내 참석율저조/겪어보지못한 또는 겪어볼수 없을수도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은 늘 새롭고 마음가짐을 다시할수 있게 해준다./토론,그림 그리기 이런것좀 많했으면 좋겠다/매번 비슷한 주제라서.. 다양성이 필요/내가 소속한 사업장을 되돌아보고 현실에 직시하고 노동자의 삶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되어 좋았다. 교육강사의 조별 맨투맨식 적절한 설명이 좋았다.아쉬운 점은 시간이 짧았고 나의 생각과 이해력의 차이를 느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것 같다./좋았음/시간이 부족함/매년 겪는 교육, 다른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어색하다/전 동지 참여높음/반복적인 교육이어서 별로였다./조별 토론을 진행했는데 모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발표하고 그러는게조금아쉽다/그림그리기가 너무 어려움/식상 합니다./여러 방면으로 생각할수있어서 공감대형성도 되고 좋았습니다/여럿이 모여 토론활동이 좋았습니다/좋은점-공감대 형성/동지들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넘 좋았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ㅠ/시간이 촉박해서 조별 전체적인 의견등을 다루기가 부족했다./내성적인 사람한테는 정말 곤욕의 시간이였다/다른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의미있었음./토론하는 자체가 아직도 어색하고 힘들다/토론은 좋으나 발표는 부담../한번더 노동조합에대해 생각할수있어 좋았다/광범위한 주제가아닌 하나의 주제로 더욱더 디테일한 토론이 되었으면한다./함께 작업하는 것 누군가는 방관하는 것/그림 그리기는 참여도가 떨어져서 아쉬웠습니다./다른 현장 토론시간은 다른 생각들을 들을수 있고 소통할수 있어 좋았다/시간부족 및 주제의 단조로움/안해보던거라 당황했지만 조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과정의 의미있었다/좋았다/함께 참여해서 문제에 대한 논의를하고 풀어나가는것이 토론형식이 좋았다

교육 둘째 날 진행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78개



내년 확대간부 교육에서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응답 34개

연극/간부기본교육/노래 및 율동도 포함해 주세요~^^/윤석열퇴진투쟁에 시민들도 공감할수있는 투쟁 구호나 이유가 전달 잘되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장이되었으면~~/임금 노동시간/며 만들고 그런거는 진짜 하지말시다/법률교육 한쪽지 정도 추가해줬으면/강사조빙해서 교육 강의듣는게 더 남는게 많을것같다 유아틱한거는 제발 빼주세요/간부들의 신념에 대해서/피곤한 시간대에 지루하지 않은 시청각 교육과 노동 역사공부를 재미있게 진행하면 좋겠고 연극은 매년 지속되면 좋겠다./단결/민주주의란? 진보와 보수/금속노조 연극 교육/사회약층/문화체험활동 (연극, 영화, 노래등)/없습니다/지역에서 합시다/민주노조의 투쟁 과 앞으로 나아갈길/없음/동영상 위주 시청각 강의/금속노조의 분파..그 이유/교육을 안했으면 좋겠다/역사교육과 정세/영화 등 미디어 방식의 교육과 토론회 야외공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현실에 딱맞는 꼭 나를보고있는듯한 노동조합에대한 연극을 또 보고싶다/간부의 자세와 금속노조의 과제/현실적인 노동현장 이야기/팀을 구성하여 단체활동 필요(웃놀이,죽구등)/미래의 노동환경 변화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mz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내용/간부의 태도 및 오래동안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간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세계의노동정세

2023년 확대간부 교육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점 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

준비하신 여러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철폐를 위한 금속의 방향?/노동자에 등급은 없다.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다./강당이 공기가 많이 탁한것 같아요../금속노동자 전체조합원 간부역량화사업을 구상하고 노동조합 간부활동의 체험으로 올바른 노동 문화와 나아가 후배양성에 미래를 준비하면 좋겠다./단결/토론 발표는 안했음한다. 영상교육/비정규직/유익한 교육/정치 세력화 어떻게 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과함께 하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것인가를 매우 깊이 고민해주시길~~/비정규직의 공민과 어려움을 조합원들과 공유 공감을 하고싶었다/모든 노조간부님들 항상고생많으십니다/연극이 넘 좋았습니다~우리의 현실을 표현해줘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해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π/모임,토론,결과발표 등 이런 내용의 교육은 철폐되어야 함/인사말이 왜 그리 길어야 하는지 .../발표하는게 부담됩니다 노동조합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부위원장 인사말이 너무 길다 인사는 짧게해야지 교육 처럼 길게하면 듣는 사람이 지칩니다 개선해 주세요/연극과 같은 교육이 몰입도가 높아서 좋았던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육을 배치 부탁드립니다./토론시간이 좀 더 많아서 조별 토론도 조를 한 번 더 섞어서 다양한 생각을 들을수 있으면 좋을 듯/교육위원장(부위원장)의 인사말이 너무 길고 확대간부교육과는 배치되는 정세 내용으로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있음. 짧게 했으면 합니다./비정규직, 여성, mz세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조합원들과 가지고 싶다./노발대발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금속노조 교육 뿐 아니라 금속노조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써 주세요.응답 25개

투쟁해서 윤석열 몰아 냅시다~투쟁!!/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사업 집중투쟁해줬으면~~!!/금속노동조합을 사랑하고 금속노조 깃발아래 모여 노동자 참된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로 노동자 세상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최전방 단위노조 사업장들의 선배 지회장 동지들에게 감사하고 현 금속노조 지도부 동지들과 전 지회장 동지들의 만남으로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금속노조 발전과 아울러 끝까지 노동자는 하나다 우리는 노동자다 나는 노동자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진행하고 강의 연극해주신 동지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금속연수원 잘 가꾸고 지켜주세요! PS: 내가 쓴 교육평가 주관식 답안지가 어느것은 자리바꿈이 안되고 가려져서 불편하네요. ^^/사회 전반에 관심갖아주세요/단결 파이팅/연대와 단합된 힘/할때는 빠지게하는 금속노조, 파업도 눈치보지말고 했으면한다/신규채용 윤석열정권박살내고싶습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주십시오...보여주기식이 아닌.../일반 조합원이 간부 기피의 문제점을 잘 해결 했음 좋겠다/사업을잘진행해서 더욱 발전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딱히 없슴/체육 활동도 포함되면 좋겠다/조합활동 기간에 따른 교육주제 매뉴얼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실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전조합원의 간부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제발 쓰레기 술 좀 자제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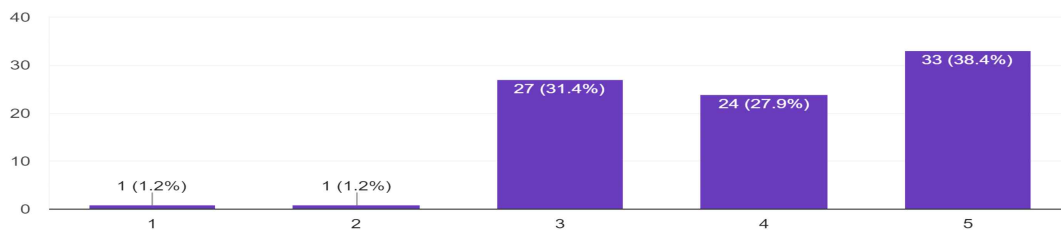
좋은교육으로 애쓰셔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교육실 동지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울한해의 투쟁도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아직은 내 자신이 좀 더 배워야해서../금속노조의 -한다면한다- 정신으로 투쟁합니다. 교육실 동지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미래 노동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계의 다양한 강등을 해결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써주면 좋겠다/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인정받을수 있는것들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금속노조 12기2년차(2023년) 5회 확대간부(경주지부 3회차) 교육 평가서(8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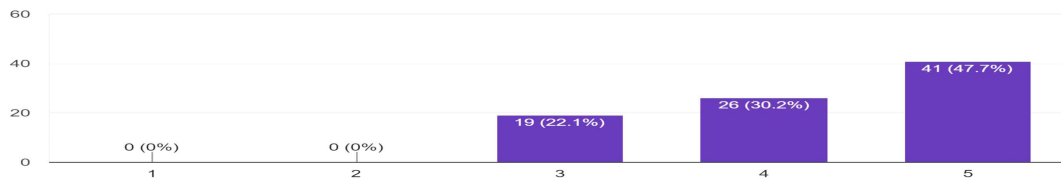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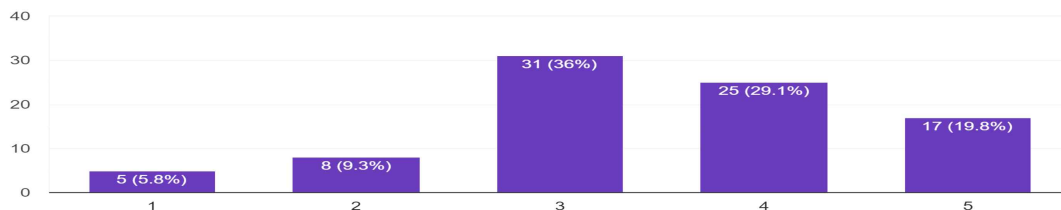
시설(숙소 및 대강당)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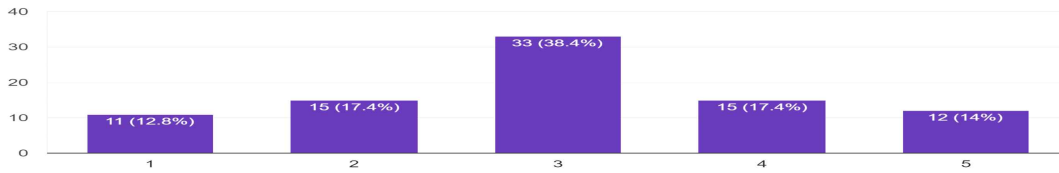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6개



[특강] '윤석열 정권의 통치담론과 안보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6개



위의 [특강]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응답 40개

강의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마이크 소리가 고르지않아 전달력이 부족했습니다./소리가 작았고, 현상황에 대해 알수있어 좋았다/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건지.../사례중심으로 진행하는것은 좋았으나 내용 어려웠다./강사님 혼자서만 얘기하시는것 같았어요/윤석열 정권의 정치성향에 대해 잘 알수있었다/지루하다/범위가 너무 넓어서 집중하기 힘들었고 와닿지 않아서 아쉬웠고 전달력에 있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우퍼마이크로 소리가 컸으면 좋겠다. 식당 식사가 맛이 없다./강의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서 내용이해가 쉽지 않았음/현정권의 정치성향 방향에 대해 잘 알수있었다./좀 지겨움/만족합니다/마이크상태가 적절하지못함/시설이 너무 좋았음/지루했다/숙소 추웠어요/간부교육에서 신입간부를 위한 각부서장들의 역할과 역량에관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지루한설명보다는 쉬운설명과 참여적인 교육이되었으면합니다./시간대가 아쉽다/윤석열정권 특강 집중이 잘되지 않았습니니다/너무 좋았습니다/강의에 있어서 공감대형성이 조금 아쉬웠다/강의 내용은 좋았으나 음향이 울려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공감대는 점이 없었던거 같아서 아쉬웠다/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집중하기 어려워서 지루했다/목소리도작고 집중이되지않았음/너무 지루한 내용!/소리도 잘 안드리고 준비된 자료 그냥 읽는 느낌/교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니다./연극을 통한 노조의 문제점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매우 뜻깊었습니다/소리가작았습니다/시간이 너무길어요/너무주제가 광범의하고 포괄적이다/

윤석열정권 안보정치경제 교육은 정말 지루하고이탈자도 많았고 듣지않는사람도 자는사람도 많았다다른부분이었다면,그리고 강사님도 교육만 하시고가시는거같아서 별로였다고 생각한다집중력도 떨어지는 시간대에 예러였던거같다/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강의 내용을 떠나서 화면이 잘 보이지않고 강사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마이크도 안들리고내용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니다/집중이 안된다/전반적으로 교육내용이 좋았다

[연극] '우리가 금속노조의 미래다!'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86개



위의 [연극]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응답 45개

없음/연극으로 보니 흥미도 생기고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니다. 연극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집어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극을 통한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기존 교육과 달라서 좋았다/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좋았다./잊혀져버린 동지들을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배우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실제적인 상황을 연극을 통해 마주하니 느끼는 점이 많았고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연극의 방식이 좋게 와닿았고 이 계기를 통해 더 폭넓은 다양한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면 좋을것 같습니다./재미있어서 몰입도가 있었다/내용전달이 이해쉽게 잘 표현/재미와 내용 모두 다 잡은것 같다/만족스럽습니니다/신선 했음/연극공연은 참신했고 집중도 또한 좋았던거 같습니다./현실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잘드러나서 좋았습니다./공감대가많이형성되는거같다/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진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지 못했다/없습니니다/다양한 이야기구성도 좋지만 하나의 주제로 심도깊은 내용을 보여주는 연극도 해줬음합니다./강의보다는 전달력이 완전히 좋았다꼭 네가그현실에 처한노동자인거처럼 몰입을 하면서 봤다/새로운 경험이나 좋았음/연극내용 너무 좋으나 소극장처럼조금더 집중이 잘되게 관객쪽 조명이 캄캄할수있도록 어둡고 무대에 집중되는 조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배우님들의 연기며 내용 최고였습니다/현실성이 있어보였다/우리의 현실을 돌아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용 구성, 연기자들의 연기

가 상당히 좋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노조활동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세대간의 차이를 돌이켜보는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함께 참여하는 연극이라 재미있었고, 쟁했다./연예인을봐서좋았/리얼해서 집중하게 되었음/우리에 관한 주제라서 매우 관심깊게 봤습니다/좋았습니다/우리의 이야기를 고퀄리티의 연극으로 볼수 있어서 감동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글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와 닿았던것 같습니다/소리가 작아서 잘안들 려요/현실감 있고 우리의 힘들지만 극복해야할 과제다/연극은 많다.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은 처음 이었다.신선하고 감동이 있었다.유익했다/세로운 시도로 실감있고 더 울림이 있었다좀 짧은 내용이 아쉬웠다/연극 교육? 새로웠다. 연극 내용을 바꾸면서 매년 간부교육때 프로그램에 넣는것도 괜찮을거라 생각한다./연극으로 해서 새로워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고주제가 좀 애매했던거같습니다/현실적인 내용에 감탄했다/새로운 시도/아주 신선했고 아주 찼한 마음이드는 연극 한편이었다/노조의 현실을담아 연극으로 볼수있어 정말좋았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조합의 필요성과 앞으로 활동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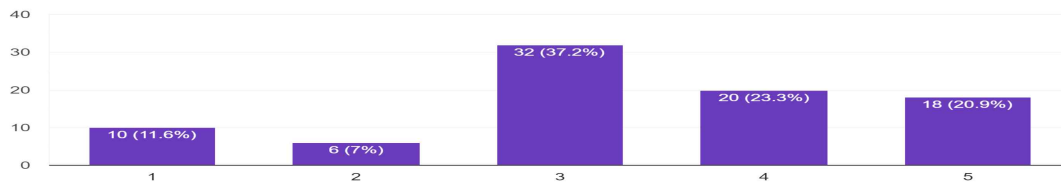
위의 [연극]과 같이 교육 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동지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응답 85개



[모둠 토론, 노동현장 공감 지도, 투쟁장 그리기]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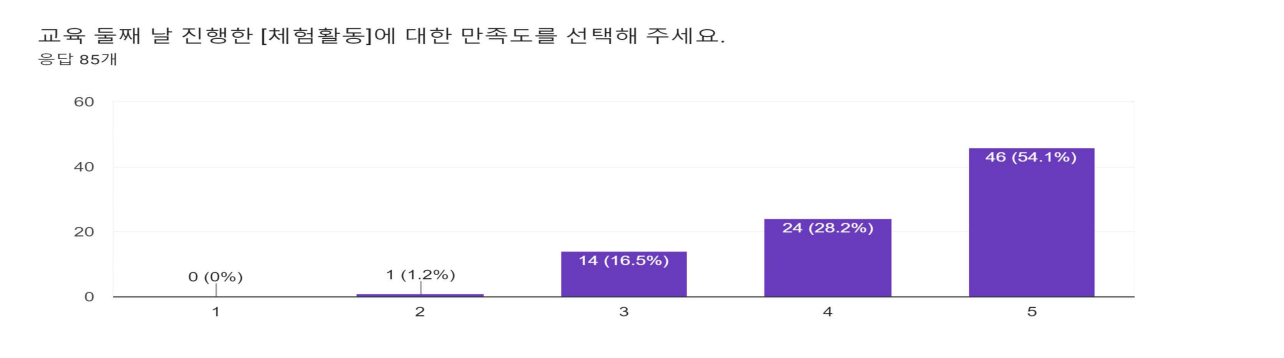
응답 86개



[모둠 토론, 노동현장 공감지도, 투쟁장그리기]에서 좋았던 점 또는 아쉬웠던 점을 써 주세요. 응답 41개

없음/작성 방식을 상세히 먼저 설명하고 진행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타 지회동지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동하는 교육은 좋았고, 꼭 참여하지않는 인간이 있는것이 아쉬웠다/타 지회와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시간이 촉박하다./토론참가가 활발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노동조합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해결해나가야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생겼고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함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모듬토론은 좋았는데 그림그리기는 안해도되지않았나 싶다./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음 친하지않던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공감을 형성할 수있어서 좋았다/조금 어려웠습니다/다른사업장 예전이야기를 들을수있어 좋았다/시간이 부족./토론주제도 좋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음/많은것을느끼고 앞으로의 방향성인것같다/매번 할때마다 느끼지만 의미가 있었나 싶다. 보여주기식 느낌./토론은 이제 그만 주제없이 상대방의 진술한 소통을 하고싶다/주제의 다양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너무좋았다/다들 처음만나는 상황에서 이끄러갈 인원도 없어서 아쉬웠음/조별로 모듬 토론은없애고 각지회별 사내노동현장 개선안노동강도 임단협 성공투쟁전술 방법등 강의식으로 바꿨으면하는 바램입니다/조장 서기가 안정해지면 따로 정하는 룰을 확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짧은 시간에 답지를 만들어야하는 부담감이 있었고 내용에 대한 깊은 토론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 주제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동지들의 추가적인 생각과 견해를 나누고 방법을 찾는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것 같다./타지회간부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점이 좋았다/다양한 의견을 나눌수 있어서 좋았다/둘중에 한가지만했으면 좋겠다/발표 진짜 싫습니다/예전과 비슷한 토론! 토론보다 몸으로 느끼는 활동성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좋았음/적고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의 교육이 너무 반복이라 식상하기도 하고 의미가 좀 없는것 같습니다./서로 의견을 나누어 여러 생각을 들을수 있어 좋았고 참여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토론말고 강의듣는게 좋음/매년 하는것이라 식상하다다같이 요가나 명상,매트에 앉아서 몸으로 할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싶다/토론시간부족/신임, 제임 섞여있고 토론 문화가 낯선 세대가 많은데 갑자기 토론 하라는것보다 해야만 한다면 교육전 미리 주제 공지를 해줬으면 한다./조별로 협동하는

모습이 좋았다/다같이 함께 하는것만으로도 뜻깊은 자리였다/간부가아닌 조합동지 또한같이 함께하수있음 좋을것같다/다양한 의견과 토론으로 참 좋았어요



내년 확대간부 교육에서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응답 36개

연극/금속 연혁 정세교육/재무재표 관련/공감대가 형성이되는 교육이 필요함/기본에 충실해져갈수 있는 교육/교육 준비하시느라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없음/간부들끼리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술 말고/이번과 같다면 유익한 시간을 보낼것같다/단합의 장이 조금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초임 간부들이 있어, 금속노조의 역사라든지..금속노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없습니다./정치 근대사/간부의 역할에 관한 내용/확대간부의 역할이나 활동 내용등을 논의하고 서로 정보교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육해줬으면합니다.신생 확대간부님들은 모든것이 너무 생소하고 실제 간부님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윤석열정권의 잘못하고있는점/첫날 교육 연극시간은 앞당기고 연극관람후 소감 후기정도만 붙이고 그다음 두시간정도는 교육장에서 각지회별 단합을위해 족구나 풋살을 하고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지금으로 만족합니/단결되고 단합되는 게임(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했음 좋겠다/조합원들 간 혹은 간부들끼리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싶다/연극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영상교육/몸과 행동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간부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리 치유/노동조합의 문제점 개선 방안/공동체 의식/정치/간부의 역할과 금속노조의 과제/쾌속정.속은 시원했지만인원대비 대기시간이 길어서 아쉬웠다/간부활동과 관련한 토론 짧게나마 간부활동시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다./업음/지회별 고민거리 공유 해결방안 토론/노동조합 활동에관한 연극이 보고싶어요/연극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영상

2023년 확대간부교육에서 공유하고 싶었던 점 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써 주세요.응답 21개

없음/신규지회가 참석하면 교육의 기준을 신규지회 수준에 맞춰줬으면 한다.그래서 기존지회는 초심을 회복했으면 한다./처음처럼 모든것이 유익했습니다/없습니다./정치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양향/1박2일동안 교육하신다고, 받으시는다고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이런 유익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조합활동의 현실성이 담겨 있는 연극은 공유하고 싶다/다음날일정은없었으면 좋겠다/발표 없는 교육을 받고싶습니다/발표 안하고싶어요/연극이 참 좋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식사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좀 답답합니다.그리고 기왕이면 농심(친일기업)같은 회사의 제품은 이용하지 않았으면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정치적 대외적 문제점들도 중요하나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풀어갈 방법 모색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부위원장 인사말 길고 지부수석과 같이 인사하고 마쳐야지 지부수석한테 내려가라고 하고 얘기계속하는게 보기가 좋지 않았다/주최하고 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을 경주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인원이 많아서 차수를 나눴지만다같이 하면 좋았겠다 아쉬웠다경주지부 파이팅/산별노조가 해야 할 역할/열면 토론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노동조합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조합활동의 형평성

금속노조 교육 뿐 아니라 금속노조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써 주세요. 응답 25개

없음/mz세대 조합원들에게 관심을/하나라는 것을 망각하지말고 다함께 행동하는 금속노조가 되길바랍니다./교육이지만 모두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도 좋지만 피로도가 높은 부분도 있기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조금더 진화된 체계적인 교육 집회등이필요함 집중할수 있는/초심을 잃지말자/지금 이기세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없습니다./모든 노동자들이 등따시고 배불리 먹을수있는 사업/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활동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거로 예상되므로 산별노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듯 합니다. 연대 및 조직력강화에 더욱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집행부나 대의원의 역할과 조합원의 소통방법등 지회에서 간부의 역할을 좀더 확립할수있는 교육을 만들어주세요/젊은

층의 마음을 빠르게 열어야 할 거 같음/교육기간을 2박3일로 더 여유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연령대에 따른 노동조합 인식과 사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상대적으로 힘든 사업장도 많이 도와주길/윤석열 퇴진에 더 힘찬 투쟁 합시다/완성차 및 기업지부 금속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항상 수고많으십니다./전체가 함께할수있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교육장 운영방식.이런것들 고려 해서교육을 진행할수밖에 없다고 들었다다음에 또 하게되면목.금이었으면 좋겠다ㅎㅎ/정치활동 교육/금속에 바라는점은 당장 해야하는 31일 총파업참여하지않는 지부가 제법 많은걸로 알고있다면대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아서 아쉽다./단결 투쟁/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좋겠습니다..투쟁

(5) 경주지부 12기 2년차 조합원 교육 진행보고

① 지회별 조합원 교육현황

지회	시간	1월	2월	3월	비고
금강	24	이월	이월	이월	
다스	24	이월	2-15일 수경교육 22일 임협교육	13일 요구안 설명	
KBI동국실업	8	이월	17일 지부장 교육	이월	
동진이공	24	27일 조합원교육	24일 조합원 교육	24일 조합원 교육	
디에스시	24	이월	9일 통상임금, 21일, 28일 법정교육	21일 28일 여성의 날 의 의 교육	
두양정공	24	10일 조합원교육	8일 조합원교육	8일 조합원교육	
리어코리아	12	이월	이월	이월	
명성공업	12	이월	이월	이월	
발레오만도	20	이월	조합원교육	이월	
비투지	24	18일 지부장교육	이월	이월	
세진	24	이월	15일, 21일, 윤석열노동 정책교육	22일~30일 간담회	
아이티더블유경주	24	이월	이월	이월	
아진카인텍	24	이월	23일 확산대체	8일 확산대체	
에코플라스틱	24	이월	이월	17일 임금체계개편설명 21일 요구안설명	
엠에스	24	이월	23~28일 조합원교육	27~29일 간담회	
엠에스정밀	12	이월	9-10일 조합원 간담회	15일 조합원교육	
우영산업	24	이월	이월	이월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이월	29일 의무교육	
일진베어링	24	12일 지부장교육	이월	23일 산업안전 교육	
청우	8	이월	15일 조합원 교육	이월	
코레스	12	이월	10일 조합원 교육	이월	
플라스틱옵니업	12	이월	이월	이월	
현담산업	12	이월	8일, 10일 조합원 간담회	8일 정세교육	
현대아이에이치엘	24	27일 선거대체	이월	24,31일 정세 및 현안 설 명회	
현대성우솔라이트	24	30일 총회대체	이월	7일 임.단협설명회 30일 조합원 교육	

현대모비스경주물류	10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20일 조합원 교육	이월	31일 조합원교육	
현우	12	31일 조합원 교육	이월	22일 1주년행사대체	

지회	시간	4월	5월	6월	비고
광명산업		단협없음	단협없음	단협없음	
금강	24	12일 지부역사교육	3일 의무교육	이월	
다스	24	27일 의무교육	25일 경영분석설명회	이월	
KBI동국실업	8	13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동진이공	24	21일 조합원교육	19일 의무교육	30일 조합원 교육	
디에스시	24	21일, 28일 의무교육	24일 경영분석설명회	13일 통상임금 설명	
두양정공	24	21일 의무교육	이월	14일 보고대회대체	
리어코리아	12	21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명성공업	12	12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발레오만도	20	14일, 17일 의무교육	이월	28일 마음건강교육	
비투지	24	18일 의무교육	이월	16일 조합원교육	
세진	24	14일, 21일 의무교육	30일 경영분석설명회	21일, 28일 (5.18교육)	
아이티더블유경주	24	24일 의무교육	이월	16일 지회 16주년기념 및 결의대회	
아진카인텍	24	5일 확산대체	1일 의무교육	14일 확산대체	
에코플라스틱	24	28일 정기총회 및 정기대대	3일 의무교육 18-31일 간담회	이월	
엠에스	24	20-21일,24-25일 의무교육	22-23일 경영분석설명	19일 지회10주년 기념 및 투쟁결의대회	
엠에스정밀	12	18일 의무교육	이월	16일 4주년지회 기념 및 결의대회	
우영산업	24	17일 의무교육 25일 경영분석설명	이월	이월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이월	23일 조합원교육	
일진베어링	24	18일 의무교육	2일 간담회	이월	
청우	8	26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코레스	12	21일 의무교육	이월	2일 조합원교육	
플라스틱옴니엄	12	20일 의무교육	이월	15일 의무교육	
현담산업	12	5일 보고대회	이월	이월	
현대아이에이치엘	24	21일, 28일 의무교육	이월	7일 경영분석설명회	
현대성우솔라이트	24	26일 의무교육	25일 월례교육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10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28일 조합원교육	26일 의무교육	이월	
현우	12	28일 의무교육	이월	이월	

지회	시간	7월	8월	9월	비고
광명산업		단협없음	단협없음	단협없음	
금강	24	6-14일 간담회	이월	이월	
다스	24	26일 조합원교육	이월	26일 조합원교육 (직장내괴롭힘)	
KBI동국실업	8	12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동진이공	24	28일 조합원교육	25일 조합원교육	22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3일,10일 조합원교육	11일 조합원교육	18일,25일 조합원교육	
두양정공	24	4일 찬반투표	11일 조합원교육	12일 총회대체	
리어코리아	12	14일 간담회	11일 간담회	22일 간담회	
명성공업	12	이월	18일 총회대체	이월	
발레오만도	20	21,24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비투지	24	12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세진	24	이월	이월	13일,20일 조합원교육(오염수)	
아이티더블유경주	24	이월	이월	이월	
아진카인텍	24	12일 조합원교육	23일 확산대체	13일 확산대체	
에코플라스틱	24	4일 찬반투표	이월	7일 총회대체	
엠에스	24	17,18,19,21일 고용위 경과보고	31일 총회대체	이월	
엠에스정밀	12	이월	이월	이월	
우영산업	24	이월	이월	이월	
인지컨트롤스	12	이월	이월	21일조합원교육 (경영분석,노동안전)	
일진베어링	24	이월	14일 조합원교육	이월	
청우	8	6일 찬반투표	이월	이월	
코레스	12	11일 조합원교육	이월	27일 조합원교육	
플라스틱옵니엄	12	이월	이월	이월	
현답산업	12	5일 조합원 간담회	9일 조합원간담회	이월	
현대아이에이치엘	24	11일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이월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10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4일,12일 조합원교육	이월	13일 조합원교육	
현우	12	27-28일 간담회	이월	이월	

지회	시간	10월	11월	12월	비고
광명산업		단협없음	단협없음	단협없음	
금강	24	12일 투표대체	24일 투표대체	8일 지회 10주년행사 11일 투표대체	
다스	24	31일 조합원교육(조직강화)	30일 조합원교육(인성)	26일 조합원교육	
KBI동국실업	8	이월	이월	8일 조합원교육	
동진이공	24	20일 조합원교육	17일 조합원교육	29일 조합원교육	
디에스시	24	4일,11일조합원교육(조직활성화 소통)	이월	6일, 7일 투표대체	
두양정공	24	이월	23일 투표대체	6일, 13일 투표대체	
리어코리아	12	6일 간담회	이월	이월	
명성공업	12	12일 투표대체	이월	12일 투표대체	
발레오만도	20	27일, 30일 조합원교육	23일 투표대체	6일, 13일 투표대체	
비투지	24	이월	22일 투표대체	5일, 12일 투표대체	
세진	24	12일 창립기념대체 19,26일 성희롱예방	이월	이월	
아이티더블유경주	24	13일 투표대체. 27일 간담회	이월	20일 총회대체	
아진카인텍	24	19일 확산대체	15일 확산대체	4일 확산대체	
에코플러스텍	24	12일 투표대체	24일 투표대체	6일 투표대체	
엠에스	24	4일~18일 간담회	이월	7일 투표대 18일~26일 영상교육	
엠에스정밀	12	이월	22일 투표대체	이월	
우영산업	24	12일 투표대체 4일~28일 간담회	이월	이월	
인지컨트롤스	12	18일 추모제대체	이월	22일 총회대체	
일진베어링	24	12일 투표대체	이월	이월	
청우	8	이월	22일 투표대체	13일 투표대체,간담회 21일 지부장 간담회	
코레스	12	이월	21일 투표대체	7일 조합원교육	
플라스틱옵니엄	12	이월	이월	이월	
현담산업	12	이월	15일 조합원교육	13일 조합원교육	
현대아이에이치엘	24	11일 투표대체	23일 투표대체	5일,13일 투표대체 11일 간담회	
현대성우솔라이트	24	이월	이월	이월	
현대모비스경주물류	10	이월	이월	이월	
현대엠시트	24	6일 조합원교육	22일 조합원교육	20일 조합원교육	
현우	12	5일 금속노조의 이해 조합원교육	이월	이월	

㉔ 2023년 조합 의무교육 실시현황

날짜	지회	교육대상	교육내용	강사
5/3일	금강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국장
4/27일	다스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회 교육부장
4/13일	KBI동국실업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국장
5/19일	동진이공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국장
4/21일	두양정공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위원장
4/21일, 28일	디에스시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회 교육부장
4/21일	리어코리아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수석부지부장
4/12일	명성공업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영욱교육위원
4/14일, 17일	발레오만도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국장
4/18일	비투지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윤정정책국장
4/14, 21일	세진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회 교육부장
4/24일	아이티더블유경주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영욱교육위원
5/1일	아진카인텍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윤정정책국장
5/3일	에코플라스틱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위원장
4/20일, 21일 24일, 25일	엠에스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20일 지부최정책국장 21일 지부교육국장 24일 지부교육위원장 25일 지부최정책국장 지부교육위원장
4/18일	엠에스정밀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수석부지부장
4/17일	우영산업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장
3/28일	인지컨트롤스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국장
4/18일	일진베어링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회 교육부장
4/26일	청우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윤정정책국장
4/21일	코레스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최윤정정책국장
6/15일	플라스틱옵니엄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위원장
3/8일	현담산업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장
	현대모비스경주물류			
4/26일	현대성우솔라이트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장
4/21일, 28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이성희교육위원
5/26일	현대엠시트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 교육위원장
4/28일	현우	조합원	2023년 정세와 투쟁방침	지부장

II. 12기 2년차 교육사업 평가 건

1) 경주지부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평가

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2기 2년차 신임간부교육은 2월 2일~3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1) 조별 소개시간 2) 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역사와 개요, 나) 간부소양교육, 다) 간부의 역할과 과제 라) 실천계획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12기 1년차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숙박없이 2일간 진행했으나 12기 2년차에는 숙박교육으로 뒷풀이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가지고, 교육과 토론등의 과정을 무리없이 좋은 평가 속에 진행되었다.

-교육주제와 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영상교육 배치, 체육활동등 강의식 교육진행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도 하여 일정의 뻘뻘함을 해소하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참석률

-지부 28개지회 중 14개 지회에서 전체 64명(신임간부 51명)이 참석했다. 2년차이고, 신규지회들이 내부여건상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신임대의원 선출등의 영향등으로 참가지회는 많은 편이었다.

③ 총괄 평가

-평가설문에 따르면 신임간부교육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다수는 좋았다고 평가해 주었다. 토론 및 발표, 간부사례교육, 간부소양교육, 금속노총과 민주노총의 소개 순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번 신임간부교육에서 새로운 시도로 진행을 교육위원들이 나누어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채롭게 진행된 것 같아서 좋았다는 평가가 개진되었다.

-신임간부들이 아직 토론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별로 차이는 있지만 진행도우미가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의견과 토론 진행시 역할과 방식에 대해 간부들에게 사전숙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신임간부교육시 기존의 간부가 참여하는 문제, 식사질의 문제, 영상교육, 체육활동문제등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 되었다.

2) 경주지부 12기 2년차 노조간부 기본과정교육 평가

① 교육개요

- 조합 방침에 따라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민주노조활동가, 간부를 양성한다는 목표에 따라2023년 “노조간부기본과정(11개 강좌)”을 진행하였다 .강의를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다, 모집결과 4개지회 27명이 참여 했으며, 5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여 수료하였다.

② 총괄평가

- 12기 2년차 노조간부기본과정은 12기 1년차 교육참가인원 9명에 비해 참가자가 많이 늘어 4개지회 27명을 2개팀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다만 한 개 지회에 인원이 특히 많아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교육 참가자들의 설문평가에 따르면 한 개 지회가 확산전체 결의로 참가한 영향 때문인지 적극성 평가에서는 예년에 비해 높지 않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참여형 교육으

로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간부에게도 기본과정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중급과정에 대한 참여의사는 이에 비해 높지는 않았다.

-이번 과정에서 특별히 좋은 강좌에 대한 응답은 대안사회, 노동자와 인권,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현재 노동운동의 방향이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고민을 간부동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의 개선점으로는 교재나 영상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토론시간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현재 시간할애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2시간 정도의 교육에서는 1개 강의당 내용의 숙지와 상호토론, 실습이 모두 이루어 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2024년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을 위해 교재업데이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경주지부 12기 2년차 교섭위원 의무교육 평가

경주지부 2023년 교섭위원 의무교육을 준비하면서 교섭위원들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한 교육주제와 방식에 대해 지부 교육위와 집행위의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토론,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 및 노조 무력화 대응, 경영분석(재무제표), 경주지부의 지회 활동소개로 교육주제를 확정하였고, 교섭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장소의 문제로 4차례 진행되었다.

첫 시간은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에서는 많은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되었지만 토론의 결과가 정치방침에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토론으로 마무리 되어 교섭위원 의무교육에 배치한 의미를 반감된 면이 있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및 노조무력화 대응 교육은 현 노동정세에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교육의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되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전날 금속노조 법률학교에 참가한 교섭위원들에게는 비슷한 주제의 교육을 연속으로 받게 되어 교육의 집중도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경영분석(재무제표) 교육은 이해를 위한 설명이 상세하게 된 것 같아 이해하기 쉬웠고, 교섭위원들의 참여와 태도도 좋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장의 음향시설을 보완하여 뒷자리의 인원들도 교육에 집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지회별 활동소개는 처음 취지는 각 지회에서 준비와 발표를 진행하는 의견이었지만, 지부 교육위에서 취합하여 진행하였고, 각 지회 소개와 영상을 보면서 다른 교육보다 교섭위원들의 집중과 평가는 가장 좋았다고 설문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교섭위원 교육을 위한 교섭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 교육횟수가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에, 1박 2일의 수련회 형식의 진행도 고민해 보아야 하며, 교섭위원들이 제출한 직접 참여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 방식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전체적으로 참여율은 높은 편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도 지난해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강의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교육방식이나 강의주제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대표교섭위원들이 교육을 시작할 때는 교육을 함께 받는 모습이 교섭위원동지들의 교육 참여율이나 집중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과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 교섭위원 교육이 보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의와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12기 2년차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 평가

<총괄평가>

금속노조 유급간부교육시간 확보 17개 사업장(타지부 소속지회포함 22개지회), 대각선사업장 3개지회, 전체 25개지회(4개지회는 타지부 결합) 461명 중 363명이 참가하여 79%의 참가율을 보였으며, 타 지부에 결합한 지회를 제외하면 89%의 참가율을 보였다.

입소식의 부위원장의 인사는 과도하게 길었다고 느껴지며, 현 정세에 대한 특강은 금속노조 정대, 지부 정대, 조합원 의무교육, 교섭위원 교육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세교육에 대한 누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아쉬웠다고 판단된다.

연극이 주 교육으로 배치된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연극에 참여하는 동지들은 더욱 공감되었다는 평가이고, 앞으로도 연극이 계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더 많은 간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연극을 보고 조합활동의 초심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참여에 부정적인 동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

처음 참석한 동지들도 다른 지회 간부들과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토론시간이 부족했는데도 발표에 치중하다 보니 부족한 토론도 형식적으로 된 측면이 있었다.조를 나누어 토론을 하고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산만해지면 이탈자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모둠별 토론과 결과발표는 식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토론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 발표(전지) 형식으로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쉽지는 않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으로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2년째 실시했다. 1년차는 금속노조 강령에 대한 교육, 2년차는 금속노조 과제로 비정규직, 세대갈등, 임금체계등을 연극을 통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평가는 좋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금속노조 확대간부교육의 기본메뉴얼을 정하는 것이 좋은지, 해마다 주제와 형식을 바꾸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며, 객실의 난방문제, 뒤풀이 음식의 잔반문제 개선과 확대간부교육이 회합 분위기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5) 금속노조 12기 2년차 조합원 의무교육

< 총괄평가>

- 조합은 2023년 투쟁방침이 5월 총력투쟁과 7월 총파업으로 결정되어 조합원 의무교육을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집중해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부에서는 3월초부터 몇몇지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세교육을 배치하기도 했으나 지부 전체적으로는 4-5월에 걸쳐서 2023년 상반기 조합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시기가 늦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나, 매년 2월말 투쟁방침결정을 위한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3월초 지부정기대의원대회, 3월 중순 의무교육 강사단 훈련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3월말부터 교육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경주지부는 28개 사업장 중 5월 19일까지 25개 지회, 6월 중순까지 2개

지회등 총 27개지회가 의무교육을 진행했고, 미 실시 지회는 1개지회였다.

의무교육강사단 훈련실시이후 급하게 교육일정이 잡혀 지회교육담당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준비하는 시간 빠듯해서 조합에서 교육자료를 빨리 보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부교육위에서 시범교안을 논의해서 마련하고, 타지회 교육담당자의 교육을 듣고 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만 조합원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교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조합 의무교육안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치등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 이에 비해 지부 시범교안은 정세나 수치등을 단순화해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투쟁방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방침이나 계획이 실천과 어긋나는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투쟁계획대로 금속노조의 투쟁이 실천되지 못한 것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조합이나 지부의 요구나 방침에 대해 교육담당자와 간부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점도 지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 의무교육에 대한 틀을 완전히 바꾸진 못하더라도 어려운 경제용어와 정세등은 쉽고 간결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국제정세는 더욱 관심밖이다.

그리고, 의무교육 강사단 교육도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결정되지 않은 방침을 제안하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조합교안의 양을 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제정세를 투쟁교안에서 배제하기 어렵지만, 쉽게 수정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3년은 금속노조가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한다는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1사 1교육을 대신해서 금속노조 조합원 의무교육에 민주노총 경북본부 임원들의 사전 투쟁발언을 배치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각각 2번 교육하지 않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경북본부임원의 사전투쟁발언이 교육내용과 중복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6) 교육위 총괄평가

- 12기 2년차는 교육위원회의가 매달 1회씩 진행되었고, 세대문제, 노동법을 주제로 교안마련을 위한 교육기획 수련회도 2차례 진행했다. 교육담당자 중 직책이 중복되어 교육위원회의에 참가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고, 중도에 그만두는 교육담당자동지들도 있어서 교육위원회의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안마련을 위한 교육기획은 상반기를 목표로 했으나 임단투일정등으로 하반기에나 완료된 점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 신임간부교육, 간부교육, 조합원 의무교육, 교섭위원교육, 노조간부기본과정교육등 지부교육사업의 영역마다 교육담당자들의 역할을 분담해서 참여를 시도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좀 더 전문성을 키운다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위 회의 운영은 무난했으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고, 교육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교육사업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안 마련을 위한 교육기획사업

도 잘 진행 한 것 같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때 토론의 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쉬웠다.

- 12기 2년차 교육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부족한 것 같았다. 교육위차원에서 지회별로 조합원교육을 할 때 교육담당자들이 참관하여 건문을 넓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교육역량강화등 아쉬움이 있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교육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선배동지들에게 많이 배웠지만 지회교육에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교육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개인 역량강화를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예를들어 처음하는 교육담당자들에게 6개월 안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 외는 교육위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하는 점등 모두 좋았다고 생각한다.

6-5. 선전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사업과 활동 등을 종합 기획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
- 2) 조합,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여 일체성 강화
- 3) 선전담당자 간 토론과 교육을 통한 선전역량 강화

2. 주요사업

- 1) 선전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참석 현황

차 수	날짜 및 장소	토 의 안 건	참 석
10차	01월 13일(금) 14시 비투지지회	안건 1. 12기 2년차 웹자보 활용 교육 논의건 안건 2. 12기 2년차 웹자보 프로그램 사용방법 논의건 안건 3. 선전부 2년차 수련회 진행 논의건 안건 4. 기타 건	18명 중 15명 참석
11차	02월 03일(금) 14시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안건 1. 12기 2년차 망고보드 교육 논의건 안건 2. 선전부 12기 2년차 수련회 일자 및 장소 선정 논의건 안건 3. 기타 건	18명 중 15명 참석

12차 (수련회)	03월 23일(목) 14시(수련회) 화랑마을	안건 1. 12기 2년차 선전부 활동 방향 논의건 안건 2. 2023년 임·단협 교섭기간 선전부 회의방식 논의건 안건 3. 기타 건	18명 중 17명 참석
13차	05월 25일(목)1시 디에스시지회	안건 1. 5월 31일 총파업 관련 영상 촬영 진행의 건 안건 2. 망고보드 추가 교육 진행의 건 안건 3. 기타 건	18명 중 13명 참석
14차	06월 30일(목) 10시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안건 1.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공유건 안건 2. 망고보드 4차 교육 일정 논의건 안건 3. 기타 건	18명 중 13명 참석
15차	09월 12일(화) 14시 경주지부 회의실	안건 1. 2023년 경주지부 확대간부교육 영상 제작 건 안건 2. 경주지부 선전부 하반기 평가수련회 건 안건 3. 기타 건	18명 중 14명 참석
16차	10월 16일(월) 15시(수련회) 190워터프런트	안건 1. 12기 2년차 선전부 사업평가 건 안건 2. 하반기 수련회 평가 건 안건 3. 기타 건	19명 중 14명 참석
17차	12월 13일(수) 14시 경주지부 회의실	안건 1. 12기 선전부 지부, 지회 사업 집행점검 건 안건 2. 기타 건	19명 중 13명 참석

순	지부/지회	이름/직책	01/13 10차	02/03 11차	03/23 12차	05/25 13차	06/30 14차	09/12 15차	10/16 16차	12/13 17차
1	금강	김명석 선전부장	×	○	○	○	○	×	×	×
2	다스	조진래 선전부장	○	○	○	○	○	○	○	○
3	KBI동국실업	김성민 선전부장	○	○	○	○	×	○	○	○
4	디에스시	박보현 선전부장	○	○	○	○	○	○	○	○
5	명성공업	천동민 선전부장	○	○	○	×	○	×	×	×
6	비투지	이종혁 선전부장	○	×	○	○	○	○	○	○
7	발레오만도	박지환 선전부장	-	-	-	-	-	-	○	○
8	세진	김재범 선전부장	○	○	○	×	○	×	○	○
9	아이티더블유경주	박현숙 선전부장	○	○	○	○	○	○	○	○
10	에코플러스틱	서동난 선전부장	○	○	○	○	×	○	×	×
11	엠에스	이종대 선전부장	○	○	○	○	○	○	○	×
12	엠에스정밀	박유준 선전부장	○	○	○	○	×	○	×	○
13	우영산업	김민기 선전부장	○	○	○	○	○	×	○	○
14	인지컨트롤스	김보미 선전부장	○	○	○	×	×	○	○	×
15	일진베어링	황진호 선전부장	○	○	○	×	○	○	○	○
16	현대성우솔라이트	김명교 선전부장	-	-	○	○	○	○	○	○
17	현대아이에이치엘	조혜정 선전부장	○	○	○	○	○	○	○	○
18	현대엠시트지회	이세원 선전부장	×	×	×	×	×	○	×	×
19	경주지부	황광복 선전부장	○	○	○	○	○	○	○	○
참석인원			15명	15명	17명	13명	13명	14명	14명	13명

2) 지부소식지 발행 현황

발행 호수	발행 일자	주요 내용
30호	2023년 01월 09일	-투쟁만이 윤석열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는 길이다 !! 지난해 11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에서 민주노총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2023년 투쟁에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힘차게 진행하였다.
31호	2023년 0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아직도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대구경북권 노동자들이 대구지방노동청 앞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중적 노동구조를 조장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한다!
32호	2023년 02월 02일	-윤석열정부의 폭정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 노동자에게 가혹하고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정부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서 2023 금속노조 투쟁본부 출범식 및 투쟁선포식을 진행하였다. -12기 2년차 신입간부교육 진행
33호	2023년 02월 09일	-탄압 속에도 금속노조 깃발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다. 지난해 11월29일 금속노조에 깃발을 올린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가 경주지역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동지들에 축하를 받으며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고용합의불이행 불법대체생산하는 덴소자본을 규탄한다.
34호	2023년 02월 14일	-노동탄압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2023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한화리조트 담튼홀에서 경주지부 한해 사업 초안을 토론하는 12기 2년차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35호	2023년 02월 27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에 결의를 다지다! 2023년 2월 2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경주지부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2023년 한판 투쟁을 준비하는 금속노조 임원·사무처 수련회 진행
36호	2023년 03월 07일	-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한판 싸움에 결의를 다지다 !!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23년 3월 6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주지부가 올 한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지었다.
37호	2023년 03월 21일	-법위에 있는 자본과 정부 사법부에 정의는 없었다 ...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판결 규탄 결의대회 진행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한다!
38호	2023년 04월 07일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자본에 하수인 ?? 일본 자본인 덴소코리아 본사 앞에서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설비 반출 공권력 폭력 침탈 규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진행
39호	2023년 04월 14일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사가 2023년에도 변함없이 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발암물질 조사사업
40호	2023년 04월 25일	-정부의 노동탄압 속에서도 경주지부 29번째 깃발이 올랐다!! 외동읍에 위치한 광명산업지회가 4월 23일 설립총회를 거쳐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일원이 되었다. -발레오 자본 또다시 도발하다!!

41호	2023년 05월 02일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정권 심판! 노동절 경북대회 진행 포항 협력회관 앞에서 진행된 133주년 세계노동절 경북대회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합원 490여 명이 함께하였다.
42호	2023년 05월 16일	-열사 정신을 이어받아 도보 투쟁에 나서다! 내려라 공공요금! 올려라 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2023 도보순회투쟁단 출정식을 경북도청 앞에서 진행 -조직강화위원회 소식지 (인지컨트롤스지회)
43호	2023년 06월 01일	-금속노조 총파업! 경주지부 결의대회 진행 노동자 때려잡기와 서민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금속노조 경주지부 2천여 조합원들이 3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44호	2023년 06월 09일	-먹튀 하려는 발레오만도자본에 일침을 가하다 12일간의 총력 투쟁으로 발레오만도자본의 2공장 매각을 막아냈다.
45호	2023년 06월 30일	-7월 총파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 경주지부 집행위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압도적인 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순회 진행....
46호	2023년 07월 07일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을 걸고 싸울 것이다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진행하였다.
47호	2023년 07월 26일	-노조파괴 작업으로 빼앗겼던 13년 전 민주노조를 되찾다 ! 발레오만도지회가 13년 전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 작업으로 빼앗겼던 민주노조를 쏜한 사측의 탄압을 견뎌내며 끝내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뭉쳤다.
48호	2023년 08월 16일	-대각선교섭 사업장에서도 파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경주지부 청우지회가 임금 쟁취를 위한 가열찬 파업을 진행 중이고 현우지회는 2일간의 파업을 진행해 임금을 쟁취했다.
49호	2023년 09월 26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금속노조 제2회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진행 -조직강화위원회 지회 소식지 (아진카인텍지회) 2023년 임금교섭 언제하나???
50호	2023년 10월 27일	-2023년 경주지부 집단교섭 마무리 되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경주지역 사용자협의회가 2023년 경주지부 집단교섭 조인식을 진행 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51호	2023년 11월 06일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 경주 일정 진행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전국노동자대회 조직을 위한 대행진 일정에 경주지부도 함께 하였다. -시민들의 호응속에 두 번째 '2023성평등 어우러짐 축제' 진행
52호	2023년 11월 21일	-말로만 노·사 상생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진행된 현대·기아차 상생협력 선언식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53호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행동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 공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54호	2023년 12월 08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13기를 선봉에서 이끌 임원확정 금속노조 경주지부 13기 임원으로 지부장 정진홍, 수석부장 차상호, 사무국장 박진만 후보가 82.22% 라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부지부장은 우정식, 이중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3) 지부 교섭 속보

발행호수	발행 일자	주요 내용
1호	2023년 04월 13일	2023년 경주지부 임금 쟁취 투쟁이 시작 되었다!! 사측은 상견례 자리에서 상호 간 신뢰를 지키길 바란다!
2호	2023년 04월 20일	매년 교섭 때마다 힘들다는 사용자들 ... 사측에 통일요구안과 경주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해 설명
3호	2023년 04월 27일	자동차 산업의 이익 분배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노사간 집단교섭 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 진행
4호	2023년 05월 04일	경주지부 또한 정부의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집단교섭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
5호	2023년 05월 11일	금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사업장 대표의 연이은 불참'우연이 반복되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6호	2023년 05월 18일	사측은 조금 더 교섭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교섭에 이어 세 번째로 제시한 문구 수정안도 수용하도록 하겠다.
7호	2023년 05월 25일	사측의 교섭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차에 이어 7차 교섭에서도 교섭장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8호	2023년 06월 15일	기세를 늦추지 말고 투쟁하자! 공직취임 인정, 휴게실 설치에 관한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
9호	2023년 06월 22일	경주지부 집단교섭 결렬 선언 ! 에코플러스석회회에서 진행된 9차 교섭에서 성의 없는 사측의 태도에 노측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다.
10호	2023년 07월 27일	경주지부 집단교섭 의제에 대해 의견접근 !! 노측의 결렬선언으로 중단되었던 지부집단교섭이 35일 만에 재개되어 신설된 2가지 항목을 포함 의제들에 대해 의견접근 하였다.
11호	2023년 08월 17일	사측은 교섭에 더 집중해줄 것을 주문한다. 사측의 임금제시안에 대해 명성공업지회, 금강지회는 의견접근 하였고 우영산업지회는 수용거부 하였다.
12호	2023년 08월 21일	사측은 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 우영산업 사측 한번 정회 때마다 10원씩 인상된 임금안 제시 정말 교섭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13호	2023년 08월 22일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시안을 달라 ! 세진지회, 우영산업지회 13차 교섭에서 의견접근
14호	2023년 08월 23일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사측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 교섭이 14차까지 진행되었는데 5개 사업장은 임금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5호	2023년 08월 24일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해가 지나도 여전하다... 15차 교섭에서 다스지회 사측 1차 제시로 마무리,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는 의견접근

16호	2023년 08월 25일	나머지 사업장은 임금을 제시할 생각이 있기는 한가? 16차 교섭에서 다스지회 의견접근 나머지 사업장 임금제시 없어
17호	2023년 08월 28일	경제적 손실을 말하기 전에 성실한 안을 제시하라 ! 디에스시지회, 엠에스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수용거부 사용자들 두 차례 간만 보고 교섭 마무리 ...
18호	2023년 08월 29일	간 보기만 하는 이런 지루한 교섭은 처음이다. 다스지회 1차 부결 후 2차 의견접근, 4차례 정회를 거쳤지만 디에스시 일진베어링 사측 1차 제시 후 추가 제시안 없어 ...
19호	2023년 08월 30일	교섭 요청을 했으면 성의를 보여라 ! 디에스시 사측 지부집단교섭 요청하고 1차 제시로 끝 현대아이에이치엘, 에코플라스틱 제시안 없어 ...
20호	2023년 08월 31일	교섭이 더딘 사업장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수용거부 엠에스지회, 디에스시지회 의견접근
21호	2023년 09월 01일	지금 이 시간도 노·사 모두에게 손실이다.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의견접근
22호	2023년 09월 06일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교섭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디에스시지회 의견접근, 일진베어링지회 의견접근 후 총회가결
23호	2023년 09월 07일	경주지부 집단교섭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에코플라스틱지회 의견접근, 디에스시지회도 부결 후 세 번째 의견접근

4) 각종 선전물 및 대자보

구분	발행 일자	주요 내용
대자보	2023년 04월 24일	경주지부는 4300여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투쟁하겠습니다.!
대자보	2023년 07월 20일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의 금속노조 통합총회를 경주지부 4,400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자보	2023년 12월 14일	변화와 혁신!! 가슴 뛰는 경주지부!!

3. 사업평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2기 2년 차에도 노동계에는 윤석열 정권의 수족인 검찰들의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한해였다.

-12기 2년 차 사업에서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의원대회, 발암물질 조사사업, 경주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발레오만도 조직통합 등 경주지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기획하고 각종 전달 매체와 지부소식지, 교섭속보, 조강위소식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경주지부의 활동과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 한해였다.

-텔레그램방을 적극 활용하여 조합,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주기적인 선전부 회의와 수련회를 진행해 지부 및 지회 상황을 상호 간 수시로 공유하여 일체성 강화를 위해 힘썼으며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선전부의 단합과 결속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1년 차에 이어 2년 차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 차례 망고보드 교육을 진행하였고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도 지회 선전부장님들이 적극 결합하여 선전역량 강화에 노력해 웹자보나 플랭카드 그리고 간단한 동영상도 자체 제작하는 등 역량 강화에 힘썼던 한해였던 것 같다. 하지만 지회 선전담당자가 없는 소수 업장에도 조합원으로서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 한 점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은 반성과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본의 앞잡이로서 윤석열은 지난 4월과 5월 양곡법과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어 2023년 12월 1일 노동자들이 힘들게 20년 동안 싸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앞으로 3년이 넘게 남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동탄압의 상황에 대해 더 빨라지고 쉽게 알려내는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6. 총무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 2)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통일된 총무 사업 추진
- 3) 지회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2. 주요사업

- 1) 지부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참석 현황

순 번	지회	직책	이름	01/19 9차	02/16 10차	03/24 11차	04/14 12차	05/19 13차	07/18 14차	09/15 15차	10/19 16차	12/15 17차
1	광명산업	사무장	김철호					×	×	×	×	×
2	금강	사무장	최광진	×	○	○	○	×	○	○	○	○
3	다스	사무장	우영주	○	○	○	○	○	○	○	○	○
		총무부장	박인룡	○	○	○	○	○	○	○	○	○
4	KBI동국 실업	사무장	김민석	○	○	○	○	○	○	○	○	○
5	두양정공	사무장	황성욱							×	○	×
6	디에스시	사무장업무 대행	정창길	○	×	×	×	○	×	×	○	×
		총무부장	최규철	○	×	○	×	○	○	○	○	×
7	리어코리 아사내하 청	사무장직무 대행	최형민	×	×	×	×	×	×	×	×	×

8	명성공업	사무장	신민철	○	○	○	○	○	○	○	○	○
9	발레오만 도	사무장	김환진	○	×	○	○	×	○	○	○	○
10	비투지	사무장	장창호	○	○	○	○	○	○	○	×	○
11	세진	사무장	강건우	○	○	○	○	○	○	○	○	×
12	아이티더 블유경주	사무장	최석신	○	×	○	×	×	○	○	○	○
13	아진카인 텍	사무장	조은희	×	○	×	×	×	×	×	×	×
14	에코플라 스틱	사무장	최정환	○	○	×	○	×	○	○	×	○
15	엠에스	사무장	오수석	○	×	○	○	○	○	×	×	○
		총무부장	박재민	○	×	○	○	×	○	×	×	○
16	엠에스정 밀	사무장	이상호	○	×	○	○	○	○	○	○	○
17	우영산업	사무장	김종환	○	○	×	○	○	○	○	○	×
18	인지컨트 롤스	사무장	이대호	○	×	×	○	×	○	×	×	×
19	일진베어 링	사무장	박광일	○	○	○	○	○	○	×	○	○
20	청우	사무장	김정현	○	○	○	○	○	×	○	×	○
21	코레스	사무장	권혁대	×	×	×	×	×	×	×	×	×
22	플라스틱 옴니업	사무장	김우태	○	○	○	○	○	×	×	○	×
23	현담산업	사무장	이주호	○	×	×	×	×	○	×	×	○
24	현대모비 스경주물 류	사무장직무 대행	김재원	○	○	○	○	○	○	○	○	○
25	현대성우	사무장	남호찬	○	○	○	○	○	○	○	○	×
26	솔라이트	총무부장	박병희	○	○	○	○	○	○	○	○	○
27	현대아이 에이치엘	사무장	이창현	○	○	○	○	×	○	×	×	×
28	현대엠시 트	사무장	김상섭	○	○	○	×	○	○	○	○	○
29	현우	사무장	손은경	○	○	○	○	×	○	○	○	×
30	경주지부	사무국장	박진만	○	○	○	○	○	○	○	○	○
		총무부장	김철수	○	○	○	○	○	○	○	○	○
성원 : 34명				28명	21명	24명	24명	20명	26명	21명	22명	20명

2) 지부 사무장단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차수	날짜 (2023년)	장소	주요내용
9차	1월 19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경주지부 임단협 사업장 점검 건 2023년 교섭요구 공문발송 현황 점검 건 경주지부 12기 2년차 대의원 점검 건 고용안정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절차 점검 건 총무회계 업무 관련 논의 건

			12기 2년차 사무장단 수련회 진행 논의 건
10차 (수련회)	2월 16~17일	사천시 자연휴양림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 등록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지회별 지부 교섭위원 선출 시건 점검 건 교섭위원 변경에 대한 절차 점검 건 총무회계 업무 관련 논의 건
11차	3월 24일	현대성우썰라이트지회	2023년 사업장 보충교섭 상견례 일정 점검 건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 등록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경주지부 지회별 설립일 점검 건 아사히투쟁 후원의 밤 티켓 구매 점검 건 지회 행사 시 화분 전달 논의 건 금속노조 사업비 인상 공유 건
12차	4월 14일	엠에스지회(황성)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5.1 세계노동절 경복대회 인원 취합 건 2023년 경주지부 확대간부 교육 점검 건 5.18 정신계승 경주지부 순례단 진행 점검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건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감사 관련 의견 공유 건
13차	5월 19일	우영산업지회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5.31 전조합원 결의대회 지회별 참가인원 점검 건 5.31 전조합원 결의대회 진행 논의 건 코로나 정부지침 변화에 따른 지회별 상황 공유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건
14차	7월 18일	경주지부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지부 12기 2년차 2/4분기 감사일정 점검 건 투쟁사업장 투쟁기금 지원 결과 점검 건 지회 투표결과 작성 논의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건
15차	9월 15일	경주지부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사업장별 조합원 수 및 퇴직 조합원 수 점검 건 2023년 지부·지회 단체교섭 승인 및 결과 보고 지침 건 13기 동시선거 개표 논의 건 경주지부 12기 2년차 하반기 확대간부 교육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건
16차 (수련회)	10월 19~20일	부산팔레드시즌콘도	2023년 경주지부 임금 및 보충교섭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진행현황 점검 건 11.1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점검 건 지부 13기 선거 지회별 현장유세 점검 건 단협 DB 업데이트 점검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 논의 건 지회별 회계업무 인수인계 관련 점검 12기 지부 총무부 사업평가 논의 건

17차	12월 15일	경주지부	경주지부 13기 지회 임원선거 결과 점검 건 지부, 지회 당선자 명단 및 연락망 점검 건 2023년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현황 점검 건 지부 12기 2년차 총무부 사업평가 건 총무회계 처리 관련 업무논의 건

3. 사업평가

1) 수련회 평가

- 12기 마지막 사무장단 수련회로 아쉽긴 하지만, 좋은 분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것 같다. 사무장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며, 깊은 배려에 감사드린다. 수련회 일정 중 회의와 교육보다 동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 누구나 할 것 없이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수련회였다.
- 임원이라는 자리를 떠나 함께 한다는 소중한 자리이기에 마지막 23년의 의미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음을 전한다.

2) 총괄 평가

- 지부 사업계획에 따른 신규지회의 총무회계 업무지원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신규지회 담당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했으며, 13기도 연속하여 업무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 기준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고, 12기 중 감사 중단 사태가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감사위, 총무회계담당자에 상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12기 소수, 복수노조 사업장의 여건상 회의 참석이 힘든 동지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회의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여 회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기 감사 기준서가 발간됨에 따라, 신입 총무회계 담당자에 대한 감사 기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무회계 관련 교육 외 다양한 교육을 회의 전 배치하여 총무회계담당자들의 간부역량 강화에 노력했으면 한다.

6-7. 노동안전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재해예방 활동강화
- 2) 노동안전보건 담당 역량강화
- 3)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사회적 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사업

1) 회의참석 현황

순	지회명	이름	12차 01/13	13차 02/10	14차 03/17	15차 04/14	16차 05/26	17차 6/15	18차 8/11	19차 10/12	20차 12/15
1	금강	박 재 흥	○	×	×	×	○	○	×	○	○
2		백 승 훈	○	○	×	○	○	○	○	○	○
3	다스	김 두 성	○	×	×	○	○	○	○	○	○
4		강 보 천	○	○	○	○	○	○	○	○	○
5	KBI동국실업	유 성 열	○	○	○	○	○	○	×	○	○
6	디에스시	김 성 흥	○	○	○	○	○	○	○	○	○
7		조 우 원	○	×	○	○	○	○	○	○	○
8	명성공업	권 성 현	○	○	○(부지)	○	×	○	○	○	○
9	발레오만도지회	박 기 흥	-	-	-	-	-	-	-	○	×
10	비투지	임 민 진	×	×	○	○	○	×	×	○	×
11	세진	강 민 창	○	×	×	○	○	○	○	○	○
12	아이티더블유경주	이 찬 균	○	○	○	×	×	○	×	○	○
13	에코플라스틱	허 원 호	○	×	○	○	○	○	○	○	○
14		손 본 익	○	○	○	×	○	○	○	×	×
15	엠에스	이 원 국	○	○	×	○	○	○	○	○	○
16		이 승 업	○	○	×	○	○	○	○	○	○
17		조 현 우	○	○	×	○	○	○	○	○	○
18	엠에스정밀	황 수 정	○	-	-	○	○	○	○	○	×
19	우영산업	고 경 우	○	○	×	×	○	○	○	○	○
20	인지컨트롤스	우 종 태	○	-	-	○	×	×	×	○	×
21		김 민 영	○	-	-	○	×	×	×	○	×
22	일진베어링	안 성 모	○	○	×	○	○	○	○	○	×
23		박 정 호	○	○	×	○	○	○	○	○	×
24	청우	유 효 근	○	○	○	○	○	○	○	○	○
25	현담산업	김 경 훈	○	○	×	○	○	○	○	○	×
26		이 은 숙	○	○	×	○	○	○	×	○	○
27	현대모비스경주물류	김 종 현	○	○	○	×	○	×	○	×	○
28	현대아이에이치엘	주 태 광	○	○	×	×	○	○	○	○	×
29		류 태 욱	×	○	×	○	×	○	×	×	○
30	현대성우솔라이트	이 영 하	-	○	×	○	×	×	○	○	○
31		류 현 문	-	×	○	○	○	×	×	○	×
32	현대엠시트	유 제 훈	○	×	×	○	×	×	○	○	○

33	경주시부 노안부장	권 형 구	○	○	○	○	○	○	○	○	○
34	경주시부 부지부장	정 석 원	○	×	○	×	×	○	○	○	○
참석 인원(명)			29	24	15	28	26	27	25	31	23

2) 사업장별 안전교육 집행 결과

	지회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광명산업			진행			진행			진행			진행
2	금강	19,26	16,23	16,23	20,27	18,25	22,29	20,27	24,31	19,26	19,26	23,30	21,28
3	다스	20,27	16,23	22,29	20	17,24	21,28	19,25	23,30	13,20,27	18,25	22,12/1	21,28
4	KBI동국실업	19,26	3	2/3진행	20,27	31	20,27	20,27	22,29	19,26	19,26	16,23	13,20
5	동진이공												
6	두양정공	11,18	1,22	15,22	12,19	3,10	21,28	19,26	23,30	13,20	18,25	22,29	
7	디에스시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19,26	비대면	비대면	비대면	23,30	비대면
8	리어코리아사내하청												
9	명성공업	20	1/20	4/26	5/31		8/11			미정		12/20	
10	발레오만도	부서별 비대면 진행											
11	비투지	미진행	미진행	14	18	15 서면	16 서면	12 서면	미진행	미진행	미정	서면	서면
12	세진	19,26 (안전보건관리계획)	16,23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23,30 (소방교육 및 응급조치)	20,27 (뇌심혈관계)	18,25 (하절기안전교육)	22,29 (상반기사고사례)	20,27 (안전보호구)	24,31 (위험성평가)	14,21 (근골격계질환)	19,26 (유해화학물질관리)	7,14	21,28
13	아이티더블유경주	16 비대면	20 비대면	20 비대면	17 근골육해요인	22 중대재해	26 테이핑	24 msds	28 산안법 산제법	25 테이핑	24	24 발암물질	26 심폐소생
14	아진카인텍	완료											
15	에코플러스텍	12,19	16,23	23,30	18,24	19,22	20,27	19,26	17,24	19,26	19,26	16,23	05,14
16	엠에스	내남18,25 황성19,26 천북27	내남 17,23 황성 16,23 천북 24	내남 16,23 황성 23,29 천북 24	내남 20,28 황성 20,27 천북 21	내남 17,24 황성 18,25 천북 19	내남 22,29 황성 22,29 천북 16	내남 13,17 황성 20,27 천북 14	내남 24,29 황성 24,29 천북 11	내남 21,26 황성 21,26 천북 8	내남 18,25 황성 19,26 천북 6	내남 22,28 황성 22,28 천북 3	내남 21,27 황성 20,27 천북 1
17	엠에스정밀	11,18 서면교육	22,28	15,22	19,26	17,24	21,28 서면교육	19,26 서면교육	16,26 서면교육	20,27 서면교육	18,25 서면교육	15,22 서면교육	
18	우영산업	30	20	27	21	15	20	14	비대면	12	17	21	27
19	인지컨트롤스	30 비대면	28 비대면	30 비대면	28 비대면	26 비대면	완료	28	완료	완료	미정		
20	일진베어링	9	3	6	6	4,26	1,5	서면	서면	서면	서면	16,23	서면
21	청우	18	22	28	5	3	7	19	9	6	25	8	20
22	코레스	비대면											
23	플라스틱옴니업												
24	현담산업	31	27	23	26	24	30	8월이월	25	8,26,27	11월이월	3,29	20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	26	22	29	26	24	28	26	30	20	25	29	27
26	현대성우솔라이트	18,25	15,22	22,29	19,27	17,24	21,28	19,26	23,30	20,27	18,25	22,29	20,27

27	현대아이에이치엘	17	14	16	18	18	22	20	16	20	18	15	6
28	현대엠시트	12	6	14	18		22	18	7		5,10	26	6
29	현우	18,27	15,22	22,29	19,26	18,25	22,29	19,26	23,30	13	18	15	8

3)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 사업 집행 및 점검결과

지회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환경측정		건강 검진	비고
	1/4	2/4	3/4	4/4	상	하		
1 광명산업					완료	완료	완료	
2 금강	3/31 완료	6/14 완료	10/18 완료	12/13 완료	6월	12월	10년차이상 순차적 진행	
3 다스	2/10 사전회의, 상견례 2월말 완료	8/9 7차 실무	완료		5/11 ~12	11월	종검: 3월~10월	8/25,28 일반 특수 재검진행
4 KBI동국실업	3/31	6/27	10월	12/5	11월 동시진행		종검: 4월~11월	
5 동진이공								
6 두양정공	1/4				4/12	11/02	7월~8월 완료	
7 디에스시	4/17	10/11	11/13		5/24	11/28	6/5 ,8/29	
8 리어코리아사내하 청								
9 명성공업	5/30 조인식	긴급산보위대체 7/5	10/17	12/14	6/29	10~11월	10/25	
10 발레오만도	3/24 (4/11 노,협속개)	7/6 완료	9/26	12/12	5/9,10	11/16,20	종검 7월까지(완료) 특수: 4/12,13,18,19	
11 비투지	5/24 (1분기 조인식)	9/22	12월 동시진행		6/23	12월	11/01	
12 세진	2/27~ 3/17 (1분기 조인식)	6/13 상견례 7/27 조인식	x	미정	6/1	12/15	일반,특수:8/30, 9/6 종검:4월~11월	
13 아이티더블유경주	3/31 조인식	9/8 조인식	11/23 조인식	12/14	3/29	9/26	일반:5월16일 종검:2월~11월	
14 아진카인텍	3월	6월 예정			완료	11월 예정		
15 에코플러스 텍	3/13 완료	6/29 완료	9/21 완료	12/28 예정	5/23	10/31	일반:4월중 종검:3/6~11월말 까지	
16 엠에스		4/17 상견례 통합 진행중 9월 전체 완료			내남:6/13 황성,천북:6/7	내남:11/13 황성:11/17 천북:11/14	일반/특수: 내남(9/18,25) 황성(10/23,30) 천북(10/6,25,26) 종검: 4~12월 중 실시	
17 엠에스정밀	5차:3/16 6차:3/31 (조인식)	2분기 1차:4/17 2차:4/24 3차:5/8 4차:5/19 5차:6/5 6차:6/30조인식	3분기 1차:7/21 2차:8/10 3차:9/12 4차:9/19 5차:9/25조인식	4분기 1차:10/17 2차:11/10 3차:11/24 4차:12/01	6/26		일반: 7/7 종검: 2월~12월	
18 우영산업	3/27	6/29	9/7		6/13	12/12	종검:1월~12월 일반:10/23,30 11/6	
19 인지컨트롤스	3월 실시	5월 실시	9월 완료				8/16	
20 일진베어링	3월말 완료	6/21	9/20		4/26	11/15	일반:3월17,24 종검:4~7월	
21 청우	3/22	6/21	9/26	12월 예정	6/14	11월 완료	종검:11월	
22 코레스	미정	미정			5월 완료		4월 완료	
23 플라스틱유톨 업								
24 현담산업	3/24	6/21	10/20	12/12	5/15		b조 6/29 a조 7/6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	3/29	통합진행 8/8~		12/19 상견례			검진대상 본인희망일	
26	현대성우솔라이트	4/28	7/19	11/10	12/13 상견례	2/7~9	8/16~18	동국대병원 진행 중	
27	현대아이에이치엘	3/31	6/12	12/19		4월	9월	총검:3월14~8월11일	
28	현대엠시트					6월		일반:7월 총검:4/1~12월말까지	
29	현우	2/10완료	7/20			6/20	12/21	10/27	

4) 노동안전위원회 회의결과

차수	일자 및 장소	주요내용	비 고
12차	1월13일 경주지부	안전1. 12기 2년차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초안 토론 건 안전2. 23년 경주지부 지부집단협약 노안 의제 의견 수렴 건 안전3. 산업재해 발생현황 취합 건 안전4. 경주지부 발암물질 조사사업 진행방안 설명 건 안전5. 기타 건	
13차	2월10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안전1. 위험성평가 집체교육 참가 건 안전2. 경주지부 6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세부 논의 건 안전3. 산업재해 발생현황 취합 건 안전4. 기타 건	
14차	3월17일 에코플라스틱	안전1.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 논의 건 안전2. 경주지부 6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사업장 유예 논의 건 안전3. 기타 건	
15차	4월14일 현대성우솔라이트	안전1. 여성의 산업재해경험과 성인직적 노동안전보건활동 연구 건 안전2.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대응 건 안전3.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점검 및 시정요구투쟁의 건 안전4. 기타 건	
16차	5월26일 엠에스	안전1. 경주지부 산재현황 취합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대응 건 안전2. 2023년 집단교섭 발암물질조사 의견접근 후속조치 방안 건 안전3.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개최 건 안전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건 안전5. 기타 건	
17차	6월15일~16일 포항	안전1. 금속가공유 사용실태 조사 건 안전2. 생명안전 후퇴 개악 노동부 대응 투쟁 건 안전3. 중앙교섭 중대재해조치요구 교섭의견 수렴 건 안전 4. 기타 건	수련회
18차	8월11일 세진	안전1. 생명안전 후퇴 개악저지 하반기 주요 투쟁 계획 논의 건 안전2. 2023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대회 참가 건 안전3. 6차 발암물질 조사 진행 점검 건	
19차	10월12일~13일 울산엠버서더	안전1. 2023년 위험성평가 결과 취합 건 안전2. 경주지부 발암물질 조사사업 논의 건 안전3. 12기2년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평가 초안 의견 수렴건 안전4. 근로격계 산재처리 지연 대응 방안 논의 건 안전5. 기타 건	수련회

20차	12월 15일 경주시부	안전1. 12기2년차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평가 초안 논의 건 안전2. 13기 신입노안간부 집체교육 참가 건 안전3. 기타 건	

5) 주요사업(교육) 및 투쟁 현황

일자 및 장소	주요내용
1월5일 현대성우솔라이트	조합 노안위, 경주시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합동 현장 안전점검
1월26일 대구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월31일 금강, 우영산업	위험성평가 심층면접 현장 인터뷰
2월3일 경주시부	경주시부 6차 발암물질조사사업 노·사 설명회개최
2월23일 ~ 24일 금산	금속노조 노안간부 집체교육
3월9일 ~ 10일 천안	민주노총 노안활동가대회
3월30일 ~ 4월30일	경주시부 6차 발암물질 본 조사 진행
4월6일 ~ 7일 금산	금속노조 위험성평가 집체교육
4월12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광명산업지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4월14일 현대성우솔라이트	작업환경측정 분석법 교육
5월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광명산업지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6월23,30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생명안전후퇴개악 고용노동부 1인시위
7월3일~4일 일산킨텍스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7월14일 현대차지부	중대재해비상대책회의
7월19일~20일 비엔지스틸지회	중대재해비상대책회의
8월23일 세종시	생명안전후퇴개악 규탄 산안법 적용제외 폐지 및 전면적용 직업병 인정 기준 확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9월1일 경주시부	경주시부 6차 발암물질 조사사업 결과 보고회
9월6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지연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
9월7일 기아차지부	소하리지회 중대재해 비상대책회의
9월14일~15일 장수 농업연수원	금속노조 노안활동가대회
10월27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처리지연 지사 항의면담
10월30일~31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처리지연 공단 1인시위
11월	각 사업장별 발암물질조사 결과 조합원 교육 및 업무담당자 보고
12월19일 국회앞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연장 개악중단 농성장 결함 국회앞 선전전 및 필리버스터

3. 사업평가

- 12기 2년 차는 코로나 19의 완화로 인해 각종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노안 활동가대회·노안 집체교육의 참가로 출발하였다. 6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1년 차에 이어 초급

과정의 교육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진 점은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노안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조합 노안위의 13기 노안 교육 사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2023년 2월 ~ 9월까지 6차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사사업 10년이 가져온 노·사간 자율 관리 역량은 매우 높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업은 각 사업장 등급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확인되고 있다. 차기 발암물질 조사사업은 변화된 방식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매월 사업장별 순회 방식의 회의를 진행하며 활발한 노안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장별 현장점검을 매회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로 다른 현장의 산안 법 위반 등, 현장에서 터득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야 하지만 코로나 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 등에 따라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차기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2년 차를 보낸 것 같다. 조합과 지부,지회 노안담당들의 한 목소리로 공단 항의 투쟁등의 활동이 이어져 왔으나 개선방안은 매우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투쟁과 활동으로 제도개선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6-8. 정책 · 법규 · 조사통계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강화
- 2) 지부·지회 임단협 요구 및 대응 지원 방안 마련
-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4)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
- 5)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제고

2. 주요사업

1) 12기 2년차 정책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참석 현황

순	지회 명	이름	직책	11차 1/13	12차 2/10	13차 3/30 ~31	14차 4/27	15차 5/25	16차 6/16	17차 7/20	18차 10/5 ~6	19차 12/1 5
1	금강	신정섭	정책부장	○	○	○	○	○	○	○	○	○
		배영철	조통부장	○	○	○	○	○	○	○	○	x
2	다스	신동우	정책부장	○	x	○	○	○	○	○	○	○

		김철현	조통부장	○	○	○	○	○	○	○	○	○
3	디에스시	채종후	정책부장	○	○	○	x	○	○	○	사퇴	
		조규은	조통부장	○	○	○	○	○	○	○	○	○
4	발레오만도	이상수	정책부장	성원 추가							○	x
5	세진	안현철	정책부장	○	x	○	○	○	○	○	○	○
		강원모	조통부장	○	x	○	○	○	○	○	○	○
6	일진베어링	박호정	정책부장	○	○	○	○	○	○	○	○	○
		이동훈	조통부장	○	○	○	○	○	○	○	○	x
7	엠에스	황준하	정책부장	x	x	○	○	○	○	○	○	○
		이준오	정책부장	○	○	○	○	○	○	○	○	○
		이중희	정책부장	○	○	○	x	○	○	○	○	○
8	엠에스정밀	한동환	정책부장	○	○	○	○	○	○	○	○	○
9	우영산업	남궁훈	정책부장	○	○	○	○	○	○	○	○	○
10	에코플러스텍	김준형	정책부장	x	○	○	○	x	○	○	○	○
		조성연	조통부장	○	○	○	○	○	○	○	○	○
		김동욱	법규부장	○	○	○	○	○	○	○	○	x
11	현담산업	이영미	정책부장	○	○	○	○	○	○	○	○	○
12	현대IHL	김상민	정책부장	○	x	x	○	○	○	○	x	○
13	현대성우솔라이트	김지현	정책부장	성원 추가 >>	○	○	○	○	x	○	○	x
14	경주지부	손해용	정책부장	○	○	○	○	○	○	○	○	○
		최윤정	정책국장	○	○	○	x	○	○	○	○	○
참석인원				21명	20명	23명	21명	23명	23명	24명	23명	19명

-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김지현 정책부장 성원 추가됨.(12차 회의)
- 디에스시 채종후 정책부장 개인사정으로 사퇴함.
- 발레오만도지회 이상수 정책부장 성원 추가됨.(18차 회의)
- 회의 참관 : 현담산업 안선화 후복부장

2) 12기 2년차 정책담당자 회의 및 수련회 진행결과

차수	날짜 및 장소	회의 안건	참석 인원
11차	1월13일(금)10:00 지부회의실	안건1. 12기1년차 정책,조통,법규 사업평가 건 안건2. 12기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건 안건3. 행정개입 관련사항 및 대응방침 공유 건 안건4. 단체협약 비교자료집 제작 논의 건 안건5. 지부집단교섭 의제 토론 건 안건6. 2023년 교섭요구 공문 발송지침 점검 건	21명
12차	2월10일(목)14:00 일진베어링지회	안건1. 2023년 임,단협 진행 점검 건 안건2. 임단협 DB시스템 갱신 등록 점검 건 안건3. 2023년 사업장 경영분석 진행 논의 건 안건4. 2023년 산별교섭방침 공유 건	20명
13차	3월30일(금)10:00 화랑마을(석장)	안건1. 2023년 금속 법률학교 진행 점검 건 안건2. 2023년 임단투학교 참가 논의 건	23명

		안전3. 2023년 사업장 경영분석 진행 점검 건 안전4. 2023년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 참가의 건	
14차	04월27일(목)14:00 에코플라스틱지회	안전1. 사업장 경영분석 일정 점검 건 안전2. 2023년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 참가 건 안전3. 단체협약 비교자료집 제작 검토 건	21명
15차	05월25일(목)10:00 현대IHL지회	안전1. 2023년 사업장 경영분석 일정점검 및 평가 건 안전2. 단체협약 모음집 제작 배포현황 및 평가의 건	23명
16차	6월16일(목)10:00 세진지회	안전1. 2023년 사업장 경영분석 총괄평가 건 안전2. 임,단협 조정신청 점검 건 안전3.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관련 점검 건	23명
17차	7월20일(목)10:30 현대성우솔라이트	안전1. 조합 13기 동시선거 관련 현장토론 논의 건 안전2. 사업장별 임,단협 점검표 작성 건 안전3. 정책담당자 하반기 교육 및 회의 일정 논의 건 안전4. 12기2년차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 안전 수련의 건	24명
18차	10월05일(금)13:00 바다별펜션(양남)	안전1. 12기 2년차 청책부 사업평가 의견수렴 건 안전2.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논의 건 안전3. 천창수 교육감 질문지 작성논의 건	23명
19차	12월15일(금)11:00 세진지회	안전1. 12기2년차 정책부 사업보고 및 사업평가 건 안전2 차기회의 일정 논의 건	19명

3) 12기 2년차 정책부 교육 및 조사 사업 진행 경과보고

일시 및 장소	교육,사업 내용	참석 인원
2023년 3월30일(목) 화랑마을	-경영분석의 핵심사항 및 사업장별 의견수렴 (강사: 금속법률원 장석우 변호사/회계사) -2023년 자동차산업의 전망 교육 및 발제 (강사: 이현대 정책국장)	24명
2023년 4월26일(수)	-금속노조 경주,포항 법률학교 (권역별) 1강: 임금과 임금체계 (강사:박경순 노무사) 2강: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강사:탁선호 변호사) 3강: 윤석열 정부의 노동법 개악과 대응(강사:이선이 노무사)	경주 76명
2023년 4월27일(목) 에코플라스틱 회의실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의의 (사업장 사례발표) /질의응답 (진행강사: 김준형 정책부장/에코플라스틱지회)	21명
2023년 5월3일~4일 금속노조 연수원(단양)	-2023년 완성차-부품사 공동수련회 1. 2023년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쟁점 2. 완성차 현황 및 과제(현대,기아 정책실 발제) 3. 지역 공동사업,지자체 대응사례 공유(경주,충남 발제) 4. 자동차 대정부 요구안 및 공동 사업계획 토론 5. 2023년 공동실천 결의문 채택	경주 29명
2023년 05월25일(목)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23년 세진지회 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공유(질의,응답) (진행: 강원모 조사통계부장/세진지회)	23명
2023년 6월16일(금) 세진지회 회의실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방법 설명 및 기초교육 (강사: 신동우 정책부장 /다스지회)	23명

2023년 10월05일(목) 바다별펜션(양남)	-한국사회와 노동운동,현재의 금속노조/노동운동의 변천사 발제 (강사: 안재원/금속노조 연구원장)	24명
설문조사 사업 -2023년 자동차 부품사 사업장 전수조사 -2023년 임금 실태조사		

4) 2023년 사업장 경영분석 사업 보고

(1) 신청지회 및 사업진행 현황표

순	지회명	설명회 날짜	시간	대상	회계사
1	금강	5월10일	13:40~14:40 14:40~15:40 15:40~16:40	확대간부 1직 조합원 2직 조합원	장석우 변호사
2	다스	5월24일 5월25일 5월25일	09:00 13:40~15:40 15:40~17:40	확대간부 1직 조합원 2직 조합원	
3	디에스시	5월24일	15:40~	전조합원(통합)	
4	명성공업	5월11일 5월11일	09:00~10:00 10:00~11:00	교섭위원 조합원	
5	세진	5월30일 5월30일	13:30~15:30 15:30~17:30	1직 조합원 2직 조합원	
6	엠에스	5월22일 5월23일	10:00~ 08:00~	전조합원 (4회)	
7	우영산업	4월18일 4월25일 4월26일	15:40~17:40 15:40~17:40 15:40~17:40	광주공장 경주공장 천안공장	
8	현담산업	5월2일 5월8일	15:40~17:40 15:40~17:40	경주 확대간부 아산 확대간부	
9	현대아이에이치엘	6월7일	13:40~15:40 15:40~17:40	전조합원(2회)	
10	에코플라스틱	5월 24일	15:30~17:30	확대간부	송덕용 회계사

☛ 코레스지회,인지컨트롤스지회,청우지회 경영분석 비용은 지부 정책사업비로 지급함.

(2) 2023년 경영분석 사업장별 특이사항 보고

순	지회명	특이사항
1	금강	- 3년간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황 - 개발비용증가(긍정적으로 보임) - 비조합원 인건비 상승(사측 자료 확인 필요)
2	다스	전체 매출 30% 증가됨(연결재무 포함) 유동성 자금 하락(예의주시)
3	디에스시	재무상황은 상당히 양호한편임 연결재무 포함하여 전체 순이익 100억
4	명성공업	전년대비 매출감소됨. 원자재,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순이익 90% 감소됨 현대건설기계에 대출을 받아 현금유동성 확보하여 기업 유지운영중
5	세진	자회사의 수익구조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음 전년 대비하여 매출은 상승하였으며 산업단지 매각 유/무가 최대

		과제로 보아짐
6	엠에스	전기차 시장호조로인한 매출 상승(대략2조) 차입금(대여금) 이 높은 상황이며 영업이익은 상승 전체 매출의 테슬라비중이 60% 정도됨
7	우영산업	재무 상황은 나쁘지만 매출의 상승 제품 제조원가가 98%를 차지하여 이익이 전혀 나지않는 상황임(재료비하락,신규투자 긍정적)
8	현담산업	현금흐름은 양호하지만 자본의 투자가 전혀 없음 신규투자 및 신규아이템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9	현대아이에이치엘	전반적으로 재무,현금유동성 상황은 양호한편임 22년 매출의 하락 정도를 예의 주시해야함.
10	에코플라스틱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편임 연결재부 수년간 적자 자회사인 아이아 흑자전환함. 연결재무 전체 매출 상승/당기순이익 154억 발생 국내 1차 부품사의 순수익 3%는 안됨

(3) 2023년 경영분석 총괄평가

회사에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영분석이 진행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수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경영분석의 실효성에 대하여 사업장별 차이가 있으며 2023년에 경영분석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새로운 방향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3. 사업 평가

-지부 정책,법규,조통 담당자회의는 8월에 과업일정,11월 금속동시선거 진행으로 인한 회의 순연을 제외하고 9회 진행이 되었다. 정책담당자 수련회도 상,하반기에 걸쳐서 2차례 진행하였다. 정기적인 부서 회의를 통하여 사업장의 현안문제를 공유하였고 회의 종료 후 외부강사의 교육이 아닌 정책부 동지들이 직접 교육을 준비하여 4차례 토론 및 실습을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었고 지회별 정책업무의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다.

-23년 사업장 경영분석은 10개 사업장이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하였고 장석우 회계사(금속법률원),송덕용 회계사 동지가 진행하였으며 3개월에 걸쳐서 사업장별 순회하면서 조합원 교육,확대간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마무리 하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장석우 회계사 동지와 간담회를 통하여 일정 및 사업장별 특이 사항,요청사항을 의견수렴하여 진행하여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각선,소수 사업장인 청우지회,코레스지회,인지컨트롤스지회는 정책사업비의 예산으로 경영분석 비용을 지원 하였고 소수사업장으로 교섭권이 없는 인지컨트롤스,청우지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를 한 부분은 의미 있었고 조합원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조사통계 사업으로 2023년 임금체계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 하였고 조사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소수사업장,복수노조 사업장의 사측의 자료제출 거부등 여러 어려움이 확인이 되었지만 지부 차원의 도움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금속노조는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부,지회 담당자를 선정하여 단체협약 갱신안을 업데이트하여 비교,열람의 체계를 구축하고 1년차에 담당자가 갱신안을 업데이트를 하며 안정정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에는 아직 부족하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연동하여 경주지부는 사업장별 단,협을 취합하여 2022년 단체협약 모음집을 제작,발간하여 사업장 별로 배포하였다. 기존의 비교자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였고 단체협약 모음집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행 하였다.

- 금속법률원(경주분소) 고문계약 체결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생활법률 상담(전화,방문)을 진행하여 22년에 이어 23년에도 100여건 법률상담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고 조합활동관련 무료법률사건 10건의 계약으로 복수,소수,대각선사업장의 법률비용의 부담없이 법률투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경주지부의 조직력을 확인하였다. 상반기 금속 지역별(경주,포항) 하루 법률학교를 진행하였다.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정책부회의를 통하여 3개의 주제를 결정, 금속 경주 법률원에 제안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9. 여성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여성 간부역량 강화 사업집행
- (2)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전개
- (3) 지역 연대 확장 모색

2. 주요 사업

1) 지부여성위 회의 및 수련회

차수	날짜 (2023년)	장소	주요내용
10차	1월 27일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사업계획 검토 민주노총경북본부여성할당 대의원추천건
11차	2월 15일	지부 회의실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사업 점검 건
12차	3월 24일	금강지회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사업 평가 건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참가 건 경주지부 여성조합원 성폭력실태조사 기획안 검토건
13차	5월 18~19일	사천자연휴양림	하반기사업계획 논의 건 성별임금격차타파의 날 기자회견 참여 건 성폭력실태 조사 결과 중간집계 보고
14차	7월13일	디에스시 지회	[교육]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및 실습 2023년 여성간부수련회 기획안 검토
수련회	9월14일 ~15일	성호리조트	※여성간부 수련회 (세부내역 보고 참조)
15차	12월 12일	현대아이에이치엘	12기2년차 사업 평가

○ 참석현황

순	지회명	직책	성명	10차 1/27	11차 2/15	12차 3/24	13차 5/18~19	14차 7/13	15차 12/12
1	지부	수석부지부장	차상호	○	○	○	교섭		○
2		정책부장	최윤정	○	○	○	○	○	○
3	금강	후생복지부장	박홍민	○	○	○	○	○	○
4	다스지회	여성1부장	황점순	○	○	○	○	○	○
5		여성2부장	장경숙	○	○	○	○	○	○
6	세진지회	수석부지회장	박규환	○		간담회	○		○
7		여성부장	구미숙	○	○	○	○	○	○
8	아이티더블유경주	여성부장	서정민	○	○	○		○	○
9	인지컨트롤스	여성부장	김혜진	○		○	○	○	○
10		여성부장	유진희	○		○	○	○	○
11	현당산업	여성문제부장	오민정		○	○		○	
12	현대아이에이치엘	여성부장	이영주	○	○	○	○	○	○
13		복지부장	이주은	○	○	○	○	○	○
14	디에스시	조직2부장	강윤태	○	○	조직부 수련회	○	○	사퇴
합	지회수/참석자수			8개/ 14명	7개/ 11명	7개/ 12명	7개/ 12명	8개 /13명	6개 /13명

※ 참관 :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 부지회장

2)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사업 보고

(1) 빵(생존권), 꽃(존엄성) 나눔

- 지부 여성조합원 514명 + 지회 추가분 816명 = 총 1,330명 분 구입 및 배포

(2) 현수막 게시 - 5개지회 참여

(3)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8개지회 28명 참석

3) 금속노조 여성조합원 수련회 참가

- 일시 : 2023년 4월 27일~28일

- 장소 : 단양, 금속노조 연수원

- 참가 : 5개 지회 17명 참석

4) 경주지부 성폭력실태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한달간

- 조사 대상 : 전 조합원

- 응답 결과 : 4,429명 중 219명 4.96%, 여성 조합원 534명 중 16%

5) 제7차 성별임금격차타파 캠페인

- 일시 : 2023년 6월 2일, 14시~17시

- 장소 : 황리단길

- 참가 :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 2명, 지부 1명

6) 성별임금격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14일
- 장소 : 경주시청
- 참가 : 경주지부 10여명 참석

7) 2023 경주지부 여성간부 수련회

-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3시 ~15일(금)
- 장소 : 성호리조트
- 참석 : 8개지회 29명, 지부2명, 조합2명, 민주노총경주지부 1명 <총 34명>

(지회별 참가현황 : 금강1명, 다스3명, 세진2명, 아이티더블유경주5명, 우영1명, 인지컨트롤스2명, 현대산업8명, 현대아이에이치엘7명)

시간	내용
9월 14일(목) 1일차	
13:00 ~ 13:30	입소식 - 참가자 각자 소개
13:30 ~ 14:30	강의1> 여성노동권과 조직내 여성할당제 필요성 (권수정부위원장)
14:40 ~ 15:30	강의2> 자동차 산업 동향 (정유림기획국장)
15:40 ~ 18:10	강의3> 자기성찰과 리더쉽 (강란이 한의학박사, 반은기 국제평화활동가)
18:10 ~ 21:00	저녁식사 및 뒷풀이
9월 15일(금) 2일차	
08: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0:00	참가 소감 나누기 및 평가
10:00	해산

- 평가 : 첨부자료 참조

8) 2023 성평등어우러짐 축제

- 일시 : 2023년 10월 28일(토) 13시 ~16시
- 장소 : 황성공원
- 참석 : 금속경주지부 약 30여명 참석.

9) 교육지원

	일시	대상 지회	주요 내용	대상
1	1월 18일	KBI동국실업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조합원
2	4월 8일	대구지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지부 확대간부
3	4월18일	비투지 지회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4	4월20일	엠에스지회 천북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5	4월21일	코레스지회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6	4월25일	엠에스지회 천북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7	4월26일	청우지회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8	5월 1일	아진카인텍 지회	(의무교육) 2023년 정세와 투쟁	조합원
9	5월11일	다스 지회	내사랑 민주노조! 함께 지켜야 할 조직!	선봉대원
10	7월 3일	모비스물류지회	윤석열정부 노동정책과 대응방향	교섭위원 교육
11	7월27일	모비스물류지회	교섭속보 만들기	선전담당자
12	12월13일	현대지회	행복해지기위해 민주노조하는거죠	조합원
13	12월 27일	일진베어링지회	즐거로운 노동조합 생활 안내	신입조합원

3. 사업평가

- 2023년 경주시부 여성위는 정례회의를 통한 내용강화와 성평등실태조사사업, 지역연대사업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

- 여성위 회의는 매월 1회를 목표로 운영하였는데 상반기 노조여성조합원 수련회와 하반기 경주시부 여성간부수련회를 포함하여 8회 진행되었다. 임단투시기와 하반기 확산교육과 선거시기를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회의는 각 사업장의 보고와 노조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중심으로 공유하고자 했고 8개 사업장이 꾸준히 참석하여 멤버십을 형성했다.

- 3.8 여성의날 정신계승사업은 빵과 꽃 나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집행했다. 다행히 기념품보다 호응이 좋았고 그 의미도 나눌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윤석열정부의 젠더갈등이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상황이라 올해는 3.8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참가를 작년부터 조직해서 집행했다. 경주여성위 중심으로 28명을 조직해서 10여년만에 서울 대회에 참석한 것에 의미있었다는 평가다. 다만 서울집회 준비가 어수선하고 행진 시 페러이드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 아쉽었다.

- 5월 한달동안 경주시부 성폭력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취지는 성폭력 피해 확인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등 대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사건화 되지 않는 성폭력사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했다. 전체 대상 조합원 중 5%미만이 참가하였으나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것이 91건이 확인되었다(중복 답변 포함). 후속사업으로는 운영위 보고만 되었으나 2024년 지부내 성평등의무교육에 배치할 예정이다. 매년 6월 진행되는 성별격차임금타파 기자회견은 많은 지회가 참석하고 있다. 같은 주제로 황리단길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취지 전달이 잘되지 않았다.

- 9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부여성간부 수련회"를 진행했다. 다양하고 많은 내용을 채우다보니 일정이 매우 타이트했다는 평가이다. 교류와 친목을 위해 상반기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1년차 상반기에 배치가 가능할지는 전체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여성간부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연대 사업으로 10월 성평등어울림축제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되었다. 사회공헌기금이 확대되어 참여단체수를 2배로 늘릴수 있었고 다양한 부스를 준비해서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연대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하고자 기획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경주여노회와는 공동사업으로 접점이 있었고 다른 상담소와는 시간을 잡기가 어려웠다.

- 성평등강사 배출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4월부터 진행되는지라 지회 임단투와 겹친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로도 쉽지 않을 듯 하다. 여성조합원들 단합대회 역시 진행하지 못했다. 각 지회별로 여성부 주관 단합대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

<첨부자료> 주요사업 평가 및 성폭력실태조사 결과

1) 2023.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계승 사업 평가 건

- 올해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사업은 예년에 해 오던 기념품을 대신하여 경주시부 여성조합원(514명) 모두에게 “빵과 꽃 나눔”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소속 여성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급범위를 넓혔고 이에 따라 금속경주시부도 기금을 보냈다.
- 그동안은 작은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에 대해 호불호가 있었다. “빵과 꽃 나눔”은 민주노총경주시부의 예산으로 일부만 지급해 왔고 빵과 꽃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빵과 꽃 나눔” 의미를 카드에 명시하여 지부 여성조합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남성조합원과 청소·식당 등에서 일하시는 여성노동자에게도 나눔이 진행된 지회들이 있었다. 빵꽃 나눔의 의미와 준비한 비누꽃과 건강식 빵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내년에도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 현장에서는 현수막과 교육지 배포가 있었다. 교육지는 금속노조에서 작성한 내용과 더불어 경주시부의 내용을 한면에 배치하였다. 3.8 행사가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전국노동자대회로 확대되어 개최된 의미와 성폭력체크리스트를 넣었다.
- 매년 진행해 오던 지역 캠페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여성단체는 서울집회 3/4로, 민주노총은 3/8로 집중했다. 내년에는 지역내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 서울 집회는 행진 출발 시 대오 정비가 어수선하였다는 것과 ‘걷고 뛰고 넘는 퍼레이드’가 잘 이어지지 못해 행진하는 것 이상을 느낄 수 없었다는 평가이다. 전체 대오의 요구와 통일성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 경주시부는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버스 한 대 (28명이상)을 목표로 조직했다. 손피켓은 인지컨트롤스 지회 여성부장님과 지부가 준비했다. 깃발은 금강과 디에스시 지회 부장동지들이 담당했다. 민주노총, 금속 경주 양 지부장들이 간식을 준비해 주어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고 그동안 함께 여러사업을 해 온 여성동지들이 함께 해서 매우 즐거웠다는 평가이다. 10여년 만에 경주에서 서울 3.8집회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2) 경주시부 여성간부 수련회 평가 (응답 20명, 방식-구글링설문)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3시 ~15일(금)
장소 : 성호리조트

1. 강의 1 여성노동권과 조직내 여성할당제 필요성 (권수정부위원장) 교육
- 의미있는 교육이었다 (100%) - 관심없는 주제여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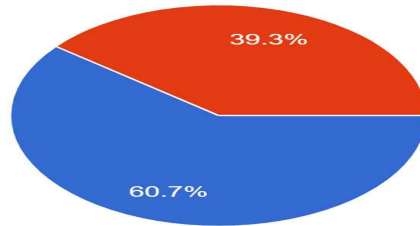
2. 강의 2 자동차 산업동향 (정유림기획국장) 평가
 - 자동차 동향을 알 수 있었다 (75%) - 내용이 어려웠다 (25%)
3. 참여형교육에 대한 평가 (2개 선택)
 - 몸을 움직이며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9명, 45%)
 -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았다 (13명, 65%)
 - 힘들어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6명, 30%)
 - 참여형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하자 (0%)
 - 참여형은 좋은거 같은데 힘들고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1명, 5%)
4. 장소에 대한 의견
 - 경주내에서 하는게 부담없어서 좋다 (75%)
 - 다음에는 좀 멀리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자 (20%)
 - 여성위끼리는 인원도 적고 힐링장소 찾는 건 좋은데 대의원들과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할꺼 같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다 (5%)
5. 음식에 대한 의견 (항상 많이 버려져서 이번에는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적절히 준비되었다 (85%)
 - 부족했다 (10%)
 - 밥이 맛이 없었다 (5%)
6. 수련회 전체 평가 (해당부분 모두 선택)
 - 작년보다 많은 여성간부가 참여해서 좋았다. (7명, 35%)
 - 프로그램이 알차다. (11명, 55%)
 - 여성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17명, 85%)
 - 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명, 15%)
 -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다. (3명, 15%)
 - 여성간부 수련회는 상반기에 하자 (2명, 10%)
7. 함께 나누고 싶은 말 (*중복 삭제)

항상 여성을위해 앞장서는간부님들 1박2일 프로그램 좋았구요 수고 많았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경주지부 여성위원회를 응원합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내 여성 조합원은 물론 여성 간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경주지부 여성동지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간부들 교육도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 조합원들도 교육이나 체험 혹은 강의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생각을 깨워주고 조합의 중요성도 알게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웃고 좋았다. 그리고 다음에는 잠 일찍 자는사람 방 1~2개 인원수 감안하고 항상 각자방은 안갈라고해서 어디에 가야할지 고민인거같다. 술마시고 늦게 자는사람들 방 따로 잡으면 좋겠다. 일찍자는사람 늦게 자는사람 부담스럽지 않을까같다. 항상느끼는거 지금의 최윤정정책부장님과 함께여서 더욱더 좋았고 단합된 여성부여서 더 좋구 그외 박홍민 부장님들 술선수범 하시는거 같아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단단하고 더 단합된 여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다들 건강하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참 즐거웠어요 / 건강하게 이 모습 오래 만나길 바라봅니다. /다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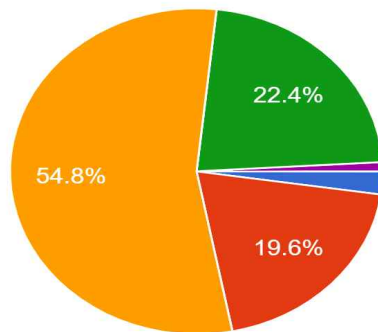
3) 경주지부 2023년 성폭력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한달간
- 조사 대상 : 전 조합원
- 응답 결과 : 4,429명 중 219명 4.96%, 여성 조합원 534명 중 16%

1. 조합원님의 성별을 알려주십시오
응답 21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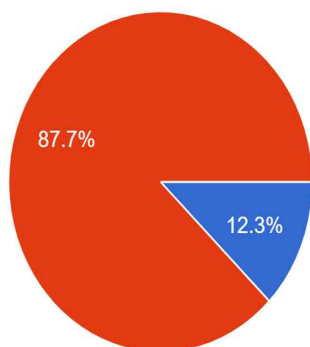


2. 조합원님의 만 나이대로 연령대를 알려주십시오.
응답 219개



여성 86명 39.3%
남성 133명 60.7%

3. 일터에서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 21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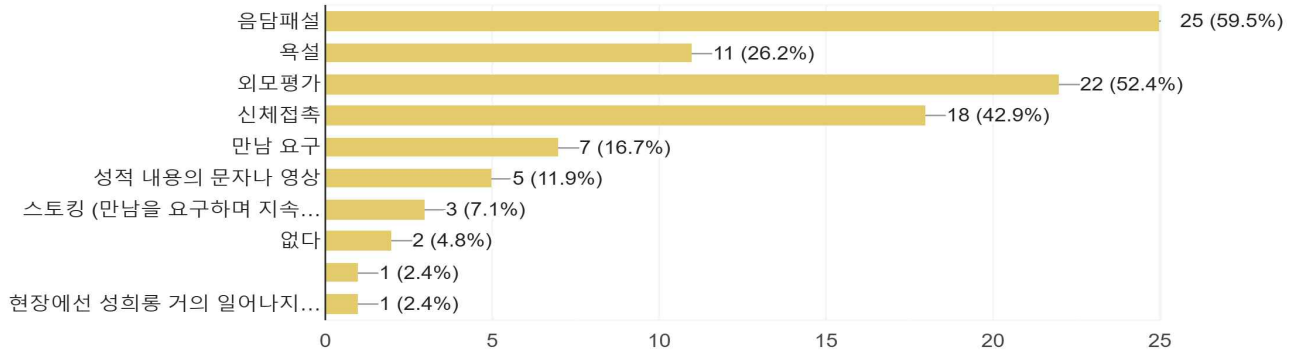
● 있다
● 없다
번 문

20대 5명 (2.3%)
30대 43명 (19.6%)
40대 120명 (54.8%)
50대 49명 (22.4%)
60대 1명 (0.9%)

있다 27명 (12.3%)
없다 192명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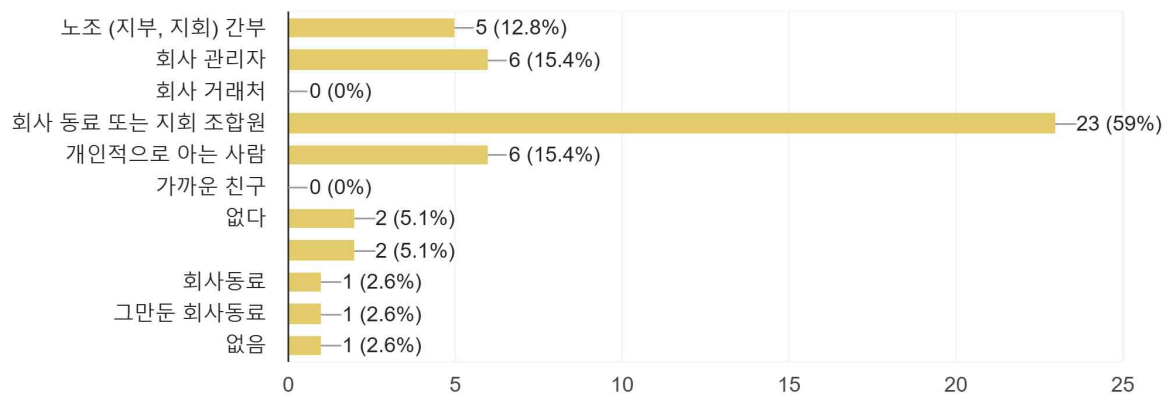
4.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내용은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추가하실 것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응답 4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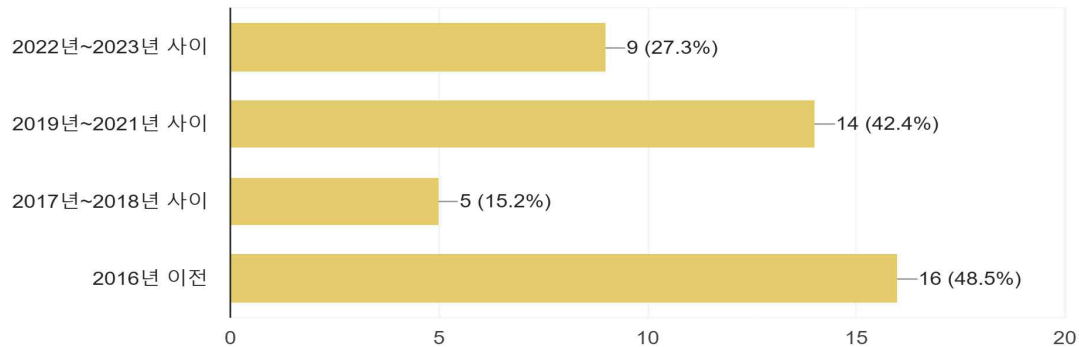
5. 위3번 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위치입니까? 2건 이상일때 대상자 모두 선택하세요. (기타란은 직접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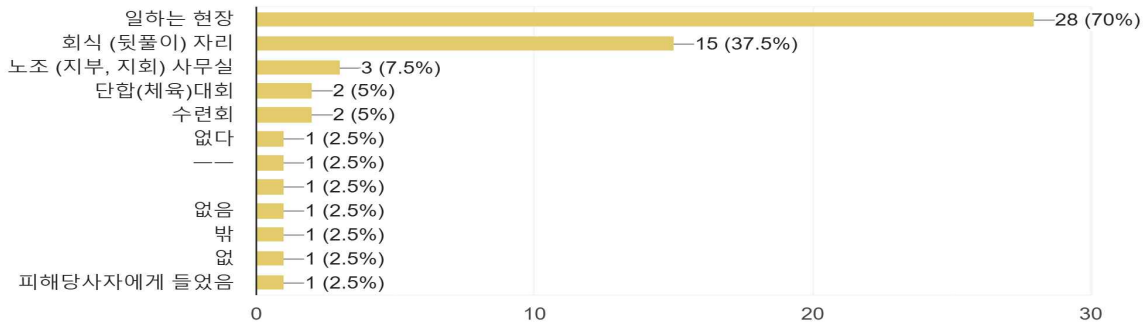
6. 성폭력(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회 이상인 경우 해당년도 체크)

응답 3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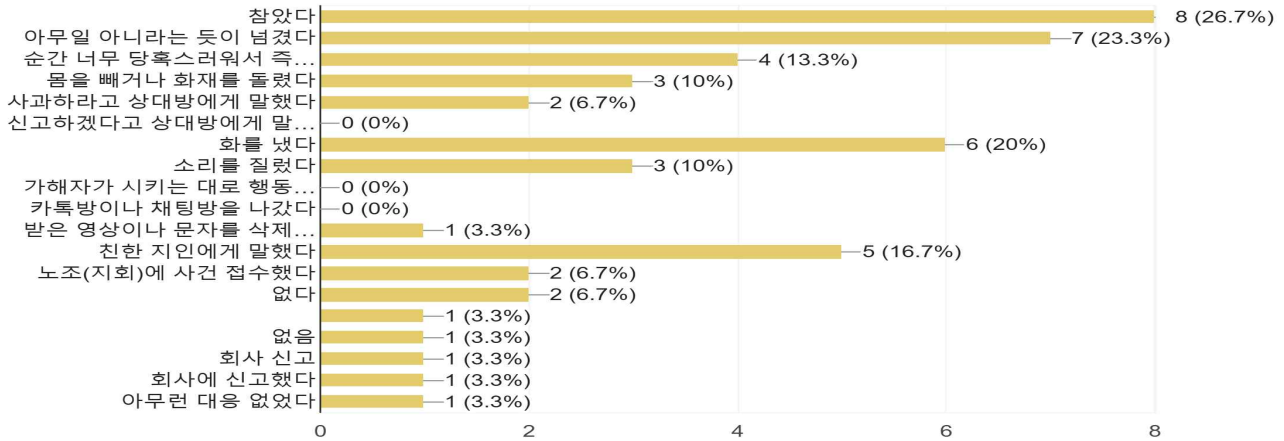
7.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장소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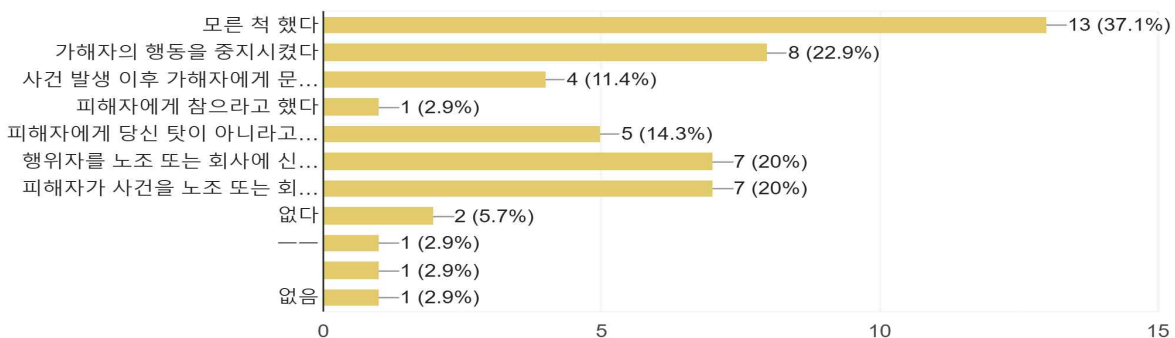
8. [피해자만 응답] 피해를 당했을 때 조합원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해당사항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응답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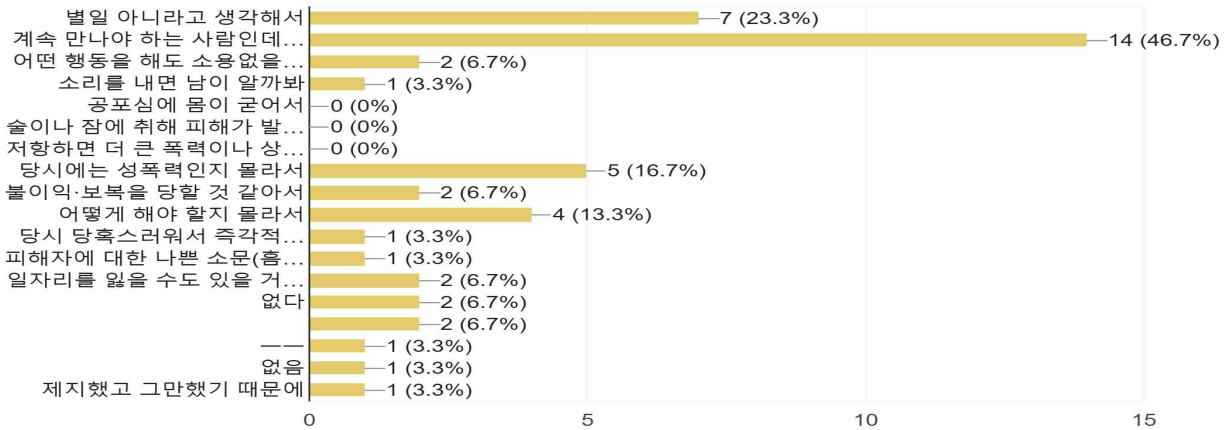
9. [목격자일 경우 응답] 피해를 목격했을 때 조합원님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해당되는 곳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3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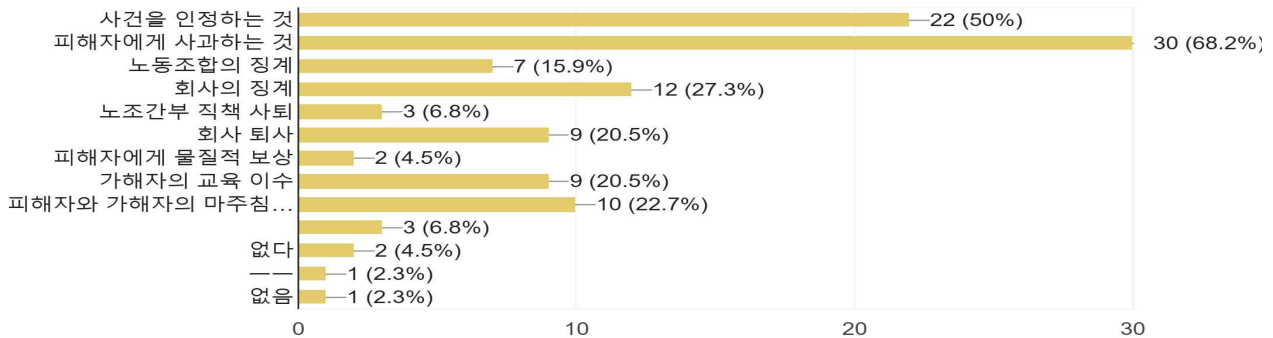
10.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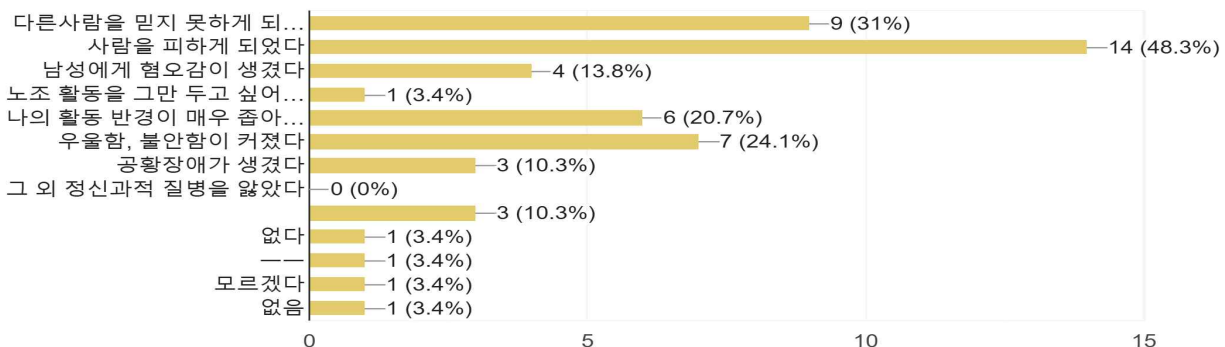
11.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사람으로서 가해자(행위자)에게 원하는 것 우선적인 사항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4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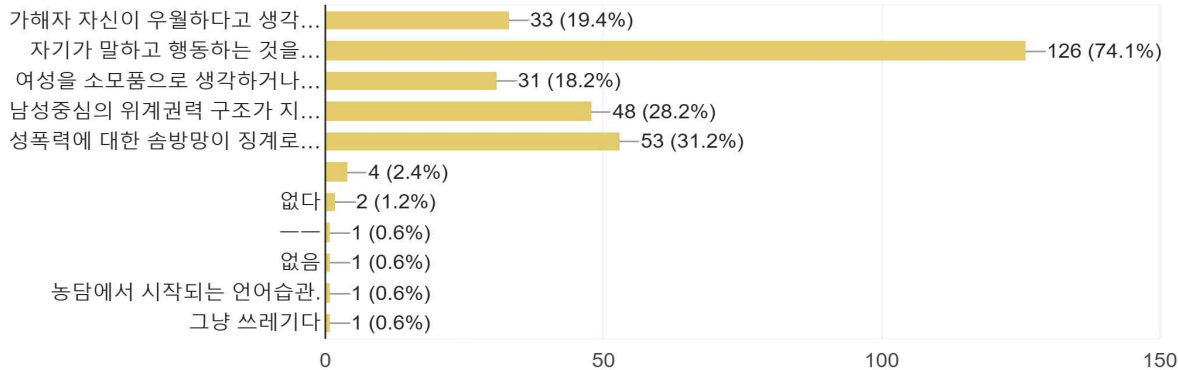
12.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후 변화가 있었다면 2가지 이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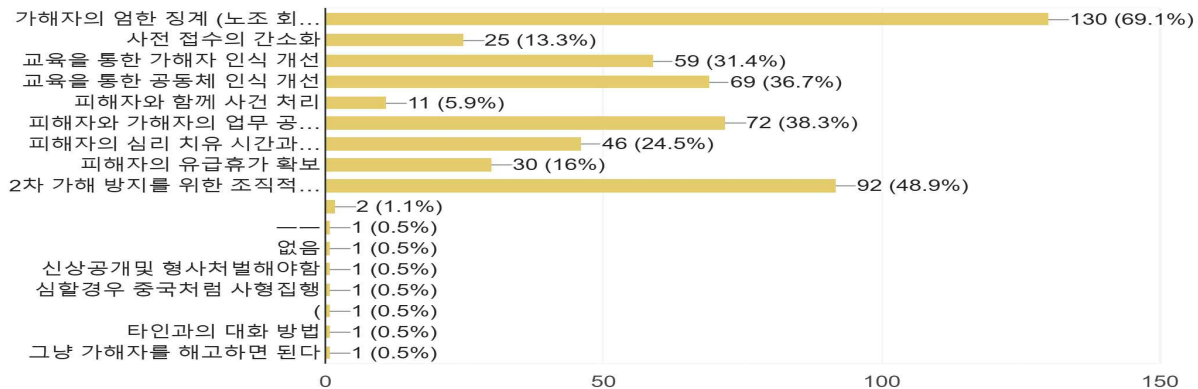
13.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가지 이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170개



14.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이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에 없는 것은 기타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응답 188개



15.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응답 33개 중 비슷하거나 중복, 격려의 글은 삭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검열합시다 /설문이 이상한데요 있다에서 다음 문항을 넘어가야 되는데 없다 했는데 설문이 진행되네요 무조건 성폭력은 있다라고 설문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남녀의 성인지 감수성 인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꾸준한 교육으로 남성과 여성이 사이좋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및 성희롱에관한 교육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현장 눈높이에 적합한 지부 자체적인 예방 교육 필요./지회 뿐아니라 사회 정책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회 지부 중앙 점차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다. 10번의 교육보다는 1번의 높은 징계가 인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취업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먹고 놀기에는 너무 빠른 거 같지 않소/ 여성인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강력하게 처벌 요구합니다./남을 비판하기전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봅시다 / 남성도 여성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됩니다.양성평등의 기본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단디 하세요 / 엄벌 / 고생많으십니다.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늘 성폭력 단절해 주세요 /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예방교육 실시.../ 남.녀 모두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이미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계속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5.18 민주항쟁 정신 계승 순례

1. 기간 : 2023년 5월 12일(금) ~ 13일(토) / 장소 : 광주 일대
2. 참가자 : 17개 지회 64명
3. 일정

날짜	시간	구체 일정	기타
5월 12일 (금)	08:30	동천체육관(0710), 애플모텔(0750) 항성공원(0830) 출발	
	12:00	점심 식사	개별 단위로 진행
	13:00~14:00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4:00~15:30	5.18 사적지 순례(전일빌딩)	
	15:30~16:30	5.18 사적지 순례 (옛 전남도청, 도청분수대, 금남로, 상무대)	5.18 해설사 정도용 010-3628-5930
	17:00	저녁 식사	단체식사 - 지부 예산
5월 13일 (토)	07:00~08:00	기상 및 아침 식사	개별 단위로 진행
	09:00	집결 - 이동	
	09:15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10:30	망월동 민족민주노동열사묘역 참배	(추모연대 김순) 010-9558-9284
	12:00분	점심 식사	단체식사 - 지부 예산
	13:00분	전남대학교 탐방	
	15:00분	43주년 5.18 민주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6:00	경주로 이동	

4. 평가

- 경주지부는 올해 5.18 광주항쟁 순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공안-노동탄압이 반민주의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80년 광주항쟁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 애초 버스 한 대 정도 예상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버스 2대로 확대하여 64명까지만 신청을 받았다. 이는 전체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인원을 제한했다.
- 순례일정과 5.18재단을 통한 해설사 섭외, 숙-식 장소 등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5.18항쟁 이해를 위해 영상과 자료집이 준비되었다.
- 참가자들은 가장 큰 의미로는 지식으로 알던 5.18 광주 민주항쟁을 보다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순례 장소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는 것과 광주시민들의 집회와 참배객들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과 마찰을 전해 들으면서 막연한 이질감이 해소되었다고 했다.
- 순례 장소 중 가장 큰 숙연함과 감동이 있던 곳은 국립 5.18묘지와 구묘역이었다고 했고, 당시 해설을 통해 광주항쟁 희생자만이 아니라 노동열사까지 설명을 듣고 참배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튿날 민

주노총 집회까지 참석하고 귀향하였는데 범국민대회까지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한 동지도 계셨다.

－ ‘버스타는 시간이 길었다’ ‘참배 일정 후 전남대를 거쳐 전노대회로 가는 일정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한 동지도 있었다. 순례는 버스 탑승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튿날 참배는 사전 시간 예약을 한달 전에 했음에도 09시15분 10분간만 가능했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15시 전노대 집회 전 전남대 일정을 배치했다. ‘1일차 해설사의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개별 자유시간이 있었다면 더 꼼꼼히 보고 싶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다시 진행된다면 버스 이동 시간을 활용하여 내용과 상황 공유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숙박은 2인 1실 운영은 좋았다는 평가이며 모텔이라 청결함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례 동선을 고려하여 가까운 숙박업체를 모색했는데 전체 인원 수용 가능한 모텔과 단체를 수용하겠다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었다. 식사는 호불호가 있었던 1일차 석식이었고 2일차 점심은 모두가 만족스러웠다. 총 4끼의 식사가 있었는데 2끼만 단체식으로 진행했는데 효율적이었다.

－ 지부에서 준비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단위, 지회단위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로 확대되면 의미있을 것이다. 이후 광주 외에도 더 많은 역사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듯하다.

－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일정이 많은 5월임에도 광주 민주항쟁을 되새겨 보기 위해 토요일 휴일에도 참가한 동지들이 있었기에 순례는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8. 하반기 확대간부 교육

1) 개요

2023년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 교육 내 삶을 바꾸는 투쟁! 함께하는 경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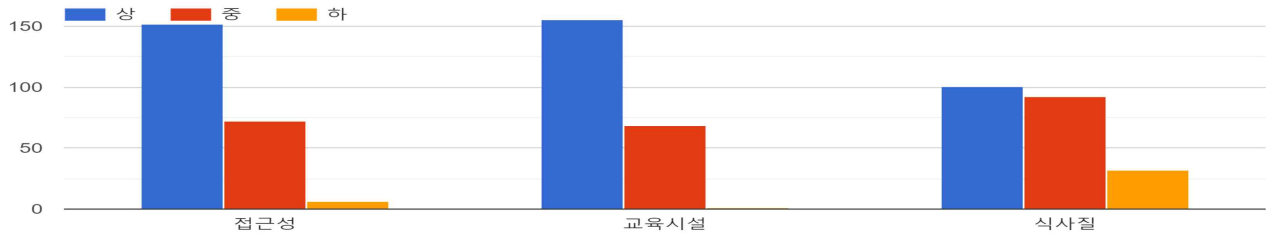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10월 10일 (화) 09시30분 ~ 15시20분
- 장소 : 더케이경주호텔 (거문고홀)
- 참가 : 21개 지회 351명

2)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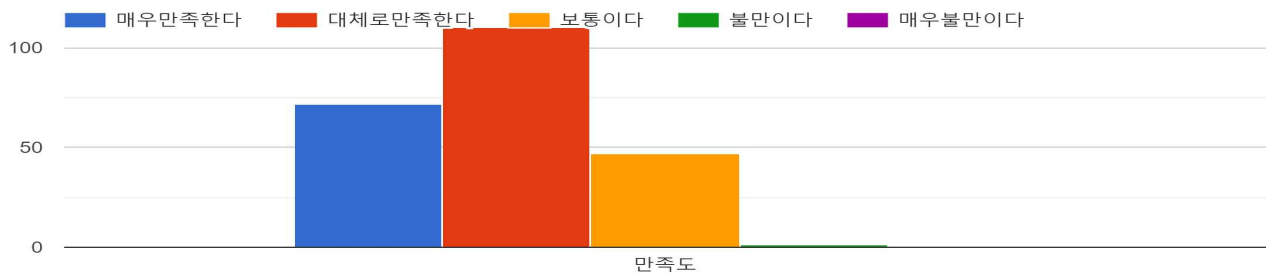
시간	내용	
08:30 ~ 09:30	행사장 준비 및 자리 정돈	
09:30 ~ 09:50	< 입소식 > - 민중의례 - 여는발언 : 정진홍 지부장 - 인사말 : 민주노총 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 - 활동 영상 (5분 내외) - 일정 안내 - 각 지회 참가 대오 인사 (지회별)	
09:50 ~ 10:00	휴식 (10분)	
10:00 ~ 11:30	[특강1] 교육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천창수 울산교육감) (90분)	
11:30 ~ 12:20	중식 (50분)	
12:20 ~ 13:00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40분)	
13:00 ~ 13:10	휴식 (15분)	
13:10 ~ 14:10	[특강2] 오염수방류 이대로 좋은가? -김익중 동국대 교수 (60분)	
14:10 ~ 14:20	휴식 (10분)	
14:20 ~ 15:10	세대별 교육 (50분)	20세~40세 이것이 궁금하다 (정진홍 지부장)
		40세~60세 (가제) 100세 시대 우리의 삶 (김병일 전 경북본부장)
15:10 ~ 15:20	휴식 (10분)	
15:20 ~ 15:30	<폐회식>	

3) 평가 (23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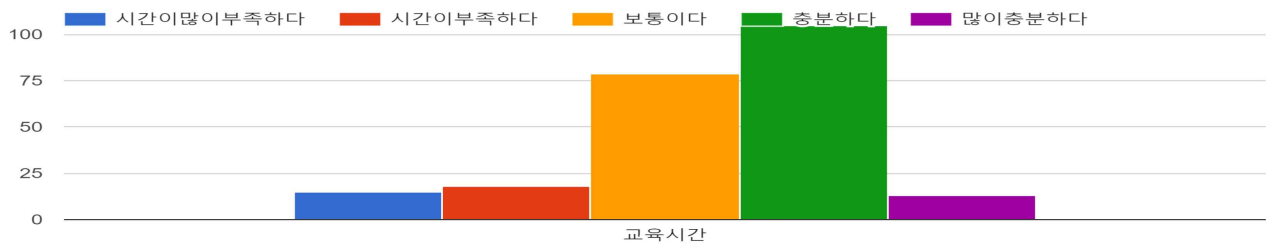
1. 장소에 대한 만족도입니다(√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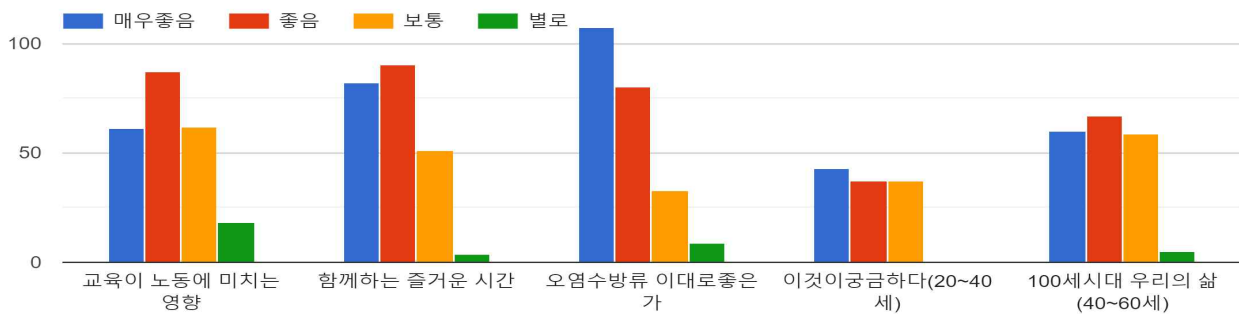
2. 전체 교육 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로 표시)



2-1. 전체 교육 일정에 대한 만족도입니다(√로 표시)



3.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입니다 3-1) 이번 교육에서 주제는 어땠는지 체크(√)해주세요



3-1-1) 각 주제에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유를 적어주세요) 교육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응답 68개)

없음, 좋아요, 투쟁 정신, 미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좋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 좋다, 자녀 다 큼, 교육이 변해야 노동의 질이 높아질 것 같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던 강의 더욱더 구체적인 교육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다 /교육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역사나 노동조합이 하는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강사님이 말을 잘못한다

교육과 노동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교육이었고, 비정규직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불쾌했다. 알아야 산다. 교육감의 주관을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노동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발음도 안좋고 교육내용도 없고 너무 준비하지 않고 강의를 했다 /교육계에서 직접 몸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음,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제는 좋았으나 명확한 해답은 제시가 되지 않은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교육하시는분 열정이 가슴깊이 다가옴(방사능교육),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음 /교육을 통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동을 통해서 완성 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혼자에게는 좀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강의가 좀 탁탁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정리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중이 안된다 /오염수 관련하여 좋았습니다, 주제의 모호성, 노동교육이 필요한데도 정부에서 등한시한다. 매우 아쉬운 정부의 정책이다, 교육과 노동은 조기 교육으로 나만의 성장이나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것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현교육감이 직접 오셔서 강의한다는 것이 좋았으나 오늘 주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보여 아쉬웠다

교육과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강의하시는 분이 주제 맞지 않은 교육을 하신거 같음. 자기소개하러 온거 같고, 교육감과 대화? 그리고 울산 교육감이다보니 질문하는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에게 질문이 물리는 상황이 나온거 같음. /뿌듯한 방향성에 대한 대책부족.

지루하다, 효율이 좋아진다, 많아야 한다, 아이가 있어서 도움이 됨, 전혀 메시지가 없었음, 주제에 비해 내용이 부실, 공부는 평생 배워야겠다, 지식은 많으나 전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았다

교육과 노동의 서로 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좀 되어 있어야 노동도 원활히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없네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핵심이 없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강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내용은 좋으나 약간 지루했다, 교육이랑 관계없는 조합원들도 있고 전문강사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부실한 듯 했다, 알찬교육, 교육의 따라 노동현실 체감

교육과 노동이 주제였지만 그것보다 학부모 상담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안한 입장에서는 교육과 노동에 대해서는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필요성 공감, 모르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야 노동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든다, 노동교육을 통해 노조의 질이 높아가면 좋겠다

자유롭게 소통하는게 좋았고 현안들과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강연이었다, 없다, 어려웠다

3-1-1) 각 주제에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즐거운 시 응답 54개

좋았다, 좋아요, 좋습니다, 식사후 잠이 날아갈 정도로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좋다, 재미없음

매우 즐거웠다, 최익선동지 불매~~,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좋았다,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별로,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즐거웠습니다, 없음,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교육 사이에 배치한 것이 좋았다, 노력한 모습이 보였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작은 좋으나 뒤로 갈수록 지루함(함께즐거요), 호호~최익선이 최익선 했네요, 최익성 국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매우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미비국장 동지 진행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함 /노력하신 미조직 간부님 멋지십니다, 좋았습니다, 줄리는 오후에 앞서 용기낸 최익선동지에게 박수보낸다 /유쾌한 진행에 잠시나마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비를 잘하셨음, 노동조합과의 접목이 획기적이어서 좋았음. 흥미롭지 않음, 함께 하면서 교육 배움이다, 재미있었음, 열정에 감동이었습니다, 좋음 /정신건강 등 기타 도움 더 붙여 사는 삶,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매우 좋음 /지부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대의원의 기본을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최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이 재밌었다, 가벼운 느낌의 레크레이션 같아서 흥미있었다, 무난히 재미없음, 따분한 교육만 하는 것보다 함께 유쾌한 시간을 보낸듯하여 좋았습니다, 집중이 잘 안됐다, 재미있었다, 퀴즈풀고 즐거웠다, 질문의 답이 궁금했는데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다, 신선한 소재로 흥미있었다

3-1-1)각 주제에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유를 적어주세요) 오염수방류 이대로 좋은가 (응답 64개)

좋아요, 아니요 반대, 정부 대응력 부족, 남일이 아닌 지금부터 함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막아야 한다 없다 없다 없다, 핵위협성을 보다 자세히 알수 있었음, 매우 좋은 정보를 알았다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셨다,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보니 유쾌한 강의였다 /더이상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멈춰야된다, 어렵다 /교수님의 강의내용도 좋았고, 적당한 유머가 섞여 있어서 좋았다, 그냥 그렇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서 좋았다, 유익했습니다, 오염수방류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너무 유익했다, 별로, 강사분의 강의가 재미있었습니다.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기준이 보였습니다

님 마음에 쏙쏙 들어왔다, 미래에 닥칠 위험성을 새삼 느꼈음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본의 만행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 오염수에 대한 몰랐던 사실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당연히 후손들을 위해 방류는 안되지요 늘 뉴스나 매체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반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강사의 스킬이 좋음, 국민에게 숨기는 이유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설명이 좋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학자.언론을 벌 쫓아한다, 교수님의 유머감각 귀에 쏙쏙윤석열과 쫓따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지루하면 어찌지 고민했는데 자기분야에 경험치가 싸아있어 그런지 거침없는 강사의 역량이 돋보여 좋았다, 방사능과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제와 아주 적합한 분이 강의해 주셨음/ 구체적인 설명이 좋았음., 교수가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절대 좋을 수 없다, 좋은 내용이다 많이 알려야 한다 핵 ☹️오염수, 재미있었음, 유쾌한 강의~~좋았습니다, 좋음

정말 심각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구 우리나라 정부 너무 무능력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주셨고 표현력이 상당히 인상에 남는 멋진 강의였어요 /오염수에 대해서 알수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강의가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너무 재미있어요,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강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관심있는 이슈를 다루었고 강의가 재밌었다 /타국이 방류하는걸 누가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면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본들 소모적 논쟁일 뿐이라 생각한다 개인 기호에 맞게 대비책을 강구하는 방법만 제시했으면 될일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좋았다 /현실적인 문제 설명이 좋았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좋았습니다, 좀 더 오염수에 관해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각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 /잘 모르던 부분을 자세히 알려줘서 넘 좋았다 교수님강의 인상적이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강연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부가 잘 해주길, 팬찮았다

3-1-1) 각 주제에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유를 적어주세요) 이것이 궁금하다(20~40세) (응답 23개)

좋아요, 좋아요, 만족합니다, 없음, 돈이없다, 좋았다, 공감할 내용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간부의 책임감을 한번더 느꼈습니다, 내용이없음, 진솔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음, 재미있었음 /젊은 간부들의 소통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강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제일 유익했다 평소에 사소하게 궁금하던 것들을 지부장님께서 재미있게 잘 얘기해 주셨다 /젊은 간부에 대한 고충해결, 공감대 형성과 재미있는 진행으로 좋았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들과 부족한 부분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천하여 바꾸어가면 더 좋을듯합니다. 처음이라 조금 생소하고 지부장의 질문에 대답은 못했지만 이런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좋았습니다

3-1-1)각 주제에 좋은 이유나 좋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유를 적어주세요) 100세시대 우리의 삶(40-60세) (응답 47개)

좋아요, 좋아요, 노후대책이 가장 걱정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없다, 유익한 얘기였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표현한 강의여서 좋았다, 돈 없으면 노후에 삶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후대책을 잘하자, 노후가 너무 부담된다, 그냥 귀농귀촌교육 받은 것 같다, 귀농에 관심이 없어서 별생각이 없다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되서 좋았다, 무슨내용 인가 싶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노후대비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직 생각 안해봐 모르겠다 /정년 퇴직 이후의 불안한 삶을 자연과 흙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대안과 자신감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의 방향에 대한 동기, 의미부여,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이 많았습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건강 챙기시며 미래를 준비 곧 내게 올일 $\pi-\pi$ 선진국 될려면 한참 멀었네요 퇴직하고도 일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 $\pi-\pi$, 중년의 모든 고민 주제에 시도함은 좋으나 농촌이나 도시에서 실질적인 돈벌이를 할 수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훨씬 알찬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노후대책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좋았음, 내용이 좋았다 /좋은 내용이다 100세 시대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과정 (농업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교육 있었으면 한다, 팬찮았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광고성 내용, 진짜 100세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정년 이후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퇴직금 건들면 안되겠구나 ~~~!!, 강의 넘 좋았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와닿았습니다, 퇴직후 새로운 일자리창출, 다시 한번더 내 삶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라 좋았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이 맞는 건지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간부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강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퇴직 후 삶을 미리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해당 사항 없음, 20~40 교육받아 잘 모르겠습니다./아직 갈 길이 멀다, 마지막으로 어수선했다, 지금부터 노후대비를 해야한다, 과연 안 아프고.100세까지, 잘 들었다

3-2) 이번교육에서 느낀점.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한가지 이상 써 주세요. (응답 58개)

없음, 좋아요, 없습니다, 긍정적, 교육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교육을 하면 집중은 할 것 같습니다 /알찬 교육 받고 갑니다, 없다, 없음, 2년차 교육이 1년차 때 미흡했던 점보다 더욱 알찬 시간이었다./더욱더 유익한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준비해주신 지부 집행위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은 각 주제에 따른 목적 개개인의 삶 모두 좋았습니다./오염수방류 강의는 강사님 때문에 재미있고 집중되었지만, 나머지 강의는 강사님들 자체가 그닥 흥미를 이끌지 못한 것 같다, 단양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짜임새 있게 진행된 것 같다, 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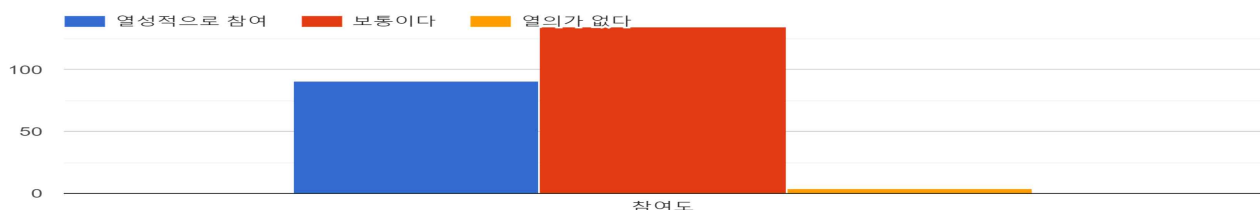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조금 산만해서 아쉬웠고 다룬 주제들은 좋았습니다/방사능교수님처럼 귀에 쪽쪽 들어오는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만족함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다과가 있어서 출출함을 달래 주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아쉬웠다/보완은 뒤에서는 참여가 힘들고 시간이 강행군이라 힘드네요, 교육내용은 전체적으로 참 좋았습니다./교육장이 커서 ppt 내용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근방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교육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뜨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강사선정의 중요성 강의식 교육이라면, 세계노동자 현황 임금 처우 노동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준비하신 모든 간부님들 넘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잘 푸시며 일 하십시오/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강의자를 섭외할때 주제와 맞는 강의자를 섭외해야 할 때 강의마다 시간이 짧아서 쫓기는 느낌?, 같이 함께 들어주고 호응하자, 밥의 양이 적었습니다 /세대별 강의에 40대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40대는 따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의 내용 모두 좋았습니다 다만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은 좋았습니다! 다만 식사가 너무 나빴습니다, 이대로만 해주셔도 만족입니다 /설문조사시간을 마치기 10분 전에 하면 좋겠다, /지회장들부터 교육 중에 게임 돌리고 주식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탈하는. 사람 많아요, 충분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대체로 만족했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힘써주세요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게 대학강의 하는 느낌이라 지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토론 및 참여 교육, 경주지부 천체 확대간부교육 장소의 공간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테이블식 논의보다 이런 교육방식이 좋았습니다, 간식거리/간부라 할지라도 처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번 했다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써 더 알아간다면 금속노조의 미래는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이 좀 부족, 세대로 나누어서 교육하지 않았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왔음 좋았다, 보안 내용 없음, 식사

3-3) 반드시 있어야 할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다면 하나 이상 써 주세요.

응답 45개



3-4) 나의 교육 참여도(√로 표시)



9. 경주지부 12기 2년차 사업 평가

1. 12기 2년차 사업목표와 기초

－ 12기 2년차 사업기초는 1. 지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부-지회 일체성 강화, 2. 상시적 현장 순회 강화로 지부 중심성 확보 및 현장소통 강화, 3. 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 강화로 지부 조직 확대 매진, 4. 2023년 집단교섭 투쟁 전선 강화 및 반노동정책 투쟁 전개, 5.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수립했다.

－ 기초에 따른 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은 6가지를 설정했다. ① 지부-지회 조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화위원회 집중 사업,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순회 상시화, 각 지회 실질적 지원 체계 가동, 임원 순회 교육 및 기획교육 등 교육사업 확대, 퇴직 예정 조합원 지원 모색 ② 2023년 지부집단교섭을 통한 생존권 확보 투쟁과 사업장 현안투쟁 지원, 대각선사업장 교섭 지부 결합, ③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선 투쟁 전선 확대와 이를 위한 선전선동활동 확대, 지역 내 투쟁사업장연대와 투쟁지침 복무 ④ 미조직·이주노동자 조직사업 확대를 위한 미조직위원회 강화, 공단 전력지역 선정 및 선전·홍보활동 강화, 신규지회 지원, 영천지역 조직화를 위한 체계 구축, 지역 노동자 휴게소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 추진, ⑤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을 위해 각 지회 대응 추이 및 고용상황변동 점검 및 노사공동위 운영, 지자체-정부 지원 정책 모색, ⑥ 지역연대사업을 위한 사회연대기금확장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 구축 및 사업강화를 계획했다.

－ 2년차 사업계획의 핵심은 지부와 지회간의 간격을 좁혀내는 일상활동을 통해 지부조직력의 밀도를 높이고 내용을 채워내는 것이었다. 지부사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방침속에서 집행력을 높여내는 것과 조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일상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2. 주요 사업 평가

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지부 활동 확대

－ 신규지회에 대한 일상적 지원과 중소·영세 사업장 및 복수노조 사업장 중심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이 진행 되었다. 지회별 맞춤형 조직배가 활동 및 조직강화를 위해 지부-지회별 릴레이 간담회를 1개월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부-지회 현장 사업에 대한 의견과 조직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금속노조의 조직배가 사업비 지원은 복수노조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다.

－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과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를 확산하기 위해 3회의 현장순회와 임원 순회 교육이 진행되었다. 기획교육사업으로는 5.18 민주항쟁 열사정신 계승을 위한 1박2일 광주순례와 10월 확대간부교육 [내 삶을 바꾸는 투쟁, 함께하는 경주지부] 주제하에 공통교육과 연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광주순례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확대간부교육은

다양한 시도가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23년은 경주지부 6차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통해 10년간의 조사사업이 가져온 현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제품의 남용을 줄이고 현업 부서의 제품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정착화되는 효과를 낳았으며 노·사 공동의 자율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불승인 및 강제 치료 종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면담 투쟁’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지침 위반,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 원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노동자들의 권리 확보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건강권 확대를 위한 지역협약(종합검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웹자보)를 진행하였다. 중소,소수 사업장의 경우 지부협약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는 성과도 있었다.

－ 퇴직예정 조합원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사전 홍보활동(지부 운영위, 웹자보)을 통해 인원을 모집하였으나 필수인원 부족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지역내 시민들도 직접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다. 참여한 20여명의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일반 시민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퇴직예정자프로그램이 취지에 맞지 않게 참가자 폭을 확대한 점과 인원수의 부족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병합하여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있었다.

나. 2023년 단체교섭 승리

－ 지부 집단교섭은 2023년 4월 13일 더케이호텔에서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주지부 2023년 집단교섭 요구안인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배상’(개정안),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개정안), ‘기업의 사회적 책무’(개정안), ‘협약의 유효기간’(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취임 인정’(신설안), ‘휴게실 설치’(신설안) 그리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교섭 의제로 진행되었다.

－ 6월 22일 에코플라스틱지회에서 진행된 9차 교섭에서 노측의 결렬선언으로 교섭이 한 달여간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7월 26일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에서 재개된 10차 교섭에서 노·사는 집단교섭 의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이후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금강지회와 명성공업지회의 임금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7일 진행된 23차 경주지부 집단교섭에서 에코플라스틱지회의 임금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끝으로 각 지회 임금교섭 또한 마무리하였다. 지부집단교섭의 요구안은 대부분 원안 합의되었고 일부 문구 수정되었다. 2023년 경주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8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고 10월26일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4월01일	4월13일	6월22일	7월1일	7월4일~6일	7월12일	10월13일	10월26일
요구안 발송	집단교섭 상견례	교섭결렬 선언	일괄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88.8% 가결)	금속노조 총파업 (4HR)	집단교섭 의견접근 (안)찬,반투 표(88.6%)	집단교섭 조인식

－ 2년차 지부 집단교섭은 휴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집단교섭 사업장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 지부 파업 전술은 사업장별 교섭 성실 촉구 기간을 시작으로 2-2-2-4-4 이후 전면파업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은 지역내 자동차부품.건설기계 사업장의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집단교섭 사업장의 공동파업전술은 유지하면서 각 사업장내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회의 교섭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전략적인 기간을 확보하고 2주차부터는 투쟁수위를 전면파업으로 높여 자본을 압박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선 교섭타결기간 확보와 후 전방위적인 압박, 투트랙 전략으로 주요 전술을 배치했다.

[지부파업 지침]

8/20(일) →	8/21(월) 주/야 2시간	8/22(화) 주/야 2시간	8/23(수) 주/야 2시간	8/24(목) 주/야 4시간	8/25(금) 주/야 4시간	8/26(토) 특근거부
8/27(일) 특근거부	8/28(월) 주/야 전면	8/29(화) 주/야 전면	8/30(수) 주/야 전면	8/31(목) 주/야 전면	9/01(금) 주/야 전면	9/02(토) 특근거부

※ 세진지회 8월18일 2HR파업 및 특근거부 조기돌입함.

－ 지부 20차 집단교섭중 사업장 임금 제시안 의견접근 과정에서 디에스지지회는 정회 중 파업전술을 철회하였고, 다스(아산)지회는 파업 전술을 하향했다. 집단교섭 타결방침 위반 사례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파업이 유지된 상황에서 교섭을 진행한 선타결 사업장. 교섭중인 사업장 등 조직적 차원의 혼란이 발생되었다.

－ 지부 운영위 회의에서 의견 접근 후 총회 개최 시점, 보충교섭(의견접근안) 승인 절차, 투쟁 방침 위반 사업장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해석의 차이 또는 간과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완할 지점을 확인하고 집단교섭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협약서 지부 제출과 공식 사과가 있었다. 12기 2년차 집단교섭 타결 과정에서 발생한 점은 13기 지부 집단교섭 투쟁방침안에 개선 방안을 명시하기로 했다. 13기 집단교섭 타결방침은 조직의 결정과 절차 과정을 준수하고 지부 집단교섭이 질적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의 타결을 위한 지부파업 지침에 복무하며 의견접근을 만들어 내었고 일부 사업장의 부결이 있었지만 전년의 비해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집단교섭 의제 수립은 운영위와 각 지회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하는데 늘 준비와 논의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지부-지회와의 상호 토론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사업장, 대각선 교섭사업장과 지부집단교섭 사업장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을 넓히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 지부집단교섭에서 임금성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지역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데 용이한 전술이라는 주장과 사업장의 지불능력의 차이가 있고, 임금구성체계가 상이함에도 경쟁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 경주지부의 투쟁력을 유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대각선교섭 사업장(청우, 발레오만도, 비투지, (다스)수경산업, 플라스틱옴니엄, 두양정공, 현우)은 지부의 담당임원과 상집간부를 배치하여 교섭을 관장하여 중앙 타결 방침을 적극 복무하며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청우지회는 소수노조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다수노조 지위를 확보하여 진행한 교섭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파업 일정을 복무하며 임,단협을 마무리하였다.
- 2023년 전국단위 사업장인 현대모비스물류(경주) 6개지회 공동교섭 대표는 경주지부가 맡았다. 현대모비스물류지회는 올해 초 자회사 전환이 쟁점이었다. 금속노조는 자회사 전환 반대 방침이었고 경주지부는 자회사 거부와 불법파견소송을 지속하는 단위와 자회사 전환 동의 단위를 모두 존중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물류경주지회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가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7개 지회 중 6개 지회가 공동교섭을 결정하고 이 교섭에 경주지부도 결합하여 지원했다.

다. 반노동정책에 따른 투쟁 전개

- 금속노조는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과 투쟁 방안을 의무교육으로 설정했다. 지부는 4월~5월 전조합원 의무교육의 주요 내용 정세와 더불어 반노동정책과 대응방안을 제출했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집중되었고 지부 역시 현장선전전과 지역집회 시 이를 쟁점화하고자 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방침에 따른 서울집중투쟁은 전국노동자대회 포함 10회 참석했고 9월, 11월 2회 서울 1박2일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그러나 하반기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개정되지 못했다. 회계공시는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따라 경주지부도 공시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정지시서를 남발하고 있다. 공시된 회계내용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빌미로한 정권의 공격은 2024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교육과 선전, 투쟁 조직화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투쟁사업장 지원은 한동대환경미화분회 임금협상 투쟁이 있었고 한국유틸리티하이테크 공장 정상화 요구투쟁과 먹튀 외투자본 한국와이퍼 청산 철회 투쟁을 함께 했다. 한국와이퍼는 2월 7일 경주 덴소물류창고에서 투쟁을 전개했고 지부도 함께 했다. 그 외에도 4월 집중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대구 출입국사무소 앞 항의투쟁을 2월~5월 진행했고 영천 장애인학대시설 폐쇄 투쟁과 11월 천우자애원의 징계해고에 맞선 해고자 지원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한국와이퍼투쟁은 합의되었고 한동대환경미화분회는 고용합의 약속이행을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라. 미조직 · 이주노동자 조직사업 확대

- 광명산업 신규지회 안정화를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확대간부회의와 월별 조합원 총회를 주관하였으며 교섭대표 노조 사업에 결합하여 작지만 강한 노조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지부-지회가 공동 사업을 진행했다. 소수노조이지만 지회 간부구성 및 현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 토대를 만들었다.

－ 다이셀 투쟁 종료 후 영천지역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 설치 등을 모색하였지만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등과 실질적 지역 거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문산공단 내 노동자 휴게소 및 작업복 세탁소 설치는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공동 요구안으로 경주시청에 제출되었고 담당자 논의를 통해 설치안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마.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산업전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실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실행되지 못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2022년 가동하는데 의의를 두었고 2023년에 구성인자를 변경하여 하반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단협 교섭이 9월 첫 주까지 진행되고 11월 금속노조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노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가동기로 한 바 있으나 운영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 올해는 노동개약이 쟁점화되어 산업전환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지 않았다. 12월 5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에서 경주외국투자기업동향분석과 노동조합 대응연구 발표가 있었다. 자본동향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축적,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주지부는 대부분 자동차부품업체로 구성되어있다. 미래차 전환으로 직접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 외 사업장 역시 매년 진행되는 경영분석 결과와 각종 위원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축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바.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전개

－ 2023년 사회공헌기금은 지부집단교섭에서 물가인상비를 고려하여 총액을 인상했다. 지난 10년동안 약 6억5천만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인권, 여성, 장애, 경주내 초중고 장학금 지급사업을 진행했다.

－ 노사공동위의 사회공헌기금으로 경주여성노동자회는 작년에 이어 10월에 성평등어울림축제를 개최했는데 예년에 비해 참여한 단체가 두배로 증가하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경주장애인단체협의회는 년 2회 장애인권 워크숍을 운영하고 장애인노동자 구술 인터뷰를 통해 장애노동자 실태 파악과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연말 발달장애인 8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열두개의 시선”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학금은 매년 200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은 민주노총경주지부를 중심으로 대중적 사업 배치와 지역내 각 사회단체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3. 성과와 과제

가. 성과

－ 2023년 12월 기준 경주지부는 29개 지회, 조합원 수는 4521명으로 지난해 보다 91명 증가했다. 2023년 4월 광명산업지회출범, 2023년 7월 발레오만도지회와 기업노조의 통합으로 110여 명이 증가했다. 20여명이 축소된 것은 정년퇴직과 자연감원의 결과로 보인다.

－ 현장순회를 통해 지부-지회조합원간의 간격을 좁혀내고자 하였다. 4월, 5월, 6월 상반기에 매월 지속되었는데 5월 총력결의대회, 7월 총파업 조직화를 진행되었다. 책임지는 집행을 위해 대각선교섭 사업장과 소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재정적지원과 임원들의 결합을 어느해보다 높이고자 노력했다. 금속노조의 최저교부금을 50인 미만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이다. 일상적 현장순회를 하되 지회에 부담을 주는 않는 방식으로 각 지회가 진행하는 출투와 현장순회 시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후로도 대각선·소수사업장에 대한 밀착 결합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

－ 발레오만도지회와 기업노조의 통합은 감개무량하다. 노조탄압 10년동안 조합원들에게 자행된 고통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나 기업노조 조합원 모두에게 힘겨웠다. 지난해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이어 조직통합을 이루어냈다. 노동강도 2배 증가와 더딘 임금인상, 시행되지 않는 주간연속2교대, 미래차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신규채용없는 지속적인 감원 등이 조직통합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무직들의 조직가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지부는 작년에 이어 하반기 확대간부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세대별 나눔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양화하고자 했다.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50여명 인원수를 한정하여 광주항쟁 순례를 진행했는데 올해 사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역사교육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만큼 후속 사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미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에 더욱 힘을 쏟았다. 각 사업장의 이주 조합원들과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고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아 통역사를 배치하여 「나의 지회 알기」를 배치했다. 9월에는 이주조합원 단합대회를 금속노조와 공동주최하였다. 이날은 대구, 부산양산, 경남 등 이주조합원들이 가족들과 많이 참여했다. 이주노동자가 250만명이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노동자대단결의 관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노조혐오에 맞서 민주노총은 노조법2,3조 개정요구로 맞대응투쟁을 전개했다. 금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과 7월 12일 총파업을 조직했다. 경주지부는 531 전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황성공원에서 개최했고 712 각 사업장별로 파업투쟁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이후 3년 만에 집결투쟁을 힘있게 진행했고 파업투쟁 역시 각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행되었다.

나. 과제

- 경주지부의 양적 확장에 따라 각종 기준들에 대한 재 조정이 필요하다. 대의원 배정 기준을 포함하여 각종 규칙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전 조직적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 지부집단교섭 운영과 의제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고 있다. 지부집단교섭은 하위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고 투쟁집중시기를 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부집단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이지만 협약의 결과는 경주지부 내 모든 사업장에게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진지하고 입체적으로 점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 올해 퇴직자는 1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에 대한 고민은 두가지이다. 정년퇴직 시점을 국민연금수혜시점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퇴직 후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년퇴직 시점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은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부 내 몇몇지회도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이를 명문화한 곳도 있다. 지부 집단교섭 의제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 후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올해는 도시농업을 소개했는데 이후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판단도 필요하다.
- 중소·소수노조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멈출 수 없다.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내용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조합활동의 제약이 있는 만큼 찾아가는 조직활동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조직의 집중과 지원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안건 4. 13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안)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건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경주지부 13기 1년차 사업 및 투쟁 계획

1. 경주지부 정세

1) 노동조합 활동 위축 시도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와 탄압이 유지되는 기조아래 노동부를 중심으로 각종 노사합의 부정 및 시정지시 남발이 예상되는 상황임.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 관련 수사를 묶는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사회고립과 조합 내부의 균열을 시도할 것임.

-노사합의 중심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2024년 단체협약을 통해 빌미가 제공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수정보완해 나가야 함.

2) 자동차 산업의 정체화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여 완성차 중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부품사들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속도가 낮으나 가동률의 향상으로 조합원 고용불안은 다소 약화된 상황이었음.

2024년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제외, 유럽의 탄소세 확대로 수출관련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성장세가 주춤하고 하이브리드 확대, 세계적 경기침체로 판매 축소등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움.

-경주지부 소속내에 내연기관의 주력 사업장인 발레오만도, 현담산업, 현우, 청우,인지컨트롤스, 플라스틱 옴니엄등은 투자확대보다 유지축소에 중점을 둘 것이고, 건설기계 중심 사업장인 엠에스 정밀과 명성공업은 회생절차 및 건설기계산업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그 외 지회들은 자본의 사세확장과 수익성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3) 경주지부 조직력

-경주지부는 29개지회 4450여 조합원으로 집단교섭 14개 3700명, 타지부 및 공동교섭 3개 340명, 대각선 교섭 6개 310명, 소수노조 6개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주지부내에 집단교섭 비율은 83%, 교섭권확보 15%, 소수노조로 교섭권 없는 비율은 2%임. 경주지부 집단교섭의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집단교섭의 합의내용이 중요한 투쟁이 될 수 밖에 없음

교섭권 확보로 투쟁이 담보 된 지회들은 타지부, 공동교섭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대각선

사업장은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 확장투쟁을 배치하여 경주지부 동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함. 교섭권 없는 소수노조 6개 사업장 100명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직확대로 이어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기본 교섭권을 확보한 98% 조직력으로 경주지부는 조합원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투쟁을 넘어 경주지역과 전체 사회를 위한 투쟁에도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 조직확대의 힘을 조직내부의 질적성장으로 이어지는 사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4) 미조직 사업의 전망

-경주지역 내에 규모가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금속노조로 조직된 상황임. 지회의 역사가 오랜 된 사업장일수록 정년퇴직하는 조합원들은 늘어나고 있고 신규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조직은 쇠퇴 할 수 밖에 없음

대안으로는 현재 조직된 지회의 조합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사무직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조합원을 확대 하는 것부터 중소기업장 그리고 인근지역인 영천등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함.

금속노조도 미조직 전략 조직실을 설치하여 조직확대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경주지부도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함.

2. 사업 기조

- 2024년 집단교섭 교섭력을 강화하고 집단교섭을 확대 적용한다.
- 노동개악 및 반노동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 전선을 확대한다.
- 조직배가 사업을 통한 다수노조 조직화사업을 강화한다.
- 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강화로 경주지부 조직확대에 매진한다.
- 2024년 총선에 따른 조합의 지침과 투쟁 결정에 적극 복무한다.

3. 사업목표

- 1) 노조-지부-지회 집행력 강화
- 2) 조직배가 사업을 통한 다수노조 전망 발전방안 마련
- 3) 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강화
- 4) 조합원 건강권 확보 사업강화 및 교육위 사업 확대
- 5) 2024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강화 및 지부 집단교섭 확대
- 6) 지역사회 연대사업을 통한 대중화 사업배치

4. 사업계획

1) 노조-지부-지회 집행력 강화

- 상시적 현장순회 및 임원 조합원 교육 확대
- 지회 현안 문제 발생 시 담당임원 및 상집배치
- 다양한 공동 사업배치로 조직 유대감 강화

2) 조직배가 사업을 통한 다수노조 전망 발전방안 마련

- 조직강화위원회 사업장별 조직화 사례 지부-지회 공동 사업 강화
- 소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미조직 조직화 주체 발굴 사업 진행 및 사업비 지속 지원
- 조직배가 사업 예산 확보 및 전략 사업장 선정 조직화 사업 강화
- 조직강화 위원회 발전 방안 토론회 등 내부 단결사업 배치

3) 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강화

- 노조-지부 미조직위원회 강화를 통한 지역내 미조직 조직화 사업 확대
- 문산·영천 공단 중심 미조직 조직화 사업 강화 (지부 접촉면 사업 확대)
- 지부 미조직위원회 활동 강화 사업으로 미조직,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확대
- 영천 등 인근지역 조직화를 위한 사업배치
- 지역 노동자 휴게소 및 작업복 세탁소 후속 사업 전개

4) 조합원 건강권 확보 사업강화 및 교육위 사업 확대

- 조합원 건강권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MOU 체결
- 분기별 노안 소식지 발행
- 일상점검 강화를 통해 사업장별 안전보건점검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

5) 2024년 단체교섭 투쟁 전선 강화 및 지부 집단교섭 확대

- 2024년 지부 집단교섭 중심투쟁으로 전선 강화
- 대각선 지회 집단교섭 효력 확대 투쟁 전개
- 사업장 보충교섭 요구안 지부 결합력 강화

6) 지역사회 연대사업을 통한 대중화 사업배치

- 사회공헌기금 전달 단체 발굴로 지역사회 영향력 확대
-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함께 시민 사회단체 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배치

5. 부서별 사업계획

5-1. 조직부 사업

1. 사업 목표

-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강화 및 조직력 복원

2. 사업계획

1) 지부/지회 소통 강화 및 조직력 위상강화

- 상시적 지회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반안 마련 및 지부 조직력 위상강화
- 현장순회 강화,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지부/지회간 유대감 강화
- 대각선 사업장 담당임원/상집간부를 배치하여 조직점검 및 소통체계 강화

2) 지부 조직(조직/쟁의/선봉/문체)담당자 역량강화

- 조직담당자 통합회의 정례화
- 조직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선동교육 실시 및 현장 활동 강화
- 지부/지회 조직담당자 유기적인 조직체계 확립

3) 복수노조/대각선 사업장 조직력 복원 및 조직력 강화

- 대각선/복수노조 사업장 월례회의 및 간담회 강화
- 복수노조 및 소수노조사업장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조직력 강화
- 지부차원의 조직배가사업비 지원 및 다양한 세부지원방안 등을 통한 조직 재건

3. 사업 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202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직담당자 (조직/쟁의/선봉/문체) 회의	계획	☐			☐	☐		☐		☐	☐		
	실천												
조직담당자 수련회	계획			☐								☐	
	실천												

5-2. 조직강화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대각선/소수 사업장 소통 및 대면 사업을 통해 조직력 강화
- 조직배가 사업 확대 및 지회별 공동 사업 사업 강화
- 조직강화위 중심 공동 사업 발굴 및 참여형 사업 배치

2. 사업계획

1) 대각선/소수 사업장 소통 및 대면 사업을 통해 조직력 강화

- 대각선 및 소수 사업장 간부회의 및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조직력 강화
- 지부 담당 임원 및 상집부서장 정기적 현장순회 체계 구축
- 분기별 임원 간담회 및 확대임원 수련회를 통한 조직확대 사업 강화.

2) 조직배가 사업 확대 및 지회별 공동 사업 강화

- 중.장기적 조직확대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 확대 강화
- 소수노조/복수노조 사업장 소속감 강화를 위한 교육위 병행 사업 배치
- 지회별 심화 간담회를 통한 조직 진단 사업 및 조직화 방안 마련

3) 조직강화위 중심 공동 사업 발굴 및 참여형 사업 배치

- 조직강화위 회의 정례화 및 지회별 조직화 사업 의제 발굴 사업 강화
- 복수/소수/단일 사업장별 공동 실천의 날 배치등 공동 사업 실시
- 지회별 연대 사업 강화 및 조강위 사업장 공동 단결력 고취사업 배치
- 지부 소식지(조강위) 지회별 소식지 발행을 통한 사업장 소통 강화

3. 사업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조강위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		☐
		실천						☐					☐	
2	지회별 분기별 간담회	계획			☐			☐			☐		☐	
		실천											☐	
3	조직점검 및 확대사업	계획		☐		☐		☐			☐		☐	☐
		실천												
4	공동실천 사업 (선전전 및 대면사업)	계획			☐		☐		☐		☐		☐	
		실천												

5-3. 미조직위원회 사업

1. 사업목표

- 1) 미조직.이주노동자 가입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 가입률 확대. 강화
- 2) 노조 미조직위-지부 미조직위 활동 강화 및 교육 사업 강화
- 3) 노조-지부 이주조합원 권익향상 사업 및 지회별 활동 지원 사업 배치

2. 사업계획

- 1) 지역내 미조직.이주노동자 가입 사업 확대 및 조직률 강화
 - 지회내 직.간접고용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 방안 사업 마련.
 - 지역별 공단조직화 (문산공단, 영천도남공단) 미조직 조직화 사업 확대.
 - 미조직 조직화 홍보 사업 다양화를 통한 노조가입 및 이미지 재고 사업 강화
 - 신규지회 집행 안정화를 위한 담당임원.상집부서장 상시적 결합 체계 마련.
- 2) 노조-지부 미조직위원회 사업 및 본부 미.비특위사업 결합을 통한 교육 사업 강화
 - 지부 미조직 사업이 일상사업으로 진행될수 있는 지부-지회 공동 사업 확대.
 - 분기별 본부 미.비특위 회의 결합으로 총연맹 미조직.비정규 사업 역량 강화.
 - 조직적 미조직 조직화 상담 사례 공유 및 교육을 통한 미조직위원회 역량 사업을 확대.
- 3) 조합-지부-지회 공동사업을 통한 이주조합원 사업 강화 방안 마련
 - 지회별 상.하반기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금속노조 강화 사업 및 지부-지회 소통 사업 강화.
 - 이주조합원의날 중.장기 사업 확정으로 지회내 이주조합원 조직 강화 사업 배치.
 - 민주노총 경주지부(이주센터)와 연계한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을 통한 조직화 사업 강화.

3. 사업추진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월	20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미조직 선전전 사업 (현수막게첨등 홍보)	계획	☐	☐	☐	☐	☐	☐	☐	☐	☐	☐	☐	☐
		실천												
2	미조직위원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			☐
		실천						☐					☐	
3	상담 및 조직화 간담회	계획	☐	☐	☐	☐	☐	☐	☐	☐	☐	☐	☐	☐
		실천												
4	이주노동자사업 (간담회.이주조합원의 날등)	계획			☐		☐		☐		☐		☐	
		실천												

5	신규 조합원 간담회	계획	☐	☐	☐	☐	☐	☐	☐	☐	☐	☐	☐	☐
		실천												

5-4. 교육위원회 사업

1. 사업 목표

- 1) 현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의 통일성을 높임
- 2) 조합원 및 간부교육의 다양화와 내실있는 추진
- 3) 신규, 중소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계획

1)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사업 통일성

(1) 교육역량강화

- 교육 관련 교육 및 수련회 참여
- 교육위원회 매월 역량강화 교육 실시

(2) 교육사업 통일성

- 일반교육 교류 및 의무교육실시 집중성 강화
- 교육 담당자-교육위원의 교육사업 역할 분담

2) 조합원 및 간부교육 다양화

(1) 조합원 교육

- 조합 및 지부 의무교육 지부임원 포함 강사단 운영 및 세대별 교육
- 신규/중소/조강위/복수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배치

(2) 간부 교육

- 신임간부 교육을 매년 초에 실시
- 지부교섭위원 의무교육 집단 교섭기간 진행
- 조합/지부 확대간부 참여형 교육 및 교육방식 다양화 추진
-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1회 이상 진행
- 당선인교육 및 기획교육 실시

3) 신규·중소지회 사업장 교육사업 지원

- 신규·중소지회 사업장 교육지원
- 신규, 중소, 복수사업장별 교육사업 추진

3. 사업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월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교육위원회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		☐	☐		☐	
		실천												
2	조합원, 지부 의무교육준비 강사단훈련	계획	☐		☐	☐	☐	☐		☐	☐		☐	
		실천												
3	조합원 교육	계획	☐	☐	☐	☐	☐	☐	☐	☐	☐	☐	☐	☐
		실천												
4	교육역량강화 및 훈련	계획	☐	☐	☐	☐	☐	☐	☐	☐	☐	☐	☐	☐
		실천												
5	간부의무교육	계획				☐	☐	☐	☐	☐	☐	☐		
		실천												
6	교섭위원교육	계획				☐	☐	☐	☐					
		실천												
7	신임간부교육	계획		☐										
		실천												
8	노조간부 기본과정	계획			☐	☐	☐	☐	☐	☐	☐	☐		
		실천												

5-5. 선전부 사업

1. 사업목표

- 1)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부 사업과 활동 신속히 공유
- 2) 지회 선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
- 3) 지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강화로 지부와의 일체성 강화

2. 사업계획

- 1) 소통의 매개체로서 지부 사업과 활동 신속히 공유
 - 정례적 지부 소식지 발행
 - 지부 집단교섭 속보 당일 발행
 - 필요 시 대자보 등 매체 활용
 - 지부 홈페이지 관리

2) 지회 선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배치

-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개최하는 선전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 글쓰기, 사진, 영상, SNS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

3) 지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 강화로 지부와의 일체성 강화

- 선전부 정례 회의를 통해 지회 활동 공유
- 지회 소식지 등 상호 공유를 통해 일상활동 확대 방안 모색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		☐		☐	☐	
		실행												
2	지부 소식지	계획	☐	☐	☐	☐	☐	☐	☐	☐	☐	☐	☐	☐
		실행												
3	지부 교섭/투쟁 속보	계획				☐	☐	☐	☐	☐	☐	☐		
		실행												

5-6. 총무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안정적 총무 사업 추진
- 2) 지부-지회 총무·회계업무의 통일된 기준 마련
- 3) 지회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2. 사업계획

1) 지회별 업무지원으로 안정적 총무 사업 추진

- 조합, 지부 의결 사안에 대한 집행강화 모색
- 사무장단회의 정례화를 통한 회계업무 안정화

2) 지부-지회 총무·회계업무의 통일된 기준 마련

- 지회 간 소통 강화로 지회별 총무 기준 통일성 강화
- 총무·회계 매뉴얼, 감사기준, 단협DB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확보

3) 지회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 상시적 총무회계, 교육 배치
- 신규사업장 총무회계업무 안정화 추진

3. 사업 추진 일정

사업내용	년	202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부,지회 회계 운영 효율성 강화	계획	☐	☐	☐	☐	☐	☐	☐	☐	☐	☐	☐	☐
	실천												
지회 업무지원	계획	☐	☐	☐	☐	☐	☐	☐	☐	☐	☐	☐	☐
	실천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회의	계획	☐		☐		☐	☐	☐			☐		
	실천												
사무장 및 총무 담당자 수련회	계획				☐							☐	
	실천												

5-7. 노동안전부 사업

1. 사업목표

- 1)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재해예방 활동강화
- 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3) 중대재해 예방 및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4)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사업 강화

2. 사업계획

- 1) 노동자 건강권 확보 및 재해예방 활동강화
 - 주 1회 사업장별 안전보건점검 체계 구축
 - 산보위 미구성, 비활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법적 대응활동 지원
 - 사업장별 노동안전보건사업 체계 및 진행상황 점검
 - 조합원 건강권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MOU 체결
 - 분기별 노안 소식지 발행
 - 경주지부 발암물질 7차 조사사업 진행
 -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시민 선전전 등 투쟁활동 집중

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 노안간부 역량강화 교육 배치

시 기	교육내용	비고
1월 ~ 2월	노안 신입간부교육	2박3일
2월 ~ 3월	위험성평가 집체교육	
3월 ~ 4월	산업재해 대응교육 (고발장 작성법)	
4월	근골격계질환 산재경위서 작성교육	
4월 ~ 9월	금속노조 노안 활동가 양성학교 집체교육	1박2일 6회
10월 ~ 11월	금속노조 노안활동가대회	
11월	25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비 집체교육	

3) 중대재해 예방 및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시 금속노조 중대재해 대응지침에 따른 전 조직적 대응과 예방대책 마련
- 산재 노동자들 실태 파악 및 산재 처리지원, 불승인시 대응체계 구축
- 제도개선, 노동자 건강권 노안 투쟁 적극복무
- 지부,지회 산재 초기대응 매뉴얼 체계 구축 및 예방프로그램 강화

4)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사업 강화

- 2023년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개선조치 사항 모음집 체계 구축
- 2024년 위험성평가 주도적 참여 및 위험요소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 지원 (노안 담당자 회의에서 지회별 추진현황 점검)

3.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년	2024년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노안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계획	☐		☐	☐		☐	☐		☐	☐	☐	
		실천												
2	건강권 확보 및 재해예방활동	계획	☐	☐	☐	☐	☐	☐	☐	☐	☐	☐	☐	☐
		실천												
3	역량강화 교육	계획	☐	☐	☐	☐	☐	☐	☐	☐	☐	☐	☐	
		실천												
4	산재 실태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계획	☐	☐	☐	☐	☐	☐	☐	☐	☐	☐	☐	☐
		실천												

5-8. 정책 · 조사통계 · 법규부 사업

1. 사업 목표

- 1) 지부 정책, 조통, 법규 담당자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역량 강화
- 2) 지부·지회 임·단협 지원 및 지부 집단교섭 중장기 의제 마련
-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강화

2. 사업계획

1) 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서활동 강화

- 정기적 회의를 통해 조합 사업 및 정책업무에 적극 복무한다.
- 노동정세, 법규, 조사통계 관련된 교육을 배치하여 역량을 강화

2) 지부·지회 임단협 요구 및 대응 지원 방안 마련

-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마련 및 후속 지원사업
- 지회 단체교섭 갱신 요구안 검토 및 지원
- 24년 경주지부 단체협약(지회별) 모음집을 제작하여 사업장별 기초자료 활용
- 사업장 경영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3) 주요 쟁점에 대한 지부, 지역 내 여론화 내용 및 사업 마련

- 노동개악 저지 및 노동법 개정 요구 확산 방안 마련
- 금속노조-민주노총 대국민 여론화 사업에 적극 복무
-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대응 논의 및 지자체와 방안 마련 및 요구

4) 법규사업 강화를 통해 일상적 대응력 확보

- 금속노조 (경주) 법률원과 집단 고문 계약 체결을 통해 일상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 조합원 상시적 생활법률 상담 지원 (경주법률원) 강화
- 금속 법률학교 적극적인 참가 및 지부 차원의 법률 역량 강화
- 노동법 개정 및 개악 시 내용을 분석하여 조합-지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3. 사업추진 일정

사업내용	202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의·수련회	계획	☐	☐	☐	☐	☐	☐	☐	☐	☐	☐	☐	
	실천												
임단협 지원	계획			☐	☐	☐	☐	☐	☐	☐			
	실천												
법률대응	계획	☐	☐	☐	☐	☐	☐	☐	☐	☐	☐	☐	☐

	실천												

5-9. 여성위원회

1. 사업목표

- 1) 여성위원회 내실있는 운영과 여성간부 역량 강화
- 2) 성평등·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3) 지역 여성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강화

2. 사업계획

- 1) 여성위원회 내실있는 운영과 여성간부 역량 강화
 - － 정례회의 내용 강화 및 사업 논의 활성화
 - － 여성간부 수련회 개최
- 2) 성평등·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 성평등 교육 확대
 - － 여성조합원 단결의 시간 마련
 - － 여성과 일 가정 양립 교섭 의제 발굴
- 3) 지역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강화
 - － 지역 여성단체 사업 지원
 - － 타산별 연맹 여성 활동 사례 공유

3. 사업추진 일정

구분	사업내용	202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위원회 운영 (회의, 수련회)	계획		☐	☐		☐	☐		☐	☐	☐		☐
		실천												
2	여성 간부 역량 강화	계획				☐		☐			☐			
		실천												
3	성평등 조직 문화 형성	계획	☐		☐		☐		☐		☐		☐	
		실천												
4	지역 연대 사업	계획				☐		☐				☐		
		실천												

6. 교섭 및 투쟁방침

1) 교섭방침

가. 중앙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한다.

나. 집단교섭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중앙에서 지부로 위임 시에 집단교섭에서 진행하며, 집단교섭미참가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대각선교섭에서 한다.

다. 사업장교섭은 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하되 조합과 지부의 교섭방침에 따른다.

라. 중앙 및 지부의 통일(공동)요구안과 지부 집단협약이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협에 반영하여 요구한다.

마. 사업장 중 요청이 있는 사업장은 요구안 준비단계부터 조인식까지 지부가 주관한다.

2) 교섭군 편성 방안

구분	해당 사업장	비고
집단교섭	금강지회 다스지회(아산지회) 디에스시지회(광주지회) 명성공업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아산지회) 세진지회 에코플라스틱지회 엠에스지회 엠에스정밀지회 우영산업지회(광주, 천안지회) 일진베어링지회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요청사업장
대각선교섭	플라스틱옴니엄지회	지부장
	두양정공지회, 비투지회	수석부지부장
	현우지회	사무국장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이중희 부지부장
	청우지회, 다스지회 간비교섭	우정식 부지부장
별도교섭	KBI동국실업지회 (아산지회와 울산 한노총)	충남지부 주관
	현담산업지회 (아산지회)	충남지부 주관
	현대엠시트지회 (아산지회)	충남지부 주관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공동교섭진행)	대구지부 주관 (예정)

3) 교섭원칙

- ① 중앙교섭은 매주 화요일, 지부 집단교섭은 매주 목요일, 사업장 보충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
- ② 지부 집단교섭은 사업장을 순회(가-나-다순, 오후 2시)하면서 진행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별 개최가 불가할 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지부 집단교섭은 1일 1회, 정회는 노사 각 3회 이내, 시간은 08:00~17:00까지 진행한다.
- ④ 사용자 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사유서 제출) 위임은 임원까지로 한다. (단, 상견례 및 조인식은 대표이사가 필히 참석한다.)
- ⑤ 지부 집단교섭 사회 진행과 교섭결과 작성은 회차별 노사가 교대로 진행하며,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간사가 확인 및 서명한다.

4) 교섭위원회 구성과 운영

- ① 중앙 및 지부의 임원과 부서장(실장) 그리고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섭위원 명단을 지부대의원 대회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교섭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부 쟁대위(운영위)로 위임한다.
- ② 지부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매주 집단교섭 장소로 집결하여 현장순회 등 공동투쟁을 실천한다.
- ③ 교섭위원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교육이수 등의 지침에 반드시 복무한다.
- ④ 교섭위원 및 조합원 실천의 날을 정하여, 조합과 지부의 투쟁 방침에 따라 투쟁을 배치한다.
- ⑤ 교섭 시작 전 사전회의를 통해 교섭전략, 전술을 공유하고 교섭 종료 후에는 전체 교섭위원들이 교섭상황을 공유, 향후 교섭전략을 수립한다.
- ⑥ 매주 1회 이상 지회별로 교섭 보고대회 또는 선전전 등을 진행하여, 중앙교섭·집단교섭·지회 교섭 상황을 공유한다.

5)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중앙의 방침에 따라 지부 운영위를 지부 쟁대위(투쟁본부) 체계로 전환 및 해소한다.

6) 투쟁전술

- ① 세부 투쟁 전술은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②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공동투쟁에 철저히 복무한다.
 - 가. 지부 상황실을 통하여 지부 쟁대위 결정사항에 대한 사업장별 집행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결과를 취합하여 차기 쟁대위(운영위)에 보고한다.
 - 나.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지부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다. 중앙 및 지부 투쟁방침에 따라 매주 실천의 날을 진행한다.
 - 라. 공동투쟁의 조직독려를 위해 지부는 지회 쟁대위(확대간부회의) 시 적극 결합한다.
 - 마. 공동투쟁이 실천되지 않으면 지부 확대간부를 해당사업장으로 동원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
 - 바.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 파업전술은 사업장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까지 유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운영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사. 지부 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 시에는 파업전술을 유보하고, 전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익일 시업 시부터 지부 파업전술을 수행하면 지부 집단교섭에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총회 부결 시 투쟁전술 ②의 (사)에 따라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외 내용의 요구를 통한 교섭 및 의견접근 사항은 사전에 지부 쟁대위 승인 후 진행한다.
 - 자. 교섭원칙 ④에 의거 사업장 대표이사가 상견례와 해당 사업장 집단교섭 두 번 이상 불참 시 해당 사업장은 2시간의 추가 파업을 진행한다.

7) 투쟁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

- 역할 :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진행상황과 쟁대위(운영위) 결정사항 집행점검
- 담당 : 사무국장, 총무부, 정책부

② 조직관리 및 쟁의대책팀

- 역할 : 사업장별 조직력 및 투쟁 점검, 교섭위원단(파업실천단) 운영과 투쟁전략 기획
- 담당 : 부지부장, 조직부, 미조직부, 노안부

③ 선전홍보 및 교육팀

- 역할 : 조합 및 지부의 투쟁방침과 요구안과 교섭경과에 대한 선전홍보(교섭속보 발행) 및 교육
- 담당 :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교육부, 선전부

8) 타결방침

- ① 조합의 타결 방침을 준수하며,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다.
- ② 지부 집단교섭 타결 없이 사업장 보충교섭 타결 없다.
(단, 대각선교섭 사업장의 타결 시기는 지부 쟁대위(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③ 지부 집단교섭 내에 임금(기본급, 시급, 타결금, 일시금, 성과금)관련 사항들을 포함하여 타결한다.
- ④ 보충교섭 의견접근 시 총회 개최 전 운영위에 심의·승인을 요청한다.

7. 13기 1년차 주요사업 및 투쟁 일정 (안)

시기	대정부, 대국회, 사회적 투쟁	산별 교섭·투쟁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2월	노동부의 '타임오프 시정지시, 조직현황보고, 회계공시' 등 노조무력화 공세에 대응한 전 조직적 투쟁 전선 형성	2024년 투쟁 및 교섭 방침 현장 토론 전개 2월 28일(수) 정기대의원대회 - 교섭 및 투쟁방침 확정 후 2024년 투쟁방침 조합원 교육	01/09 교섭요구 공문발송(창구단일화)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 검토 및 토론 지부 교섭위원 취합 02/26(월)~02/27(화) 운영위수련회 / 사업장 단위 수련회
3~4월	3월 20일(수) 금속노조 2024년 투쟁선포식 "노조무력화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확대간부 1차 상경 투쟁 - 금속노조 대정부 . 업종별 요구안 발표 4월 10일 22대 국회 총선거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법 2·3조 개정" 총선 시기 22대 국회 초기입법과제 사회쟁점화 투쟁	4월 초 상건례 등 산별교섭 돌입	3월 11일 (월) 경주지부 정기대대 / 지회 총회 및 대대 진행 3월 15일경 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요구안 발송 4월 집단교섭 돌입 (매주 목요일) 보충교섭 돌입 (매주 화/금) ※ 중앙/지부 투쟁방침 교육 ※ 여성의날 정신계승 조합원 소풍
5~6월	5월 1일(수) "노조무력화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세계 노동절 대회 5~6월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를 위한 임원 현장순회 및 현장선전전 - 최저임금 투쟁, 6/22(토)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노동자대회	산별교섭 진행 (6월 말 쟁대위 구성)	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진행 조정신청 및 투쟁계획 준비 ※ 경북본부 노동절 대회(05/01) ※ 경북본부 도보순회 투쟁
7~8월	6말7초 조정신청 및 쟁의권 확보 "노조무력화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지역별 캠페인과 7월 중순 시기 집중 공동파업 (※ 교섭/세부투쟁 시기는 해당 시기 쟁대위에서 결정) 8월 산별교섭 의제 쟁취를 위한 2차 파업		집단교섭 및 보충교섭 집중 진행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신청 자료 중앙으로 제출) 금속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파업
9 ~ 10월	9월 초 "타임오프, 창구단일화 폐기!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정기국회 대응 확대간부 2차 상경 투쟁 및 대정부 투쟁	추석 전 타결 목표로 9월 초 미타결 사업장 집중 투쟁 전개	미타결 사업장 지부별 집중투쟁 전개 중앙/지부 투쟁지침에 의한 투쟁전개 중앙교섭 타결 후 집단교섭, 보충교섭 타결 (지부 운영위 심의 후 조합 승인 후 보충교섭 찬반투표 진행) 집단교섭 찬반투표, 집단교섭 조인식 ※ 경주지부 확대간부교육 (1일)
11~12월	11월 9일(토) "노동탄압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대회	13기 2년차 임단협 요구안 준비	13기 1년 사업보고서 작성 및 평가

8. 경주지부 2024년 집단교섭 요구 안

1) 2024년 임금인상 요구 안 (금속 정기대대 확정)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59,8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2) 경주지부 집단교섭 요구 안

① 제 6조 【조합활동 시간】

현행안	개정요구안 (항 추가)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재해 발생 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회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가 출입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 내 출입과 조합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 요구 취지 >

- 이미 지급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공제, 협의 전 지급한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반환청구 등이 부당이득반환의 형식을 취함.
- 포괄적으로 일체의 민사소송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돌파하기 어려움을 고려함.

② 제 8조 【조합활동】

현행안	개정요구안 (항 추가)
① 회사는 경주지부 차원의 총회시간 연 3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2년에 1시간 추가 인정한다. (2019년부터 실 총회시간 적용) ② 회사는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2년에 총 3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선출직인 경주지부 감사위원, 경주지부 선관위들의 조합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경주지부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역량강화훈련, 지부 정기회의, 교육준비 및 진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경주지부 확대간부에 대해 연간 3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인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할 교육가능하며 인원, 시기, 방식에 대하여 조합은 교육 시작 15일 전에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한다.	⑥ 조합활동은 지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비전임 간부에 대해 단체교섭 참석, 사전 사후 회의 참석, 교섭 및 회의 준비, 교섭보고 업무 등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요구 취지 >

- 교섭위원, 각종 노사공동위 위원 등 비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열거적으로 지정함.

③ 제 21조 【휴직자의 처우】

현행안	신설 요구안
없음	회사는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과금 및 노사합의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하 조 순연

< 요구 취지 >

- 고용노동부가 ‘금품을 수령한 자’를 모두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해석하여 이들의 조합활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전임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제69조 【건강진단】

현행안	개정요구안 (항 추가)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29조, 제13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회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생식독성)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종합검진이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관련 암 검사, 골밀도 조사 등을 추가 항목으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 회사는 조합원이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40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종합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배우자 포함)	⑦ 회사는 종합검진 시 조합원과 배우자에 대하여 종양표지자 검사를 추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이하 항 순연)

< 요구 취지 >

- 각종 암 발병 예방을 위해 추가함.

⑤ 제74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현행안	개정요구안(항 추가)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이 외 보상기준은 사업장 단체 협약에 준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2항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와 실제 지급된 간병비 차액을 부담한다.

< 요구 취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조에는 10개항의 경우 일정한 간병비를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음. 공단지급 간병비와 실제 지출되는 간병비 차액을 지급하라는 요구임.
- 산업재해로 인해 중상을 입은 조합원에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간병비의 부족과 간병으로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자는 것임.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 11조 2항]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개정 2019. 10. 15.>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⑥ 제106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 수정)

현행안	개정요구안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0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0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 요구 취지 > 협약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임.

[총괄] 2024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1. 제 6조 【조합활동의 보장】 항 추가

㉮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재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2. 제 8조 【조합활동】 항 추가

㉯ 조합활동은 지부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비전임 간부에 대해 단체교섭 참석, 사전 사후 회의 참석, 교섭 및 회의 준비, 교섭보고 업무 등 교섭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3. 제 21조 【휴직자의 처우】 신설

회사는 휴직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성과금 및 노사합의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하 조 순연)

4. 제 69조 【건강진단】 항 추가

㉿ 회사는 종합검진 시 조합원과 배우자에 대하여 종양표지자 검사를 추가하여 진행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이하 항 순연)

5. 제 74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항 추가

㊱ 회사는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2항에 부합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와 실제 지급된 간병비 차액을 부담한다.

6. 제 106조 【협약의 유효기간】 문구 수정

㊲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4월 0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안건 5. 13기 1년차 예산(일반·특별회계)(안)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1. 일반회계 수입

과목			목 번	내 역	예산(단위, 원)
관	항	목			
교부 금	교부금	교부금	1	교부금 1인 4,413원 × 4,448명 × 7월 = 137,403,168 교부금 1인 4,547원 × 4,448명 × 5월 = 101,125,280 (조합원 수는 2024년 1월 10일 기준) 8월부터 물가상승 3.1%적용	238,528,448
기타 수입	기타 수입	기타 수입	2	예금이자	20,000
합계					238,548,448

※교부금 산출 근거

- 2024년 1월부터 2024년 0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6,3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3,700명입니다.
- 1개월 전체 지부 몫은 93,700명 X 26,300원 X 0.17 = 418,932,700원입니다.
(지부교부금은 18%이나, 지역공동사업비 1%를 제외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 전체 지부 몫에서 최저교부금이 지원됩니다. 3개지부에 월 5,500,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체 지부 몫에서 5,500,000원이 지급되면 413,432,700원이 남게 됩니다.
- 남은 금액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을 구하면 4,413원이 나옵니다.
(원단위 미만 올림)
- 같은 방식으로 2024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부교부금은 4,547원입니다.
- 최저교부금을 받는 지부의 월 수입은 최저교부금 +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 최저교부금을 받지않는 지부의 월(한달)수입은 1인당 평균지부교부금 X 지부(납부)조합원수입니다.
- 지부(납부)조합원수 산정시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은 제외됩니다.
- 최저교부금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인원	금액	대상지부
2,000명 이하	2,500,000원	구미
2,500명 이하	1,500,000원	전북, 부산양산
3,000명 이하	1,000,000원	

[지부교부금 계산 방법정리]

구분	2024년 1월~2024년 07월 (월 수입)	2024년 08월~2024년 12월 (월 수입)
최저교부금 0	최저교부금+(4,413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4,547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교부금 x	4,413원 × 지부(납부) 조합비	4,547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2. 일반회계 지출

과 목			목 번	내역	24년 예산안	목별 지출율 %	23년 예산	23년 집행 율
관	항	목						
운 영 비	유 지 비	사무실관리 비	1	정수기 렌탈료 30,000 × 12월 = 360,000	360,000	0.1%	360,000	91%
		신문도서비	2	주간지 1년 225,000 × 2(경향, 한겨레) = 450,000 기타 도서구입비 = 150,000	600,000	0.2%	600,000	75%
		소모품비	3	프린터 토너 등 100,000 × 6회 = 600,000 A4복사용지 22,000 × 10박스 × 12월 = 2,640,000 기타 소모품비 = 500,000	3,740,000	1.6%	3,740,000	47%
		통신비	4	뿌리오(SMS) 100,000 × 12월 = 1,200,000 (748-3223, 773-9481, 773-9270(FAX) 전화 인터넷 요금 100,000 × 12월 = 1,200,000 우편 발송료 10,000 × 12월 = 120,000	2,520,000	1.0%	2,640,000	39%
		인쇄비	5	복사기 임대료 180,000 × 12월 = 2,160,000	2,160,000	0.9%	2,400,000	90%
		기타유지비	6	커피 및 음료 200,000 × 12월 = 2,400,000 문구류 및 각종 비품구입 등 100,000 × 12월 = 1,200,000	3,600,000	1.5%	3,000,000	91%
		방송차 유지비	7	유류비 70,000 × 10회 × 12월 = 8,400,000 엔진오일 200,000 × 6회 = 1,200,000 세금(자동차세, 환경분담금)135,000 × 2대 = 270,000 신차 자동차 세금 = 700,000 보험료 = 700,000 기타유지비 = 3,500,000	14,770,000	6.2%	8,570,000	51%
		복리후생비	8	식대 10,000 × 22일 × 14명 × 12월 = 36,960,000 타지역 유류 지원비 300,000(5명) × 12월 = 3,600,000	40,560,000	17.0%	37,920,000	95%
	업무 추진비	직무활동비	9	지부장 30만 + 수석부지부장 25만 + 부지부장(2명), 사무국장 각20만(115만) × 12월 = 13,800,000 상집부장(150,000 × 11명 = 1,650,000원) × 12월 = 19,800,000	33,600,000	14.0%	29,400,000	100 %
운영비 합계					101,910,000	42.6%	88,630,000	

과 목			목 번	내역	24년 예산안	목별 지출율	23년 예산	23년 집행율					
관	항	목											
사 업 비	여비	출장비	10	신분보장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징계위원회회의 120,000 × 6회 = 720,000 단협위원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조직부회의 120,000 × 12회 = 1,440,000 문화담당자회의 120,000 × 5회= 600,000 교육위원회의 120,000 × 10회 = 1,200,000 선전부회의 120,000 × 6회 = 720,000 노안부회의 120,000 × 12회 = 1,440,000 미조직위원회 120,000 × 12회 = 1,440,000 여성위원회의 120,000 × 6회 = 720,000 감사위원회회의 120,000 × 4회= 480,000 기타 회의 120,000 × 30회 = 3,600,000	14,760,000	6.2%	15,360,000	88%					
				대의원대회	11	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기타 = 7,000,000	7,000,000	2.9%	7,000,000	82%			
				운영위원회	12	운영위 900,000 × 4회 = 3,600,000	3,600,000	1.5%	3,600,000	93%			
				집행위원회	13	집행위 320,000 × 6회 = 1,920,000	1,920,000	0.8%	1,800,000	100%			
				회의비	감사위원회	14	운영비 10,000 × 5명 × 20일 × 4분기 = 4,000,000 지부 감사위원회의의 20,000 × 30명 × 4회 = 2,400,000 감사위원 수련회 60,000 × 30명 = 1,800,000	8,200,000	3.4%	8,200,000	82%		
							선관위원회	15	운영비 10,000 × 5명 × 20일 = 1,000,000 회의 및 투표용지 제작 600,000 × 2회= 1,200,000	2,200,000	0.9%	2,200,000	76%
							수련회 비	간부수련회	16	집행위 수련회 60,000 × 16명 × 2회 = 1,920,000 운영위 수련회 60,000 × 45명 × 1회 = 2,700,000 자료집, 장소 대여, 기타 200,000 × 3회 = 600,000	5,220,000	2.2%	5,100,000
				부서 사업비	조직사업비	24	조직부 회의(조직 진단 포함) 20,000 × 50명 × 6회 = 6,000,000 조직담당자 수련회 60,000 × 50명 × 2회 = 6,000,000 조직 사업비(간담회, 집회행사, 자료, 장소 대여 등) = 11,000,000 조직담당자 교육(외부강사 초빙) 500,000			23,500,000	9.9%	20,500,000	82%
							조강위 사업비	25	조강위 회의비 20,000원 × 14명 × 6회=1,680,000 조강위 확대임원 수련회 60,000 × 40명 × 1회 =2,400,000	4,080,000	1.7%	2,520,000	36%
							미조직 사업비	19	미조직 회의 20,000 × 20명 × 6회 = 2,400,000 미조직 수련회 60,000 × 20명 × 2회 = 2,400,000 선전물, 현수막, 선전물품 = 1,000,000 조직화 상담 및 간담회 = 500,000 이주노동자사업 (통역사업비) = 1,000,000 이주조합원날 행사 지원 = 2,000,000 신규조직진단 (신규조합원 간담회 및 지회 지원) = 2,000,000	11,300,000	4.7%	11,610,000	64%
교육사업비	23	교육 위원회 회의 20,000 × 18명 × 6회 =	8,320,000				3.6%	10,540,000	80%				

사업비				2,160,000 교육위 수련회 60,000 × 18명 × 2회 = 2,160,000 강사비 300,000 × 2회 = 600,000 강의실, 비품 300,000 × 2회 = 600,000 조합원 교육, 간부교육 20,000 × 20명 × 4회 = 1,600,000 노조간부 기본과정 교육 20,000 × 10명 × 6회 = 1,200,000				
	선전사업비	20	선전부 회의 20,000 × 15명 × 6회 = 1,800,000 선전부 수련회 60,000 × 15명 × 2회 = 1,800,000 강사료 및 장소대여 = 1,200,000 선전물 제작용 프로그램 (대자보 및 선전홍보물, 선전물 프로그램 구입비) = 1,000,000 장비 유지 보수비 = 1,000,000	6,800,000	2.8%	5,280,000	90%	
	총무사업비	18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회의 20,000 × 34명 × 6회 = 4,080,000 사무장 및 총무회계 담당자 수련회 60,000 × 34명 × 2회 = 4,080,000 지회지원, 간담회, 장소대여, 교육 = 1,000,000	9,160,000	3.8%	8,660,000	68%	
	노안사업비	21	노안부 회의 20,000 × 30명 × 6회 = 3,600,000 노안부 수련회 60,000 × 30명 × 2회 = 3,600,000 발암물질 조사사업 회의비 20,000 × 20명 × 2회 = 800,000 노안위 사업비(장소대여, 강사비, 선전홍보비) = 2,500,000	10,500,000	4.4%	9,320,000	94%	
	정책/조통 사업비	22	정책/조통/법규 회의비 20,000 × 25명 × 6회 = 3,000,000 정책/조통/법규 수련회 60,000 × 25명 × 2회 = 3,000,000 강사비, 회의실 = 1,000,000 경영분석 (대각선 복수노조사업장 경영분석비용 지원, 각종 사업비) = 2,500,000 미래산업 노사공동위 20,000 × 7명 × 4회 = 560,000	10,060,000	4.3%	7,100,000	100%	
	여성사업비	17	여성위원회 회의 20,000 × 13명 × 7회 = 1,820,000 여성위원회 수련회 60,000 × 13명 × 1회 = 780,000 여성간부 수련회 60,000 × 30명 × 1회 = 1,800,000 장소대여, 강사비 = 600,000 사건상담 및 조사, 간담회, 홍보 = 300,000	5,300,000	2.2%	7,100,000	47%	
	연대 사업비	대외협력비	26	민주노총 및 노동단체, 금속지부 및 지회 = 4,000,000	4,000,000	1.8%	3,000,000	88%
사업비 합계					126,620,024	53.1%	118,790,023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	예비비	718,448	0.3%	1,014,345	
합 계					238,548,448	100%	218,534,345	

3. 투쟁기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4년 예산	비고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2기 2년 이월금 130,778,912 12기 2년 일반회계 이월금 45,742,500 12기 2년 사업지원금 이월금 1,196	176,522,608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2	예금이자 등 수입	40,000	
합계					176,562,608	

4. 투쟁기금 지출

과목			목번	내역	24년 예산
관	항	목			
집회비	집회비	집회비	1	집회 및 행사의 부대/물품 비용 및 등에 사용	
쟁의비	쟁의비	쟁의비	2	선전홍보, 각종 자료집 등 제작, 조합원 및 간부역량 강화 비용 등 부상자 치료 및 법률구조비 등 필요한 사항에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조직배가 사업장 조직강화 지원 조합원 참여 행사 지원 조합원 단결력 강화 사업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합계					

5. 지역공동사업비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4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2기 2년 이월금 52,984,027	52,984,027
교부금	교부금	최저교부금	2	최저공동사업비 500,000원 × 12월 = 6,000,000	6,000,000
교부금	교부금	교부금	3	교부금 1인 248원 × 4,448명 × 7월 = 7,721,728 교부금 1인 255원 × 4,448명 × 5월 = 5,671,200	13,392,928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4	예금이자 등 수입	20,000
합계					72,396,955

※ 지역공동사업비 산출 근거

- 2024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지부 1인당 조합비 평균액은 26,300원으로 산정합니다. 지역지부의 전체 조합원은 93,700명입니다.
- 1개월 전체 지역공동사업비는 93,700명 X 26,300원 X 0.01 = 24,643,100원입니다. 전체 지부 뭉에서 최저공동 교부금이 지원됩니다. 최저공동교부금은 전체 지역공동사업비의 6.0%정도 입니다. 6.0%를 제외한 금액인 23,164,514원을 전체 납부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를 구하면 248원이 나옵니다.
(원단위 미만 올림)
- 지역지부의 지역공동사업비 월 수입은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 X 지부(조합비 납부)조합원수)이 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2024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임금인상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1인당 평균 지역공동사업비는 255원입니다.
-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와 지급금액입니다.

금액	최저공동사업비	대상 지부
50만원 미만	100만원 지급	구미
150만원 미만	50만원 지급	경주, 대구, 부산양산, 포항

[지역지부 지역공동사업비 산정방식]

구분	2024년 1월~2024년 07월 (월 수입)	2024년 08월~2024년 12월 (월 수입)
최저공동사업비 0	최저공동사업비+(248원×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255×지부(납부)조합원수)
최저공동사업비 x	248원 × 지부(납부) 조합비	255원 × 지부(납부) 조합비
※ 지부(납부) 조합원수는 최저조합비 납부인원을 제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6. 지역공동사업비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공동사업비지출	1	지역 공동사업, 어울림한마당, 3.8여성의날, 민주노총 경주지부 송년회 등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7. 특수목적기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4년 예산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	12기 2년차 이월금 590,636,615	590,636,615
결의금	결의금	결의금	2	경주시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의 조합원 결의금 1인 7,500원 × 4,257명 × 12월 = 383,130,000	383,130,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3	예금이자	40,000
합계					973,806,615

8. 특수목적기금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임금	임금	임금	1	지부 특별결의금 세칙에 의거한 임금지급
교육비	교육비	교육비	2	경주시부 간부교육 및 수련회를 위한 비용 결의 후 지출 타지부 소속 경주시부 집단교섭 사업장 교육 등 지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사항 발생 시 결의 후 지출

9. 미조직지원금 수입

과목			목번	내역	24년 예산
관	항	목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조합 지원금	1	조합에서 13기 1년 지원금액 확정 후 지급됨 - 미조직 조직화 사업지원금 -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 사업지원	-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산별기금 교부금	2	지부 미조직기금 배분 - 산별기금 (3만원 중 1만원)	-
기타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3	예금이자 등 수입	-
합계					-

10. 미조직지원금 지출 관항목

과목			목번	내역
관	항	목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	미조직 사업	1	미조직 노동자의 전략적인 조직사업을 하는데 사용 신규사업장의 투쟁 물품 지원 복수노조 사업장 조직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 사용

안건 6. 경주지부 특별회계-투쟁기금 사용 승인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경주시부 특별회계 - 투쟁기금 사용 현황

	사용목적	금액	집행일	승인 운영위 차수 및 날짜
1	각지회 배가사업비 지원 (5개지회)	5,000,000	2023.03.15	12기 47차 운영위 회의 (23/02/20)
2	퇴직 조합원 지원 사업 (홍보비))	190,000	2023.03.22	12기 49차 운영위 회의 (23/03/20)
3	경북본부전략조직사업 (라디오광고)	10,000,000	2023.04.11	12기 50차 운영위 회의 (23/03/27)
4	지부 집단교섭 교육 (강사비)	300,000	2023.05.15	12기 51차 운영위 회의 (23/04/03)
5	퇴직 조합원 지원 사업 (교육 지원금)	8,100,000	2023.05.15	12기 54차 운영위 회의 (23/05/08)
6	5.18민주항쟁정신계승 전노대 및 순례경비	5,804,000	2023.05.26	12기 56차 운영위 회의 (23/05/22)
7	5/31 총파업 결의대회 경비	2,107,500	2023.06.20	12기 58차 운영위 회의 (23/06/19)
8	경북본부 2023년 여름캠프 후원금 (지역공동사업비 지출)	5,000,000	2023.06.20	12기 58차 운영위 회의 (23/06/19)
9	2023년 실천단 선전물 (현수막30EA, 피켓 15EA) 및 차량 유지비/래핑 시공비	2,490,000	2023.06.30	12기 60차 운영위 회의 (23/07/03)
10	7.11 경북본부-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결 의대회 버스대여비	850,000	2023.07.20	12기 61차 운영위 회의 (23/07/10)
11	지부사무실 통합 관련 수리비	1,700,000	2023.08.25	12기 62차 운영위 회의 (23/07/19)
12	에코플라스틱자본 규탄 경주시부 결의대회	525,000	2023.09.12	12기 68차 운영위 회의 (23/09/11)
13	민주노총 경주시부 송년의밤 경비지원 (지역공동사업비 지출)	7,000,000	2023.11.11	12기 72차 운영위 회의 (23/10/23)
14	신규통장 인증서 발급비용	4,400	2024.01.03	
15	2024년 경주시부 시무식 경비	1,078,5000	2024.01.04	12기 73차 운영위 회의 (23/12/11)
16	지부 집행위 PC 구입 및 업그레이드 (데스크탑2대, 모니터2대)	1,650,000	2024.01.09	13기 1차 운영위 회의 (24/01/08)
17	지부 차량 구매 계약금	100,000	2024.01.30	13기 4차 운영위 회의 (24/01/29)
18	조합대의원 선거 투표용지 제작 비용	760,000	2024.02.02	13기 2차 운영위 회의 (24/01/15)
19	13기 1년차 신임간부 교육	5,184,720	2024.02.19	13기 2차 운영위 회의 (24/01/15)
20	지부 선전부 영상 촬영 및 편집 위한 장비 구입	1,830,000	2024.02.21	13기 6차 운영위 회의 (24/02/19)

안건 7. 지부 자산 폐기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경주지부 자산 및 비품(노트북, 파쇄기) 폐기 건

번호	품목	폐기대상	내역	수량	구입시기	구입단가	구분
1	데스크탑/모니터	17-09-09	사무실업무용 PC	1	2017.12.09	1,239,000	자산

※ 13기 1차 운영위 (2024년 1월 9일)에서 자산 및 비품 폐기를 선 승인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 최종 승인을 요청 함.

안건 8. 경주지부 운영 규정 및 특별세칙 개정 건

의결주문

제출된 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1. 경주지부 운영규정 개정

1) 대의원 배정 기준

현행 (안)	개정 (안)															
제 16 조 (대의원 배정기준)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아래와 같다. 단수 적용은 아래 배정 기준 1/2 + 1로 한다.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아래 기준을 토대로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1~499 : 20명 500~ : 30명 (2023년 3월6일 개정)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 16 조 (대의원 배정기준)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아래와 같다. 단수 적용은 아래 배정 기준 1/2 + 1로 한다.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아래 기준을 토대로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table><tr><th>조합원수</th><th>기준 (최소~최대)</th><th>대의원수(선거구)</th></tr><tr><td>100명 미만</td><td>20명</td><td>1명</td></tr><tr><td>100~400명</td><td>20명~30명</td><td>1명</td></tr><tr><td>401~1000명</td><td>30명~40명</td><td>1명</td></tr><tr><td>1001명 ~</td><td>50명</td><td>1명</td></tr></table> 2. 현행	조합원수	기준 (최소~최대)	대의원수(선거구)	100명 미만	20명	1명	100~400명	20명~30명	1명	401~1000명	30명~40명	1명	1001명 ~	50명	1명
조합원수	기준 (최소~최대)	대의원수(선거구)														
100명 미만	20명	1명														
100~400명	20명~30명	1명														
401~1000명	30명~40명	1명														
1001명 ~	50명	1명														

< 개정 취지 >

- 경주지부는 조합원은 1,500명에서 현재 3배수인 4,500명으로 확대되었음.
- 각 사업장별로 선거구 인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 현 기준은 대의원 구역 선정 시 하한 기준이 명확치 않음.
- 위 의견을 종합하여 선거구를 최대와 최소로 구분하여 지회별 구역 특성에 맞추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 조합원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 최대/최소 선거구 수]

	지회명	조합원수 (23.12.11 기준)	현재 선거구	100명 미만 20명당 1명 (단수적용) 100~400명 20~30명당 1명 401~1000명 30~40명당 1명	
				(최대)	(최소)
1	광명산업	23			
2	금강지회	159	7	8	5
3	다스지회	743	25	25	19
4	KBI동국실업지회	34	2	2	2

5	동진이공지회	3			
6	두양정공지회	27	1	1	
7	디에스시지회	205	10	10	7
8	리어코리아사내하청지회	9			
9	명성공업지회	77	4	4	4
10	발레오만도지회	387	9	19	13
11	비투지지회	55	3	3	3
12	세진지회	314	15	16	10
13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72	4	4	4
14	아진카인텍지회	4			
15	에코플러스텍지회	337	18	17	11
16	엠에스지회	294	15	15	10
17	엠에스정밀지회	77	4	4	4
18	우영산업지회	282	15	14	9
19	인지컨트롤스지회	49	3	2	3
20	일진베어링지회	167	8	8	6
21	청우지회	21		1	1
22	코레스지회	10			
23	플라스텍옵니엄지회	71	3	4	4
24	현담산업지회	131	7	7	4
25	현대모비스경주물류지회	51	3	3	3
26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347	16	17	12
27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318	14	16	11
28	현대엠시트지회	114	4	6	4
29	현우지회	59	3	3	3
	당연직(지회장)		28	29	29
	지부	5			
	합계	4,445	221	238	181

2) 감사위원 여성할당제 적용

현행 (안)	개정 (안)
제 26 조 (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1인은 여성할당으로 배정한다. (단, 여성할당 미등록시 일반 배정한다. 14기 2026년부터 적용) 2. 현행 3. 현행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u>타지회 선임감사</u>,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6. 지부 감사는 분기별 평일 기준 21일 이내로 하며, 4/4분기 감사는 1일을 추가한다. 단, 신규 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4. 현행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6. 현행

< 개정 취지 >

1. 경주지부는 약12%의 여성조합원이 있음. 여성간부 양성과 여성조합원들의 조합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감사위원부터 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함. 여성할당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공석으로 둬으로써 여성 할당의미를 지속화시키고자 함. 단서 조항 중 적용시점은 시행 이후 삭제
2. 5항 ‘타지회 선임감사’ 문구 삭제

[참고. 금속노조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 시행 규정]

제5조(할당기준) 할당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여성할당 ① 임원 : 상근 임원 중 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에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한다.

3) 시행 시기

신설 (안)
부칙 제 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 개정취지 > 시행시기 명시

2.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세칙 개정

1) 임금 기준표 변경

현행 (안)	개정 (안)																																					
제07조 (임금기준표) 1. 임금기준표 ① 연령에 따른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연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table><tr><th colspan="2">2024년 1월 1일기준</th></tr><tr><th>연령(만)</th><th>연간 임금</th></tr><tr><td>~ 29</td><td>38,518,788</td></tr><tr><td>30 ~ 34</td><td>40,468,788</td></tr><tr><td>35 ~ 39</td><td>42,808,788</td></tr><tr><td>40 ~ 44</td><td>45,246,288</td></tr><tr><td>45 ~ 49</td><td>48,073,788</td></tr><tr><td>50 ~ 54</td><td>50,998,788</td></tr><tr><td>55 ~ 60</td><td>54,996,288</td></tr></table> ② 임금기준표는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의 평균 기본급인상분(호봉승급분 제외)을 매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며, 경주지부 운영위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2. 퇴직금 ① 개별조합원 및 소속사업장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산정금액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피선 및 피임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일할(1년, 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피선 및 피임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기준		연령(만)	연간 임금	~ 29	38,518,788	30 ~ 34	40,468,788	35 ~ 39	42,808,788	40 ~ 44	45,246,288	45 ~ 49	48,073,788	50 ~ 54	50,998,788	55 ~ 60	54,996,288	제07조 (임금기준표) 1. 임금기준표 ① 연령에 따른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연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table><tr><th>연령</th><th>금속최저시급 9,970원(243H)</th><th>월 통상급여</th></tr><tr><td>~ 29</td><td>2,422,710</td><td>2,422,710</td></tr><tr><td>30~34</td><td rowspan="6">(1년)호봉 30,000원 적용</td><td>2,572,710</td></tr><tr><td>35~39</td><td>2,722,710</td></tr><tr><td>40~44</td><td>2,872,710</td></tr><tr><td>45~49</td><td>3,022,710</td></tr><tr><td>50~54</td><td>3,172,710</td></tr><tr><td>55~60</td><td>3,322,710</td></tr></table> ② 임금기준표는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의 평균 기본급인상분(호봉승급분 포함)을 매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며, 경주지부 운영위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③ 상여금은 통상급 기준 65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퇴직금 현행	연령	금속최저시급 9,970원(243H)	월 통상급여	~ 29	2,422,710	2,422,710	30~34	(1년)호봉 30,000원 적용	2,572,710	35~39	2,722,710	40~44	2,872,710	45~49	3,022,710	50~54	3,172,710	55~60	3,322,710
2024년 1월 1일기준																																						
연령(만)	연간 임금																																					
~ 29	38,518,788																																					
30 ~ 34	40,468,788																																					
35 ~ 39	42,808,788																																					
40 ~ 44	45,246,288																																					
45 ~ 49	48,073,788																																					
50 ~ 54	50,998,788																																					
55 ~ 60	54,996,288																																					
연령	금속최저시급 9,970원(243H)	월 통상급여																																				
~ 29	2,422,710	2,422,710																																				
30~34	(1년)호봉 30,000원 적용	2,572,710																																				
35~39		2,722,710																																				
40~44		2,872,710																																				
45~49		3,022,710																																				
50~54		3,172,710																																				
55~60		3,322,710																																				

3. 경조비 피선, 피임,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소속사업장이 있는 경우 경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결혼-본인 : 50만원, 자녀 : 50만원 ② 칠순-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50만원 ③ 팔순-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50만원 ④ 출산-자녀 출산 : 50만원 ⑤ 사망-본인 : 300만원 + 근조환, 부모(배우자부모포함):50만원+근조환 배우자 및 자녀 : 50만원+근조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 50만원	3. 경조비 현행 ⑥ 지부 개별조합원에 대하여 종합검진을 2년 1회 실시한다. 비용은 40만원 이내로 한다.

< 개정 취지 >

①항 개정 [임금 기준표]

- 지부 특별결의금은 2018년 10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변경하였음(참고1).
- 2023년 도보투쟁 중 발생한 사고를 기점으로 4대 보험 가입으로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이 필요해졌으며 투명한 세금처리를 통해 조직 내 부담을 덜어야 할 상황이 됨.
-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납부 등은 통상임금 기준임으로 지금까지 총액개념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구분하고자 함.
- 조합 사무처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금속최저임금 기본급(243시간)과 나이에 따른 호봉표를 근거로 5년 기준 평균 150,000원, 지부 집단교섭사업장의 상여금(참고2) 평균 650%를 적용함.

[참고 1] 경주지부 최초 기준 임금표 (2018년 10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

※금속노조 사무처 기본급+경주지부 집단교섭 평균 상여금(750%) 적용

연령	출생년도	금속노조 사무처 18년 기본급	월 임금 (상여 750% 반영)	연간 임금 (상여 750%)
~ 29	1989	1,853,000	3,011,125	36,133,500
~ 34	1984	1,953,000	3,173,625	38,083,500
~ 39	1979	2,073,000	3,368,625	40,423,500
~ 44	1974	2,198,000	3,571,750	42,861,000
~ 49	1969	2,343,000	3,807,375	45,688,500

~ 54	1964	2,493,000	4,051,125	48,613,500
~ 60	1958	2,698,000	4,384,250	52,611,000

[참고 2] 집단교섭 사업장 상여금 평균

순	집단교섭 참가사업장	상여금
1	금강	600%
2	다스	800%
3	디에스시	800%
4	발레오	750%
5	세진	700%
6	아이티더블유	750%
7	에코플라스틱	750%
8	엠에스	750%
9	우영산업	750%
10	일진베어링	750%
11	현대아이에이치엘	750%
12	현대성우솔라이트	700%
13	명성공업	300%
14	엠에스정밀	300%
사업장 평균		675%

②항 개정 - 호봉승급분을 포함하여 기본급 인상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 하고자 함.

③항 신설 - 상여금은 통상급 기준 65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⑥항 신설 -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제 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임.

[참고 3] 임금 비교표 (현재 임금과 변경 후 임금)

<현재 지급되는 임금>

연령(만)	연간 임금	월 임금
~ 29	38,518,788	3,209,899
30 ~ 34	40,468,788	3,372,399
35 ~ 39	42,808,788	3,567,399
40 ~ 44	45,246,288	3,770,524
45 ~ 49	48,073,788	4,006,149
50 ~ 54	50,998,788	4,249,899
55 ~ 60	54,996,288	4,583,024

<변경 후 임금> 금속산업최저시급 9970원 243H 적용

연령	월 통상급	상여금 650%/월할	월 임금
~ 29	2,422,710	1,312,301	3,735,011
30~34	2,572,710	1,393,551	3,966,261
35~39	2,722,710	1,474,801	4,197,511
40~44	2,872,710	1,556,051	4,428,761
45~49	3,022,710	1,637,301	4,660,011
50~54	3,172,710	1,718,551	4,891,261
55~60	3,322,710	1,799,801	5,122,511

[참고 4]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7,500원) 수입·지출 예산

구분	내역	금액 (단위, 원)	1년 총액 (단위, 원)
수입	① 7,500원×3,871명 (집단교섭참가조합원)	29,032,500	348,390,000
지출	② 지부 개별조합원 4명/지회 파견1명 = 21,958,544	25,273,340	303,280,080
	③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50,000원×4명 = 1,800,000		
	④ 퇴직금 378,699×4명 = 1,514,796		
예산 잔액			45,109,920

- ①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몫은 납부하지 않아 수입에서 제외함.
- ② 지부장 몫은 조합에서 활동비 250만원 지급됨으로 부족분 2,160,011원을 적용함.
- ③ 지부 선전부장 1명 채용(2025년 12월까지 1년 11개월) 예정으로 총 4인으로 기준함.
- ※연차는 1년 10일 발생, 월차는 1년 12개 발생, 휴가 사용 후 남은 일수는 월통상시급으로 지급. (월 통상시급×8시간×사용 후 남은 개수)

2) 공제 범위

현행 (안)	개정 (안)
제08조 (공제 등) 금속노조 조합비(임금 1%) 및 조합·지부의 각종 결의금은 공제한 후 지급하며, 국민연금·의료보험·연월차 휴가 등은 임금에서 개인이 부담한다.	제08조 (공제 등) 다음 각 항을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며, 4대 보험 사용자분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1. 조합비(통상임금 1%) 및 조합·지부 각종 결의금 2. 근로소득세·주민세 3.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료 4. 기타 본인이 승인한 금액

- < 개정 취지 >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상 재해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45~49세 구간 공제 내역 예상치 - 조합 총무실 제공]

월급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사업자	산재보험	본인공제	사업주공제	실수령급여
4,660,011	287,780	28,770	165,190	21,390	209,700	41,940	53,590	33,170	754,770	483,040	3,905,241

*산재보험의 경우 금속노조의 적용율(7.12/1000) 반영 / **예상치로 차이 있을 수 있음.

3) 연·월차 휴가

신설 (안)
제 09조 (연·월차 휴가) 1.개별조합원의 연·월차 지급은 금속노조 사무처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개정 취지 >

- 개별조합원 상근자에 대한 휴가 사용권 보장의 필요함.
- 조합 사무처 기준으로 휴가권을 보장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함.

[참고. 금속노조 처무 규정 제 44조 (연월차 유급휴가)]

1. 사무처 채용 전임 간부가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에 대해서는 10일,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육아휴직자 최초 1년은 인정) <개정 2023.02.16.>
3. 2년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2일의 유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 100%를 익년 2월 중에 지급한다.

4) 시행 시기

현행 (안)	개정 (안)
제10조 (시행) 본 세칙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본 세칙은 2024년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취지 > 시행시기 명시

안건 9. 경주지부 2024년 교섭위원 확정 건

의결주문

교섭위원을
확정해 주십시오.

경주시부 2024년 교섭위원 명단

경주시부 2024년 교섭위원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교섭위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부
쟁대위(운영위)로 위임한다.

순서	소속	직책	이름
1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장 창 열
2	전국금속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 상 섭
3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 병 조
4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박 상 만
5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서 쌍 용
6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손 덕 현
7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최 순 영
8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허 원
9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고 은 하
10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엄 상 진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지부장	정 진 홍
1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수석부지부장	차 상 호
1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부지부장	이 중 희
1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부지부장	우 정 식
1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사무국장	박 진 만
1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조직부장	황 준 하
1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조직부장	손 현 석
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교육국장	조 청 호

1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선전부장	이 형 석
2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정책국장	최 윤 정
2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정책부장	손 해 용
2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노동안전부장	권 형 구
2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노동안전부장	이 영 하
2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미조직국장	최 익 선
2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미조직부장	이 광 우
2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총무부장	안 의 선
2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금강지회	지회장	엄 기 훈
2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금강지회	부지회장	백 창 익
2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금강지회	조직부장	박 세 현
3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금강지회	조사통계부장	박 성 환
3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금강지회	대의원	최 재 규
3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지회장	김 재 홍
3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수석부지회장	김 창 우
3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조직부장	손 경 익
3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정책부장	신 동 우
3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조사통계부장	김 철 현
3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대의원	배 용 득
3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대의원	이 성 은
3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스지회	대의원	이 준 호
40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다스지회	지회장	김 학 성

41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다스지회	정책부장	곽 우 석
42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다스지회	대의원	최 지 영
4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지회장	최 강 민
4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조직부장	최 병 근
4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정책 2부장	허 남 전
4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부장	김 도 후
4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후생복지부장	신 진 용
4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선전부장	박 보 현
4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대의원	김 동 하
50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디에스시지회	지회장	임 도 형
51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디에스시지회	사무장	유 영 남
5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	지회장	우 정 완
5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	부지회장	김 광 현
5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	사무장	신 민 철
5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	노안 2부장	손 성 철
5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	신 시 연
5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부지회장	박 문 환
5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사무장	김 환 진
5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정책부장	이 상 수
6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복지부장	김 하 동
6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	장 상 환
6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	장 재 만

6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의원	최 석 동
6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지회장	안 현 철
6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수석부지회장	강 건 우
6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부지회장	강 민 창
6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사무장	강 원 모
6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조직부장	박 대 형
6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쟁의부장	황 제 운
7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선전부장	김 재 범
7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정책부장	최 승 민
7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대의원	이 창 욱
7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세진지회	대의원	김 정 우
7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지회장	김 영 선
7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부지회장	이 찬 균
7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사무장	최 석 신
7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아이티더블유경주지회	선전부장	박 현 속
78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아이티더블유 아산지회	지회장	김 성 민
79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아이티더블유아산지회	사무장	박 영 진
8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지회장	김 만 조
8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부지회장	손 수 환
8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복지부장	허 영 현
8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선전부장	조 성 연
8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정책부장	김 현 우

8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조직1부장	정 기 호
8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교육부장	강 현 정
8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대의원	이 재 학
8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대의원	김 기 태
8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대의원	서 완 수
9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에코플라스틱지회	대의원	민 인 섭
9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지회장	박 지 웅
9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조직부장	우 진 하
9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정책부장	양 광 호
9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부장	조 현 우
9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후생복지부장	금 현 섭
9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대의원	김 지 수
9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대의원	이 상 하
9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지회	대의원	최 진 욱
9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지회장	황 수 훈
10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부지회장	손 창 익
10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엠에스정밀지회	정책부장	한 동 환
10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우영산업지회	지회장	박 진 호
10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우영산업지회	사무장	황 신 봉
10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우영산업지회	조직 1부장	김 진 희
10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우영산업지회	대의원	박 규 대
106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우영산업지회	부지회장	황 하 경

107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우영산업지회	지회장	정 광 호
108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우영산업지회	조직부장	윤 지 훈
10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지회장	김 희 진
11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사무장	박 광 일
11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조직부장	오 수 민
11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정책부장	서 보 정
113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선전부장	윤 수 호
114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일진베어링지회	대의원	권 영 규
11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16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1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1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20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12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추후 승인

안건 10. 금속노조 중앙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금속노조 13기 1년차
중앙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1. 조합 규정

[관련규정] 금속노조 규약 제27조 (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 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4.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13기 1년차 조합 중앙위원 배정

지부	조합원수	선출직 중앙위원 수	여성 할당	비정규 할당	일반
경기	10,176	5	1	0	4
경남	17,412	8	1	0	7
경주	4,513	2	0	0	2
광주전남	10,811	5	1	0	4
구미	1,434	1	0	0	1
대구	3,181	1	0	0	1
대전충북	6,037	3	0	0	3
부산양산	1,988	1	0	0	1
서울	6,000	3	0	0	3
울산	7,916	3	0	0	3
인천	5,052	2	0	0	2
전북	2,305	1	0	0	1
충남	13,833	6	1	0	5
포항	3,475	1	0	0	1
기아자동차	27,418	13	1	1	11
한국지엠	7,367	3	0	0	3
현대자동차	44,963	22	2	1	19
현대중공업	7,469	3	0	0	3
만도	45	1	0	0	1
쌍용자동차	16	1	0	0	1
지부 미편 제	현대차비정규직	540	0	0	0
	기아차비정규직	632	0	0	0
	신일정밀	76	0	0	0
	삼표	19	0	0	0
합계	182,678	85	7	2	76

- ※ 배정 기준 조합원 수는 2023년 9~11월 조합비 납부 인원 최대값으로 함
- ※ 규정상 할당 비율(여성 10%, 비정규 5%)을 반영한 수치 소수점을 반올림해 배정(기준 관례).
- ※ 당연직 조합 대의원(지부장)은 위 표의 배정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금속노조 중앙위원 경주시부 배정 2명 추천

1) 금속노조 13기 1년차 경주시부 중앙위원으로 명성공업지회 우정완 지회장, 인지컨트롤스지회 최용복 지회장 두 명을 추천함.

※ 지부 13기 1년차 중앙위원 추천

소속	직책	이름
명성공업	지회장	우정완
인지컨트롤스	지회장	최용복

안건 11.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건

의결주문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1.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기준

단위	인원	비고
중집	39명	
지부 배정(일반)	252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55명	미전환사업장 여성할당 3명 포함
비정규할당	18명	해당위원회 위임
미전환사업장	0명	
합계	364명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지부별 배정 수 대의원 배정기준 조합원 수(2023.11월)

지부명		조합원수	전체 배정	대의원 구분		
				일반	여성 조합원수	여성 할당
경기		10,176	21	14	1,526	7
경남		17,412	27	24	609	3
경주		4,513	8	6	522	2
광주전남		10,811	18	15	708	3
구미		1,434	3	2	302	1
대구		3,181	7	5	378	2
대전충북		6,037	10	8	477	2
부산양산		1,988	4	3	168	1
서울		6,000	16	8	1,744	8
울산		7,916	16	11	1,142	5
인천		5,052	8	7	332	1
전북		2,305	4	3	208	1
충남		13,833	21	19	502	2
포항		3,475	5	5	13	0
기아차		27,418	42	38	853	4
한국지엠		7,367	11	10	180	1
현대자동차		44,963	71	62	2,270	9
현대중공업		7,469	12	10	359	2
만도		45				
쌍용자동차		16				
미편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540	1	1	35	
	기아차 화성비정규직	632	2	1	277	1
	신일정밀	76				
	삼표	19				
합계		182,678	307	252	12,605	55

2.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금속노조 선출 기준

※ 2024년 민주노총 중앙위원 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에 따른 조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함)

단위	인원	비고
노조 임원	10명	일반 9명, 여성 1명 배정
지부 배정(일반)	38명	조합원수 비례 배정
여성할당	9명	지부배정 할당
비정규할당	3명	해당위원회 위임
합계	60명	

■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지부별 배정

13기 1년차 금속노조 대의원 배정 기준 조합원 수(2023.11월)에 따라 중앙위원 배정

지부	일반	여성할당	총수
경기지부	2	1	3
경남지부	3	1	4
경주지부	1	1	2
구미지부	0	0	0
기아차지부	6	1	7
광주전남지부	2	1	3
대구지부	1	0	1
대전충북지부	1	0	1
부산양산지부	0	0	0
서울지부	1	1	2
울산지부	2	1	3
인천지부	1	0	1
전북지부	0	0	0
충남지부	3	0	3
포항지부	1	0	1
한국지엠지부	2	0	2
현대자동차지부	10	2	12
현대중공업지부	2	0	2
합	38	9	47

3. 경주지부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건

☞ 회의 결과 :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추천함.
(2024년 1월 15일, 2차 운영위)

13기 1년 차	일반배정(6명)		비고
	금강지회	엄기훈 지회장	후보 대의원 이중희 부지부장 우정식 부지부장
	다스지회	김창우 수석부지회장	
	발레오만도지회	신시연 지회장	
	엠에스지회	박지웅 지회장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 지회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명호 지회장	
	여성 할당(2명)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이영주 여성부장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조혜정 선전부장	

4. 경주지부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선출 건

☞ 회의 결과 :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을 추천함.
(2024년 2월 26일, 7차 운영위)

할당 구분	소속	직책	이름
일반 할당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여성 할당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후생복지부장	이주은

안건 12. 결의문 채택 건

의결주문

제출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결 의 문

지난 1년동안 전쟁은 더 확대되었고 전쟁의 위기는 우리 가까이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 민중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 목숨과 터전을 잃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가난한 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고 기후 재난으로 삶 터는 사라지고 있다. 발달한 인류의 과학은 구성원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지 않고 오직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몸종 노릇을 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모든 정권은 자본이 마음껏 이익을 편취하도록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낮추고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제도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채 2년도 안되었지만 저열한 통치로 성별, 나이, 인종 등 사회 계층 내에서 혐오와 갈등이 조장되고 폭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가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민중들의 삶을 값아 먹으며 폭주할 때 이에 저항할 세력은 우리 노동자 뿐이라는 것을. 과잉생산 과잉축적으로 자본주의 성장은 더딜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수단의 과녁은 늘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24년 13기 1년차 사업을 결의했다. 어느 때 보다 우리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단결력을 고취하고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자주적이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투쟁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조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 경주지부는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조직강화, 간부역량 강화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조합원에게 가까이 있는 조직, 조합원이 의지할 수 있는 조직, 조합원이 신뢰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성찰하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 45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법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지부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 저하 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전 조합원의 권리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일상활동을 통해 조직력 강화와 지역 내 역할을 확대하여 민주노총의 위상을 높일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정부가 시행하는 회계공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3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13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안건 13. 기타 건

금속노조 회의규정

회의 규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02월 15일	6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9년 10월 07일	1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23년 02월 16일	145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각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의 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06.12.21.]

제 2 장 회의 소집, 절차, 성립

제3조(소집)

- 회의 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 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회 <개정 2008.11.24.>
 -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회
 -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회

제4조(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각 회의에 대한 공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공지 수령인	공지 기간	기타
조합대의원대회	지부	30일	조합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일 전에 통보한다.
중앙위원회	해당 회의 구성원	2주일	임시회의 공지는 최소 48시간 전 /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 공지 가능 : 1) 긴급 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일	

제5조(정족수) <개정 2001.12.26.>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 시
조합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4주 내 재소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2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위원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10일 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분 경과 후 정족수 미달 시, 위원장이 재소집.

제6조(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 참석해야 할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6.>
 - ①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 ②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할 경우 회의일 1일 전까지 불참 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① 해외 출장 시
 - ② 신체 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 ③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 ④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 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회의에서 판단한다. <신설 2010.04.06.>

제 3 장 의장

제7조(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9.10.07.>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 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 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회의 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제1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4조(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수정 2008.02.15.>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일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일 전에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12.26.>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 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6조(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
[본조신설 2008.02.15.]

제17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8조(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02.15.]

1. 신상에 대한 발언
2. 규칙 발언

3. 의사진행 발언

제19조(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08.02.15.]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 동의
3. 번안 동의
4. 우선 동의

제20조(수정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번안 동의, 의사진행 동의, 우선 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21조(의사진행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번안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의결이 끝난 뒤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회의 폐회 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 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우선 동의) [본조신설 2008.02.15.]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우선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회
 - ② 회순변경 동의 : 회순채택 후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을 바로 상정하고자 할 때
3. 우선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우선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조 순연 2008.02.15.>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2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

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조 순연 2008.02.15.>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2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7조(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조수정 2008.02.15.>

제2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2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는 후에는 누구든지 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조 순연 2008.02.15.>

제30조(표결의 순서) <조 순연 2008.02.15.>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조 순연 2008.02.15.>

제3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단,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 2023.02.16> <조 순연 2008.02.15.>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 투표
6. 전자투표(ARS투표, 모바일투표 포함)

제33조(산회 후의 절차) [본조신설 2019.10.07.]

1. 산회에 따른 재소집의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한 공지를 제외한 소집, 공지 등의 절차를 다시 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산회에 따라 재소집하는 회의가 소집, 공지 등 본래의 회의가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서 새로운 회의로서의 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34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단, 번안 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35조(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제36조(참관인의 규율)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6.>

제37조(질서유지) <조 순연 2008.02.15.> <조 순연 2019.10.07.>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26.>

제 7 장 온라인 회의 <신설 2023.02.16.>

제38조(온라인회의의 개최)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프라인 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39조(온라인회의의 참가 서명) 온라인회의의 서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참가자가 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화면저장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참가자의 얼굴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2. 거점별 분산회의의 경우, 각 거점별로 일반 서명부를 사용한다.
3. 온라인 · 오프라인 혼합회의의 경우, 일반 서명부와 화면저장파일을 함께 사용한다.
4. 전자(문자)투표로만 이뤄지는 회의의 경우,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의 투표자 기록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5. 의장의 판단에 따라 참가확인(서명)을 위해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참가자확인(서명)파일로 서명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온라인회의의 재석 확인) 필요시 재석인원의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재석확인 전자(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온라인회의의 표결) 온라인회의의 표결은 전자(문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자를 재

석 인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절차) 규약과 본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및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주지부 운영 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운영규정

2001년 03월 23일 제정
2002년 03월 11일 개정
2003년 08월 21일 개정
2007년 01월 17일 개정
2007년 05월 11일 개정
2007년 12월 05일 개정
2011년 12월 19일 개정
2014년 03월 10일 개정
2016년 03월 07일 개정
2020년 11월 30일 개정
2023년 03월 06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0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31조와 47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02 조 (명칭)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라 한다.

제 03 조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경주 지역단위 사무소와 사업장단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04 조 (설치)

경주지부는 지역지부로 한다.

제 05 조 (활동)

지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 총회,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 집행
(2023년 3월 06일 개정)

3. 조합, 산하 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 단위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2 장 조직

제 06 조 (구성)

1.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 구역에 속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2. 사업장단위 지회는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지부 소속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위 이하의 단위(영업소, 사업소 등) 혹은 독자지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회 이하의 단위는 조직형태변경결의 이전의 본조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07 조 (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08 조 (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부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09 조 (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1절 총회

제 10 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007년 12월 5일 개정)
2.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잠정합의안 가결

제2절 대의원 대회

제 13 조 (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소집공고)

지부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 16 조 (대의원 배정기준)

지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아래와 같다. 단수 적용은 아래 배정 기준 1/2 + 1로 한다.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아래 기준을 토대로 전체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회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 499 : 20명

500 ~ : 30명 (2023년 3월 06일 개정)

2.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제 17 조 (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2007년 12월 5일 신설)

제 18 조 (대의원대회 기능)

지부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부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 19 조 (구성)

지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을 위한 최소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임원
2. 지회장
3. 1항, 2항을 최소범위로 하고 지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인원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제 20 조 (소집)

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1 조 (기능)

지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11일 개정)

1.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2.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규칙해석에 관한 사항의 1차 기관이 된다.
4. 지부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신분보장 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쟁의기금 요청에 관한 사항
7. 지부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교섭과 쟁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2007년 12월 5일 개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 22 조 (인선 및 구성)

집행위원은 아래 상근자 파견원칙에 따라 지부장이 임면 제청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별도로 정하는 처무 규정에 의한다. 단, 아래 지부파견 상근 인원은 지부임원을 포함한다. (2003년 8월 21일 개정)

[지부파견 상근 인원]

전임자 3명~5명 : 1명(2003년 8월 21일 개정)

전임자 6명 이상 : 2명

제 23 조 (소집)

정기회의는 월 2회로하며, 임시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4 조 (기능)

지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각종회의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별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부 및 지회의 쟁의에 관한 사항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 25 조 (부서의 설치)

상집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치 할 수 있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1. 조직부 2. 미조직부 3. 교육부 4. 선전부 5. 총무부 6. 정책부 7. 노동안전보건부 8. 조사통계부, 9. 여성부 10. 문화체육부 11. 복지후생부 12. 법규부
13. 기타 신설부서

제5절 감사위원회

제 26 조 (감사위원회)

1. 지부 감사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5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지부 및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3.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분기별 감사결과를 지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승인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5.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와 타지회 선임감사,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6. 지부 감사는 분기별 평일 기준 21일 이내로 하며, 4/4분기 감사는 1일을 추가한다. 단, 신규사업장이 늘어날 경우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7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7절 지부 위원회 규정

제 28 조 (교육위원회)

1. 지부 교육위원회는 지부교육위원장, 지부교육담당자 및 각 지회 교육부장과 지부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부 교육위원은 지회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0기부터 적용 한다.)
3. 지회에서 지부교육위원의 추천기준은 사업장 규모, 교육, 예산, 조합 활동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추천하며 지회는 제반 활동비에 한해 지원 한다.(단, 10기부터 적용 한다.)
4. 지부 교육위원회는 지부의 모든 교육을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은 직접 관장한다.
 - 1) 조합 의무교육 상, 하반기 각 각 1회
 - 2) 지부 의무교육 상, 하반기 각 각 1회
 - 3) 지부 신입간부 교육
 - 4) 교섭위원 의무교육
 - 5) 지부간부 의무교육
5. 지부 교육위원은 지부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교육에 강사가 되며 최소 년 1회 이상 해당지회 조합원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9 조 (여성위원회)

1. 지부여성위원회는 지부장의 임면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면한다.
 - 1) 지부여성위원장은 지부장이 제청하고 지부운영위 동의를 거친다.
 - 2) 지부, 지회 여성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3) 현장 여성위원은 지부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단, 당연직 포함 지회별 3인 이내)
3. 지부 여성위원회의 재정은 지부, 지회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 5 장 임원

제 30 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2명
4. 사무국장

제 31 조 (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부 조정신청 발생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사무국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32 조 (선출)

1. 지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부지부장은 개별 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지부 임원은 지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33 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지부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4. 수석부지부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직선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단 지부장 지명도 불가능할 시에는 지부운영위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5.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지부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023년 3월 06일 개정)

제 34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5 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각 선출기간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된다. (2007년 12월 5일 개정)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6 조 (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 37 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2007년 12월 5일 개정)

제 38 조 (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기타

제 39 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특별결의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특별결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 40 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41 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지부운영규칙)

지부는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주지부 특별결의금 세칙

2011년 12월 19일(7기 1차 정기대대) 제정

2013년 12월 09일(8기 1차 정기대대) 개정

2018년 12월 03일(10기 3차 임시대대) 개정

제01조 (목적)

경주지부 운영규정 제39조 재정에 의거한 특별결의 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02조 (정의)

경주지부 운영규정 제39조 재정에 의거한 특별결의금이라 함은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 조합원 1인이 매월 납부하는 7,500원을 말한다.

제03조 (의무)

경주지부 집단교섭 참가 사업장의 조합원은 제2조에 의거한 특별결의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04조 (회계)

경주지부 특별회계의 특수목적기금으로 회계를 운영하며, 회계연도 및 회계처리.감사는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05조 (기금의 사용)

1. 금속노조 조합원이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피선 및 피임, 민주노총 경주지부 지부장에 피선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 사용하며, 기금의 운영 상황에 맞추어 피선 및 피임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부교육 및 간부수련회
3. 금속노조 경주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득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제06조 (피선·피임시의 처우)

1.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에서 피선·피임이 될 경우 에는 사업장의 전임자 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외에는 제7조의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에서 임금 또는 임금 보조적인 활동비를 지급 받을 시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해고 및 투쟁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판정, 노사합의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시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환입하여야 한다.

제07조 (임금기준표)

1. 임금기준표 (2024년 01월 01일 기준)

① 연령에 따른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연령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기준	
연령(만)	연간 임금
~ 29	38,518,788
30 ~ 34	40,468,788
35 ~ 39	42,808,788
40 ~ 44	45,246,288
45 ~ 49	48,073,788
50 ~ 54	50,998,788
55 ~ 60	54,996,288

② 임금기준표는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의 평균 기본급 인상분(호봉승급분 제외)을 매년 1월부터 소급적하며, 경주지부 운영위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2. 퇴직금

① 개별조합원 및 소속사업장이 없는 자에게만 지급한다.

② 퇴직금 산정금액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피선 및 피임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일할(1년, 365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피선 및 피임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다.

3. 경조비

피선, 피임,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소속사업장이 있는 경우 경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결혼 : 본인 50만원, 자녀 50만원
- ② 칠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0만원
- ③ 팔순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0만원
- ④ 출산 : 자녀 출산 50만원
- ⑤ 사망 : 본인 300만원 + 근조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50만원 + 근조환
배우자 및 자녀 50만원 + 근조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50만원

제08조 (공제 등)

금속노조 조합비(임금 1%) 및 조합.지부의 각종 결의금은 공제한 후 지급하며, 국민연금.의료보험. 연월차 휴가등은 임금에서 개인이 부담한다.

제09조 (기타) 본 세칙의 개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을 득해야 하며, 문구해석과 임금기준표 개정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본 세칙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금속산별협약

금속산별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원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금속산업과 회사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우선 적용】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산별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2 조 【사용자단체 가입】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

제 3 조 【유일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노동조건·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 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산별협약준수조치】

사용자협의회는 미 합의한 회사 및 향후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제 5 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제 6 조 【산별교섭 법제화 추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 안착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요구 등을 포함한 노사공동선언을 한다. 노사 공동선언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2017년 9월말까지 최종합의 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보장

제 7 조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

- ①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은 년 8시간을 보장한다.
- ② 조합간부의 유급 교육시간은 제1항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분기별 6시간(연간 24시간)을 보장하되, 조합간부는 지회 임원 및 상집간부로 한다.

제 8 조 【대의원 활동시간】

조합 대의원(중앙·지부)의 활동시간은 월 5시간(연간 60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 9 조 【중앙위원 활동시간】

조합의 선출직 중앙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한다.

1. 조합 위원장 명의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문에 따른 회의시간
2. 조합 지부장 명의의 소집공문에 따른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대의원회의 참석시간

제 10 조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 활동시간】

회사는 선출직인 중앙 감사위원, 중앙 선거관리위원들의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위원장의 명의로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열람·복사 편의와 자료제공】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 중앙 임원 또는 지부 임원의 전임을 사업장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정한다.

제 13 조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 14 조 【전임자의 처우】

-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사직으로 발령한다.

제 15 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6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7 조 【조합원 사내활동 보장】

회사는 기존 노사합의 또는 관례적으로 보장해온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 3 장 노동조건, 임금, 퇴직금

제 18 조 【노동시간】

-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근무시간 및 이와 연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 등 대기업 시행방안을 참조하며, 노사간 합의 없이는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 시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및 관계사 노동자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21 조 【임금 ■ 노동시간체계 개선】

-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

로 정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⑤ 연간 실노동시간은 1,800시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단축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 ⑥ 월급제 시행계획은 2017년 말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22 조 【통상임금】

-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 23 조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단시간제, 기간제, 파견제)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인상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5 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회사와 조합은 경영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제 4 장 건강권, 노동안전보건

제 26 조 【일터괴롭힘 금지】

-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장을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 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7 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 28 조 【산재은폐 방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제 29 조 【산업재해 예방】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작업방식과 작업환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노동안전부장)에 대하여 인정하는 월별 유급 재해예방활동은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미만 30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34시간으로 한다.
- 3.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산재신청을 하며, 재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0 조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31 조 【위험성 평가】

- ①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②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 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
-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

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33 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에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 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⑤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 34 조 【해외공장】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 35 조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공장이전(연구소 포함)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 36 조 【별도법인】

- ①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37 조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38 조 【적정인원, 배치전환】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제 39 조 【산업공동화 대책】

- 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제 40 조 【고용안정 등】

- ①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다만,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급계약에 명시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원변동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해 조합과 합의한다.

제 41 조 【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연간 신규채용 시 제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50%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단, 특수직종의 경우 노사협의로 한다.

제 42 조【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 ②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 발생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해 정규직 신규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단, 세부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 6 장 비정규직 관련

제 43 조【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 ①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본 조합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본 조합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 ④ 회사는 본 조합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 ①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한다. 다만,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회사는 생산에 직접종사하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지회와 ‘노사공동TF’를 2019년 안에 구성하여 협의하며, 그 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TF를 통해 추후 협의한다.

제 45 조【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 ① 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 46 조【임시직의 정규직화】

- ①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③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 47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이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④ 회사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간, 교대제,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토요일 유급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도급계약상에 명시한다.
- ⑤ 회사는 생산공정(직접 및 간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제 48 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제 49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 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 ③ 회사는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제 50 조 【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제 7 장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요구

제 51 조 【직장 내 성폭력 등의 정의】

‘성폭력’ 및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업무와 관련된 고객 등)에 의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굴욕감을 가져오거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제 52 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내용과 성폭력 등·폭언·폭행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전문 강사 선정 및 교육 시기 등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실행한다.

제 53 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성평등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각 3인 이내 노사동수,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2인 이상 포함)를 구성하며, 조사 방법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은 사업장별 노사협약에 의한다. 단,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⑥ 회사는 성폭력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노동자 및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제 8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 54 조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회사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제 55 조 【우리 쌀 사용】

회사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제 56 조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 ①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 ③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개선을 위하여 금속노사감시단을 운영하며, 금속노사감시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사는 하청·하도급회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며, 하청·하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제 57 조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회사는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70억원 이상의 납품계약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 9 장 산업전환

제 58 조 【산업전환대응】

①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의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2. 신기술 도입 관련 직무 교육·훈련
3.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4. 기후위기 대응
5. 공정거래

③ 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실행할 기구를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세부방안은 사업장별로 정한다.

④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⑤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

제 10 장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제 59 조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 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한다.

1.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임금체계 개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0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61 조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11 장 노동쟁의

제 62 조 【노동쟁의 원칙】

-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다른 일방은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 63 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 노동조합의 회사 내 일상적인 각종 시설 이용에 협조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4 조 【노동쟁의와 신분보장】

-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징계 및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65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① 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아닌 자를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 ② 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부 칙

제 1 조 【협약의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 【불이행 책임】

-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②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023년 10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장혁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박근형

2023년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

2023년 10월 24일 기준

지부명	사업장	수
경기	계양전기(주), 대원산업(주), (주)대한솔루션, 동양피스톤(주), 우창정기(주), 신한발브공업(주), (주)에스제이엠	7
경남	대원강업(주), STX엔진(주), 일진금속공업(주), (주)제트에프삭스코리아,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주), 화천기계(주)	6
경주	(주)디에스시, (주)다스, 명신산업(주), (주)엠에스오토텍, (주)세진, (유)ITW오토모티브코리아, 에코플라스틱(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주)금강, 우영산업(주), (주)일진베어링, 명성공업(주)	12
광주전남	(주)위니아	1
대구	KBI메탈(주), (주)대동, 델타캐스트(주), 동원금속(주), 삼성공업(주), (주)삼우정밀,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주), 대동금속(주), 한국OSG(주), 에이브이오카본코리아(주), 이래에이엠에스 주식회사	11
대전충북	한국제이씨씨(주), 한온시스템(주)	2
부산양산	(주)비엠금속, (주)이원정공, 태평양밸브공업(주)	3
서울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주), (주)KH필룩스	2
울산	덕양산업(주), (주)서연이화, 세종공업(주), 한국ITW, 한국무브넥스(주), (주)해솔테크	6
인천	(주)KM&I	1
전북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타타대우상용차(주), (주)서연인테크	3
포항	(주)삼원강재, 클라리언트코리아(주)	2
충남	KB오토텍(주), (주)나스테크, 대한칼소닉(주), (주)동희, (주)세영테크, (주)세정, 케이애플(주), 현담산업(주), 현대엠시트(주), 유성기업(주), (주)명신	11
합 계		67

경주지부 2023년 집단협약

경주시부 2023년 집단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이하“사용자협의회”)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지부집단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 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취업규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①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6 조 【조합 활동 보장】

-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②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재해발생 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④ 회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가 출입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 내 출입과 조합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7 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조합 활동 시간】

- ① 회사는 경주지부 차원의 총회시간 연 3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2년에 1시간 추가 인정한다. (2019년부터 실 총회시간 적용))
- ② 회사는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2년에 총 3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 ③ 회사는 선출직인 경주지부 감사위원, 경주지부 선관위들의 조합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경주지부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역량강화훈련, 지부 정기회의, 교육준비 및 진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경주지부 확대간부에 대해 연간 3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인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생산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할 교육가능하며 인원, 시기, 방식에 대하여 조합은 교육 시작 15일 전에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한다.

제 9 조 【조합 추가전임 인정】

- ①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지부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2명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 선정은 조합에 일임한다.
- ② 사용자협의회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단, 1명에 한함)

제 10 조 【교통편의 제공】

지부 총회 참석을 위한 조합원의 이동 교통편의를 회사가 제공한다.

제 11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12 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 및 각서 작성에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 ④ 회사는 개인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대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 파일 등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 사찰하지 않으며, 업무감사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13 조 【일터 괴롭힘 금지】

- ①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② 제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 책임을 진다.
-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 ① 조합과 회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⑥ 회사는 국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며, 해당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5 조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 ① 사용자협의회는 지역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한다.
- ② 사회공헌기금의 출연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기준표	기준 (종업원 수)	금액
	200명미만	200만원
	201명~300명	500만원
	301명~400명	600만원
	401명~500명	700만원
	501명 이상	1,100만원

- ③ 노사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의 세부안을 매년 12월 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장 인사

제 16 조 【인사원칙】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인사를 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17 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 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채용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등하며, 수습기간은 근무년 수에 포함한다.
- ③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 19 조 【승진 승급】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20 조 【정년】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제 21 조 【공가】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 적용한다.)
- ② 주야간 근무 또는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주간 또는 1조 정상출근 시 훈련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 22 조 【공직취임 인정】

회사는 선출직 공직(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당선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취임기간 동안은 계속 근로연수로인정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5 장 고용안정

제 23 조 【고용안정】

- ①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시, 반드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실시하며, 사업장 노사협의회 및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의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 24 조 【정년퇴직 관련 신규채용】

- ①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 발생 전 신규채용을 완료한다.
(단, 노사간 합의로 유예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주노동자】

- ① 회사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내국인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노사는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항이 발생할 시 상담할 수 있으며, 고충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26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회피 방안,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 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 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인건비 이외 비용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사외파견, 순환업무,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해고회피 노력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 되어서는 아니되며, 노사가 합의 한 해고 회피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하며,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⑥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3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수당(보상금)은 10년 미만자는 3개월분 이상, 10년 이상자는 5개월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 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 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 27 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는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 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퇴직자 연차 유급휴가 특례】

①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이 마지막 근무년도에 1년간 8할이상 출근할 경우 그해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입사일 기준 사업장 제외)

제 29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승계의 의무】

① 회사는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근속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한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지주회사),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0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2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전합의를 얻어야 하며, 감원이 발생할 시,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전직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하고, 직원의 생계보장과 직장 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 이상을 지급한다.

제 31 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회사는 사내하청을 확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각 사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필요시 동일직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③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가 근로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노동관계법에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 ⑥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한다.
- ⑦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지도 감독한다.
- ⑧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게 사내하청노동자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감독한다.
- ⑨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 6 장 임금 및 복지

제 32 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은 각사 보충교섭에 따른다.
- ②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기본급 적용은 기존 사업장 방식에 따른다.

제 33 조 【수당】

- ①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7,5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통상 수당이며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부로 한다)

제 34 조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금지】

- ① 회사는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 직종, 부서의 부분 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제 35 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 부족, 기계 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 ③ 기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④ 천재지변은 노사 쌍방 협의 후 결정한다.

제 36 조 【통근편의】

-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통근버스의 증차 및 감축 운영을 요할 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 제공한다.

제 37 조 【급식】

- ① 회사는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물가 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 38 조 【근무복 등】

-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을 무상 지급한다.
- ②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은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하여 제공한다.

제 39 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서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 40 조 【노동시간】

-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을 말한다.
-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 41 조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주 5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제 42 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 노동시간 단축】

- ①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 노동 강도 유지의 원칙 아래 실시한다.
- ③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과 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다.
- ④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월급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시기는 완성차(현대, 기아차 등)시행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 43 조 【유급휴일】

- 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창립일,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시 직전 또는 직후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② 조합 창립기념일 2월 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44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고용에 있어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 45 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 기회, 면접, 고용 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46 조 【임금】

- ①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지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 47 조 【교육훈련】

-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48 조 【배치】

-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 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승진, 승급】

-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0 조 【정년·퇴직】

-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 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 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 51 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 ①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강사 선정 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 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2 조 【야업 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 53 조 【단독업무 금지】

- ①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유해, 위험작업 수행 노동자의 단독업무를 금지하고 2인 1조로 근무 한다. (본 항의 적용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 ② 단독업무 금지를 위한 추가인력은 신규채용한다.

제 54 조 【연장노동】

-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 외, 야간, 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 55 조 【유사산 보호 휴가】

- ①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의 경우 10일의 유사산 보호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제 56 조 【배우자 유산휴가】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이면 5일, 16주 이상 28주 미만이면 7일, 28주 이상이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 57 조 【출산휴가】

-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58 조 【태아정밀조사】

① 해당 조합원이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아정밀조사(양수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시 정액(개인별 10만원)으로 지원하고, 검사를 하기 위한 시간 할애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검사(양수검사)는 임신 시 1회에 한한다.

제 9 장 노동안전보건

제 59 조 【노동안전보건】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의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 60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하며, 인원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61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62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한다.
- ②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⑤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 63 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 64 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 1. 회사 내 재해 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 3. 산업안전보건 포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65 조 【안전보건 교육】

-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관련법에 준하여 월 2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강사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한다.

- ② 교육 관련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강사소개서 및 교육 자료는 노사 공유한다.
- ③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 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교육이 관련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제 66 조 【안전보호 장구】

- ①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제 67 조 【작업환경 측정】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25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제 68 조 【환경측정기구 구입】

- ① 사용자협의회는 안전보건 점검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부장이 요청할 때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장비(소음계, 열선풍속계, 조도계, 스모그테스터, 온·습도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② 조합에서 환경측정기구 사용 시 경주지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대표회사에 요청하고, 대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9 조 【건강진단】

-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29조, 제13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④ 회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 생식독성)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종합 검진이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관련 암 검사, 골밀도 조사 등을 추가 항목으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⑨ 회사는 조합원이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40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종합검진 비용을 부담한다. (배우자 포함)

제 70 조 【임시건강 진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 4.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 6.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71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요주의자(C1)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 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 72 조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회사는 사업장 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①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짝수년에) 실시한다.
-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 1회(1시간) 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 ③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 (안전한)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 ④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 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 ⑥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73 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한다.

- ①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② 채용 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 ④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 ⑤ 출퇴근시간에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
- ⑥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 74 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이 외 보상기준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준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제 75 조 【업무상 재해 시 대체 채용】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4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제 76 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 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 77 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회사는 산재처리 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시 ‘사업주의견서’를 공정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⑤ 회사는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대표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⑥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⑦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 78 조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④ 회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 및 조합과 협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 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 79 조 【동일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 ① 회사는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재해발생 시 조합의 재해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설비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며,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관리자를 징계한다.
- ③ 회사는 재해발생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80 조 【작업 중지권】

- ①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 81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업데이트)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 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개요,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 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제 82 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 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 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의 결의로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83 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

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84 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85 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②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유소견자를 관리, 지도한다.

③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한다.

④ ①,②,③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86 조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㉔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㉕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후 그 결과와 조사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㉖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후 관리를 보장한다.
 - ㉗ 노사는 필요 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전문가(의사, 교수,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㉘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4. 올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 ㉙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 활동을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㉚ 사용자협의회는 2015년 이후 경주지역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담당업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선정한다.

제 87 조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각 사업장 상황에 따른 세부 지진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사업장별 세부 대응 체계, 대응 내용, 점검 및 보수 담당등을 선정하고 추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 마련을 요구한다.)

- ㉛ 회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에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년1회 2시간을 안전 교육시간에 진행한다.
- ㉜ 회사는 사내 전체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노사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지한다.

제 88 조 【노동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 ㉝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㉞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 ㉟ 회사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협의회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9 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 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 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단,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사업장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하며, 생활안정 방안의 경우 사내하청에 동일 적용되도록 지원·지도한다.

③ 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 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 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 임산부나 장애인,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 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④ 회사와 노동조합은 확진자, 격리조치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노사공동 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 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기관 통보
4. 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5. 업무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정부가 인정한 격리 필요 감염병 휴업·휴직 기간은 휴업수당 이상의 유급으로 한다.

⑤ 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공동 매뉴얼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2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90 조 【휴게소 설치】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편안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휴게실을 설치한다.

② 사내하청 및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동일 적용한다.

③ 노사는 공동으로 경주 공단 내 중소, 영세사업장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지역 지자체에 요구한다.

제 10 장 노사공동위

제 91 조 【비정규직 사용제한】

회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노사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2 조 【금속산업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회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금속노조와 함께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 93 조 【미래산업 대응 노사공동위원회】

①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다가 올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대응노사공동위원회를 지부 포함 노사 각 6인에 간사 1명으로 2020년내 구성한다. 단,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를 통해서 결정한다.

② 노사공동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고용안정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장 집단교섭

제 94 조 【집단교섭】

집단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 95 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6 조 【교섭의무】

① 사용자협의회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6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 97 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의 교섭대표위원은 지부집단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8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99 조 【자료 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0 조 【합의서 작성】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2 장 노동쟁의

제 101 조 【노동쟁의 원칙】

-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 102 조 【쟁의 중 신분보장】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 103 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①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제 104 조 【직장폐쇄 남용금지】

회사는 노·사간 자율교섭원칙을 준수하고 직장폐쇄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회사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 ②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사무실, 식당, 휴게실에 대하여는 노조 업무수행을 위한 출입을 허용한다.
- ③ 회사는 노조법 제46조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위중단과 노무제공

을 위한 현장복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④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 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 105 조 【쟁의 중 시설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위한 회사의 일상적인 각종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식사를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제 13 장 부칙

제 106 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0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107 조 【협약의 적용과 효력】

본 협약에서 체결되는 내용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금속노조 산별협약,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회하는 협약에 따른다.)

제 108 조 【협약갱신】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노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부집단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효력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제 109 조 【교섭의무, 불이행 책임】

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하며, 집단교섭에 참여한다.

③ 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기 체결된 지부 집단교섭합의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며, 향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경주지부 2023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경주시부 2023년 집단교섭 임금인상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와 경주시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 및 회사는 2023년 집단교섭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강지회와 (주)금강 합의사항

- 시급 : 110원
- 일시금 : 1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경주/아산)와 (주)다스 합의사항

- 시급 : 280원
- 일시금 : 335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디에스지지회(경주/광주)와 (주)디에스지 합의사항

- 시급 : 250원
- 성과금 : 380만원
- 상품권 : 2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명성공업지회와 (주)명성공업 합의사항

- 시급 : 100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세진지회와 (주)세진 합의사항

- 시급 : 150원
- 일시금 : 7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이티더블유경주.아산지회와 (유)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합의사항

- 시급 : 220원
- 일시금 : 6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코플라스틱지회와 에코플라스틱(주) 합의사항

- 시급 : 390원
- 일시금 : 500만원
- 유급휴일 5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엠에스지회와 (주)엠에스오토텍, 명신산업(주) 합의사항

- 시급 : 500원
- 성과금 : 85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우영산업지회(경주/광주/천안)와 우영산업(주) 합의사항

- 시급 : 100원
- 일시금 : 10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엠에스정밀지회와 (주)엠에스정밀 합의사항

- 시급 : 200원 (2024년 1월 ~ 170원)
- 일시금 : 10만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일진베어링지회와 (주)일진베어링 합의사항

- 시급 : 350원
- 타결금 : 700만원
- 유급휴일 4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와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합의사항

- 시급 : 350원
- 일시금 : 650만원

2023년 10월 26일

경주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 장 혁

사용자대표 우영산업(주) 대표이사 김 유 환

경주지부 지부장 정 진 홍

경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차 상 호

경주지부 사무국장 박 진 만

경주지부 부지부장 정 석 원

경주지부 부지부장 이 중 회

(주)금강 대표이사 김 광 우

금강 지회장 엄 기 훈

(주)다스 대표이사 조 진 현

다스 경주 지회장 김 재 홍

다스 아산 지회장 김 성 기

(주)디에스시 대표이사 조 희 선

디에스시 지회장 이 재 식

디에스시 광주 지회장 임 도 형

명성공업(주) 대표이사 윤 재 규

명성공업 지회장 우 정 완

(주)세진 대표이사 김 민 규

세진 지회장 박 정 일

(유)ITW오토모티브코리아 대표이사 김 재 국

아이티더블유 경주 지회장 김 영 선

아이티더블유 아산 지회장 안 병 호

에코플라스틱(주) 대표이사 한 상

에코플라스틱 지회장 김 만 조

(주)엠에스오토텍 대표이사 김 범 준

엠에스 지회장 박 지 웅

명신산업(주) 대표이사 최 우 철

(주)엠에스정밀 대표이사 이 병 준

엠에스정밀 지회장 황 수 훈

우영산업 경주 지회장 임 종 성

우영산업(주) 대표이사 김 유 환

우영산업 천안 지회장 김 정 국

우영산업 광주 지회장 김 명 섭

(주)일진베어링 대표이사 하 정 환

일진베어링 지회장 김 희 진

현대아이에이치엘(주) 대표이사 김 상 형

현대아이에이치엘 지회장 이 명 호

경주지부 12기 1년차 소식지 및 교섭속보 모음